

2022년

수도권 지역통계 연구·분석 보고서



경인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통계와 데이터가 정부, 민간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와 생산 요소로서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기반 정책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과학적 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경인지방통계청은 2015년 지역통계과를 설치하여 지역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및 통계 컨설팅, 기술지원, 통계데이터센터(SDC) 운영 등 수도권 통계데이터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경인지방통계청은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도권 지역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현안들에 대한 통계 연구 및 분석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수도권 지역통계 연구·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수도권 생활 SOC 현황, 해외지표 체계로 본 아동·청소년 웰빙 등의 연구과제와 수도권 1인가구 및 고령 인구 특성·변화 등을 분석 기획보도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지역통계 작성 기관들과 통계데이터 생산·활용 사례를 공유하게 하고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정책개발이나 정책이슈 발굴 등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 중 ‘내부자료 편’은 국가 공식통계로 발표할 수 없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공식통계인 연구자료들의 공유와 활용성을 신장시키고자 작성하였으니 대외적 공표 목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연구과제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통계청 또는 경인지방통계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2022. 11.
경인지방통계청장
최 정 수



I 연구보고서

격자통계 활용 수도권 지역 생활SOC분석	3
수도권 아동, 청소년 웰빙지표 작성 및 분석	33

II 분석보고서

수도권 1인 가구 구조변화 및 특성분석	77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127
수도권 광역지표	173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229



2022 수도권 지역통계 연구·분석보고서



제 1 장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2-01

격자통계 활용 수도권 지역 생활SOC 분석

양혜미 · 윤희주





목 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7
제2장 생활SOC 관련 선행 연구 자료 검토	10
제1절 선행연구 현황	10
제3장 수도권 지역 생활SOC 분석 결과	13
제1절 노인의 삶과 관련된 생활SOC 분석	13
제2절 기타 생활SOC 분석	21
제4장 결론 및 향후과제	25
참고문헌	28
부 록	2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¹⁾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넓게 해석 할 경우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과 기초인프라 시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개념이다. SOC 사업은 그동안 토목사업 중심으로 추진된 전통적인 SOC 범위를 넘어 국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생활SOC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포용적 성장 및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SOC 정책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단기간의 생활SOC 공급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지만, 공공도서관, 사회복지 시설 등 주요 생활인프라의 공급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생활SOC 시설의 지역 간 격차 즉,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크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공간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최근 도시와 농어촌 마을 간 생활권역 차이에 따른 SOC 이용 수요와 접근성 간의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생활SOC 공급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정주 환경이 낙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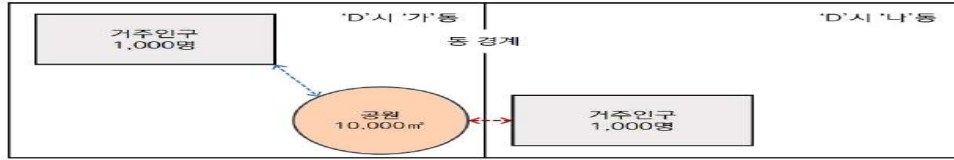
이에 국민 모두 생활SOC 국가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2019년)는 관련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향유인구 90% 범위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시간과 거리의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 배후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최적기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통적 기반 서비스 공급기준인 원^原단위 기준²⁾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으며, 면적이 넓은 행정구역의 경우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SOC 분석에는 접근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접근성이란 시설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 기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척도이므로 공간의 형평성 문제를 포괄하는 주제로 인식된다. 격자 단위의 분석을 통해 접근성과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여 생활SOC의 최적 입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1) 출처-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 lifesoc.go.kr/etc/whatIsSoc_1,(2022.10.)

2) 계획대상의 수요예측과 규모결정시에 이용되는 면적, 체적, 중량, 금액, 사람 등의 기본이 되는 단위



<그림 1-1> 기존 원단위에 기초한 서비스 기준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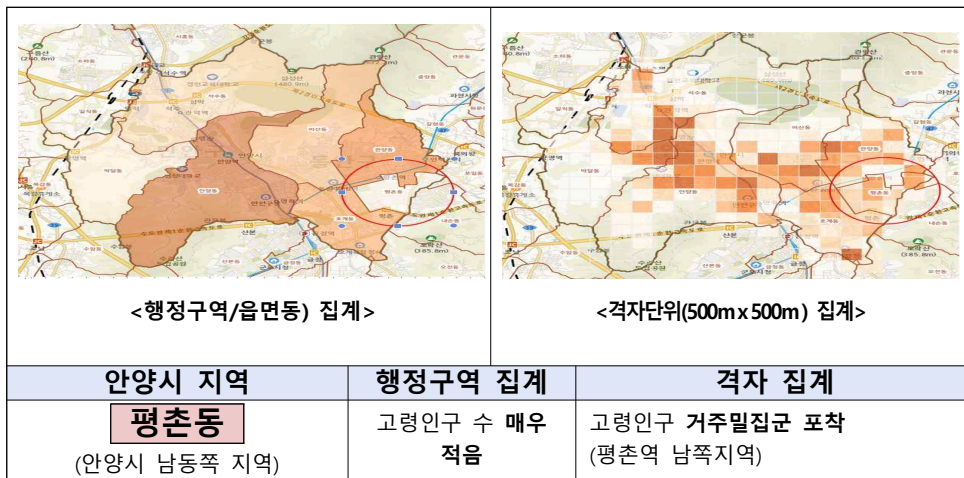
- 원단위 기준인 '1인당 공원면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면 '가'동의 여건이 '나'동보다 양호
- 접근성 기준으로 평가하면 '나'동 거주민들의 서비스 수준이 '가'동 거주민보다 양호하므로 보다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기준이 더 효과적**
- **격자통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접근성 파악 가능

* 출처 구형수 외(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p5

예를 들어 안양시 고령인구수를 행정구역과 격자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비교해 보면, 행정구역 단위는 평촌동(안양시 남동쪽 지역)의 고령인구수가 매우 적게 보이지만 격자 단위(500m)는 고령인구 거주 밀집군이 포착된다. 이와같이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는 소지역 정보를 격자 단위의 세부적인 위치정보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SOC 유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2> 안양시 고령인구의 행정구역, 격자 단위 분석 비교

※ 국토정보플랫폼 자료



생활SOC의 공급은 제한된 자원의 배분 문제를 다루므로 시설의 이용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단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격자 단위의 상세 정보를 통해 수도권 생활SOC의 접근성 등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접근성과 시설별 주 사용 연령층을 고려한 시설 위치별 배후 수요간의 생활SOC 접근성을 비교 분석하고 취약지역을 도출하여 유지·관리의 주체인 지자체의 지역 여건(이용수요, 유휴시설 등)을 고려한 생활SOC 공급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수도권 생활SOC 취약지역 분석 방법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500m×500m 격자 내 각 시설별 국토지표데이터(접근성 속성정보)와 인구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생활SOC 시설의 접근 용이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공간적 접근성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생활SOC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접근 용이성과 이용 기회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로 인식되며, 시설의 접근 용이성과 최적 입지의 토대로 사용된다. 접근성 지표는 격자 중심점부터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도로 이동 거리로 정의하며, 주 이용자 인구 파악을 위해 격자 내에 거주하는 인구수 기준으로 2022년 주민등록 인구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 제공 자료의 출처

구분	대분류	하위분류	자료출처(기준)	비고
인구 ^{주)}	총인구	전체, 남자, 여자	행정안전부 주민정보 (‘22.4.)	5인 이하 N/A 처리
	고령	전체, 남자, 여자		
	유아	전체, 남자, 여자		
국토지표	생활과 복지	생활SOC 시설	한국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2.3.)	시설까지의 도로 이동거리(접근성)

주) 격자별 인구가 5 이하인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N/A로 처리하여 제공

국가에서 실시한 국토 모니터링 연구와 동일하게 주 이용자 수를 내츨릴 브레이크³⁾ (7개 구간 설정)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체 연구한 ‘생활SOC 취약지역 설정을 위한 분류모형’을(<표1-2> 참고)을 이용하여 상대적 취약지역 및 수요충과 접근성을 고려한 공급 우선지역을 도출하였다. 격자통계 결합 및 결과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QGIS 오픈소스를 활용하였다.

<표 1-2> 생활SOC 취약지역 설정을 위한 분류모형

접근성 이용자수	좋은(가까움)	나쁨(멀)
많음	< ㉠ 적합성 충족지역 > · 많은 이용자가 / 접근성이 좋음 · 전체 이용자 이동거리 총합 감소	< ㉡ 공급취약지역(공급우선지역) > · 많은 이용자가 / 접근성이 나쁨 · 전체적 이용자 이동 거리 총합 증가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 필요
적음	< ㉢ 수요취약지역 > · 적은 이용자가 / 접근성이 좋음 · 배후수요 인구 부족으로 운영적자 가능성	< ㉣ 전달체계 개선필요지역 > · 적은 이용자가 / 접근성이 나쁨 · 이용자 수가 적어 시설이 설치되면 유지비용이 더 큰 지역 · 수요자 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3) 공간정보 시각화를 위해 등급을 구분하는 통계적 기법(각각의 그룹내 분산은 최소화, 그룹간 분산은 최대화)



분류모형은 ㉠(적합성 충족지역) 이용자수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공급취약지역 (공급우선지역)) 많은 이용자가 있으나 접근성이 나빠서 우선적 배치가 필요한 지역, ㉢(수요취약지역) 이용자가 적으나 접근성이 좋으므로 운영적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 ㉣(전달체계 개선필요지역) 이용자수가 적고 접근성도 나빠서 시설이 설치되면 유지비용이 더 크게 됨에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생활SOC 상대적 취약정도(공급취약지역) 도출을 위해 인구격자(A격자)와 시설 접근성 격자(B격자)를 결합하여 상대적 격차 간 등급차가 가장 큰 경우 우선공급 필요 지역으로 도출 하였다. 또한 인구수 등급이 낮으나(인구 적음) 접근성 등급이 높은 경우 (거리 가까움) 수요 확보·폐지 또는 위치 조정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격자 내 등급별 인구수는 분석 지역의 인구 밀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복지시설까지의 거리는 절대등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표 1-3> 생활 SOC 상대적 취약지역 도출 위한 격자 결합(예시)

순번	격자내 인구(명)	인구수 등급 ¹⁾ (A격자)	복지시설 까지의 거리 ²⁾	접근성 등급 (B격자)	인구수 등급- 접근성 등급 (등급차) (A)-(B)	상대적 취약정도순서 (공급우선지역)
격자1	1000	7 (많음)	90km	1(멀)	6	1(공급취약필요지역)
격자2	900	6	25km	2	4	2
격자3	800	5	10km	3	2	3
격자4	700	4	5km	4	0	4
격자5	600	3	2.5km	5	-2	5
격자6	500	2	1km	6	-4	6
격자7	400	1(적음)	0.5km	7(가까움)	-6	7(수요확보·폐지 위치조정 등 필요)

1) 인구밀도에 따라 변동, 2) 격자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해당시설까지의 거리

최종 수도권 생활SOC 공급 취약지역 도출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 3개 권역 및 생활 SOC시설별 분석을 하여 등급차(인구등급-접근성등급)가 최고값인 격자를 우선 추출하고 접근성 항목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거리값)에 미달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공급취약 지역은 아니지만 상대적 접근성이 취약하여 우선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공급필요지역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급취약·필요지역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수요취약지역을 도출해 봄으로써 생활SOC 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생활SOC 취약지역 도출 기준

- ① (공급취약지역) 권역별(서울, 인천, 경기), 생활SOC 시설별 등급차(인구등급-접근성등급)가 최고값인 격자를 추출하여, 접근성 항목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거리)에 미달한 지역
- ② (공급필요지역) 공급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상대적 접근성(등급차 최저값)이 취약하여 우선 공급이 필요한 지역
- ③ (수요취약지역) ①②번 지역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생활SOC 시설별 등급차(인구등급-접근성등급)가 최저값인 격자를 추출하여 접근성(거리)이 최저인 지역



2. 수도권 생활SOC 취약지역 분석 범위

분석 지역은 수도권을 서울, 인천, 경기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SOC 시설별 취약 지역을 분석하였다. 우선 취약지역은 이용자 수에 비해 생활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 공급취약지역(공급우선지역)을 도출하고 보조적으로 수요취약지역(공급초과지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항목은 생활SOC 분류체계 중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을 단위 시설 중 3개 시설, 거점지역 시설 중 3개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고령사회에 따른 정책지원에 위해 노인관련 생활SOC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토정보플랫폼에 국토통계지도 자료가 없거나 대상 시설 세부 항목 중 일부만 제공되어 대표성이 결여되는 항목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4> 수도권 지역 생활 SOC 분석항목 설정

단위	기능	시설	최저기준		국토정보플랫폼 제공항목	
			(분)	거리(km)	접근성 항목	주이용층 항목
노인 관련 생활 SOC	돌봄	사회복지시설*	20~30	16.3	노인복지관	고령 인구 수 (65세 이상)
	의료 (공공)	보건소*	20	8.5	보건기관	
	의료 (민간)	기초의료시설	지역수요 고려 (10)	1.4	의원	
	휴식	근린공원	10~15	0.76	생활권공원	
기타 생활 SOC	돌봄	어린이집	5	0.4	어린이집	유아 인구 수 (1세 이상~ 7세 이하)
	학습	공공도서관*	10	11.5	국공립도서관	총 인구수

* 지역거점시설로 차량의 시간은 최저기준 설정 관련 연구 자료에서 차량 평균속도 25km/h 기준으로 환산

* 출처 성은영, 강현미(2018),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 p8
<부표2 참고>

노인관련 생활SOC 시설로 노인복지관, 보건기관, 의원, 생활권공원을 선정하여 노인의 삶과 밀접한 돌봄, 의료, 휴식의 영역별 취약한 지역을 도출해 보았다. 의료와 관련된 시설은 공공과 민간의 대표 시설을 선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집중 분석하였다. 기타 생활SOC 시설은 어린이집과 국공립도서관을 선정하여 지역민의 돌봄과 학습의 영역을 살펴보고 수도권 권역별 전반적인 생활SOC 공급실태를 파악하였다.

제 2 장

생활SOC 관련 선행 연구 자료 검토

제1절 선행연구 현황⁴⁾

생활SOC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부가 2018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생활인프라의 설치기준과 입지에 대한 전통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8년 생활SOC라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한 용어가 등장하면서, 최근 생활SOC의 유형 구분, 생활SOC 정책 추진전략 및 시행방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공표된 이후 수행된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방안(임은선, 2018)”,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구형수, 2018)”, “포용적 생활SOC 정책 추진을 위한 공원결핍지수 개발 연구(김용국, 2019)” 등이 있다.

임은선(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은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상 활동과 생산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생활SOC의 입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 혁신역량이나 실수요 중심으로 생활SOC를 공급하기 위해 주민 주도적 참여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형수(국토연구원, 2018)는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생활SOC의 이용 측면에서 지역 간에 시설 보유의 격차, 접근성이 취약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됨을 지적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더불어 지역 여건(이용 수요, 유흥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생활SOC 공급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생활여건과 관련된 결핍지수를 개발한 해외 연구는 영국의 복합결핍지수(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가 대표적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석현(경기연구원, 2013)은 “경기도 지역 결핍지수 개발방안 연구”에서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경기도 결핍지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결핍지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도모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내발적 지역발전의 동원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2021년 국토연구원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정책모니터링을 위해 생활SOC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복합결핍지수를 개발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지표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복합결핍지수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지 결정 및 재원 투자 우선순위

4) 임은선 외(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12P~1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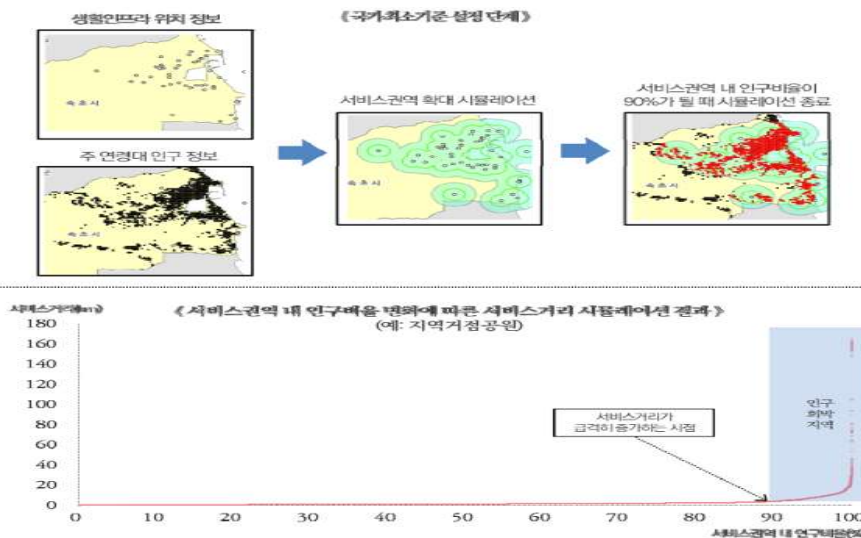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는 2018 국토부에서 발표한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로써 접근성 기반의 최소기준 선정 방법론을 참고하여 분석모형을 작성하였다. 접근성 기반 최소기준 설정 방법은 거리 산정 시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을 고려하여 거주민의 주관적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절대적 최소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소기준은 국가나 지역 구성원들의 생활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접근 수준을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최소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은 전국을 500m×500m 격자로 구획하고, 격자별로 연령별 인구정보 결합을 한다. 구축된 격자지도에 특정 시설의 위치를 점 데이터로 변환 한 후, 각 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권역(거리) 확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주 연령대 인구를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서비스권역 내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90%에 도달하게 될 때의 거리 값을 최소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서비스 거리와 그 권역 내부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값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서비스 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의 인구비율 값이 약90%로 나타난다.

최소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 90%를 기준으로 접근성 기반 생활인프라 최소기준(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처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성은영, 2018)를 반영한 최종안을 작성하였다. <부표2>

<그림2-1> 접근성 기반 최소기준 설정 방법



* 출처 구형수 외(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p9



<표 2-1>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 포용적 위한 생활SOC 확충방안 (임은선, 2018) • 연구목적: 생활SOC의 특징과 여건을 진단하고 포용적 혁신 공간 실현을 위해 SOC확충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도출	• 생활SOC 및 혁신성장에 관한 문헌조사 • 공간데이터를 이용한 생활 SOC 이용여건 분석 • 혁신성장 연구단 세미나	• 포용적 혁신공간의 특징과 SOC의 역할 • 생활SOC 이용여건 진단과 시사점 • 포용적 혁신공간 실현을 위한 생활SOC 확충방안
	■ English indices of deprivation 2019 (영국통계청, 2019) • 연구목적: 영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지역단위의 상대적 결핍도에 대한 지표를 산출	• 잉글랜드지역 32,844개의 소지역 단위에 대한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소득, 고용, 교육, 보건, 범죄, 주택, 주거환경 등에 대한 결핍도 측정	• 영국 복합결핍지수 개발 배경 • 복합결핍지수의 개념 • 지역별 복합결핍지수의 변화 • 런던의 복합결핍도 연구 사례연구
	■ 경기도 지역 결핍지수 개발방안 연구(최석현 외, 2013) • 연구목적: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거버넌스 역량 확충, 사회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한 지수모델의 개발	• 지수모형개발 관련 선행연구 조사 • 경기도민 생활의식조사를 활용한 지표 사례 검토 • 지수개발 원칙과 절차 도출 • 예상결과 및 문제점 논의	• 사회경제적 결핍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기존 지수개발 현황 및 평가 • 지역결핍지수 개발 방안 • 결론 및 시사점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2021, 임은선 외) • 연구목적: 생활SOC 지역별 결핍 지수를 개발하고 정책적 활용 방안 모색	• 중앙 및 지자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추진 과정 및 업무이슈 조사 • 생활SOC관련 정책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 생활SOC 정책지표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 • 해외 선진사례 조사 • 복합결핍지수 설계 및 개발
	■ 생활인프라 기준도입 및 활용 방안 연구 (2018, 구형수) • 연구목적: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활용현황 검토 및 접근성 개념을 반영한 지표 및 항목별 최저 기준 마련	• 생활인프라 공급현황 격자단위 분석 • 지역주민대상 이용 실태조사 실시 (30개 시군)	• 생활인프라 관련 국내외 정책 검토 • 생활인프라 공급 및 이용 실태 분석 •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설정 • 생활인프라 기준 활용방안

* 출처 임은선 외(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14P 수정



제 3 장

수도권 지역 생활SOC 분석 결과

제1절 노인의 삶과 관련된 생활SOC 분석

1. 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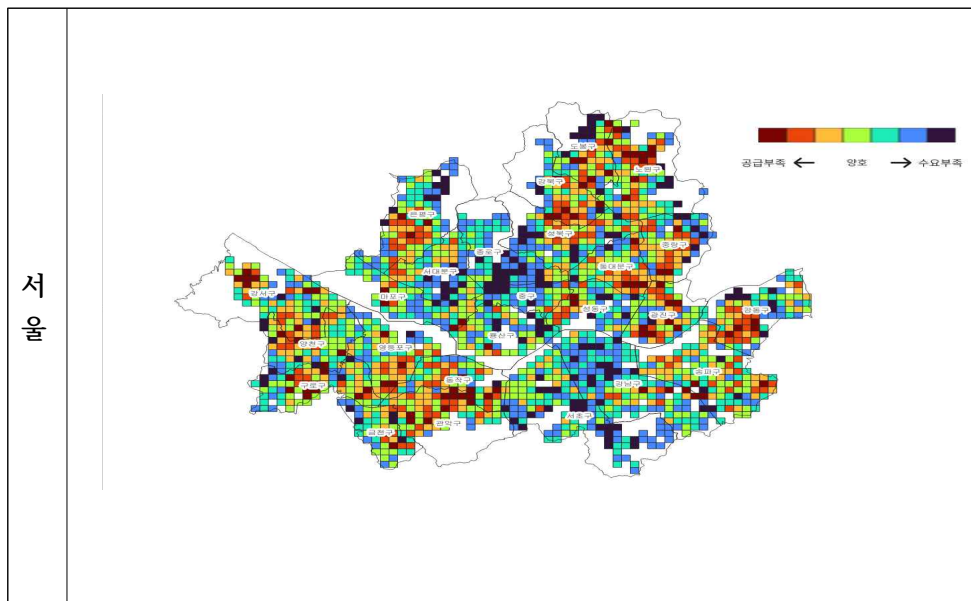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가. 서울지역

<그림 3-1>은 서울지역의 노인복지관 공급취약지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으로 갈수록 인구수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공급과잉(공급대비 인구수가 적음) 지역을 나타낸다. 서울 변두리 지역인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등의 지역이 격자 등급차가 최대값인 '3'인 지역이지만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접근성 16.3km를 충족하는 지역으로 노인복지시설 공급취약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3-1> 서울 '노인복지관'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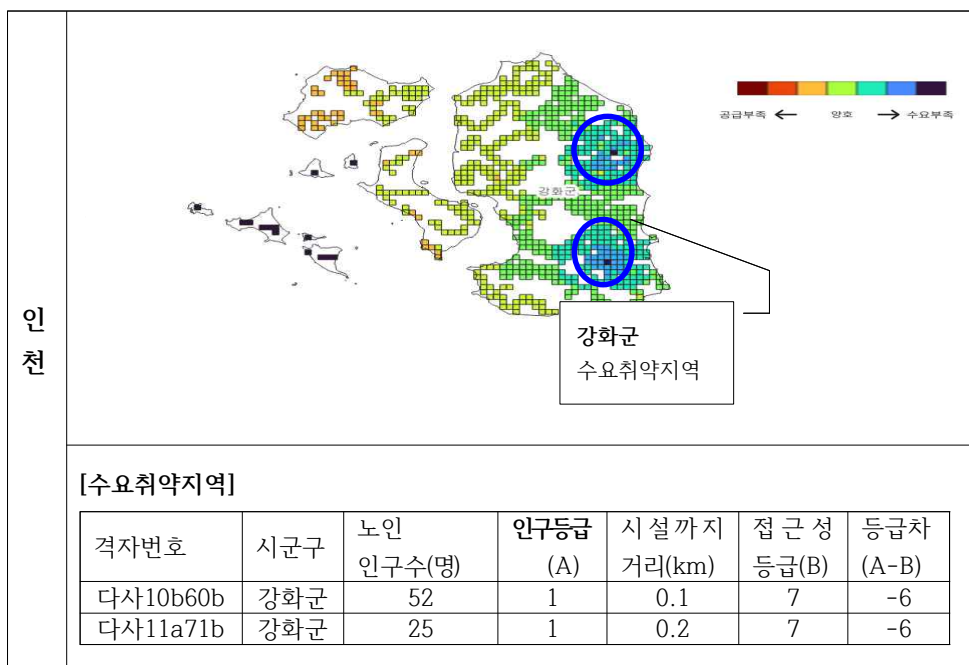




나. 인천지역

<그림 3-2>은 인천지역의 노인복지관의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인천지역은 공급취약지역은 없으며, 강화군은 낮은 인구밀도에 따라 수요취약지역이 발생하였다. 취약지역 등급격차 최대값 ‘-6’인 지역으로 격자내 100명 미만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까지 접근성이 1km 이내 지역으로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추진 등으로 수요를 확대할 대안이 필요하다.

<그림 3-2> 인천 ‘노인복지관’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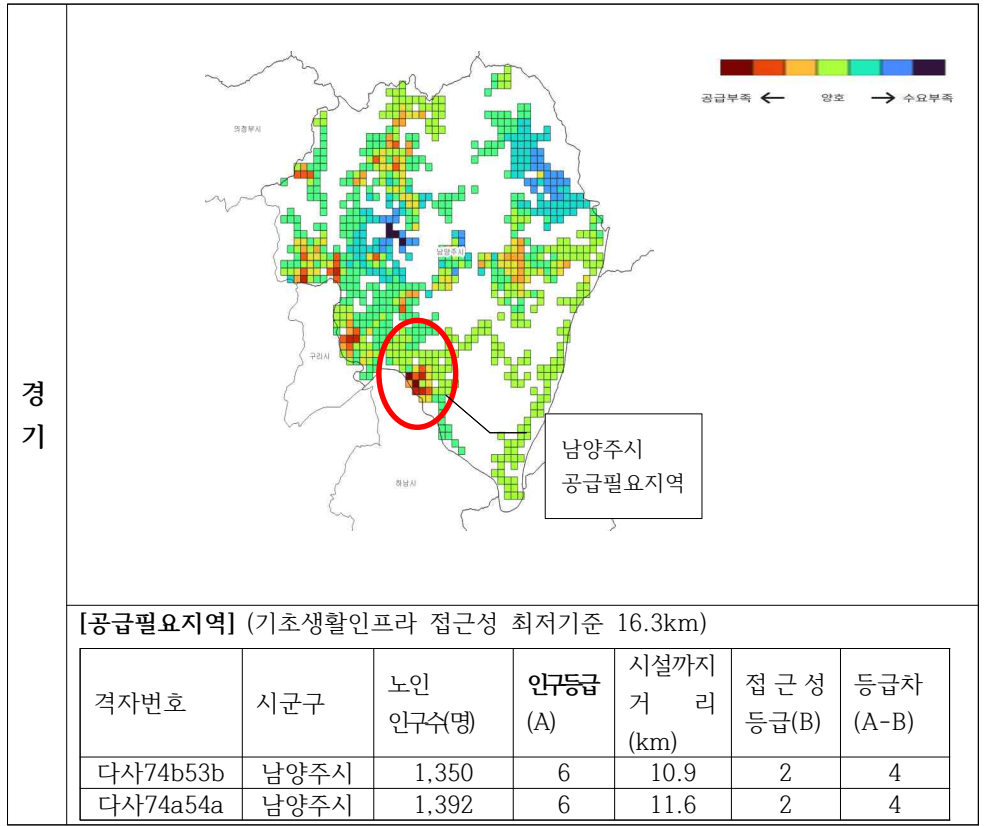


다. 경기지역

<그림 3-3>은 경기지역 노인복지관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경기도 지역은 31개 시군 지역으로 서울, 인천에 비해 지리적으로 광범위하며 도시와 비도시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에도 노인복지관 공급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격자 등급차 최대값은 ‘4’ 이고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접근성 16.3km 이상인 공급취약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단, 남양주 내의 격자 중 1,3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까지 접근성이 10km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 공급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존재한다.



<그림 3-3> 경기 '노인복지관'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2. (공공)보건기관 vs (민간)의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보건법 제12~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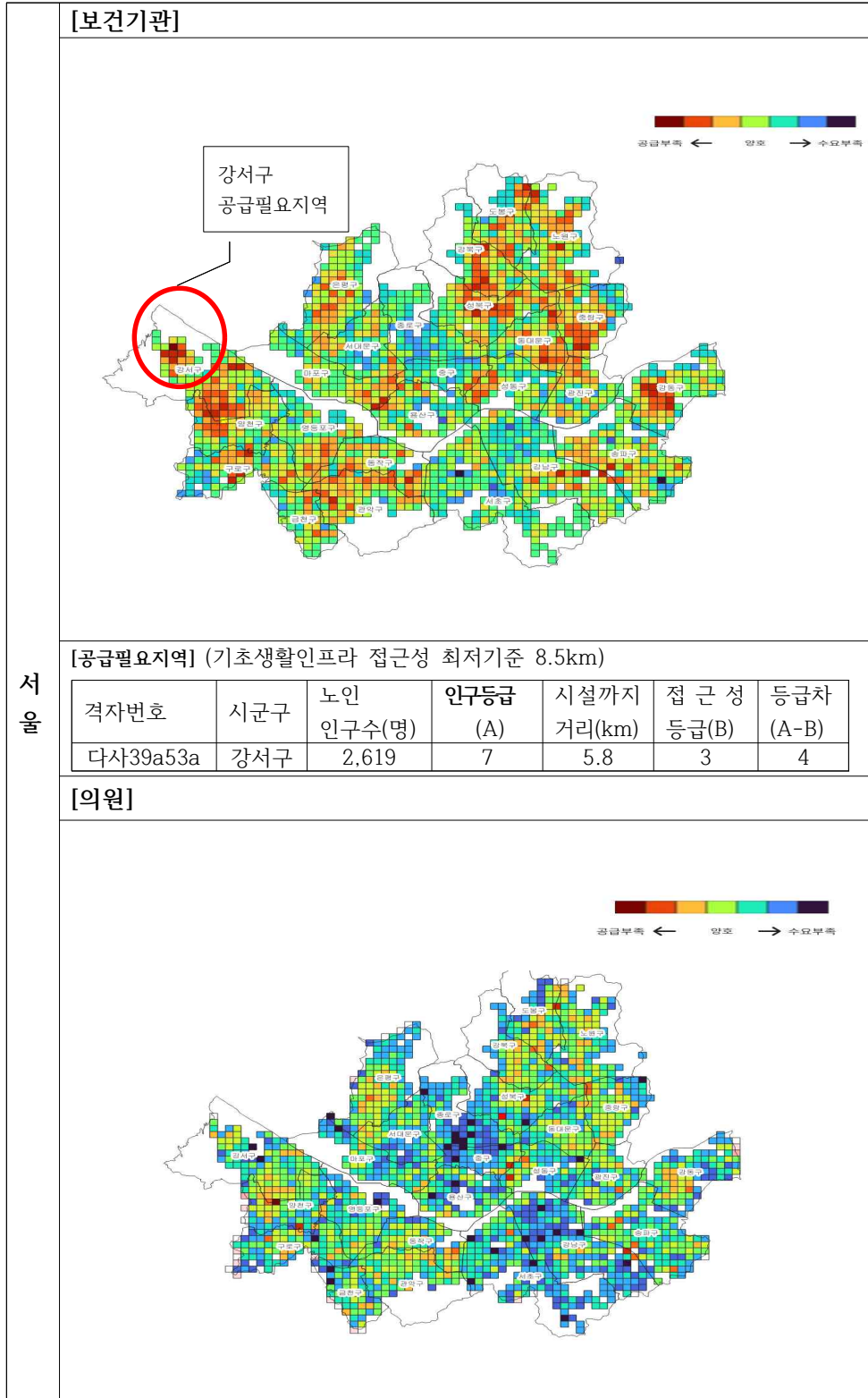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가. 서울지역

의료부문에 대한 노인 생활SOC부문을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원을 함께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써 노인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을 도출해 보았다.

<그림 3-4> 은 서울지역 보건기관과 의원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보건기관이 의원보다 붉은색 지역(공급취약지역)이 더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보건기관은 격자등급 최대값 '4' 인 지역 중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8.5km 이상 지역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강서구의 한 지역은 격자내 노인 인구수 2,619명이며, 보건기관까지 접근성이 5.8km 지역으로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의원 취약 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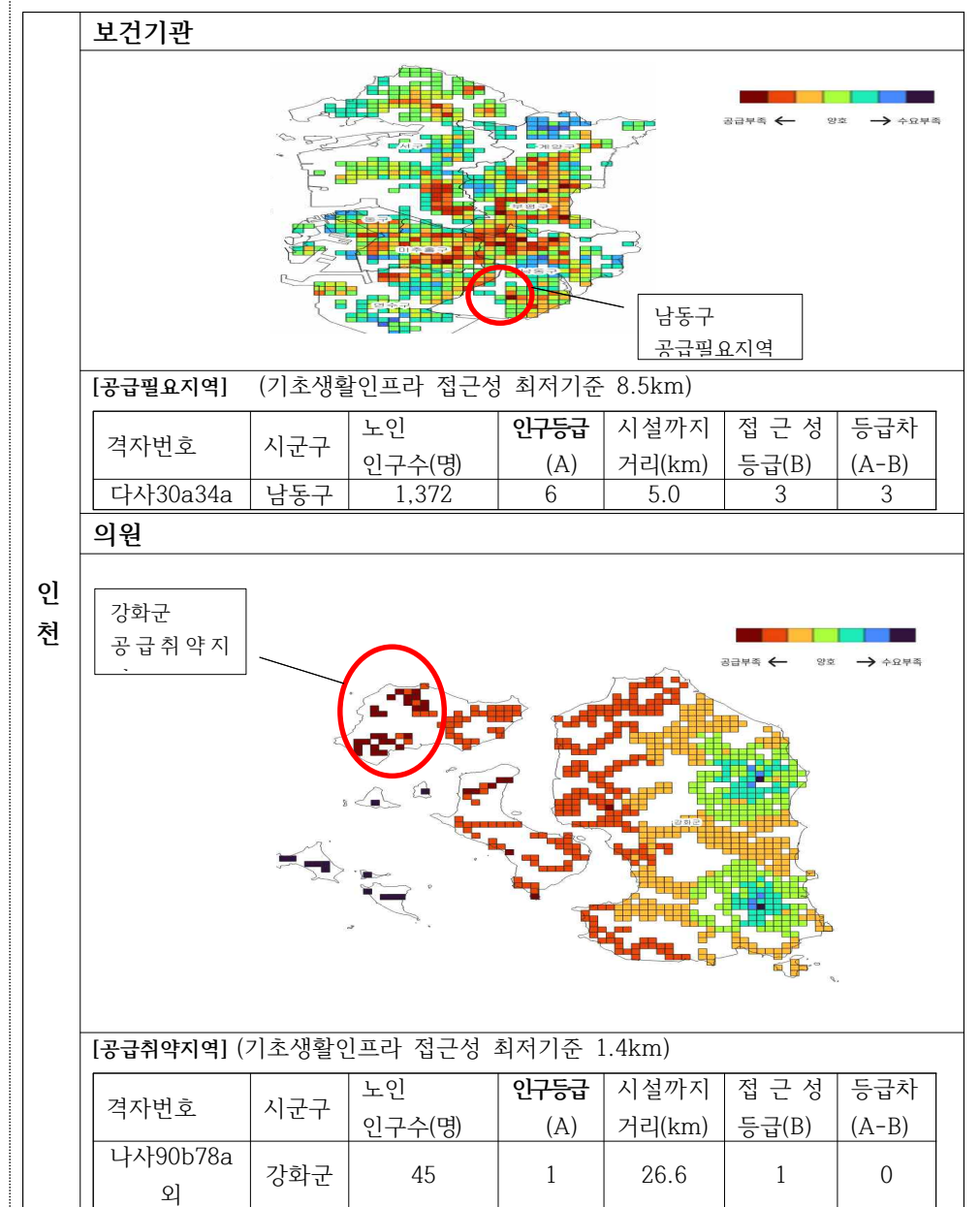
<그림 3-4> 서울 '보건기관' vs '의원'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나. 인천지역

<그림 3-5>은 인천지역 보건기관과 의원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보건기관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8.5km 이내 지역은 도출되지 않았으나 남동구에 노인인구 1,372명이이고 접근성이 5km인 지역으로 공급필요지역이 도출되었다. 의원은 강화도의 교동도, 석모도 지역에 노인인구수는 적으나 20km 이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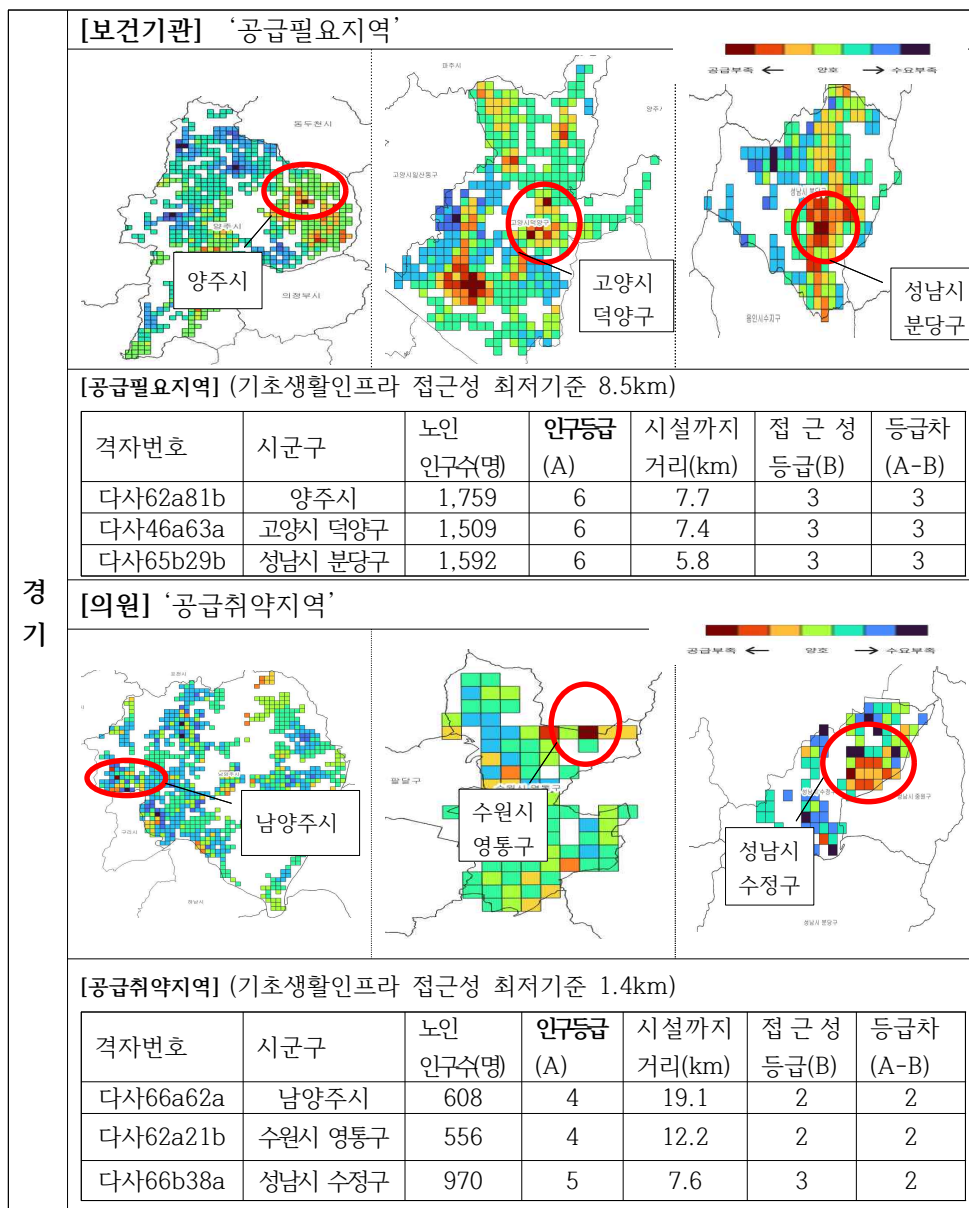
<그림 3-5> 인천 '보건기관' vs '의원'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다. 경기지역

<그림 3-6>은 경기지역 보건기관과 의원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경기지역의 보건기관 공급취약지역은 노인인구와 접근성 등급차가 '3'인 지역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8.3km이상 지역은 도출되지 않았고 접근성 5km 이상인 지역 3군데(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가 도출되었다. 의원시설의 공급취약지역은 노인인구와 접근성 등급차 최대값이 '2'인 지역이며, 접근성 1.4km 이상인 지역으로 남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에 각 한 군데씩 나타났다.

<그림 3-6> 경기 '보건기관' vs '의원'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3. 생활권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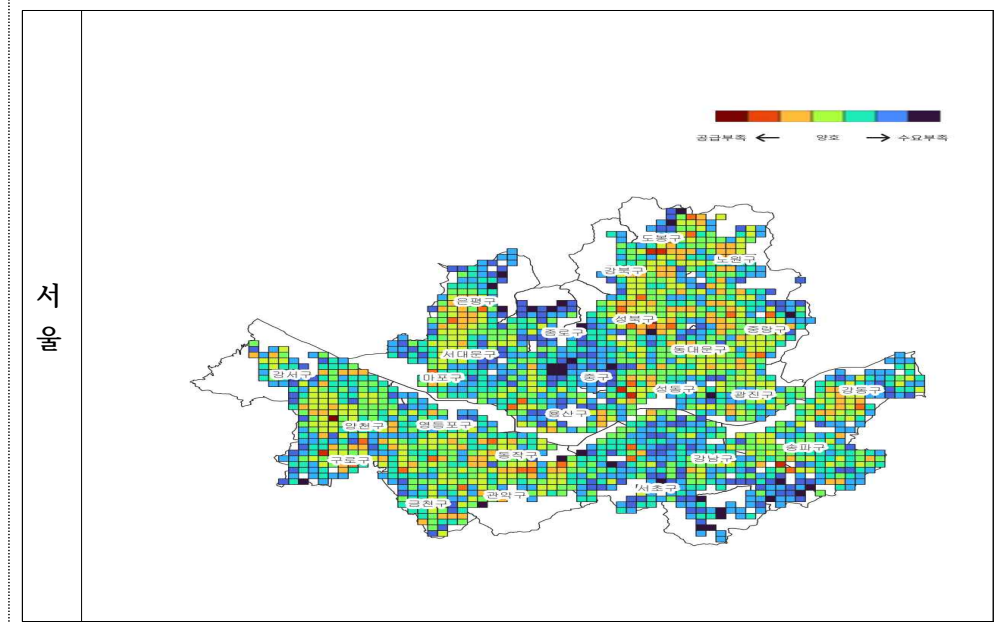
[생활권 공원]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㉓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㉔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㉕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 서울지역

<그림 3-7>은 서울지역 생활권공원의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급취약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그림 3-7> 서울 '생활권 공원'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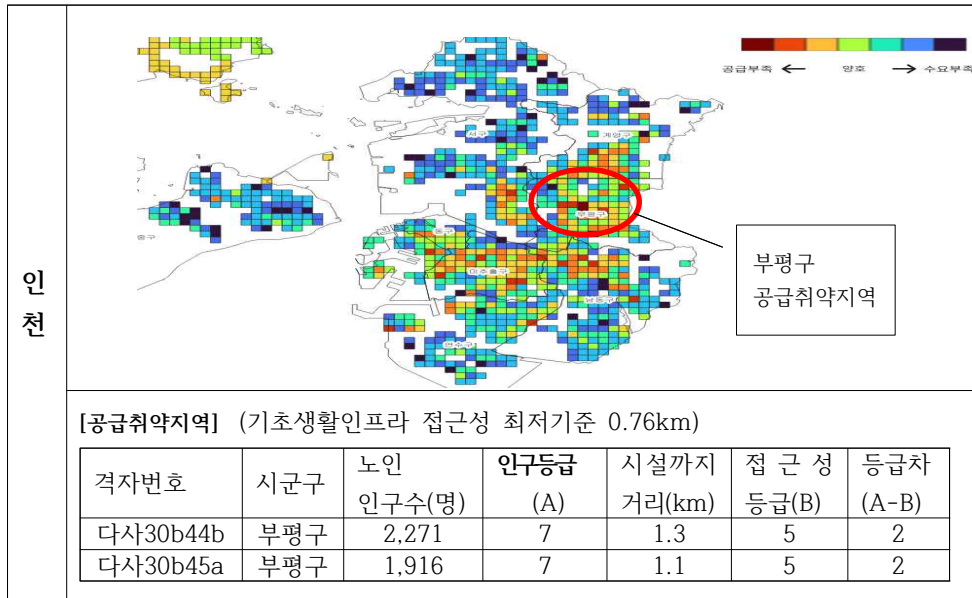


나. 인천지역

<그림 3-8>은 인천지역 생활권공원의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부평구에 격자지역(2곳)이 등급격차 최대값 '2'으로 공급 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은 격자 내 거주 노인 인구수가 1,000명 이상이고 생활권공원까지 거리가 0.76km 이상 지역으로 인천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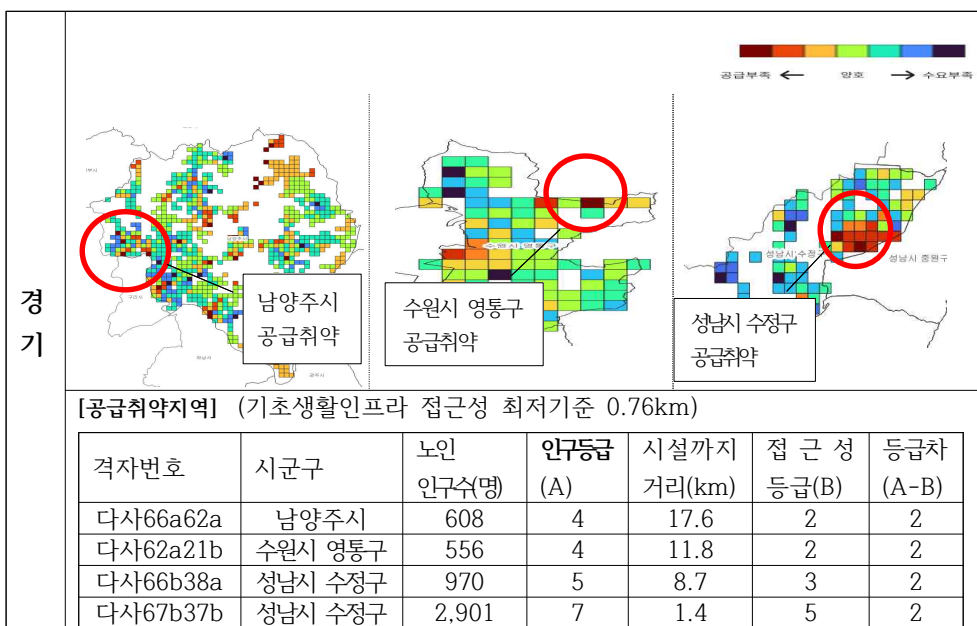
<그림 3-8> 인천 '생활권 공원'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다. 경기지역

<그림 3-9>은 경기 생활권공원의 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남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의 격자지역(4곳)이 등급격차 최대값 '2'로 공급취약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은 격자 내 거주 노인 인구수가 500명 이상이고 생활권공원까지 거리가 0.76km 이상 지역으로 공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경기 '생활권 공원'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제2절 기타 생활SOC 분석

1.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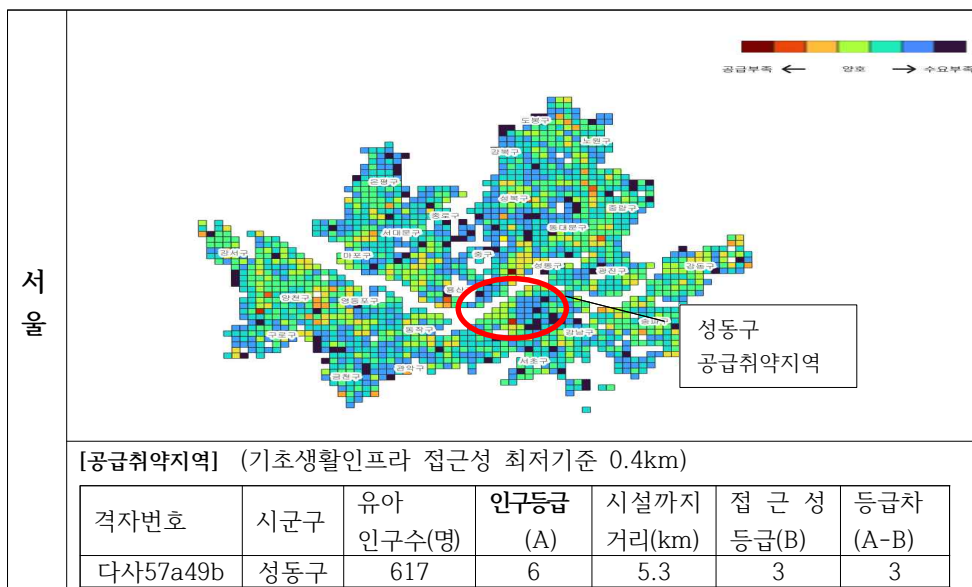
- 영유아: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종 류: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0조

가. 서울지역

<그림 3-10>은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공급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급취약지역은 성동구의 한 격자지역이 도출되었다. 유아인구와 접근성 등급차 최대값이 ‘3’ 인 지역으로 접근성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0.4km이상이며 격자내 유아인구수 617명으로 가장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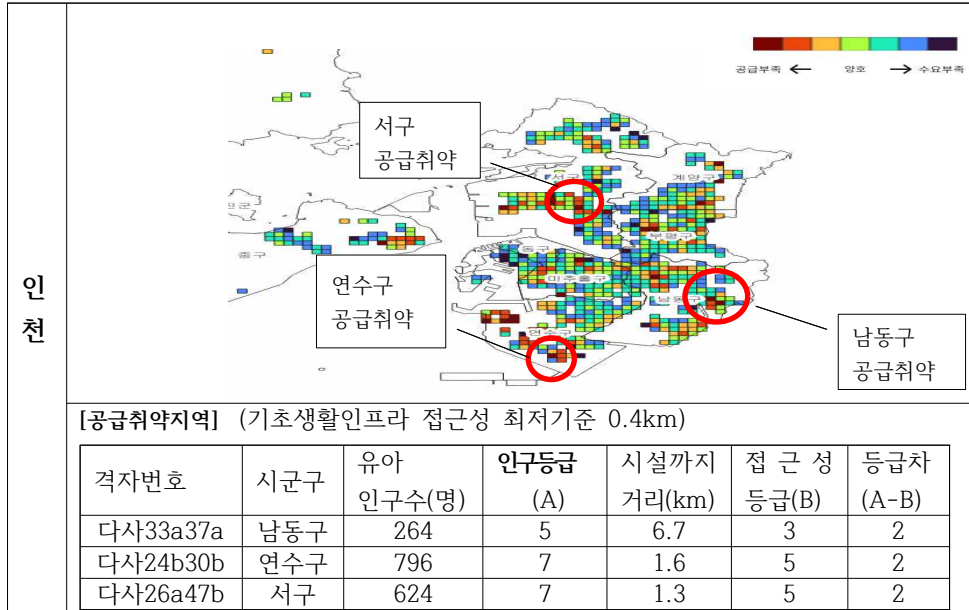
<그림 3-10> 서울 '어린이집'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나. 인천지역

<그림 3-11>은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공급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급취약지역은 연수구(2곳), 남동구, 서구에서 격자지역이 도출되었다. 유아인구와 접근성 등급차 최대값이 ‘2’ 인 지역으로 접근성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0.4km이상이며 격자내 유아인구수 138명~796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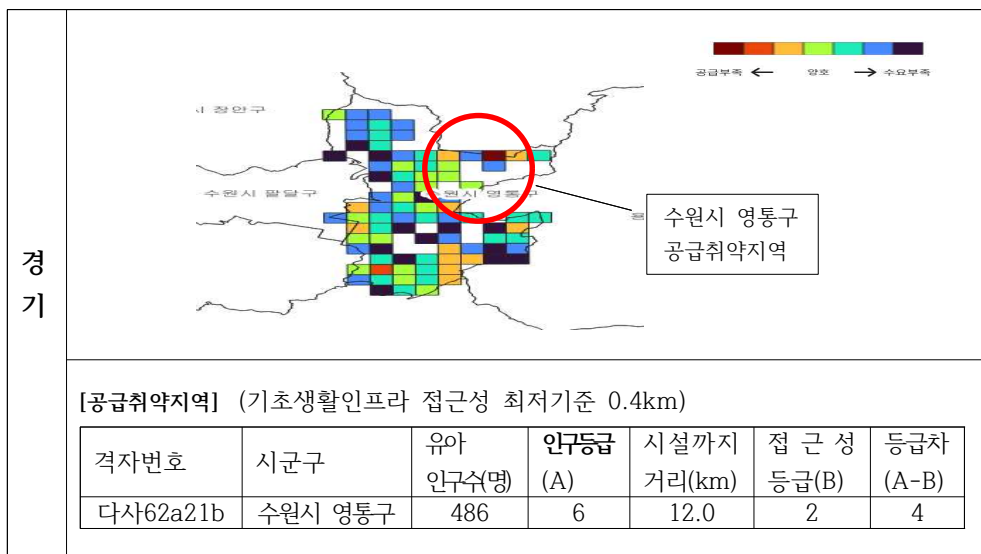
<그림 3-11> 인천 '어린이집'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다. 경기지역

<그림 3-12>은 경기지역 어린이집의 공급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급취약지역은 수원시 영통구 지역이 도출되었다. 유아인구와 접근성 등급차 최대값이 '4' 인 지역으로 접근성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0.4km이상이며 격자내 유아인구수 486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경기 '어린이집'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2. 국공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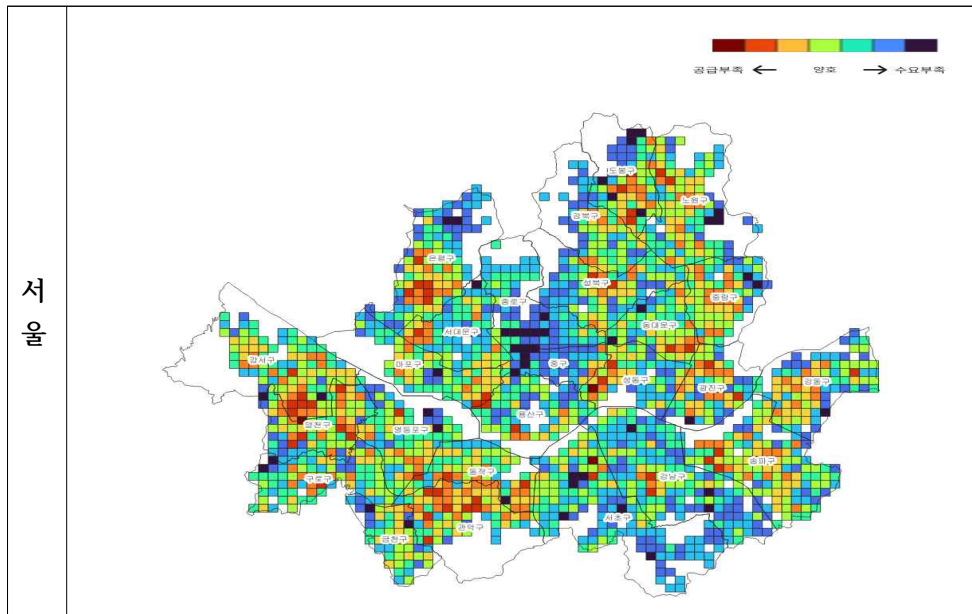
※국공립도서관: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교육청, 지자체, 사립)

도서관법 제2조

가. 서울지역

<그림 3-13>은 서울지역 국공립도서관의 공급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급취약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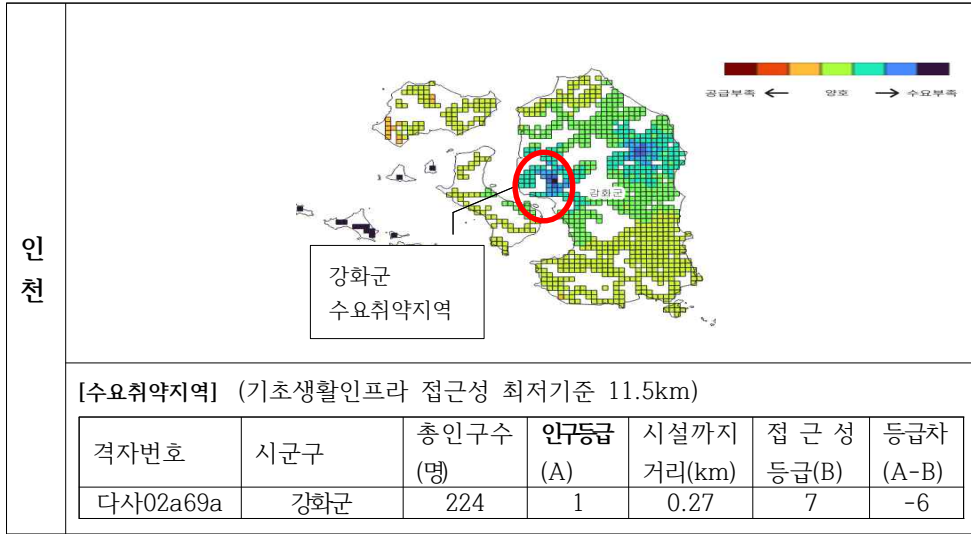
<그림 3-13> 서울 '국공립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나. 인천지역

<그림 3-14>은 인천지역 국공립도서관의 공급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총인구수와 접근성 등급차가 최대값이 '3' 인 지역중에 접근성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11.5km 이상인 공급취약지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화군 지역에 인구수 224명이고 접근성이 0.27km로 낮은 인구 밀도에 따른 수요취약지역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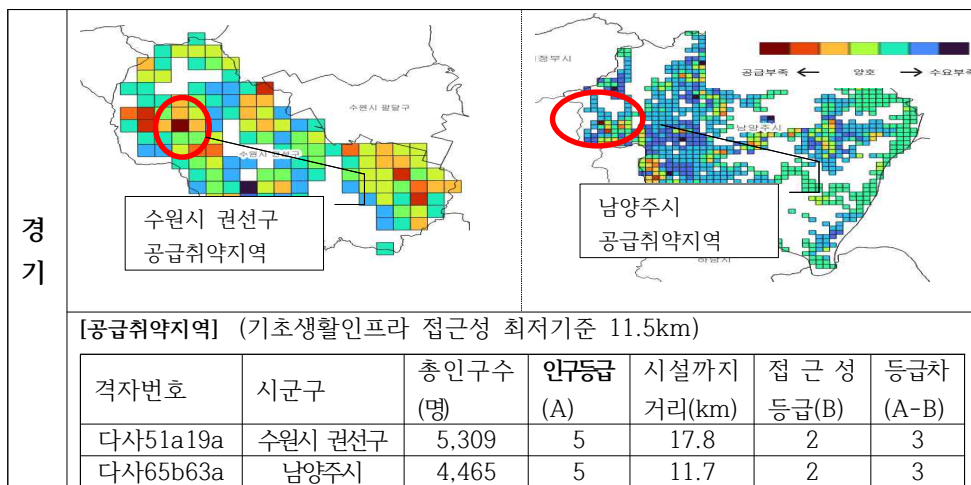
<그림 3-14> 인천 '국공립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다. 경기지역

<그림 3-15>은 경기지역 국공립도서관의 공급취약지역 분석한 결과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공급취약지역은 수원시 권선구, 남양주시 지역이 도출되었다. 총인구수와 접근성 등급차 최대값이 '3' 인 지역으로 접근성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인 11.5km이상이며 격자내 총인구수가 4,000명 이상으로 국공립도서관 공급이 취약한 곳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경기 '국공립도서관' 취약지역 분석 결과 (격자단위 500m)





제 4 장

결론 및 향후과제

2019년 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8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SOC를 확충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생활SOC 지역 공급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수도권은 2021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노인의 삶과 관련된 생활SOC 시설(4종)의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유·아동 관련 어린이집과 전 연령층 대상 국공립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 수도권 지역 생활 SOC 분석 결과

단위	기능	시설	구분	수도권 권역별 취약지역		
				서울	인천	경기
노인 관련 생활 SOC	돌봄	노인 복지관	①공급취약지역	없음	없음	없음
			②공급필요지역	없음	없음	남양주시
			③수요취약지역	-	강화군	-
	의료 (공공)	보건기관	①공급취약지역	없음	없음	없음
			②공급필요지역	강서구	남동구	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의료 (민간)	의원	①공급취약지역	없음	강화군	남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휴식	생활권 공원	①공급취약지역	없음	부평구	남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기타 생활 SOC	어린이집	①공급취약지역	성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수원시 영통구
	학습	국공립 도서관	①공급취약지역	없음	없음	수원시 권선구 남양주시
			③수요취약지역	-	강화군	-

① (공급취약지역) 권역별(서울, 인천, 경기), 생활SOC 시설별 등급차(인구등급-접근성등급)가 최고값인 격자를 추출하여, 접근성 항목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거리)에 미달한 지역

② (공급필요지역) 공급취약지역은 아니지만 상대적 접근성(등급차 최고값)이 취약하여 우선 공급이 필요한 지역

③ (수요취약지역) ①②번 지역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생활SOC 시설별 등급차(인구등급-접근성등급)가 최저값인 격자를 추출하여 접근성(거리)이 최저인 지역

※ 공란- 분석 결과 없음(분석 안함)

※ 글꼴색(파란색)- 권역별 동일격자 지역



노인과 관련된 생활SOC 시설의 공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3권역 전체에서 노인 복지관과 보건기관의 공급취약지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취약지역이 동일하게 도출되지 않음으로 상호 보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지역은 생활SOC의 공급실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강화군과 같은 인구 저밀지역에서 노인복지관 수요취약지역이 나타났고, 민간 의료 서비스 시설인 의원은 공급취약지역으로 도출되었다.

경기지역은 의원과 생활권 공원의 공급취약지역이 같은 격자지역(남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되었다.

기타 생활SOC 시설로 서울시의 어린이집은 성동구에서 공급취약지역이 도출되었으며, 인천지역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 어린이집 공급취약지역이 도출되었고 강화군은 인구 저밀에 따라 국공립도서관 수요취약지역이 도출되었다. 경기도의 수원시 영통구는 노인 관련 생활SOC(의원, 생활권공원) 공급취약지역과 동일한 지역에서 어린이집 공급취약지역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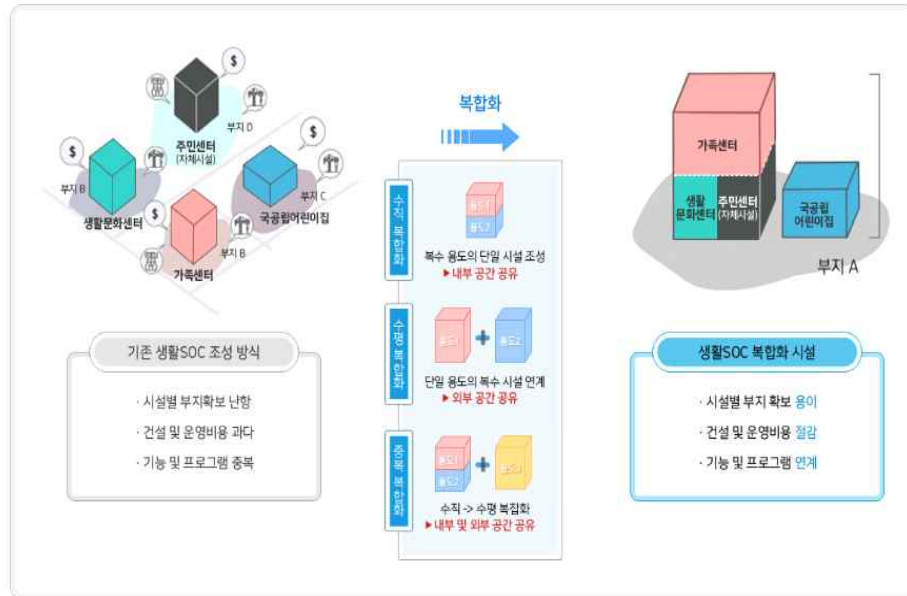
수도권 전반적으로 생활SOC 시설의 공급취약·필요지역은 권역별 1개~3개 정도의 격자 지역만 추출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특이한 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중복된 지역에서의 공급 결핍현상이 나타났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등은 인구 과밀지역으로 상대적 인구등급이 높은 것에 반해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은 격자 반경 1km~2km 이내 지역에 유사 시설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⁵⁾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의 강화군과 같이 인구 저밀지역에서는 수요취약 시설들(노인복지관, 국공립도서관)에 대한 수요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불필요한 생활SOC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용도 전환이나 폐지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건립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급취약지역이 중복 도출된 지역에 대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저밀지역 등 수요취약지역 시설물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이나 생활SOC 복합화 등으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5)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하나의 부지 또는 건물에 모아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그림 4-1> 생활SOC 복합화 개념



* 출처-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 lifesoc.go.kr/etc/complconcept(2022.10.)

본 연구의 한계점은 수도권 생활SOC 관련 모든 시설을 분석하여 수도권 전체 생활SOC에 대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생활SOC 취약지역 도출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의 1차적 목표는 달성하였다. 향후 생활SOC 취약지역분석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써 지역 정책을 지원하고, 노인의 삶과 관련된 생활SOC 시설에 대한 기획보도 등으로 지역 이슈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인구의 급격한 감소,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생활SOC 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의 기준과 방법으로 설치 및 운영하던 생활SOC 시설들이 장기적인 이용의 어려움, 활용의 제약 등 시설의 운영에도 큰 문제가 예상된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재구성 또는 유연적 이용 등으로 생활SOC 복합화에도 새로운 이용정책과 입지계획 등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무엇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잠재수요와 이용행태 등 다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획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수도권 지역 생활SOC의 취약지역을 상세 진단하고 향후 주민들과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우석 외(2019), 교육시설 생활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지역 프로파일링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김민경 외(2019), 구로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실태분석 및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 구로구 구정연구반
- 김소연 외(2017), 안산시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김유란(2020), 도시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방안
- 남지현(2022), 스마트축소를 위한 쇠퇴도시 유형과 도시관리 전략
- 박주현 외(2021), 통계적 지역단위 설정 및 시범통계 작성방안 연구, 통계개발원 내부용 연구보고서
- 손순금 외(2020), QGIS를 활용한 소도시 고령자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분석, 한국지역학회지
- 양승환 외(2020),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따른 보은군의 생활인프라 시설 충족도 분석 및 유형화, 충북대학교
- 이하연 외(2020), 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위한 접근성 평가방법,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이하연 외(2021), 지역사회 생활인프라 공급현황 분석방법론, 인천대
- 임은선 외(2021),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pp.12-14
- 조희은 외(2019), 생활SOC의 범위 및 시설의 유형별·지역별 특성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한다혁 외(2020),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도시의 생활SOC 결핍지역 추출 연구
- 홍성진 외(2017),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 충족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 홍영희 외(2021), 통계주제별 통계지리정보 격차 서비스의 공표기준 산정 연구,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기초생활인프라 현황분석자료 활용방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lifesoc.go.kr/main(2022.10.19.)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 계획 안(2020~2022)
- 국토교통부(2018),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 확정’
- 국토연구원(2018), 생활인프라 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p.5, pp.93-97
-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4호(2017),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
- 국토지리정보원(2021),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동남지방청(2021), 통계작성을 위한 지역 분류체계 도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부 록

I

연구보고서

〈부표 1〉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위한 설정방법

구분	향유수준	수요		참고 수준
		이용현황	장래수요	
사용지표	현황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표본 2,000명 결과		국내외 정책 기준/통계
자료특성	1인당 평균 접근거리	시설 이용자의 이동거리 평균	희망 거리 평균	다양
기준설정방향	인구의 90%가 접근가능한 근린의 구간한계값을 도시주민이 향유 가능한 최소거리로 설정	시설별, 지역별, 평균 값으로서 향후 단기 목표치	접근거리 희망값으로 국민이 원하는 접근성의 최대치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치, 통계를 근거로 활용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최저기준 도출과정〉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시간)을 보행속도 시속3km, 차량 시속25km 로 환산한 거리. 단, 최저기준이 범위로 주어진 경우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산출함

(예: ‘5~10분’ 인 경우 ‘10분’ 을 적용)

※ 특정한 수요연령층이 있는 시설은 5~10분, 10~15분 등으로 유연하게 제시

※ 지역 규모에 따라 시설 접근성의 격차가 큰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의료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을 추진한다는 선언적인 최저기준으로 제시함

※ 출처 성은영, 강현미(2018),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 p4

〈부표 2〉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설정 연구결과

설치 단위	기능	시설	관련법	공급 현황			이용 현황	장래수요(분)		기존 기준	최저 기준	
				등급	구간 한계	시간 거리		평균	최빈 값			
마을 단위 (도보)	교육	유치원	유아교육법	9등급 (인구90%)	771m	16	12.1	9.6	10	1개소/ 2~3천 세대	5~10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9등급 (인구90%)	731m	15	9.5	8.5	10	1개소/ 4~6천 세대 학급당 학생수 : 21.5명	10~15	
	학습	도서관	도서관법	4등급 (인구90%)	1.3km	27	11.2 마을도서관	10.3	10	작은도서관: 500가구 이상 1개소	10~15	
	돌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9등급 (인구90%)	404m	8	9.6	7.5	5		5	
		마을 노인 복지	경로당	노인복지법	8등급 (인구90%)	289m	6	8.7	6.2	5	1개소/3만	5~10
			노인 교실	노인복지법	8등급 (인구90%)	8.5km	170	11.8	8.9	10		
		기초 의료 시설	의원	의료법	4등급 (인구90%)	1.4km	28	14.3	11.6	10		지역 보건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약국	약사법	4등급 (인구90%)	1.2km	24	10.9	8.4	10			
	생활 체육 시설	건강생활 지원센터	지역보건법	-	-	-	-	-	-		10	
	체육	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간이운동장	체육시설법	4등급 (인구90%)	932m	19	12.8	10.8	10	생활체육 시설면적 : 4.2㎡/1인	10	
	휴식	도시공원 (모자공원 제외)	도시공원법	4등급 (인구90%)	761m	15	17.5	13.7	10	공원 면적 9㎡/1인	10~15	
생활 편의 시설	주거 편의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법 무인택배함	-	-	-	2.9분 (조사생략)	3.2 4.2	5 5		5		
	소매점	건축법	4등급 (인구90%)	372m	8	11.4	9.7	10		10		
교통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5등급 (인구90%)	2.3km	46	3.1	5.1	5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 : 70%	주거지역 내 주차장 확보율 70% 이상		
지역 거점 (차량)	학습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인구90%)	11.5km	27	16.8 (지자체+국립)	13.4	10	지역거점 도서관: 1개소/3만	10	
	돌봄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인구90%)	16.3km	39	16.9	13.3	10		20~30
		보건소	지역보건법	(인구90%)	8.5km	20	19.7	13.8	10		20	
	의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의료법	(인구90%)	7.4km	18	28.3	18.7	10		30	
		문화	문화예술 진흥법	(인구90%)	9.4km	23	30.7 공연장	22.4	10		20	
	전시시설		문화예술 진흥법	(인구90%)	8.8km	21	40.2	25.9	30			
	체육	공공 체육 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인구90%) (인구90%) (인구90%)	4.2km 7.6km 15.1km	10 18 36	- - -	- - -	- - -		15~30	
		지역거점공원 (모자공원 제외, 10만㎡ 이상)	도시공원법	(인구90%)	4.1km	10	-	-	-		10	

※ 시간거리는 도보 3km/h, 자동차 25km/h로 환산 : 차량 기준 시간거리 : 도보 기준 시간거리

※ 출처 성은영, 강현미(2018),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 p8



〈부표 3〉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부문	서비스 항목	세부내용	목표치 (분,%)
보건·의료·복지	가. 진료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30분 ~1시간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0분
	다. 영유아 보육·교육	국공립·민간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라. 노인복지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80%
교육·문화	가. 초·중등교육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나.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0%
	다. 문화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라. 도서관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마. 체육시설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정주여건	가.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지붕은 철고 혹은 개량한다.	23%
	나.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5%
	다.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
	라.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68%
	마.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바. 생활폐기물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사.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아. 경찰순찰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 시간·장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100%
경제활동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70%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부표 4〉 연구사례 · 정책별 생활SOC 정의 비교

구분	명칭	출처	내용
SOC	SOC	국토연구원 (2018)	직접 생활 활동에 동원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시설이나 서비스, 통상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을 지칭
	SOC	국무총리실 (2018)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로, 철도 및 항만 등 (토목사업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생활 SOC	생활 SOC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이하 '생활SOC'라 한다)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시설 을 말함
	생활 SOC	국무총리실 (2018)	사람·이용 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
	생활 인프라	국토연구원 (2012)	기반시설 중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기능을 하는 시설
	생활형 SOC	제4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2013)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SOC(혼잡도가 높은 도시 내 교통인프라, 생활형 지방교통SOC,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홍수예방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3)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 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
	생활SOC	국토연구원 (2018)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인프라
	생활SOC	국토연구원 박찬규('18)	생활환경의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물 이나 기초적 시설물 로, 생활인프라, 생활SOC, 기초편의시설 생활기반시설 모두 생활SOC로 통일
	기초 생활 SOC	국토연구원 임은선외('18)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 에 필요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시설 등을 의미
	생활 SOC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김용수('18)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생활 밀착형 SOC 시설	신용보증 기금(2006)	SOC시설 중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지역 및 생활밀착형 SOC 시설 (주로BTL방식 민간투자사업)
생활 밀착형 SOC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11)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국민 체감형 SOC	국토교통부 투자방향 및 발주계획('14)	생활공원 조성사업, 도시생활교통 혼잡개선 사업 등 국민 실생활 에 밀접한 사업
	생활 밀착형 인프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14)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생활 밀착형 SOC	국토연구원 윤하중('18)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 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 출처 조희은, 남지현(2019), "생활SOC의 범위 및 시설의 유형별·지역별 특성연구", pp. 38-39

연구보고서 2022-02

수도권 아동·청소년 웰빙지표 작성 및 분석

문영주





목 차

제1장 서론	35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선행 연구 사례	35
제2장 아동 웰빙 지표	37
제1절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37
제2절 지표 선정	38
제3장 분석 결과	41
제1절 물질적 상황 영역	41
제2절 건강과 안전 영역	44
제3절 주거와 환경 영역	53
제4절 교육 환경 영역	56
제5절 위험 행동 영역	60
제6절 주관적 웰빙 영역	65
제4장 웰빙 영역별 비교	70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72
참고문헌	74



제 1 장

서 론

제1절 추진 배경 및 목적

-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통계지표의 개발과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 현실 개선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대책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의 개발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가 미비하고 국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같은 일반화된 대국민 통계지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처럼,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 등과 같이 세분화된 인구집단별 삶의 질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와 UNICEF의 아동지표체계를 기반으로 수도권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수준과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아동 지표에 대해 연구하며, 아동·청소년의 삶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통해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

제2절 선행 연구 사례

- 해외 지표체계와 관련해서는 OECD의 ‘Comparative child well-being across the OECD(2009)’와 UNICEF의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2013)’에 수록된 지표 목록을 참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개별 지표의 분석 결과에 대한 국가별 비교도 있지만, 영역별로 통합하여 국가별 웰빙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테이블을 작성한 결과도 있다. OECD 아동 웰빙 포털에서 참고한 ‘How does Korea compare on child well-being(2017)’은, 각 국가의 아동 웰빙 현황에 대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핵심 주요 지표들을 국가별 Fact Sheet로 보여준 보고서이다. 이는, 각각의



핵심지표별로 한국이 OECD국가 중 상위 3분의 1, 중위 3분의 1, 하위 3분의 1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타내주는 내용으로, 지표 구성에 참고하였다. OECD에서 2021년 1월에 발간한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 보고서에서는 아동 웰빙 데이터 자체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아동 웰빙 정책 개발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에는 아동 웰빙 지표 대시보드를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지표 목록은 2021년 7월에 제시된 OECD 최신 지표를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작성할 지표 정의와 연령 범위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해외 보고서에 수록된 기준에 따랐으며, 국내 데이터 현황에 따라 연령대를 조정한 지표들도 있고, 국내 데이터가 없어서 제외한 지표도 있다.

- 국내 연구 사례로서 통계개발원의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2018)’에서는 OECD와 UNICEF뿐만 아니라 EU 아동 웰빙 지수, 미국·호주·아일랜드의 아동 웰빙 지표 등도 함께 살펴보며 지표체계의 발전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본 보고서 작성에 앞서 통계개발원 보고서 부록에 수록된 종합 지표 목록과 자료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 가능 지표목록을 구성하고 국내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의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고, 2021년 5월에 개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포럼을 통해 공유된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아동의 연령범위를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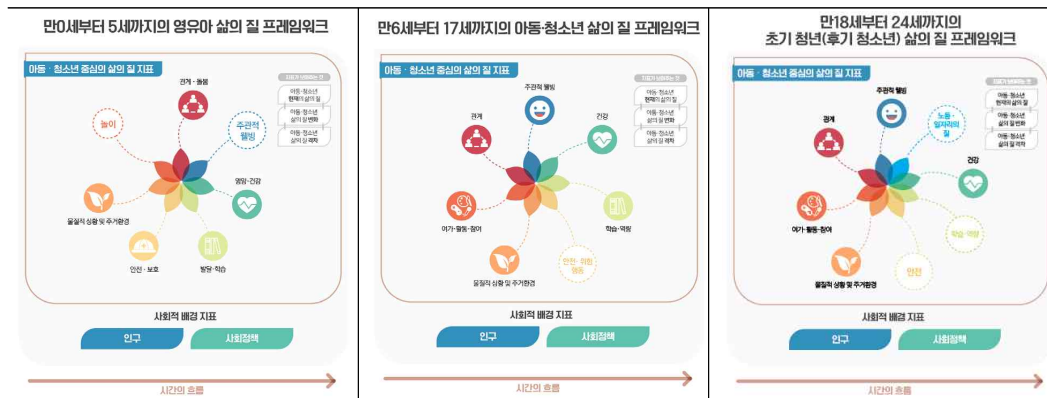
제 2 장

아동 웰빙 지표

제1절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을 정의하기 위해, 법률과 국내외 연구 사례들을 참고한 결과,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CWBDP) 상, 일부 정보는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제공되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0~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연령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 중 아동·청소년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18세 미만으로 정하였다.

<연령별 삶의 질 프레임워크 검토>



*출처: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동·청소년 삶의 질 포럼)

- 위 사례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연령을 0~17세로 정의하였다.



제2절 지표 선정

1. 해외 아동지표

□ 본 보고서에서 인용한 해외 아동 웰빙 지표는 통계개발원 보고서를 통해 참고한 OECD와 UNICEF지표로서, 개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 OECD 아동 웰빙 지표(2009)

○ 6개 영역 21개 지표

<OECD 아동 웰빙 지표>

영역	지표명	연령범위
물질적 웰빙	평균 소득	0~17세
	빈곤가정	0~17세
	교육 결핍	15세
주거와 환경	과밀 주거	0~17세
	열악한 주거 환경	0~17세
교육적 웰빙	평균 능력 점수	15세
	능력의 불평등	15세
	청소년 고용	15~19세
건강과 안전	저 체중아	0세
	영아 사망	0~1세
	모유 수유	0세
	예방접종(백일해)	2세
	예방접종(홍역)	2세
	신체 활동	11~15세
	사망	0~19세
	자살	0~19세
위험행동	흡연	15세
	음주	13~15세
	십대 출산	15~19세
학교생활의 질	괴롭힘	11~15세
	학교 선호도	11~15세

출처: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2018) p.33



□ UNICEF 아동 웰빙 지표(2013)

○ 6개 영역 16개 구성요소 33개 지표

<UNICEF 아동 웰빙 지표>

영역	구성요소	지표명	연령범위
물질적 웰빙	금전적 결핍	- 상대적 아동 빈곤율	0~17세
		- 아동빈곤격차	
	물질적 결핍	- 아동결핍률	11, 13, 15세
		- 가족의 풍요율	
건강과 안전	출생 시 건강	- 영아 사망률	0~1세
		- 저체중아(2.5kg 미만) 비율	0세
	예방 의료서비스	- 전반적 예방접종 아동비율	12~23개월
	아동사망률	- 아동사망률	1~19세
교육	교육 참여	- 영유아 교육 참여율	4세~
		- 15~19세 교육 참여율	15~19세
		- NEET 15~19세 아동비율	
	교육 성취	- 읽기, 수학, 과학 평균 PISA-성적	15세
행동과 위험	건강행동	- 과체중 아동 비율	11, 13, 15세
		- 아침 식사하는 아동비율	
		- 매일 과일 먹는 아동비율	
		- 신체활동 비율	
	위험행동	- 10대 출산율	15~19세
		- 흡연 비율	11, 13, 15세
		- 음주 비율	
	폭력 노출경험	- 대마초 흡연비율	
		- 12개월간 싸움을 한 아동비율	11, 13, 15세
		- 2개월간 왕따 당한 아동비율	
주거와 환경	주거	- 가구원 1인당 방수	-
		- 주택문제	
	안전한 환경	- 살인 사건율	-
		- 공해정도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 정도	11, 13, 15세
	인간관계	- 부모의 대화정도	
		- 반친구와의 관계	
	학업만족도	- 학업스트레스	
		- 학교생활 만족도	
	주관적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건강관련 신체증상	

출처: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2018) p.31~32



2. 지표 선정 및 작성 방법

- OECD 지표를 기본으로 지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자료 출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표의 대분류(영역)를 재구성하였으며, UNICEF 지표체계를 통해 영역별 작성 지표를 보완하였다. 그 결과, 시계열 및 시도 세분화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총 6개 영역 25개 지표로 최종 작성 지표를 구성하였다.
- 각 세부 지표의 정의와 연령 범위에 맞게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집계하거나 공표된 KOSIS 지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작성 대상 지표 목록>

영역	지표명	연령	시계열	출처	비고
물질적 상황 (3)	상대적 아동 빈곤율	0-17세	'17~'2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UNICEF
	가구풍요도	12-17세	'20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아동 가구 소득	0-17세	'17~'2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건강과 안전 (7)	영아사망률	0세	'16~'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저체중아 출생 비율	0세	'16~'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아동 예방접종률	1세	'17~'21	질병관리청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신체활동 실천율	12-17세	'16~'21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모유 수유 실천율	0-17세	'18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 사망률	0-17세	'16~'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아동 자살률	0-17세	'16~'2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거와 환경 (3)	1인당 주거 면적	-	'16~'21	통계청 인구총조사	UNICEF
	중요범죄 발생 건수	-	'16~'20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조미세먼지 농도	-	'16~'20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교육 환경 (4)	어린이집·유치원 취학률	3-5세	'16~'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UNICEF
	고등학교 취학률	15-17세	'16~'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학업 스트레스	초·중·고 학년	'15~'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5~19세 고용률	15-19세	'16~'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위험 행동 (4)	15~19세 모(母)의 출산율	15-19세	'16~'2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흡연율	12-17세	'16~'21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음주율	12-17세	'16~'21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따돌림 경험 비율	초·중·고 학년	'16, '18, '20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주관적 웰빙 (4)	학교생활 만족도	13-17세	'12, '14, '16, '18, '20	통계청 사회조사	UNICEF
	삶의 만족도	초·중·고 학년	'17~'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부모와 대화정도	12-17세	'20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주관적 건강 인지	1-17세	'16~'20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 장

분석 결과

제1절 물질적 상황 영역

□ 물질적 상황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생활 수준을 살펴봄으로서, 이들이 물질적 재화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상대적 아동 빈곤율, 가구풍요도, 아동 가구 소득 3가지 지표를 분석한다.

1. 상대적 아동 빈곤율

□ 빈곤율은 물질적 상황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 수준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여기서 빈곤선은 통계청의 연령계층별 소득분배지표를 참고하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0~17세 아동은 대부분 개인 소득이 없지만,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아동빈곤율이 산출된다.

○ 18세 미만 아동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평균값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는 2019년에 603만원으로 가장 크다. 또한 수도권의 소득은 전국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비수도권의 소득은 전국보다 항상 낮게 나타났다.

○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항상 높았지만, 2020년에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9.8%의 빈곤율을 나타냈다.

<18세 미만 아동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평균)>



<아동 빈곤율>





<아동 빈곤율(0-17세)>

(단위: 만원, %)

구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 ¹⁾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 ²⁾ (중위소득50%이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2017년	3,057	3,279	2,831	14.2	12.8	15.6
2018년	3,197	3,415	2,967	12.3	11.3	13.5
2019년	3,407	3,696	3,093	10.6	9.6	11.8
2020년	3,520	3,809	3,220	9.8	9.8	9.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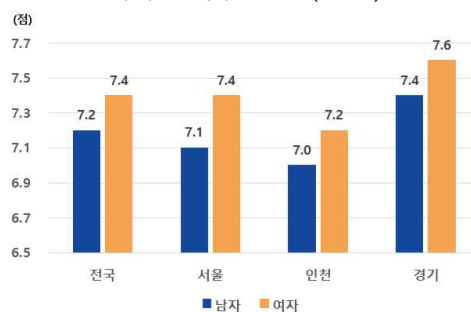
주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주2. 상대적 빈곤율: 전체 인구 중 소득수준이 빈곤선(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가구풍요도

- 가구풍요도는 WHO의 학령기아동 건강행동조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에서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지표로, UNICEF에서는 가족의 자동차 보유여부, 가족여행 횟수, 컴퓨터 보유 대수, 자기 방 소유 여부의 질문을 통해 가구 풍요율을 산출하였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유사 문항이 있다. 2020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자동차 보유 대수, 자기 방 소유 여부, 해외여행 횟수, 컴퓨터 보유 대수, 화장실 개수, 공기청정기 보유 여부를 환산한 점수의 평균으로 ‘가구풍요도’ 지표를 공표하였다.
- 질병관리청에서 공표한 가구풍요도 수치는 지역, 학년, 성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 7점대의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17세 이하 학생들의 수도권 시도별, 학년별, 성별 점수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로 7점대의 점수를 보이지만, 서울 지역의 고3 남학생과 인천 지역의 고3 남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각각 6.8점, 6.9점이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가구풍요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구풍요도('20년)>





<가구풍요도('20년)>

(단위: 점)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7.3	7.2	7.4	7.2	7.1	7.4	7.1	7.0	7.2	7.5	7.4	7.6
중1	7.4	7.3	7.5	7.3	7.2	7.4	7.2	7.0	7.4	7.6	7.5	7.7
중2	7.3	7.2	7.5	7.2	7.1	7.4	7.1	7.1	7.1	7.5	7.5	7.6
중3	7.3	7.2	7.4	7.2	7.0	7.3	7.0	7.1	7.0	7.5	7.5	7.5
고1	7.3	7.2	7.4	7.3	7.1	7.4	7.2	7.1	7.2	7.5	7.4	7.6
고2	7.2	7.1	7.3	7.1	7.0	7.2	7.0	7.0	7.1	7.4	7.2	7.5
고3	7.1	7.0	7.2	7.1	6.8	7.3	7.1	6.9	7.3	7.3	7.3	7.4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http://www.kdca.go.kr/yhs>)

주. 자동차 보유 대수, 학생방 소유 여부, 해외여행 횟수, 컴퓨터 보유 대수, 화장실 개수, 공기청정기 보유 여부를 환산한 점수(0~13점)의 평균

3. 아동 가구 소득

□ OECD 보고서에서는 0-17세 아동의 평균 가족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하였으며, KOSIS에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가구소득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0-17세 아동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의 경상소득을 계산하였다.

- 전체 가구소득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 가구 소득과 전체 가구 소득의 격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가구 소득>





<아동 가구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가구소득(A)			아동가구 소득(B)			차이(B-A)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2017년	5,478	5,921	5,067	6,904	7,333	6,459	1,426	1,412	1,392
2018년	5,705	6,300	5,154	7,310	7,825	6,773	1,605	1,525	1,619
2019년	5,828	6,412	5,286	7,618	8,174	7,026	1,790	1,762	1,740
2020년	5,924	6,483	5,394	8,026	8,670	7,312	2,102	2,187	1,918
2021년	6,125	6,718	5,560	8,320	9,024	7,567	2,195	2,306	2,007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주: 0-17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

제2절 건강과 안전 영역

- 건강과 안전 영역은 아동의 생존 및 발달과 직결되며, 모든 지표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이 직접 분석의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아동 중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역에서는 영아사망률, 저체중아 출생 비율, 예방접종률, 신체활동 실천율, 모유 수유 실천율, 아동 사망률과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1. 영아사망률

- 출생아의 건강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OECD와 UNICEF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수를 해당 연도 1년 동안의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서 1,000분비로 계산하였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공표자료 결과로도 연도별, 생존기간별, 성별 0세 사망률(100,000분비)을 알 수 있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영아사망률은 인천이 서울, 경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남아사망률이 여아사망률보다 높다.
 - 2021년 영아사망률은 서울 1.7명, 인천 2.9명, 경기 2.1명으로, 서울·인천·경기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수도권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명)>



<지역별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명)>



<영아 사망률>

(단위: 명, 출생아 천명당 명)

지역	연도	영아 사망자수			영아 사망률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국	2016	1,154	642	512	2.8	3.1	2.6
	2017	1,000	569	431	2.8	3.1	2.5
	2018	931	534	397	2.8	3.2	2.5
	2019	822	465	357	2.7	3.0	2.4
	2020	674	387	287	2.5	2.8	2.2
	2021	626	347	279	2.4	2.6	2.2
수도권	2016	505	275	230	2.5	2.6	2.3
	2017	450	265	185	2.5	2.9	2.1
	2018	443	254	189	2.7	3.0	2.3
	2019	390	227	163	2.5	2.8	2.2
	2020	315	188	127	2.2	2.6	1.8
	2021	279	157	122	2.0	2.2	1.8
서울	2016	168	88	80	2.2	2.3	2.2
	2017	144	88	56	2.2	2.6	1.8
	2018	126	71	55	2.2	2.4	2.0
	2019	131	76	55	2.4	2.7	2.1
	2020	86	52	34	1.8	2.1	1.5
	2021	76	38	38	1.7	1.6	1.7
인천	2016	70	40	30	3.0	3.3	2.6
	2017	70	38	32	3.4	3.6	3.2
	2018	64	42	22	3.2	4.1	2.2
	2019	54	33	21	2.9	3.4	2.4
	2020	48	32	16	3.0	3.9	2.1
	2021	43	23	20	2.9	3.0	2.7
경기	2016	267	147	120	2.5	2.7	2.3
	2017	236	139	97	2.5	2.9	2.1
	2018	253	141	112	2.9	3.1	2.6
	2019	205	118	87	2.5	2.8	2.2
	2020	181	104	77	2.3	2.6	2.0
	2021	160	96	64	2.1	2.5	1.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영아 사망자수, 시도별 출생아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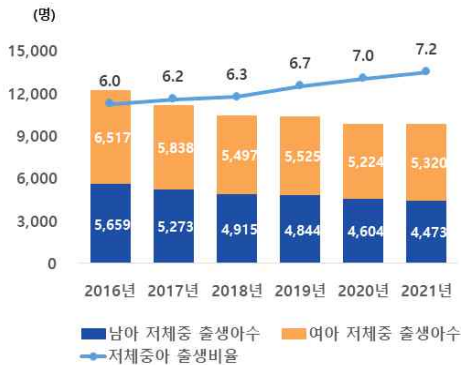
주.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수를 해당연도 1년 동안의 총 출생아수로 나눈 비율(1,000분비)

2. 저체중아 출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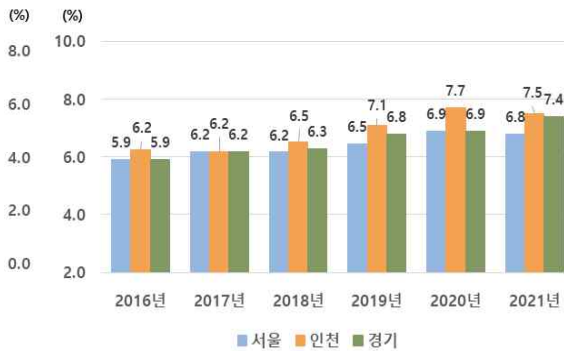
□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출생아 건강 두 번째 지표로서, 총 출생아 중 저체중(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출생 비율로 계산된다.

- 수도권 전체적으로 저체중아 출생비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저체중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총 출생아 수 감소폭이 더 커짐에 따라 저체중아 출생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 저체중아 출생 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인천이 서울, 경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저체중아 출생아 수 및 출생 비율>



<지역별 저체중아 출생 비율>



<저체중아 출생 비율>

(단위: %)

시도	성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전체	5.9	6.2	6.2	6.6	6.8	7.2
	남아	5.4	5.7	5.7	6.0	6.2	6.5
	여아	6.4	6.7	6.8	7.3	7.3	7.9
수도권	전체	6.0	6.2	6.3	6.7	7.0	7.2
	남아	5.4	5.7	5.8	6.1	6.4	6.4
	여아	6.5	6.7	6.9	7.4	7.6	8.0
서울	전체	5.9	6.2	6.2	6.5	6.9	6.8
	남아	5.3	5.8	5.7	5.9	6.3	6.0
	여아	6.6	6.6	6.9	7.2	7.5	7.6
인천	전체	6.2	6.2	6.5	7.1	7.7	7.5
	남아	5.5	5.6	6.1	6.7	7.2	6.9
	여아	7.0	6.8	6.9	7.5	8.3	8.2
경기	전체	5.9	6.2	6.3	6.8	6.9	7.4
	남아	5.5	5.7	5.8	6.1	6.3	6.6
	여아	6.4	6.8	6.9	7.5	7.6	8.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체중별 출생아 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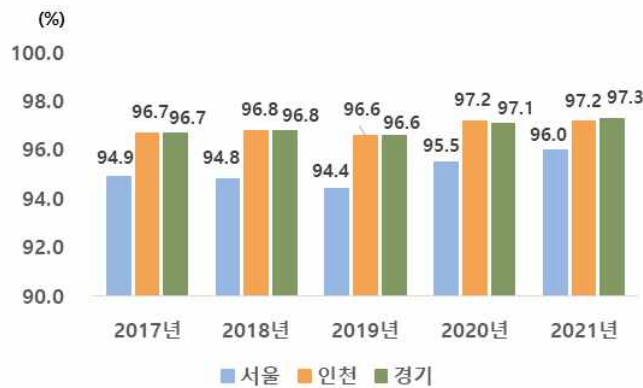
주.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생 비율(체중미상 제외)



3. 아동 예방접종률

- OECD 아동 데이터 포털에서는 해당 연도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혼합 백신을 3회 접종한 1세 아동의 비율을 아동 예방접종률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별, 지역별, 연령별 접종률을 공표하고 있으며, 그 중 만 1세 아동의 지역별 완전접종률을 살펴보았다. 완전접종률이란 예방접종 대상자 중 ‘예방접종 실기기준 및 방법’에 따라, 연령별(생후 12개월, 생후 24개월, 생후 36개월, 생후 72개월)로 모든 예방접종 백신의 권장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만 1세(생후 12개월)의 예방접종률은 결핵(BCG) 1회, B형간염(HepB) 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3회, 폴리오(IPV) 3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3회, 폐렴구균(PCV) 3회를 모두 완료한 아동의 비율이다.
- 수도권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대체적으로 95% 이상으로 높은 완전접종률을 보이지만, 서울 지역이 인천, 경기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며 2019년에 94.4%로 가장 낮았다.

<만 1세 완전접종률>



<만1세 완전접종률>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계	96.6	96.8	96.5	97.1	97.2
	남자	96.6	96.8	96.4	97.1	97.2
	여자	96.6	96.8	96.5	97.1	97.3
서울	계	94.9	94.8	94.4	95.5	96.0
	남자	94.8	94.7	94.4	95.4	95.9
	여자	94.9	95.0	94.5	95.5	96.2
인천	계	96.7	96.8	96.6	97.2	97.2
	남자	96.7	96.7	96.7	97.2	97.3
	여자	96.8	96.9	96.6	97.2	97.1
경기	계	96.7	96.8	96.6	97.1	97.3
	남자	96.7	96.9	96.6	97.1	97.2
	여자	96.7	96.8	96.5	97.1	97.3

자료: 질병관리청,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현황」, KOSIS

4. 신체활동 실천율

□ 해외 지표에서 정의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매일 적어도 한 시간씩 중간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이다. HBSC(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와 WHO의 신체활동 관련 권장 사항 역시 이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로는 “하루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과 “하루 6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지표 정의에 따라, ‘평상시보다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 60분 이상 한 날’이 주 5일 이상인 비율과 주 7일인 비율을 지역별 성별로 집계하였다.

- 수도권 학생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 5일 이상 및 주 7일 신체활동을 한 비율은 2021년 수도권 기준 각각 14.4%, 5.4%로, 매일(주 7일) 신체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7일 신체활동 실천율을 수도권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2017년 이전에는 가장 낮았지만 2018년부터 서울, 경기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2019년 인천은 6.8%로 수도권 평균치보다 높은 신체활동 실천율을 보였으며, 2019년 이후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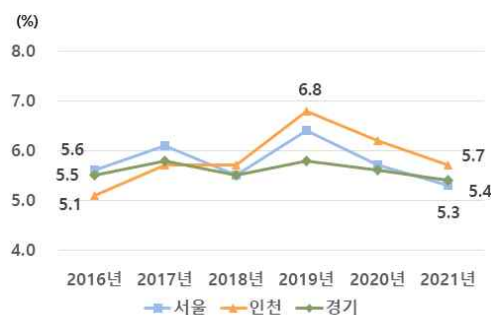
<수도권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수도권 주 7일 신체활동 실천율(%)>



<주 7일 신체활동 실천율(지역별)>





<12-17세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지역	연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주 7일 신체활동 실천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016	13.4	19.1	7.1	5.2	7.9	2.3
	2017	14.0	19.9	7.6	5.8	8.6	2.8
	2018	14.1	20.6	7.2	5.5	8.4	2.4
	2019	15.0	21.9	7.5	6.2	9.6	2.5
	2020	14.3	20.3	8.0	6.0	8.9	3.0
	2021	15.1	21.3	8.5	5.7	8.5	2.7
수도권	2016	13.5	19.6	7.0	5.5	8.4	2.3
	2017	13.8	19.7	7.4	5.9	8.7	2.9
	2018	14.0	20.7	6.8	5.6	8.7	2.2
	2019	14.8	21.9	7.2	6.1	9.4	2.6
	2020	13.7	19.1	7.9	5.7	8.3	3.0
	2021	14.4	20.6	8.0	5.4	8.1	2.6
서울	2016	14.0	21.0	6.5	5.6	8.9	2.2
	2017	14.1	20.3	7.5	6.1	9.1	2.9
	2018	14.0	20.6	7.0	5.5	8.6	2.3
	2019	15.3	23.0	7.4	6.4	10.1	2.5
	2020	13.5	18.4	8.3	5.7	8.2	3.0
	2021	14.4	20.7	7.9	5.3	7.9	2.5
인천	2016	12.3	17.8	6.4	5.1	7.9	2.0
	2017	13.9	19.2	8.2	5.7	8.1	3.2
	2018	14.3	20.4	7.8	5.7	8.3	3.0
	2019	15.7	21.9	9.2	6.8	9.5	3.9
	2020	15.3	22.3	7.8	6.2	9.1	3.1
	2021	14.5	20.1	8.6	5.7	8.9	2.3
경기	2016	13.5	19.0	7.5	5.5	8.3	2.4
	2017	13.5	19.4	7.2	5.8	8.6	2.8
	2018	13.9	20.9	6.4	5.5	8.9	2.0
	2019	14.2	21.3	6.7	5.8	9.0	2.4
	2020	13.4	18.9	7.8	5.6	8.1	3.0
	2021	14.4	20.6	7.9	5.4	8.1	2.6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http://www.kdca.go.kr/y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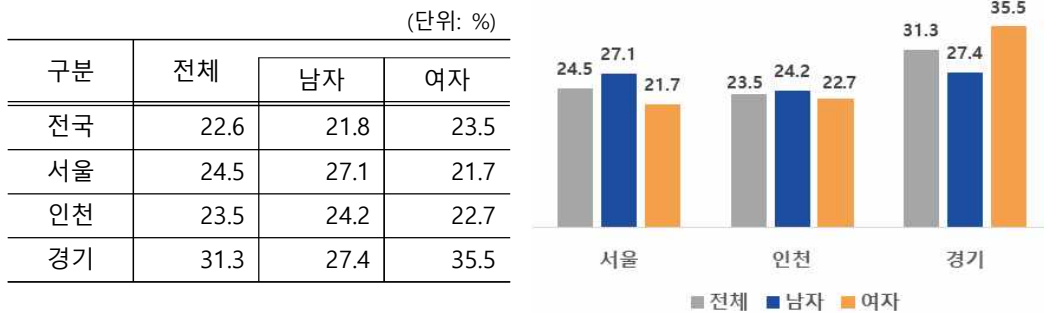
주. 평상시보다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 60분 이상 한 날이 주 5일 이상인 비율과 주 7일인 비율



5. 모유 수유 실천율

- 모유 수유 실천율은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응답 문항을 활용하였다. 아동 종합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 조사자료로 집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모유 수유 여부 질문에 대해 ‘모유만 먹었다’ (완전모유), ‘분유만 먹었다’, ‘모유와 분유를 섞여 먹었다’, ‘모름’ 으로 구분하여 전국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모유 실천율의 지역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 2018년 모유 수유 실천율은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높았고, 서울과 인천은 남아의 모유 수유 실천율이 더 높았으나 경기는 여아의 모유 수유 실천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모유 수유 실천율('18_완전모유)>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http://www.mohw.go.kr_정보_연구/조사/발간자료) 및 마이크로데이터

6. 아동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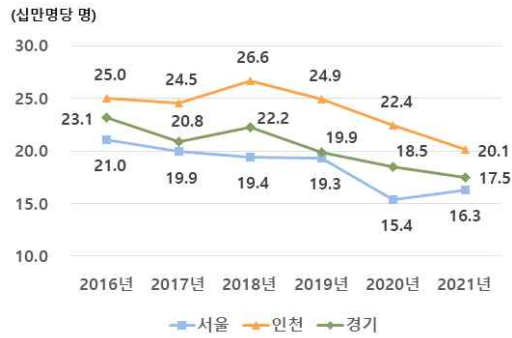
- OECD는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지표로서 0~19세의 아동 사망률과 자살률을 함께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연령범위에 맞게 0~17세 인구 십만명당 사망자 수로 아동 사망률을 계산했다.
- 수도권 전체 남녀 아동사망률을 보면, 남자 아동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으며, 2018년 이후 수도권 전체적으로 아동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 사망률은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0-17세 남녀 아동 사망률>



<지역별 0-17세 아동 사망률>



<아동 사망자 수 및 사망률(0-17세)>

(단위: 명, 십만명당 명)

지역	연도	아동 사망자 수			아동 사망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016	2,161	1,253	908	24.5	27.4	21.3
	2017	1,981	1,164	817	23.0	26.2	19.7
	2018	1,850	1,045	805	22.2	24.4	20.0
	2019	1,710	983	727	21.3	23.7	18.6
	2020	1,505	885	620	19.3	22.0	16.4
	2021	1,411	811	600	18.6	20.8	16.3
수도권	2016	991	573	418	22.6	25.4	19.7
	2017	893	528	365	21.0	24.1	17.6
	2018	901	502	399	21.8	23.6	19.9
	2019	813	467	346	20.3	22.7	17.8
	2020	700	411	289	17.9	20.5	15.2
	2021	662	387	275	17.4	19.8	14.8
서울	2016	314	180	134	21.0	23.4	18.5
	2017	285	172	113	19.9	23.3	16.3
	2018	265	152	113	19.4	21.7	17.1
	2019	251	144	107	19.3	21.5	16.9
	2020	192	110	82	15.4	17.1	13.5
	2021	195	116	79	16.3	18.8	13.6
인천	2016	128	80	48	25.0	30.4	19.3
	2017	122	69	53	24.5	27.0	21.9
	2018	128	74	54	26.6	30.0	23.1
	2019	116	66	50	24.9	27.6	22.1
	2020	101	61	40	22.4	26.4	18.3
	2021	88	46	42	20.1	20.5	19.7
경기	2016	549	313	236	23.1	25.6	20.5
	2017	486	287	199	20.8	23.9	17.6
	2018	508	276	232	22.2	23.5	20.9
	2019	446	257	189	19.9	22.3	17.3
	2020	407	240	167	18.5	21.2	15.6
	2021	379	225	154	17.5	20.3	14.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세별 시도별 사망자 수 및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

주: 0-17세 사망자수 / 0-17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7. 아동 자살률

□ 아동 자살률은 사망률과 마찬가지로 0~17세 인구 십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로 계산하여 시도별 성별로 비교하였다.

- 수도권 아동의 자살률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2020년에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가폭이 2.3명으로 가장 높다.



<아동 자살 사망자 수 및 자살률(0-17세)>

(단위: 명, 십만명당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망자 수	자살률	사망자 수	자살률	사망자 수	자살률	사망자 수	자살률	사망자 수	자살률
전국	133	1.5	138	1.6	171	2.1	170	2.1	192	2.5
수도권	66	1.5	70	1.6	96	2.3	87	2.2	98	2.5
서울	27	1.8	28	2.0	30	2.2	27	2.1	30	2.4
인천	8	1.6	6	1.2	15	3.1	6	1.3	16	3.6
경기	31	1.3	36	1.5	51	2.2	54	2.4	52	2.4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0-17세) 자료 및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세별 시도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

주. 0-17세 자살 사망자 수 / 0-17세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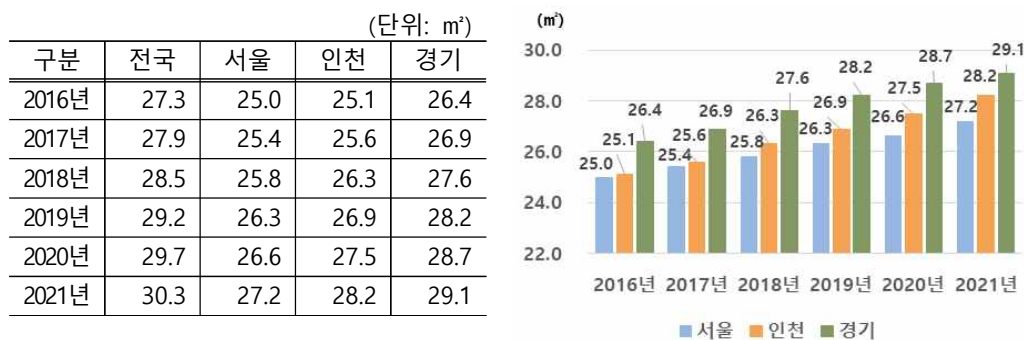
제3절 주거와 환경 영역

- 주거와 환경 영역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가족의 생활 조건을 살펴보는 영역이다. 그들을 둘러싼 생태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측면과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1인당 주거면적, 중요범죄 발생 건수, 초미세먼지 농도 3가지 지표를 살펴보았다.

1. 1인당 주거면적

- OECD의 주거와 환경 지표에서는 ‘과밀주거’ (집에 거주하는 사람 수가 방의 개수를 초과할 때)를 측정하고, UNICEF는 ‘가구원 1인당 방 수’를 측정한다. ‘과밀주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집계할 수 있는 국내 데이터가 없고, 인구총조사 결과 중 ‘1인당 평균 사용방수’ 자료가 있으나, 시도간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유사지표로서 인구총조사 결과로 KOSIS에 공표되고 있는 1인당 주거면적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항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주거 면적>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2. 중요범죄 발생 건수

- OECD의 주거 환경 영역의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e-지방지표 안전 영역에서 생활 안전성(치안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활용되는 중요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 보았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요범죄는 강력, 절도, 폭력, 기타범죄를 말하며, 그 중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이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 수도권의 총 중요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전국 발생 건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높다. 수도권 내에서 총 중요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 경기 순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중요범죄 발생건수>



<중요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



<시도별 중요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

지역	연도	총 범죄 건수	강력범죄 건수	강력범죄 비중
전국	2016	1,849,450	25,765	1.4
	2017	1,662,341	27,274	1.6
	2018	1,580,751	26,787	1.7
	2019	1,611,906	26,476	1.6
	2020	1,587,866	24,332	1.5
수도권	2016	919,839	14,397	1.6
	2017	828,644	15,355	1.9
	2018	784,326	14,564	1.9
	2019	794,153	14,528	1.8
	2020	778,547	13,306	1.7
서울	2016	343,104	6,698	2.0
	2017	320,193	7,499	2.3
	2018	308,997	6,991	2.3
	2019	309,269	6,993	2.3
	2020	296,178	6,265	2.1
인천	2016	100,387	1,814	1.8
	2017	91,385	1,883	2.1
	2018	86,391	1,745	2.0
	2019	90,608	1,755	1.9
	2020	88,143	1,523	1.7
경기	2016	476,348	5,885	1.2
	2017	417,066	5,973	1.4
	2018	388,938	5,828	1.5
	2019	394,276	5,780	1.5
	2020	394,226	5,518	1.4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KOSIS

주1. 주민등록인구 기준 천 명당 건수

주2. 총 범죄 건수: 중요범죄(강력, 절도, 폭력, 기타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죄: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3. 초미세먼지 농도

- OECD는 환경적 웰빙 측정을 위해 주변 소음이나 공해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하였으며, UNICEF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자료를 참고하여, 시도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 자료를 인용하였다.
-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 인천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2020년도에 들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주. 연평균 미세먼지(PM2.5)의 농도



제4절 교육 환경 영역

- 아동·청소년 시기의 교육적 환경은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교육 환경 영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고등학교 취학률, 학업 스트레스, 청소년 고용 지표를 살펴보았다.

1. 어린이집·유치원 취학률

- UNICEF는 교육적 웰빙 측정을 위해 영유아 교육 참여율을 4세부터 7세 사이의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한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분석 보고서의 취학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통계분석 보고서에서는 취학률을 취학적령 인구 중 취학적령 학생 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유치원은 만 3~5세를 취학적령인구로 보고, 이 중 유치원에 등록한 학생의 비율을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의 취학률을 시도별로 집계하였다.
-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취학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어린이집·유치원 취학률(3-5세)>





<어린이집·유치원 취학률(3-5세)>

(단위: %)

지역	연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6	90.6	90.7	90.6
	2017	91.7	91.6	91.9
	2018	91.5	91.4	91.6
	2019	90.9	90.8	90.9
	2020	90.4	90.4	90.4
	2021	92.1	92.0	92.1
수도권	2016	87.3	87.2	87.4
	2017	88.8	88.5	89.1
	2018	88.6	88.4	88.8
	2019	88.0	87.9	88.1
	2020	87.0	87.0	87.0
	2021	88.6	88.7	88.5
서울	2016	81.0	80.9	81.2
	2017	82.7	82.4	83.1
	2018	82.5	82.2	82.8
	2019	81.7	81.4	82.1
	2020	80.7	80.7	80.7
	2021	81.7	81.8	81.5
인천	2016	90.8	90.6	91.0
	2017	92.5	92.2	92.8
	2018	92.1	91.7	92.4
	2019	91.7	91.8	91.6
	2020	91.4	91.4	91.4
	2021	94.0	93.5	94.4
경기	2016	90.3	90.2	90.4
	2017	91.6	91.4	91.8
	2018	91.4	91.2	91.6
	2019	90.8	90.8	90.8
	2020	89.6	89.6	89.7
	2021	91.3	91.5	91.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pp.59~62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연령별 학생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KOSIS

주1.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수/취학적령인구) × 100

주2. 어린이집·유치원 취학적령: 만 3~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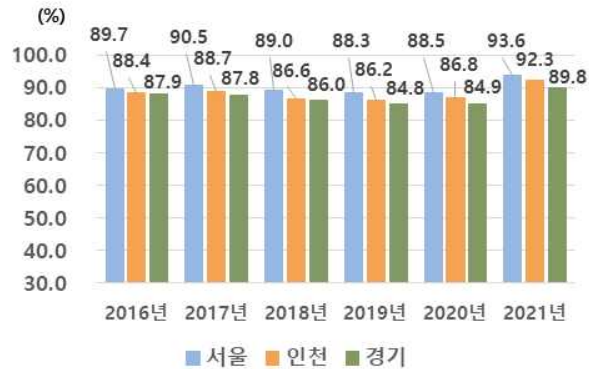
2. 고등학교 취학률

□ UNICEF는 15~19세 교육참여율을 15~19세 청소년이 학교에 등록한 비율로 정의하였고, 우리나라 유사 지표로 만 15~17세를 고등학교 취학적령인구로 본 고등학교 취학률을 시도별로 집계하였다.

- 수도권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취학률이 인천과 경기도에 비해 낮았지만, 고등학교 취학률은 인천, 경기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고등학교 취학률(15-17세)>



<고등학교 취학률(15-17세)>

(단위: %)

지역	연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2016	90.0	89.8	90.3
	2017	90.3	90.2	90.4
	2018	88.7	89.0	88.5
	2019	87.9	88.1	87.7
	2020	88.1	88.4	87.7
	2021	93.0	93.3	92.6
수도권	2016	88.6	88.1	89.2
	2017	88.9	88.4	89.3
	2018	87.1	87.0	87.1
	2019	86.2	86.1	86.3
	2020	86.3	86.2	86.4
	2021	91.4	91.3	91.4
서울	2016	89.7	88.7	90.8
	2017	90.5	89.6	91.5
	2018	89.0	88.7	89.4
	2019	88.3	87.7	89.1
	2020	88.5	87.8	89.3
	2021	93.6	93.1	94.2
인천	2016	88.4	88.5	88.2
	2017	88.7	89.0	88.4
	2018	86.6	87.0	86.1
	2019	86.2	86.4	86.0
	2020	86.8	87.2	86.4
	2021	92.3	92.7	91.8
경기	2016	87.9	87.6	88.3
	2017	87.8	87.6	88.0
	2018	86.0	86.0	85.9
	2019	84.8	85.0	84.6
	2020	84.9	85.1	84.7
	2021	89.8	90.0	89.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pp.59~62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연령별 학생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KOSIS
 주1.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수/취학적령인구) × 100
 주2. 고등학교 취학적령: 만 15~17세



3. 학업 스트레스

- UNICEF는 학업에 압박을 느끼는 11, 13, 15세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웰빙 상태를 파악하였다. 학업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는 아동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료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2018년까지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 문항에 ‘학업 문제’를 응답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지만, 2019년부터 해당 문항이 삭제됨에 따라,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유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행복한 정도” 문항에 ‘행복하지 않다’로 응답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학업 부담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계하였다.
- 학업 부담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학생들은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인천은 2015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서울 역시 2016년 이후로는 계속 증가하였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_학업 부담>

(단위: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도	전국	31.0	30.9	42.9	44.5	41.7
	서울	35.5	28.5	44.2	45.1	47.2
	인천	30.1	33.3	35.9	43.4	45.7
	경기	31.7	29.8	43.3	47.5	38.1
성별	남자	35.3	32.0	43.2	51.3	44.6
	여자	26.1	29.7	42.6	40.0	39.4
학교급	초등학교	28.7	30.7	40.9	44.1	38.3
	중학교	33.8	30.1	36.5	36.2	39.2
	고등학교	30.3	31.3	47.0	49.4	45.2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https://www.nypi.re.kr/archive/m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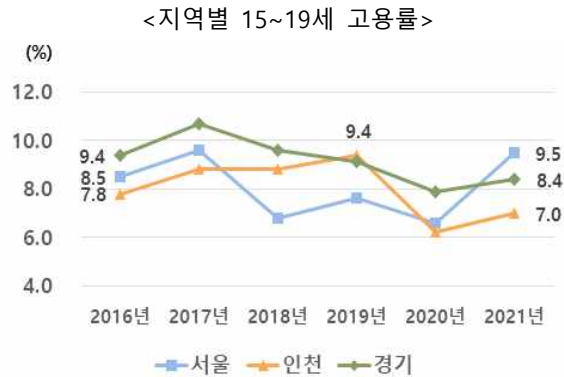
주: '행복한 정도' 문항에 '행복하지 않다'로 응답한 경우만 대상임.

4. 15~19세 고용률

- OECD와 UNICEF는 교육적 웰빙 지표 중 하나로 15~19세 NEET 아동 비율을 측정하였다.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한다.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청년 니트의 개념과 측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년 니트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기 때문에, 유사지표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로 공표된 15~19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 지역이 대체적으로 높은 청소년 고용률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인천이 9.4%, 2021년에는 서울이 9.5%로 경기보다 높았다. 또한 경기는 2017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하다가 2021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서울은 2021년에 전년대비 2.9%p 증가하여 인천, 경기도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였다.



<15~19세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국	서울	인천	경기
2016년	8.8	9.3	9.6	10.6	8.0	8.5	7.8	9.4
2017년	9.2	10.3	10.2	11.7	8.4	9.6	8.8	10.7
2018년	8.2	7.7	9.6	10.4	7.4	6.8	8.8	9.6
2019년	8.3	8.3	10.4	9.9	7.6	7.6	9.4	9.1
2020년	7.2	7.2	6.7	8.7	6.6	6.6	6.2	7.9
2021년	8.1	10.1	7.5	9.2	7.4	9.5	7.0	8.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주1. (경제활동참가율) 15~19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주2. (고용률) 15~19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제5절 위험 행동 영역

- 아동·청소년이 흡연, 음주, 폭력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체·작정·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영역에서는, 15~19세 모(母)의 출산율, 흡연 및 음주율, 따돌림 피해 경험 지표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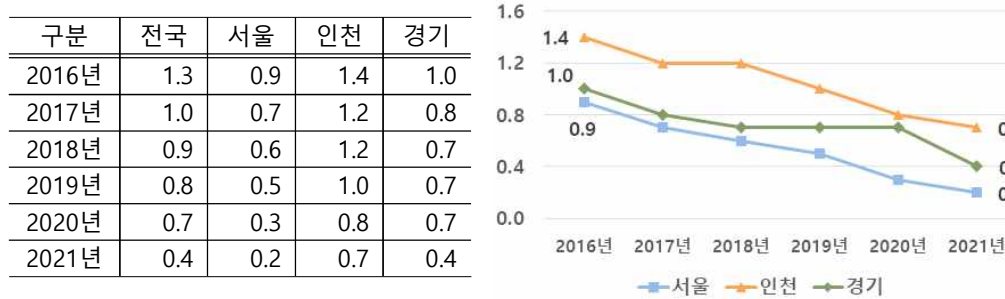
1. 15~19세 모(母)의 출산율

- OECD는 위험행동 측정 지표의 일부로 10대 출산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여, KOSIS 모의 연령별 출산율 결과표에 동일한 자료가 있어 이를 인용하였다.



- 수도권 전체적으로 15~19세 모의 출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서울과 인천은 2016년 대비 2021년에 0.7명 감소하였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0.7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2021년에 전년대비 0.3명 감소로, 서울과 인천에 비해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5~19세 모(母)의 출산율(천명당 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모의 연령별 출산율,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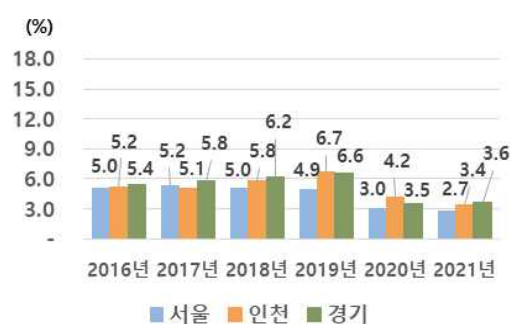
2. 흡연율

- OECD와 UNICEF는 위험행동 영역 측정을 위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동 자신에게서 직접 응답이 도출될 수 있는 지표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위험행동 영역의 필수 지표로 보고 있다. 흡연율은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공표하는 지표 정의에 따랐다.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 수도권 전체적으로 12~17세 흡연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2020년에 기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인천 경기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 12~17세 남녀 흡연율>



<지역별 12~17세 흡연율>





<12~ 17세 청소년 흡연율>

(단위: %)

지역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016	5.6	8.6	2.3
	2017	5.7	8.4	2.7
	2018	5.9	8.2	3.4
	2019	6.1	8.4	3.6
	2020	3.8	5.1	2.4
	2021	3.8	4.9	2.5
수도권	2016	5.2	7.8	2.5
	2017	5.5	8.0	2.9
	2018	5.8	7.8	3.6
	2019	6.0	8.1	3.9
	2020	3.4	4.5	2.3
	2021	3.3	4.3	2.3
서울	2016	5.0	7.6	2.3
	2017	5.2	7.5	2.8
	2018	5.0	6.8	3.0
	2019	4.9	6.9	2.9
	2020	3.0	3.7	2.2
	2021	2.7	3.5	1.9
인천	2016	5.2	8.1	1.9
	2017	5.1	7.5	2.6
	2018	5.8	8.3	3.2
	2019	6.7	9.3	3.8
	2020	4.2	6.6	1.6
	2021	3.4	4.4	2.4
경기	2016	5.4	7.9	2.8
	2017	5.8	8.4	3.1
	2018	6.2	8.3	4.1
	2019	6.6	8.6	4.4
	2020	3.5	4.5	2.5
	2021	3.6	4.7	2.5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http://www.kdca.go.kr/yhs>)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굴련)를 흡연한 사람의 비율

3.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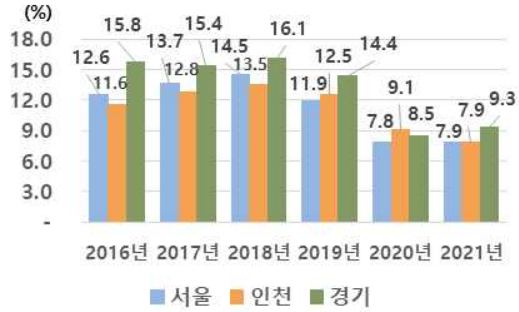
- 음주율은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공표하는 지표 정의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 수도권 전체적으로 12~17세 음주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음주율 역시 2020년에 다소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음주율이 서울과 인천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12~17세 남녀 음주율>



<지역별 12~17세 음주율>



<12~ 17세 청소년 음주율>

(단위: %)

지역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016	13.8	15.8	11.6
	2017	14.8	16.8	12.7
	2018	15.5	17.0	13.9
	2019	13.9	15.4	12.2
	2020	9.2	10.4	8.0
	2021	9.4	10.8	7.8
수도권	2016	13.4	15.4	11.1
	2017	14.5	15.9	12.9
	2018	15.3	16.6	13.9
	2019	13.4	14.7	11.9
	2020	8.4	9.4	7.3
	2021	8.7	10.1	7.2
서울	2016	12.6	14.7	10.4
	2017	13.7	15.4	11.8
	2018	14.5	16.1	12.8
	2019	11.9	13.5	10.1
	2020	7.8	8.9	6.7
	2021	7.9	9.7	5.9
인천	2016	11.6	13.4	9.5
	2017	12.8	14.8	10.6
	2018	13.5	13.6	13.3
	2019	12.5	14.5	10.4
	2020	9.1	10.9	7.1
	2021	7.9	8.7	7.1
경기	2016	15.8	18.2	13.1
	2017	15.4	16.5	14.2
	2018	16.1	17.5	14.7
	2019	14.4	15.5	13.4
	2020	8.5	9.3	7.7
	2021	9.3	10.6	7.9

자료: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http://www.kdca.go.kr/yhs>)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4. 따돌림 경험 비율

- 해외 아동지표는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폭력 노출 경험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2년 주기)에서, 최근 1년간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인 있는지와 피해 종류(육설, 물리적 폭력, 따돌림 등)에 대해 묻고 있다. 그 중 따돌림 피해 경험 비율을 인용하였다.
- 서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따돌림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고, 경기도는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2016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0.7%p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따돌림 경험 비율이 낮아졌다.

<따돌림 피해 경험 비율(%)>

구분		2016년	2018년	2020년
시도	전국	1.6	1.6	1.3
	서울	1.4	1.5	1.6
	인천	1.2	1.7	1.4
	경기	2.0	1.4	1.3
성별	남자	1.7	1.2	0.9
	여자	1.6	1.9	1.8
학교급	초등학교	2.6	2.7	2.3
	중학교	1.4	1.3	1.2
	고등학교	1.1	0.9	0.6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KOSIS

주. 응답 기준 기간은 최근 1년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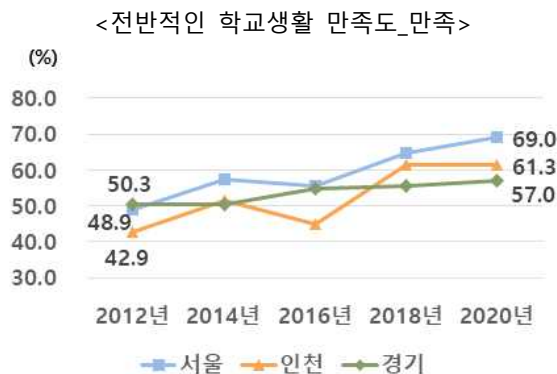


제6절 주관적 웰빙 영역

□ 주관적 웰빙 영역은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활 전반이나 그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스스로 인식하거나 느끼는 것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이다.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부모와의 대화 정도, 주관적 건강 인지 등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1. 학교생활 만족도

- 해외의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에서는,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 ‘좋아함’에 응답한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이와 유사한 지표로, 통계청 사회조사 문항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을 집계하였다. 사회조사의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은 중고등학생(만 13~18세)을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를 시도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13~17세에 대해 새롭게 재집계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대표준오차를 구하기 위한 층화변수와 집락변수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단순임의추출로 추정된 분산에 설계효과(design effect)를 곱한 값을 활용하여 대략적인 오차를 산출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회조사 집락내 상관계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과 2020년도 결과값에 대해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해본 결과, 모두 25% 미만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이전연도 자료들의 집락내 상관계수와 설계효과 자료 확보를 통해 신뢰도를 점검하거나, 통계청 관련 부서에 지표작성 연령대만의 RSE를 요청·확인할 필요가 있다.
-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가장 증가폭이 크며, 2014년 이후로는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13-17세)>

(단위: %)

구분	전반적인 학교생활_매우 만족+약간 만족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012년	47.3	48.9	48.9	42.9	50.3
2014년	50.4	53.0	57.4	51.4	50.4
2016년	54.0	53.9	55.5	45.1	54.8
2018년	58.6	59.6	64.9	61.3	55.7
2020년	60.0	61.1	69.0	61.3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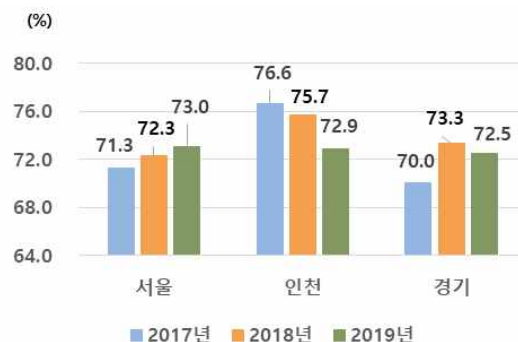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주.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

2. 삶의 만족도

- UNICEF에서는 주관적 웰빙 측정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 만족도 척도 중간 이상의 점수를 가진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자료 중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삶의 만족도 문항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조사는 5년 주기이며, 현재 가장 최신 자료가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2017년부터 삶의 만족도에 대해 11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이 중, 만족도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원자료가 2019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집계하였다.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지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인천 지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남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_중간 이상(초·중·고)>





<삶의 만족도_중간 이상>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시도	전국	72.0	73.3	73.3
	수도권	71.2	73.2	72.7
	서울	71.3	72.3	73.0
	인천	76.6	75.7	72.9
	경기	70.0	73.3	72.5
성별	남자	77.6	79.6	78.9
	여자	66.0	66.4	67.2
학교급	초등학교	82.4	84.2	82.5
	중학교	72.3	74.2	71.3
	고등학교	64.1	63.8	66.8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 (<https://www.nypi.re.kr/archive/mps>)

주: '0. 낮음'~'10. 높음'의 11점 척도 중 6~10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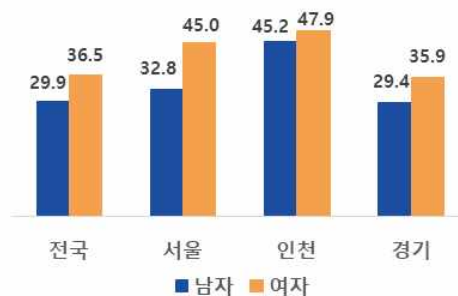
3. 부모와 대화정도

- UNICEF는 아동의 관계적 측면, 특히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주관적 웰빙 측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모님과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자료는,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문항 중 청소년 자녀의 부모님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모님과 대화 정도를 묻는 항목이 있다.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아버지, 어머니와 충분히 대화한다”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12~17세 청소년의 비율을 집계하였다.
-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에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는 서울, 인천, 경기 중 인천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





<부모와 충분히 대화하는 정도('20)>

(단위: %)

구분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국	18.4	19.3	17.5	33.0	29.9	36.5
서울	19.1	19.7	18.3	38.4	32.8	45.0
인천	35.7	35.7	35.6	46.5	45.2	47.9
경기	18.6	21.4	15.2	32.4	29.4	35.9

자료: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주. 12~17세 청소년 중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한다'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4. 주관적 건강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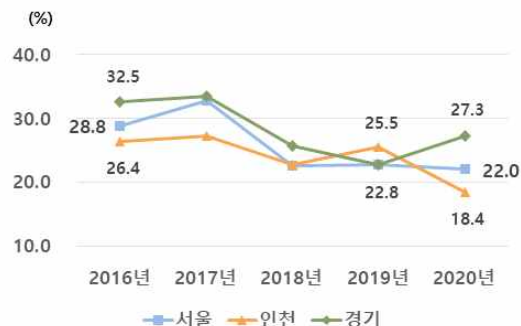
□ 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이 보통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주관적인 건강 지표로 본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소아 청소년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표 정의에 따라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 또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응답한 비율을 시도별로 집계해보았다.

- 전국과 수도권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수도권은 전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폭은 각각 서울이 6.8%p, 인천이 8%p, 경기가 5.2%p 이다. 특히 2020년에 인천은 전년 대비 7.1%p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경기는 4.5%p 증가하였다.

<수도권 주관적 건강 인지율(1-17세)>



<지역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1-17세)>





<1-17세 주관적 건강 인지율>

(단위: %)

지역	연도	보통 또는 나쁨 응답 비율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016	31.0	31.6	30.4
	2017	32.8	31.5	34.2
	2018	26.9	27.1	26.7
	2019	27.1	24.7	29.6
	2020	26.6	27.0	26.1
수도권	2016	30.5	30.2	30.9
	2017	32.5	30.1	35.0
	2018	24.3	27.1	21.2
	2019	23.1	22.6	23.6
	2020	24.6	24.3	25.0
서울	2016	28.8	24.2	33.3
	2017	32.8	30.5	35.3
	2018	22.6	26.6	18.1
	2019	22.8	26.1	19.6
	2020	22.0	29.1	14.5
인천	2016	26.4	31.4	20.9
	2017	27.2	27.1	27.3
	2018	22.8	19.3	26.7
	2019	25.5	20.9	30.6
	2020	18.4	16.3	20.8
경기	2016	32.5	33.4	31.6
	2017	33.4	30.6	36.4
	2018	25.7	29.0	21.9
	2019	22.8	21.0	24.6
	2020	27.3	23.4	31.5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http://knhanes.kdca.go.kr>)

주.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보통' 또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제 4 장

웰빙 영역별 비교

- 해외 보고서에서는 각 세부지표별로 국가별 비교 분석 뿐만 아니라,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각 영역별 비교를 위해 각 지표값을 표준화된 분포로 변환하여 순위를 매긴 후 국가별 순위표를 만들었다. 산출된 국가별 순위를 바탕으로 각 영역의 아동 웰빙 현황에 대해 어느 국가들이 상위 또는 하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앞서 6개 영역 25개 지표 작성 항목의 각 세부지표 내에서 수도권 지역별, 성별 등으로 비교해 보았다면, 각 지표를 종합한 6개 영역에 대한 지역별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각 영역 내 개별 지표들을 종합하여 비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각 지표들의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같은 범위 내의 값으로 통일시켜주어야 했다. 이를 위한 표준화 방법 중, 최소-최대 정규화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지표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였다.¹⁾ 이 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에 대한 자료가 아닌, 전국 17개 시도 자료를 바탕으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물질적 상황 영역 내 아동 빈곤율과 아동가구 소득 지표는 시도별 자료를 집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 상황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에 대해서만 비교하였다.
 -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범위를 통일시켜준 후에는, 각 지표들이 아동·청소년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주어야 했다. 예를 들어, 사망률 또는 스트레스와 같은 지표들은 아동·청소년의 웰빙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며, 신체활동 실천이나 만족도 같은 지표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는 지표들의 경우 표준화된 값을 최댓값 1에서 뺀 값으로 변환하였다.²⁾
 - 각 영역 내 수도권 지역 비교를 위해 최종적으로 표준화된 개별 지표값들을 각 영역 내에서 시도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영역 내 지표들은 동일한 가중치³⁾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했다.

1) 참고: 「행복지수의 개발」통계개발원, 2007) pp.52-58,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70」

2)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방향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지의 여부는 「지표 작성 방법론(통계개발원, 2019) p.96」에 수록된 지표체계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보고서(한국방정환재단, 2021) p.30」를 참고하였음

3) 참고: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보고서(한국방정환재단, 2021) p.30」



□ 위 방법에 따라 2020년 결과값들로 산출한 수도권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모든 영역에 있어서, 1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고 0에 가까울수록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수도권 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경기 지역이 가장 긍정적이며, 인천 지역이 가장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 행동 영역에서는 서울 지역이 가장 긍정적이고, 인천 지역이 가장 부정적이다. 인천은 건강과 안전 영역, 위험 행동 영역에서는 가장 약점을 보이지만, 그 외 주거와 환경, 교육,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가장 강점을 보인다. 서울 지역은 주거와 환경 영역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 영역별 상대적 비교('20년)>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에 따라, 해외 아동 웰빙 지표를 적용하여 국내 수도권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통계개발원의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보고서를 참고하여, OECD와 UNICEF의 아동 웰빙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국내 유사 지표들과 데이터 보유 여부, 해외 지표와 국내 지표 정의의 차이, 원자료 확보 가능성, 시계열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지표 작성 항목을 구성하였다. 작성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0~17세로 정하고,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집계하거나 KOSIS 지표를 인용하여 세부 지표를 작성·분석하였다. 또한, 세부지표를 종합한 영역별 현황 파악을 위해, 지표값을 표준화하고 영역 내 평균값을 산출하여 시도별로 비교하였다. 그러나, 해외 지표와 국내 지표 작성 항목의 각각의 정의와 데이터가 다르며,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보고서와 수도권 내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표 작성 및 비교·분석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각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국내 데이터 부족으로 작성하지 못한 지표들도 있고, 시도별 작성이 불가하거나, 0~17세 연령 범위가 아닌 항목들도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교육적 웰빙 영역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지만, 같은 지표를 작성할 수 있는 국내 지역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표마다 각각 다른 조사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주기 또는 원데이터 확보 불가 등의 문제로 시계열 비교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지표는 만 6~17세 연령범위를 포괄하고 있지만, 나이가 더 어린 영유아에 대한 지표와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영역별 시도 비교를 위해 지표값을 표준화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개별 지표가 충분히 해당 영역을 대표하는지의 여부와, 각 지표들이 해당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가중치)을 갖는지 등에 대해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관련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긴 하였으나,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적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진단과 개선을 위한 지표체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과 그에 따른 사회적 관심 제고 및 관련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까지 더 많은 연구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의 협동 연구 결과, 2022년 5월 이후 통계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데이터에 근거한 아동·청소년 맞춤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희길, 도남희, 유민상, 정지은(2018), “아동·청소년 사회지표 프레임워크 구축”, 통계개발원.
- 유민상 외(2019~2021),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황명진, 심수진(2007), “행복지수의 개발”, pp.52~58.
- 김미곤, 여유진 외(2017),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0.
- OECD 데이터 포털, [https://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OECD\(2009\),](https://www.oecd.org/els/family/child-well-being/data/OECD(2009),)
“Comparative child well-being across the OECD, in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2021),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 .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measuring-what-matters-for-child-well-being-and-policies_e82fded1-en
- OECD(2017), “How does Korea compare on child well-being” .
- UNICEF(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
- UNICEF(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
- UNICEF(2020). “Worlds of influence understanding what shapes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
- 통계개발원(2019), “지표 작성 방법론”, p.96.
- 한국방정환재단(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보고서”, p.30.
-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http://www.kdca.go.kr/yhs>, <http://knhanes.kdca.go.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nypi.re.kr/archive/mps>).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2021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pp.59~62.
-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http://www.mohw.go.kr>), pp.143~145.

제 2 장

분석보고서

수도권 1인 가구 구조변화 및 특성분석

배영숙 · 이미화





일러두기

- 최근 우리 사회는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 이에,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수도권 1인 가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획보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수도권 1인 가구의 주요 특성 및 변화 양상을 최근 10년(2010~2020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생애계층* 및 시군구의 소지역별 1인 가구 특성을 분석 시각화하였습니다.
* 생애계층: 청년층(19~34세),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
- 행정 목적별로 다양하게 수집된 행정자료 및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에 따라 항목별 작성대상, 작성시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활용 자료(작성 대상):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일반가구 대상) 자료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2015년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항목^{R(Register-based)}은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방식, 표본항목은 현장조사 방식의 결과이며, 2010년 이전은 전수^{T(Traditional)} 및 표본항목 모두 현장조사 방식의 결과임
 - 통계표 중 「-」표시는 해당 숫자 없음 「0.0」은 단위 미만 「*」표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값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나타냄
※ 「*」: 통계표 수치가 인구·가구는 5 미만, 재식별 가능값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한 것으로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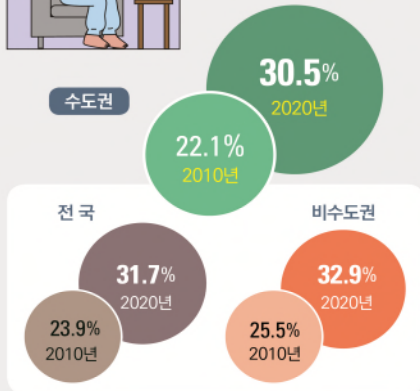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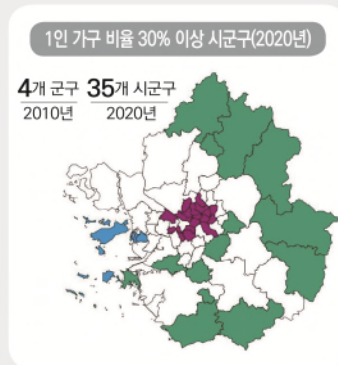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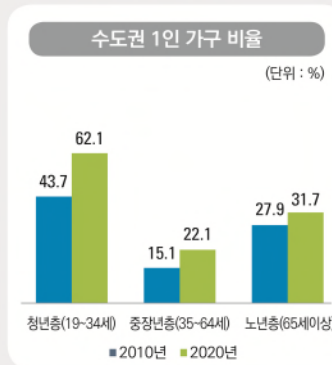
□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 분석 결과(요약)	82
□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 분석 결과	
I. 1인 가구 규모	
1-1. 1인 가구 변화 추이 및 전망	86
1-2. 1인 가구 연령 구조	87
1-3.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91
II. 1인 가구 주거 환경 및 이동	
2-1. 1인 가구의 거처 유형	94
2-2.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99
2-3. 1인 가구의 평균 주거용 연면적	102
2-4. 1인 가구 이동(시군구 경계 기준)	103
III. 1인 가구 경제 상황	
3-1. 1인 가구의 경제활동(15세 이상)	107
3-2.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111
IV. 1인 가구 건강 특성	
4-1. 1인 가구의 건강행태	115
4-2. 가구원 수별 건강행태	116
□ 부록: 지도로 보는 수도권 1인 가구	117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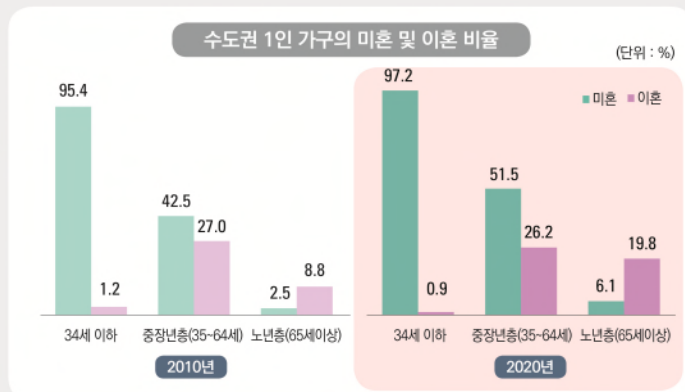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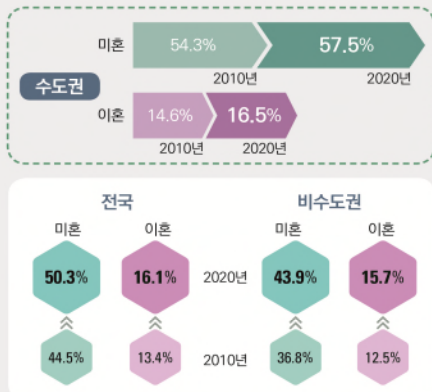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1인 가구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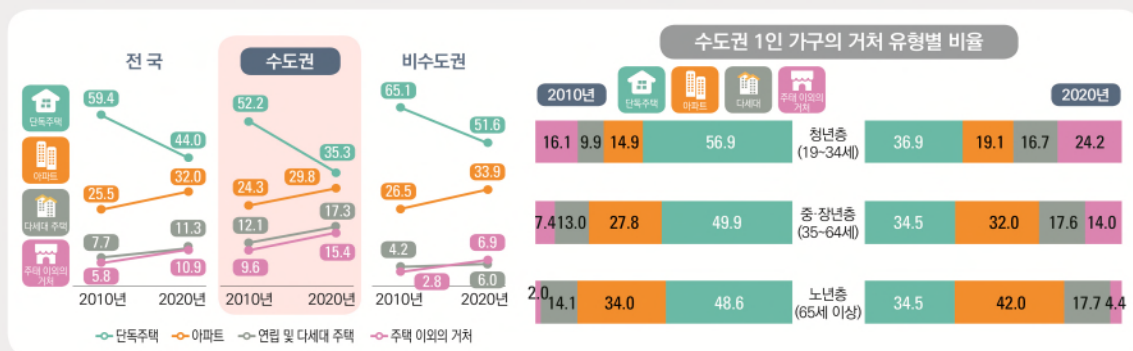
1인가구 규모



1인가구 혼인상태



1인가구 거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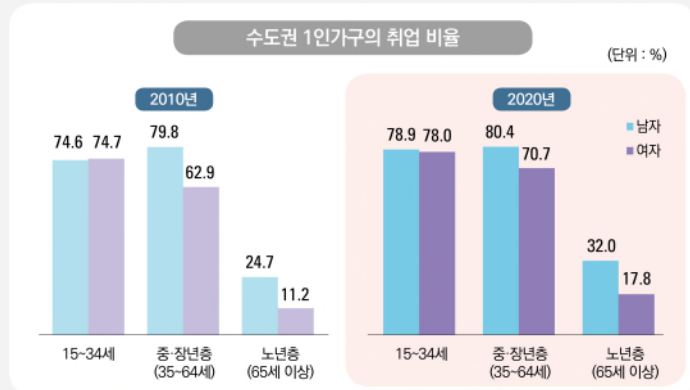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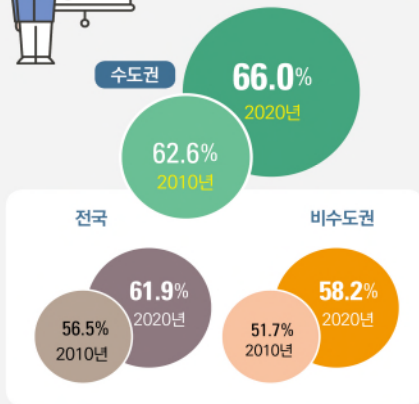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및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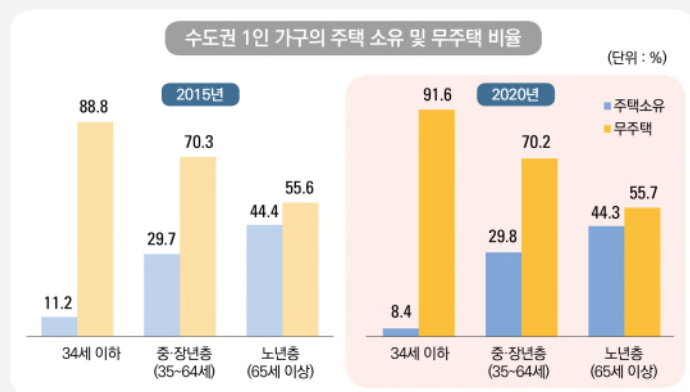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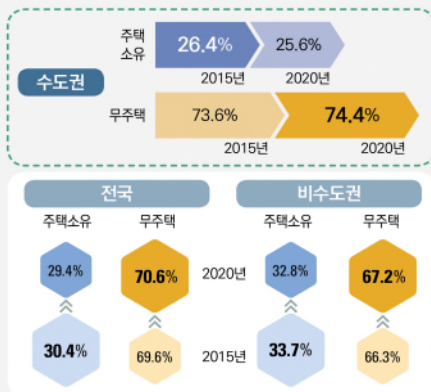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1인 가구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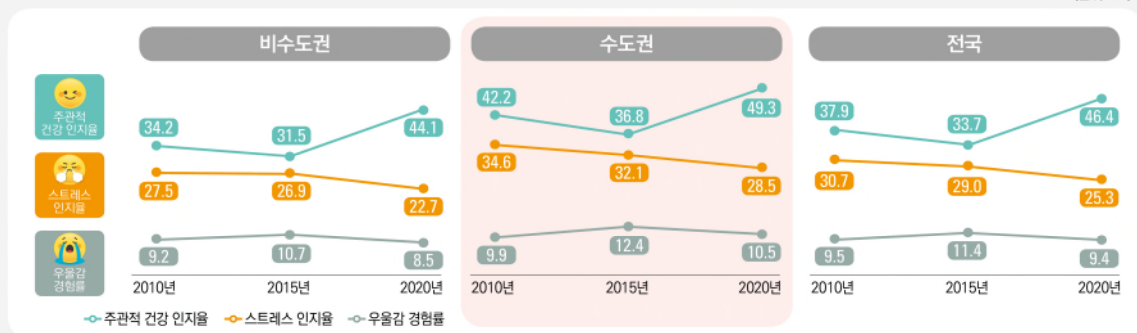
1인 가구 경제활동(취업)



1인 가구 주택 소유



1인 가구 건강 특성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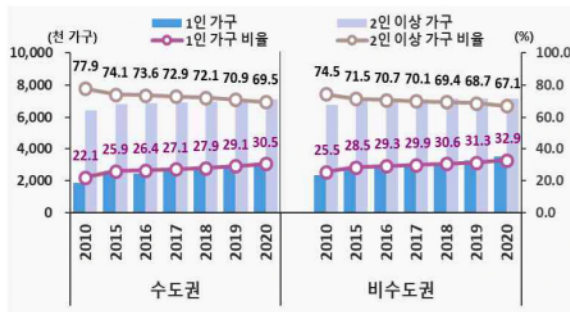
분석보고서

수도권 1인 가구 특성 변화 분석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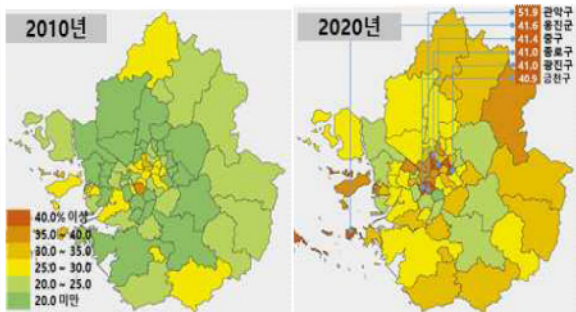
1. 1인 가구 규모

- ◇ '20년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10년에 비해 8.4%p 증가하였으며, 증가 추세
- ◇ '20년 수도권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57.5%로 '10년에 비해 3.2%p 증가
- 2020년 수도권 일반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0.5%이며, 증가 추세
 - 모든 연령대의 증가 영향으로 2010년에 비해 8.4%p 증가하였으며, 전국(7.8%p)과 비수도권(7.4%p)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관악구 등 35개 시군구로 수도권 전체(66개) 시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010년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10%p 이상 증가한 시군구는 서울 영등포구 등 20곳임

< 1인 가구 규모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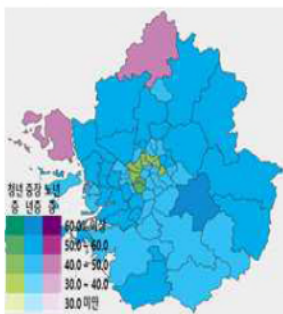


<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2010,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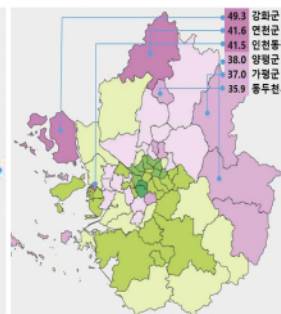


- 수도권 전체 시군구(66개)별로 1인 가구의 주된 연령층을 보면, 중·장년층 (35~64세)이 주된 연령층인 시군구(55개)가 가장 많음
 - 서울 강북구 등 26개 시군구는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 비율이 높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57.5%, 이혼 비율은 16.5%를 차지
 - 미혼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수도권 3.2%p, 비수도권 7.1%p 증가
 -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 비율이 증가, 특히 중·장년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9.0%p)

<시군구별 주된 연령층>



<청년층과 노년층 비율 위위>



<수도권 1인 가구의 미혼 및 이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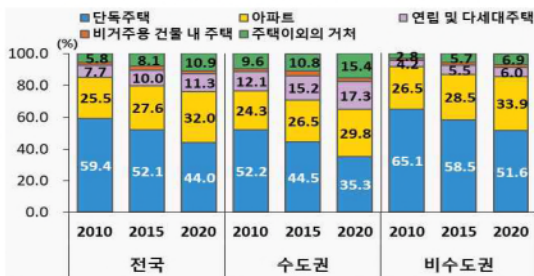


II. 1인 가구 주거 환경 및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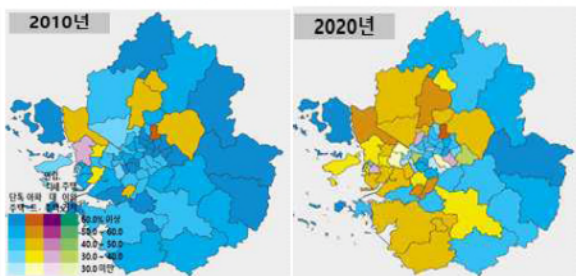
- ◇ '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10년에 비해 16.9%p 감소, 아파트와 주택 이외의 거처는 각각 5.5%p, 5.8%p 증가
- ◇ '20년 수도권 시도 중 서울은 평균 주거용 연면적이 40m² 이하인 1인 가구 비율이 '10년에 비해 4.3%p 증가,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6.4%p, 8.3%p 감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거처 유형별 비율은 단독주택(35.3%), 아파트(29.8%) 순임
 - 비수도권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으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은 2배 이상 높음
 -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감소(-16.9%p), 주택 이외의 거처는 증가(5.8%p)
 - 청년층(8.1%p)과 중·장년층(6.5%p)은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이, 노년층은 아파트(8.0%p) 거주 비율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

<거처 유형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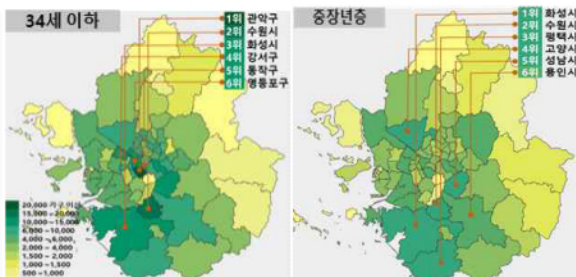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거처 유형>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자기집 거주 비율은 27.2%로 비수도권(40.6%)과 큰 차이를 보이며, 월세·사글세 거주 비율은 44.2%로 비수도권(40.7%)보다 높음
 - 자기집 거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6.4%p 증가, 월세·사글세 거주 비율은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감소 영향으로 1.6%p 감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중 평균 주거용 연면적이 40m² 이하인 비율은 47.0%임
 - 서울은 평균 주거용 연면적이 40m² 이하인 1인 가구 비율이 2010년에 비해 4.3%p 증가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6.4%p, 8.3%p 감소

- 1년 전(2019. 11. 1.) 거주지 기준 수도권 전입 1인 가구 중 34세 이하에서 절반 이상(59.8%)을 차지하며, 서울 관악구, 경기 수원시 등으로 주로 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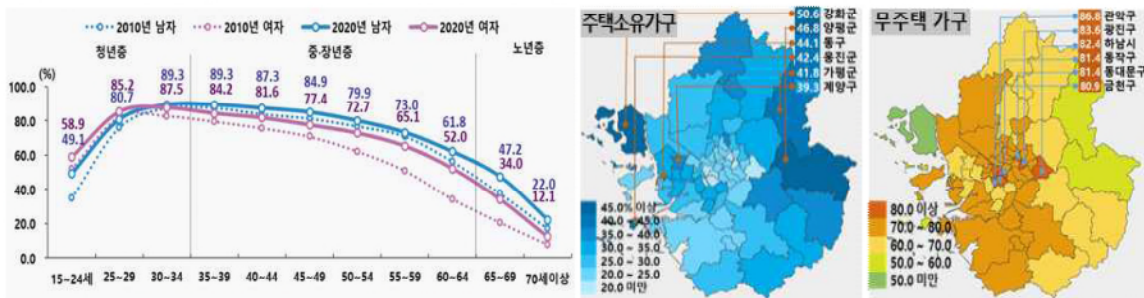
<수도권 1인 가구의 자기집 및 월세·사글세 거주 비율> <시군구별 수도권 전입 1인 가구 규모>



III. 1인 가구 경제 상황

- ◇ '20년 수도권 1인 가구(15세 이상) 중 취업가구 비율은 66.0%로 '10년에 비해 3.4%p 증가
- ◇ '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15년에 비해 45~54세와 7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15세 이상) 중 취업가구 비율은 66.0%로 2010년에 비해 3.4%p 증가
 - 남녀 1인 가구의 모든 연령대에서 2010년에 비해 취업가구 비율이 증가, 특히 여자 중장년 가구(7.9%p)와 남녀 노인 가구(7.3%p, 6.7%p)에서 크게 증가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25.6%로 전국(29.4%)과 비수도권(32.8%)보다 낮음
 -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등 39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전체(25.6%)보다 높음
 - 2015년에 비해 45~54세와 7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주택 소유 비율 감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74.4%)은 2015년에 비해 0.8%p 증가
 - 34세 이하 가구의 무주택 비율은 수도권 모든 시군구에서, 중·장년 가구는 13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전체(74.4%)보다 높게 나타남

<수도권 1인 가구의 남녀 취업가구 비율> <주택 소유 및 무주택 1인 가구 비율>



IV. 1인 가구 건강 특성

지난 10년(2010~2020년) 동안, 수도권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남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49.3%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임
 -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2010년에 비해 7.1%p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은 6.1%p 감소

< 건강행태 변화, 수도권 >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년~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구조변화 및 특성분석

I. 1인 가구 규모

1-1. 1인 가구 변화 추이 및 전망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에 비해 8.4%p 증가한 30.5%로 전국(7.8%p)과 비수도권(7.4%p)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2020년 11월 1일 기준 일반가구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1인 가구는 2010년에 비해 각각 1,299천 가구, 1,202천 가구 증가
- 수도권 일반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비해 8.4%p 증가한 30.5%로 전국(7.8%p)과 비수도권(7.4%p)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수도권 1인 가구 비율은 2047년에 3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대조적으로 부부와 함께 사는 미혼자녀 가구 비율은 2047년에 18.6%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그림 1-1: 가구 구성 유형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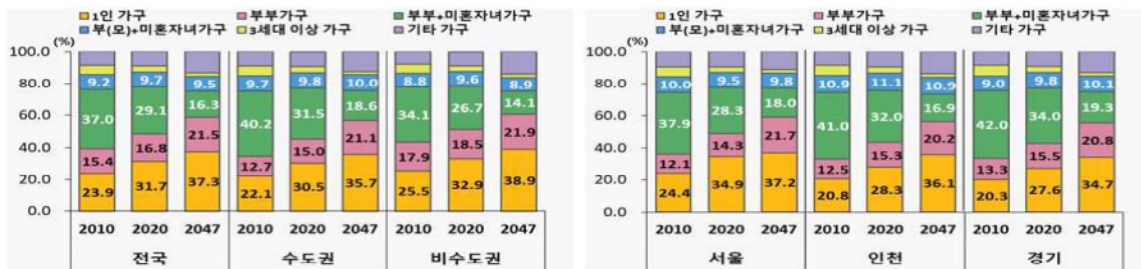


표 1-1: 가구 구성 유형별 가구 규모

(단위: 천 가구, %)

		일반가구		1인 가구		부부		부부+미혼자녀		부(모)+미혼자녀		3세대 이상		기타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전국	2010년 ^T	17,339	100.0	4,142	23.9	2,672	15.4	6,416	37.0	1,594	9.2	1,075	6.2	1,440	8.3
	2020년 ^R	20,927	100.0	6,643	31.7	3,519	16.8	6,086	29.1	2,036	9.7	765	3.7	1,877	9.0
	2047년	22,303	100.0	8,320	37.3	4,794	21.5	3,638	16.3	2,108	9.5	505	2.3	2,938	13.2
수도권	2010년 ^T	8,254	100.0	1,823	22.1	1,047	12.7	3,315	40.2	799	9.7	535	6.5	736	8.9
	2020년 ^R	10,228	100.0	3,122	30.5	1,534	15.0	3,226	31.5	1,007	9.8	397	3.9	942	9.2
	2047년	11,111	100.0	3,963	35.7	2,340	21.1	2,065	18.6	1,117	10.0	249	2.2	1,377	12.4
서울	2010년 ^T	3,504	100.0	855	24.4	423	12.1	1,328	37.9	352	10.0	211	6.0	336	9.6
	2020년 ^R	3,982	100.0	1,391	34.9	568	14.3	1,127	28.3	380	9.5	143	3.6	374	9.4
	2047년	3,712	100.0	1,379	37.2	807	21.7	669	18.0	362	9.8	79	2.1	415	11.2
인천	2010년 ^T	919	100.0	191	20.8	115	12.5	377	41.0	100	10.9	60	6.6	76	8.3
	2020년 ^R	1,147	100.0	325	28.3	176	15.3	367	32.0	127	11.1	45	3.9	108	9.4
	2047년	1,316	100.0	475	36.1	266	20.2	222	16.9	143	10.9	29	2.2	181	13.7
경기	2010년 ^T	3,831	100.0	777	20.3	509	13.3	1,610	42.0	347	9.0	264	6.9	324	8.5
	2020년 ^R	5,098	100.0	1,406	27.6	791	15.5	1,732	34.0	500	9.8	209	4.1	461	9.0
	2047년	6,083	100.0	2,109	34.7	1,267	20.8	1,173	19.3	612	10.1	142	2.3	781	12.8
비수도권	2010년 ^T	9,085	100.0	2,319	25.5	1,625	17.9	3,100	34.1	796	8.8	540	5.9	704	7.8
	2020년 ^R	10,699	100.0	3,522	32.9	1,984	18.5	2,860	26.7	1,030	9.6	368	3.4	935	8.7
	2047년	11,192	100.0	4,357	38.9	2,454	21.9	1,573	14.1	991	8.9	256	2.3	1,561	13.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2020년,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2019년

주: * 1세대 기타, 부부+부모,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2세대 기타, 비친족가구 등



1-2. 1인 가구 연령 구조

1-2-1. 연령별 1인 가구

2020년 수도권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62.1%,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은 22.1%,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31.7%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8.5%p, 7.0%p, 3.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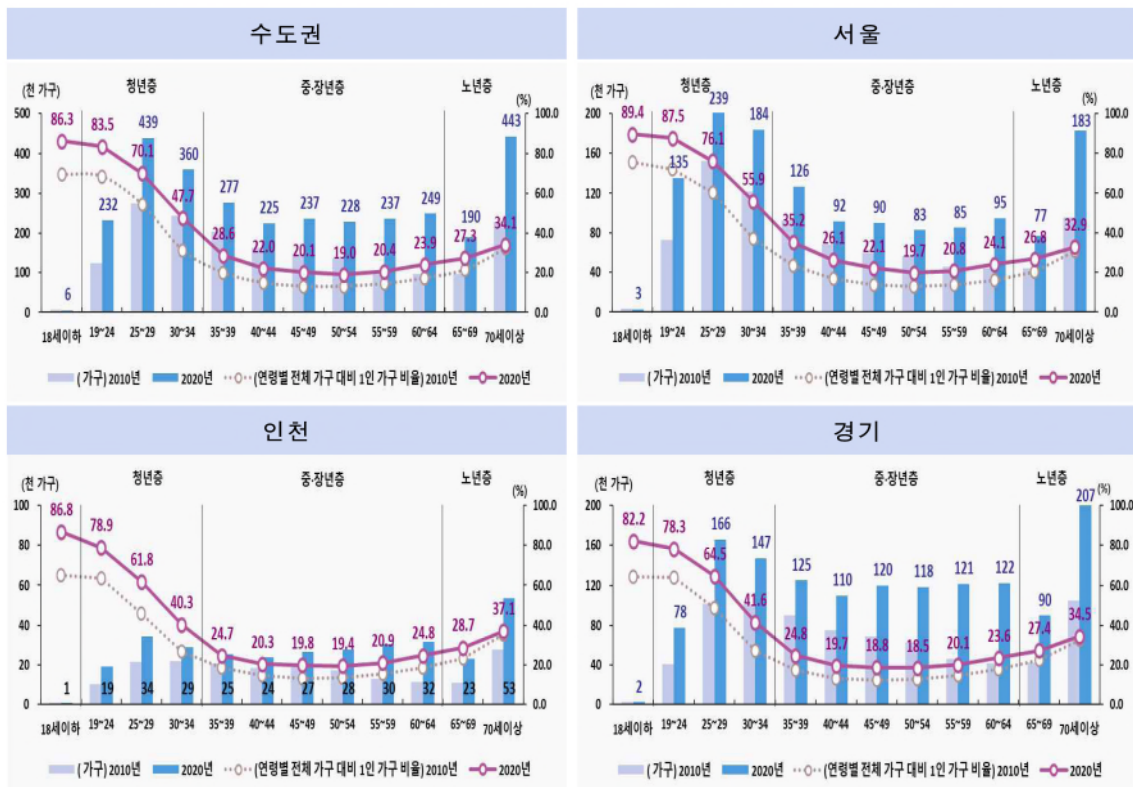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 규모를 보면,

- 청년 1인 가구는 2010년에 비해 387천 가구(60.2%), 중·장년 1인 가구는 604천 가구(71.2%), 노인 1인 가구는 308천 가구(94.9%) 증가
-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는 남자 가구주가 많고, 노인 1인 가구는 여자 가구주가 많음

□ 연령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청년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62.1%, 중·장년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2.1%, 노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31.7%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8.5%p, 7.0%p, 3.8%p 증가

- 20대 이하, 30대, 65세 이상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그림 1-2: 연령별 1인 가구 규모 및 비율(2010년, 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20년

주: 현장조사 방식: 2010년 T(Traditional), 등록센서스 방식: 2020년 R(Register-based)

1-2-2. 시군구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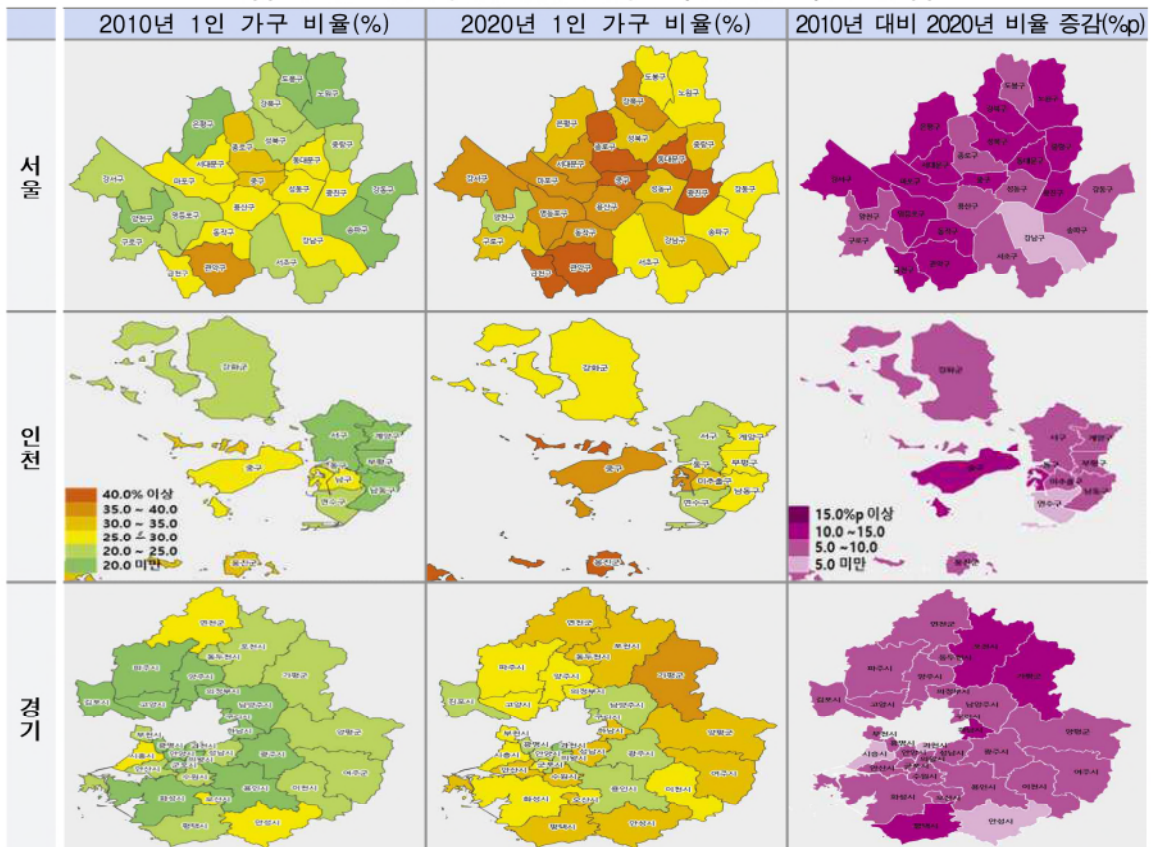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관악구, 인천 용진군 등 35개 시군구로 수도권 전체(66개) 시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수도권 시군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관악구(51.9%), 인천 용진군(41.6%) 등 35개 시군구로 수도권 전체(66개) 시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010년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10%p 이상 증가된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14.8%p), 인천 중구(10.8%p), 경기 하남시(12.9%p) 등 20개 시군구임

표 1-2: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및 비율 증감 상위 (단위: 가구, %, %p)

		2020년 1인 가구 비율 상위			2010년 대비 2020년 비율 증감 상위			
		시군구	1인 가구	비율(%)	시군구	1인 가구	비율(%)	비율증감(%p)
서울	1위	관악구	129,233	51.9	영등포구	64,000	39.4	14.8
	2위	중구	22,818	41.4	금천구	42,334	40.9	14.0
	3위	종로구	25,983	41.0	강서구	86,172	35.3	13.7
인천	1위	용진군	3,640	41.6	중구	23,101	38.8	10.8
	2위	중구	23,101	38.8	남동구	59,396	28.6	8.9
	3위	미추홀구	56,472	33.4	용진군	3,640	41.6	8.8
경기	1위	가평군	8,996	35.1	하남시	33,759	30.0	12.9
	2위	연천군	6,200	34.4	평택시	69,593	32.6	11.7
	3위	안성시	26,020	33.6	포천시	19,088	32.1	10.7

그림 1-3: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및 비율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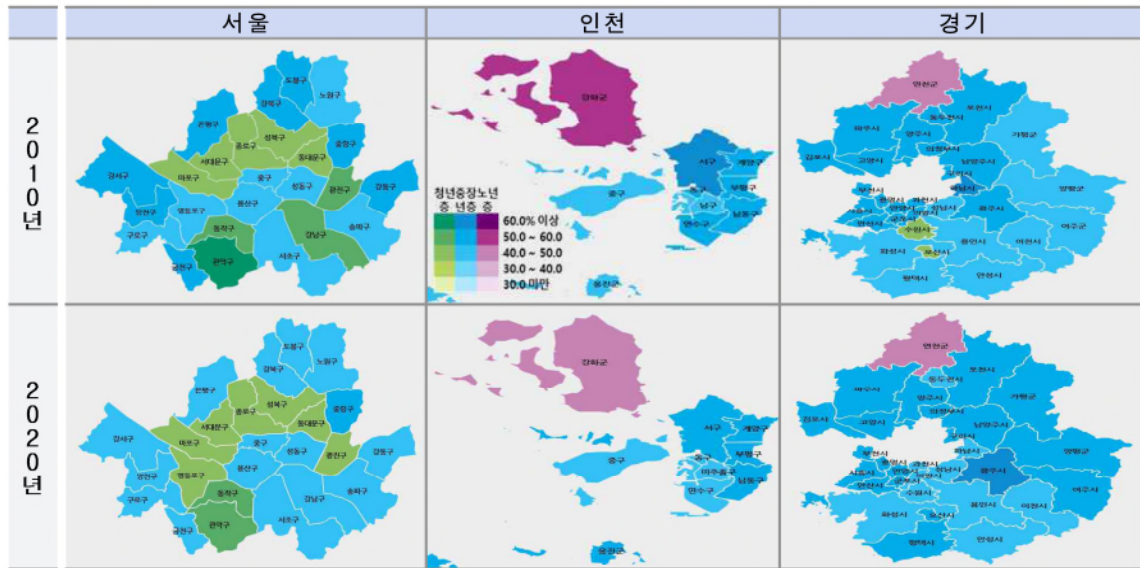
1-2-3.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연령층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1인 가구의 가장 주된 연령층이 청년층인 지역은 9곳으로 모두 서울임

□ 수도권 전체 시군구(66개)별로 1인 가구의 주된 연령층을 보면, 서울 관악구 등 9개 구는 청년층이, 경기 광주시 등 55개 시군구는 중·장년층이, 인천 강화군과 경기 연천군은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음

○ 2010년에 비해 주된 연령층이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으로 변동된 시군구는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오산시이며,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변동은 서울 영등포구임

그림 1-4: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연령층



□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서울 관악구 등 40개 시군구는 청년층 비율이 노년층에 비해 높고, 인천 강화군 등 26개 시군구는 노년층 비율이 청년층에 비해 높음

그림 1-5: 청년층(19~34세) 대비 노년층(65세 이상) 비율 우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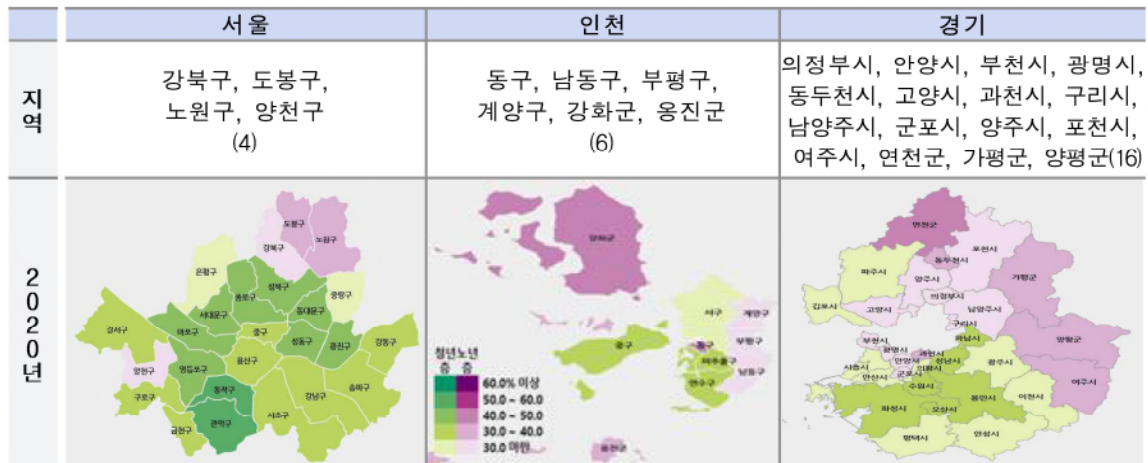


표 1-3: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연령층 및 가구 수

(단위: 가구, %)

2010년 ^T						2020년 ^R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서울	365,885	42.8	강화군	2,734	54.1	서울	570,703	41.0	강화군	3,988	49.3
종로구	7,395	40.7	용진군	966	49.4	종로구	10,683	41.1	용진군	1,947	53.5
중구	6,698	48.2	경기	384,053	49.4	중구	9,677	42.4	경기	715,987	50.9
용산구	11,670	45.2	수원시	43,033	46.3	용산구	16,170	43.8	수원시	66,354	45.3
성동구	11,878	43.9	성남시	38,467	49.8	성동구	17,561	41.2	성남시	55,963	48.5
광진구	18,267	50.2	의정부시	14,479	53.7	광진구	29,983	48.1	의정부시	25,585	51.2
동대문구	16,766	45.4	안양시	17,963	51.5	동대문구	28,497	46.8	안양시	24,273	50.0
종랑구	18,076	54.2	부천시	30,724	51.9	종랑구	28,341	50.1	부천시	45,776	53.8
성북구	16,407	42.4	광명시	9,629	51.6	성북구	28,174	45.8	광명시	13,757	51.9
강북구	13,281	51.0	평택시	13,799	50.0	강북구	21,067	46.1	평택시	36,717	52.8
도봉구	10,945	51.5	동두천시	3,861	52.2	도봉구	17,018	48.8	동두천시	5,930	49.3
노원구	16,293	47.5	안산시	30,891	50.2	노원구	23,452	41.6	안산시	45,213	55.2
은평구	15,210	51.0	고양시	29,819	51.1	은평구	26,434	45.7	고양시	53,342	53.1
서대문구	13,445	44.9	과천시	1,765	50.1	서대문구	24,147	48.4	과천시	1,699	45.4
마포구	20,050	48.8	구리시	6,162	54.5	마포구	30,828	48.8	구리시	10,186	56.1
양천구	13,171	52.2	남양주시	14,018	57.6	양천구	19,177	48.6	남양주시	29,463	55.2
강서구	20,384	48.8	오산시	8,695	49.3	강서구	36,280	42.1	오산시	15,254	51.4
구로구	14,478	48.0	시흥시	18,550	52.0	구로구	22,967	45.1	시흥시	32,684	58.4
금천구	11,877	51.0	군포시	8,233	50.1	금천구	19,052	45.0	군포시	13,218	50.8
영등포구	16,134	47.2	의왕시	3,766	52.2	영등포구	28,249	44.1	의왕시	5,903	45.8
동작구	21,743	54.0	하남시	4,739	60.1	동작구	32,910	51.3	하남시	16,764	49.7
관악구	52,482	62.2	용인시	19,564	47.9	관악구	74,909	58.0	용인시	39,358	43.7
서초구	12,837	44.0	파주시	9,341	52.7	서초구	19,820	45.1	파주시	23,002	52.5
강남구	31,032	52.1	이천시	6,070	46.4	강남구	31,321	45.4	이천시	11,856	48.7
송파구	19,956	47.3	안성시	8,059	41.3	송파구	34,086	46.3	안성시	12,202	46.9
강동구	16,348	51.5	김포시	6,511	55.7	강동구	24,248	48.2	김포시	22,379	54.2
인천	98,665	51.7	화성시	13,449	45.1	인천	165,713	51.0	화성시	44,424	48.7
중구	4,241	48.7	광주시	6,926	58.9	중구	10,125	43.8	광주시	21,029	60.8
동구	2,797	50.3	양주시	5,874	57.0	동구	3,442	46.9	양주시	11,834	52.8
미추홀구	17,692	46.3	포천시	5,191	51.2	미추홀구	26,156	46.3	포천시	10,294	53.9
연수구	10,450	51.3	여주시	3,776	47.1	연수구	16,392	47.2	여주시	6,774	51.0
남동구	16,455	52.8	연천군	1,762	45.3	남동구	31,352	52.8	연천군	2,578	41.6
부평구	19,500	53.0	가평군	2,039	45.2	부평구	28,223	52.6	가평군	4,530	50.4
계양구	11,534	54.0	양평군	3,376	46.3	계양구	16,990	57.4	양평군	7,746	51.8
서구	13,007	60.0				서구	27,619	56.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20년

주: 현장조사 방식: 2010년^T(Traditional), 등록센서스 방식: 2020년^R(Register-based)



1-3.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수도권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57.5%로 2010년에 비해 3.2%p 증가, 이혼 비율은 16.5%로 2010년에 비해 1.9%p 증가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3.2%p 증가한 57.5%로 전국(50.3%)과 비수도권(43.9%)보다 각각 7.2%p, 13.6%p 높음
 - 이혼 비율은 16.5%로 2010년에 비해 1.9%p 증가한 반면, 유배우와 사별 비율은 10.9%, 15.1%로 2010년에 비해 각각 0.9%p, 4.2%p 감소
- 수도권 시도별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서울(65.0%)에서, 유배우는 경기(13.4%)에서, 사별(18.3%)과 이혼(21.5%)은 인천에서 가장 높음

그림 1-6: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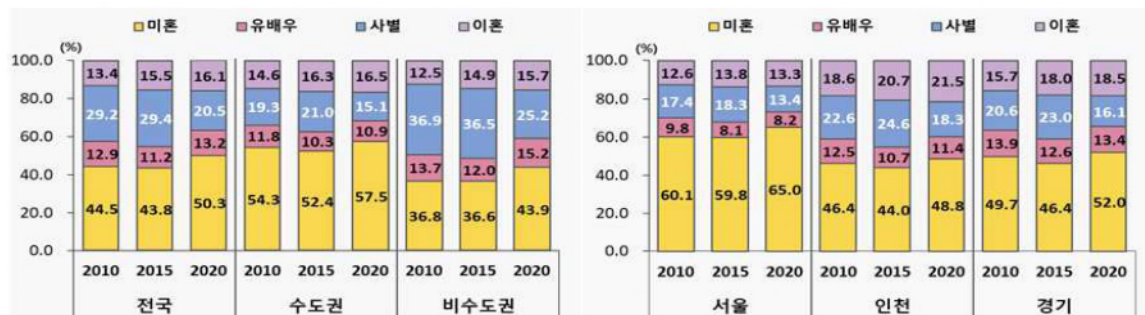


표 1-4: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규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2010년	4,142	100.0	1,843	44.5	534	12.9	1,208	29.2	556	13.4
	2015년	5,211	100.0	2,284	43.8	585	11.2	1,532	29.4	810	15.5
	2020년	6,643	100.0	3,341	50.3	874	13.2	1,362	20.5	1,067	16.1
수도권	2010년	1,823	100.0	989	54.3	216	11.8	352	19.3	265	14.6
	2015년	2,386	100.0	1,250	52.4	246	10.3	501	21.0	389	16.3
	2020년	3,122	100.0	1,794	57.5	339	10.9	473	15.1	515	16.5
서울	2010년	855	100.0	514	60.1	84	9.8	149	17.4	108	12.6
	2015년	1,115	100.0	667	59.8	91	8.1	204	18.3	154	13.8
	2020년	1,391	100.0	904	65.0	115	8.2	187	13.4	185	13.3
인천	2010년	191	100.0	89	46.4	24	12.5	43	22.6	35	18.6
	2015년	243	100.0	107	44.0	26	10.7	60	24.6	50	20.7
	2020년	325	100.0	159	48.8	37	11.4	59	18.3	70	21.5
경기	2010년	777	100.0	387	49.7	108	13.9	160	20.6	122	15.7
	2015년	1,028	100.0	477	46.4	130	12.6	237	23.0	185	18.0
	2020년	1,406	100.0	732	52.0	188	13.4	226	16.1	260	18.5
비수도권	2010년	2,319	100.0	854	36.8	318	13.7	856	36.9	291	12.5
	2015년	2,825	100.0	1,034	36.6	339	12.0	1,031	36.5	421	14.9
	2020년	3,522	100.0	1,546	43.9	535	15.2	889	25.2	551	15.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2010년), 표본(20%)부문(2015년, 2020년)」

1-3-1. 연령 및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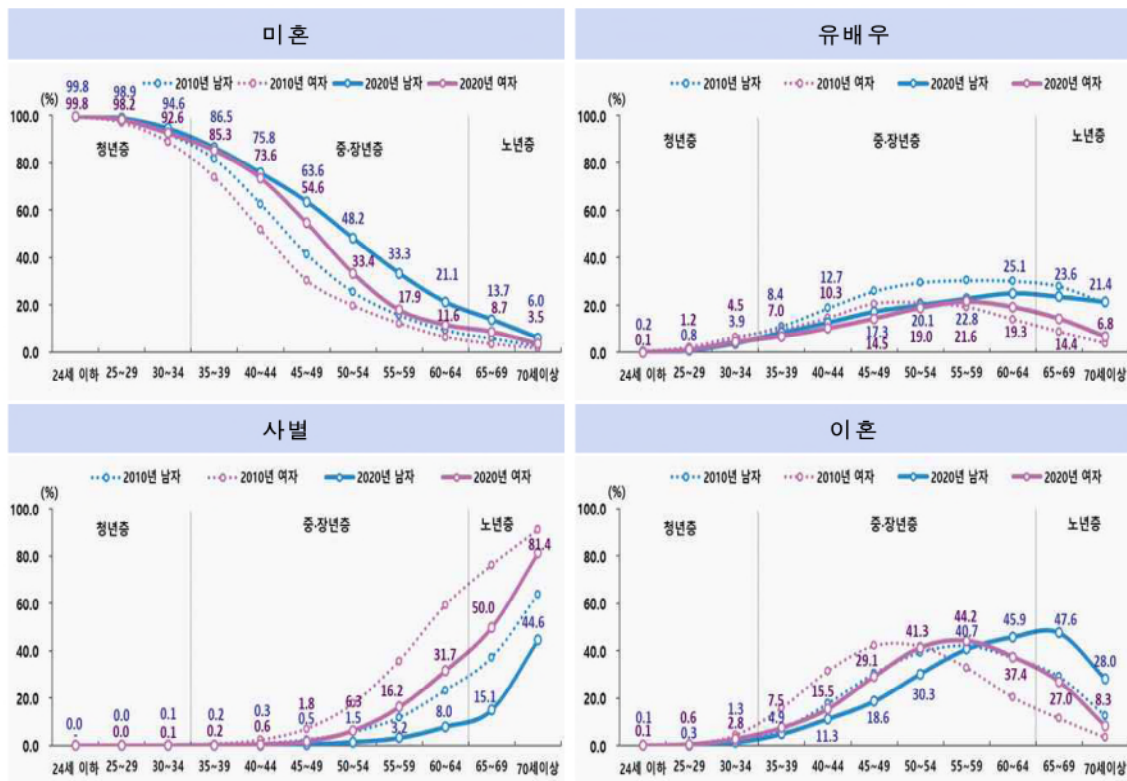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특히 중·장년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9.0%p)

□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 및 혼인 상태별 규모를 보면,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34세 이하에서 전체의 56.1%, 이혼 1인 가구의 경우 50~64세에서 전체의 54.7%를 차지

□ 1인 가구의 연령별 혼인 상태를 보면,

- (미혼) 34세 이하 1인 가구의 미혼 비율은 97.2%, 중·장년 1인 가구는 51.5%, 노인 1인 가구는 6.1%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8%p, 9.0%p, 3.6%p 증가
- (유배우, 사별) 2010년에 비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유배우 비율은 증가한 반면, 사별 비율은 감소
- (이혼) 중·장년 1인 가구의 이혼 비율은 26.2%로 2010년에 비해 0.8%p 감소한 반면, 노인 1인 가구의 이혼 비율은 19.8%로 11.1%p 증가

그림 1-7: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 및 혼인 상태 비율(2010년, 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2010년), 표본(20%)부문(2020년)」



1-3-2. 교육·주거 특성 및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미혼가구와 이혼가구는 단독주택 거주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교육 및 주거 특성별 혼인 상태를 보면,

- (교육 정도별) 미혼가구의 경우 대학교 이상이 71.5%를 차지
- (거처 유형별) 미혼가구(36.5%)와 이혼가구(36.0%)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유배우가구(38.7%)와 사별가구(43.2%)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음
- (주택 점유 형태별) 미혼가구(50.4%)와 이혼가구(49.1%)의 경우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이, 유배우가구(42.1%)와 사별가구(53.8%)의 경우 자기집 거주 비율이 높음

그림 1-8: 특성 및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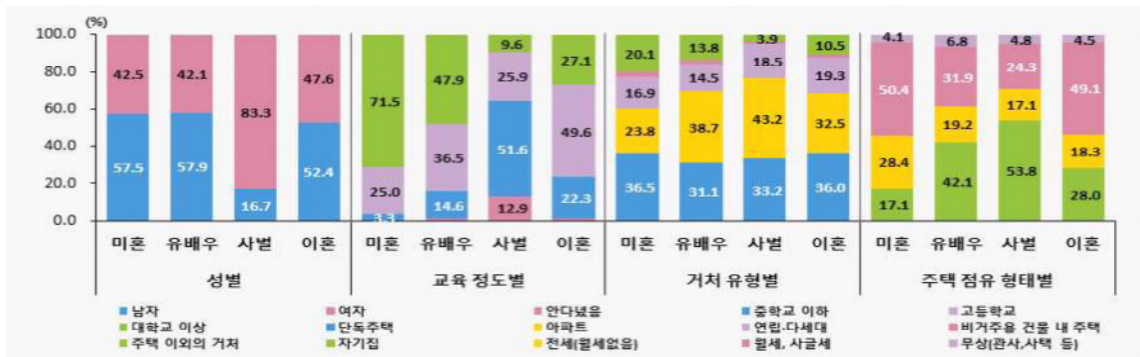


표 1-5: 특성 및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2020년

(단위: 가구, %)

특성별		1인 가구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가구수	구성비
수도권		3,121,552	100.0	1,794,277	100.0	339,437	100.0	472,656	100.0	515,182	100.0
성별	남자	1,577,750	50.5	1,032,101	57.5	196,653	57.9	78,891	16.7	270,105	52.4
	여자	1,543,802	49.5	762,176	42.5	142,784	42.1	393,765	83.3	245,077	47.6
교육 정도	안다녔음	71,838	2.3	2,857	0.2	3,274	1.0	60,760	12.9	4,947	1.0
	중학교 이하	467,710	15.0	59,251	3.3	49,628	14.6	243,737	51.6	115,094	22.3
	고등학교	950,452	30.4	448,475	25.0	124,046	36.5	122,622	25.9	255,309	49.6
	대학교 이상	1,631,552	52.3	1,283,694	71.5	162,489	47.9	45,537	9.6	139,832	27.1
거처 유형	단독주택	1,102,326	35.3	654,441	36.5	105,485	31.1	157,034	33.2	185,366	36.0
	아파트	929,332	29.8	426,306	23.8	131,361	38.7	203,976	43.2	167,689	32.5
	연립·다세대	539,031	17.3	302,717	16.9	49,159	14.5	87,638	18.5	99,517	19.3
	비거주용	71,528	2.3	51,006	2.8	6,570	1.9	5,594	1.2	8,358	1.6
	건물 내 주택	479,335	15.4	359,807	20.1	46,862	13.8	18,414	3.9	54,252	10.5
주택 점유 형태	자기집	848,293	27.2	306,524	17.1	142,934	42.1	254,376	53.8	144,459	28.0
	전세(월세없음)	750,124	24.0	509,861	28.4	65,121	19.2	80,691	17.1	94,451	18.3
	월세 및 사글세	1,380,106	44.2	903,538	50.4	108,367	31.9	115,007	24.3	253,194	49.1
	무상 (관사, 사택 등)	143,029	4.6	74,354	4.1	23,015	6.8	22,582	4.8	23,078	4.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20%)부문」, 2020년

주1: (교육정도) 졸업, 재학, 중퇴, 휴학, 수료 포함

주2: (월세 및 사글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

II. 1인 가구 주거 환경 및 이동

2-1. 1인 가구의 거주 유형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16.9%p 감소, 아파트와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은 각각 5.5%p, 5.8%p 증가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거주 유형을 보면, 전국과 비수도권에 비해 단독과 아파트 거주 비율은 낮은 반면,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은 높음
 -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16.9%p 감소한 반면, 주택 이외의 거주 (5.8%p), 아파트(5.5%p), 연립 및 다세대주택(5.2%p) 거주 비율은 증가
- 수도권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단독주택(38.6%), 인천과 경기도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34.4%, 36.0%로 가장 높음

그림 2-1: 거주 유형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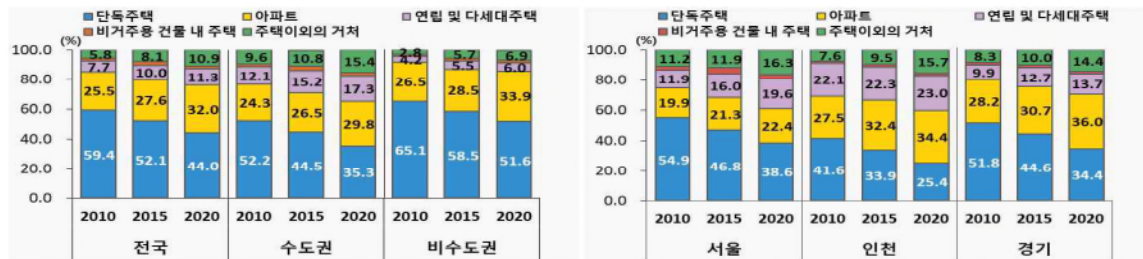


표 2-1: 거주 유형별 1인 가구 규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단독주택 ¹⁾		아파트		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²⁾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전국	2010년 ^T	4,142	100.0	2,460	59.4	1,057	25.5	318	7.7	69	1.7	239	5.8
	2015년 ^R	5,203	100.0	2,711	52.1	1,434	27.6	518	10.0	121	2.3	420	8.1
	2020년 ^R	6,643	100.0	2,921	44.0	2,124	32.0	750	11.3	124	1.9	723	10.9
수도권	2010년 ^T	1,823	100.0	951	52.2	442	24.3	220	12.1	35	1.9	174	9.6
	2015년 ^R	2,386	100.0	1,062	44.5	632	26.5	363	15.2	70	2.9	259	10.8
	2020년 ^R	3,122	100.0	1,103	35.3	929	29.8	539	17.3	70	2.2	481	15.4
서울	2010년 ^T	855	100.0	469	54.9	170	19.9	102	11.9	18	2.2	95	11.2
	2015년 ^R	1,116	100.0	522	46.8	238	21.3	178	16.0	44	4.0	133	11.9
	2020년 ^R	1,391	100.0	537	38.6	311	22.4	272	19.6	44	3.1	227	16.3
인천	2010년 ^T	191	100.0	79	41.6	52	27.5	42	22.1	2	1.3	14	7.6
	2015년 ^R	244	100.0	83	33.9	79	32.4	54	22.3	5	1.9	23	9.5
	2020년 ^R	325	100.0	82	25.4	112	34.4	75	23.0	5	1.5	51	15.7
경기	2010년 ^T	777	100.0	403	51.8	220	28.2	77	9.9	14	1.8	65	8.3
	2015년 ^R	1,026	100.0	458	44.6	315	30.7	130	12.7	21	2.0	102	10.0
	2020년 ^R	1,406	100.0	483	34.4	506	36.0	192	13.7	22	1.5	203	14.4
비수도권	2010년 ^T	2,319	100.0	1,509	65.1	614	26.5	97	4.2	34	1.5	64	2.8
	2015년 ^R	2,818	100.0	1,648	58.5	802	28.5	155	5.5	51	1.8	162	5.7
	2020년 ^R	3,522	100.0	1,819	51.6	1,196	33.9	211	6.0	54	1.5	242	6.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15년, 2020년

주: 1) 단독주택에는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등이 포함됨

2)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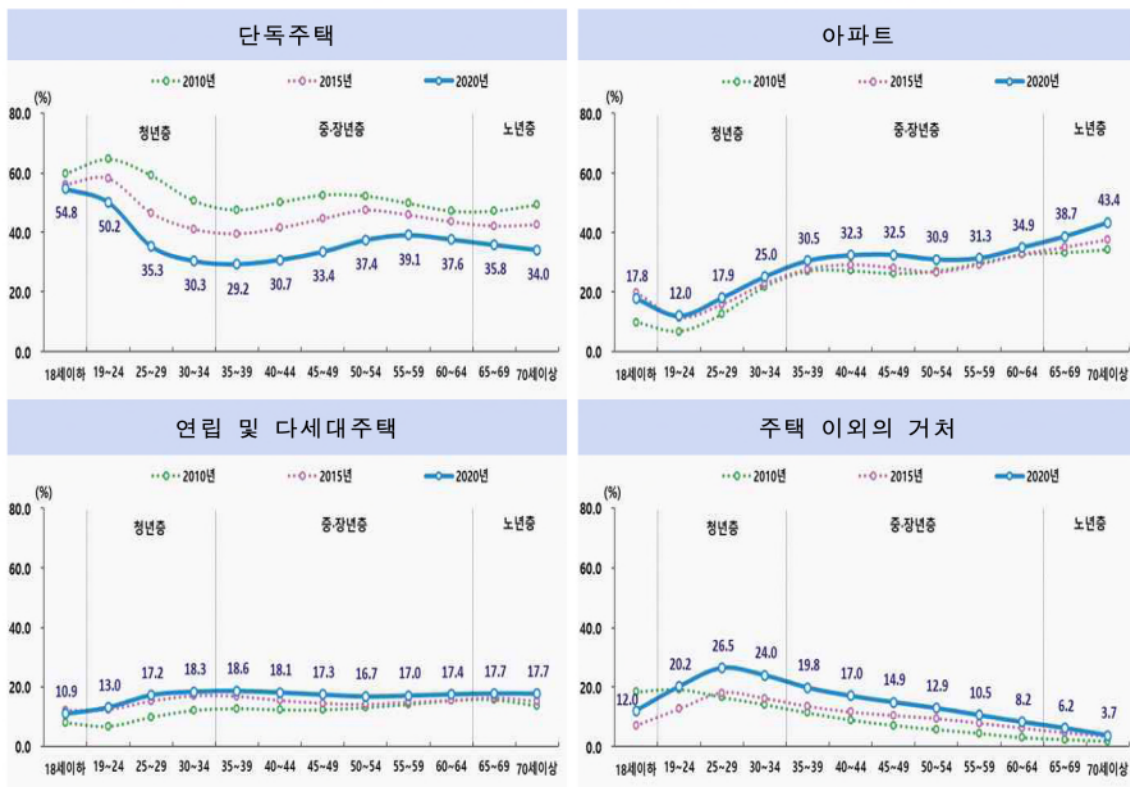
2-1-1. 연령 및 거주 유형별 1인 가구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청년층(8.1%p)과 중·장년층(6.5%p)은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이, 노년층은 아파트(8.0%p) 거주 비율이 크게 증가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 및 거주 유형별 비율을 보면,

- (단독주택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36.9%, 중·장년 1인 가구는 34.5%, 노인 1인 가구는 34.5%로 2010년에 비해 각각 20.0%p, 15.4%p, 14.1%p 감소
- (아파트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19.1%, 중·장년 1인 가구는 32.0%, 노인 1인 가구는 42.0%로 2010년에 비해 각각 4.2%p, 4.3%p, 8.0%p 증가
-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16.7%, 중·장년 1인 가구는 17.6%, 노인 1인 가구는 17.7%로 2010년에 비해 각각 6.7%p, 4.6%p, 3.6%p 증가
-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24.2%, 중·장년 1인 가구는 14.0%, 노인 1인 가구는 4.4%로 2010년에 비해 각각 8.1%p, 6.5%p, 2.4%p 증가

그림 2-2: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 및 거주 유형별 비율(2010년, 2015년, 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15년, 2020년

2-1-2.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유형

1인 가구의 연령층별로 34세 이하는 37개, 중·장년은 32개 시군구에서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노인은 36개 시군구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 수도권 전체 시군구(66개)별로 1인 가구의 가장 주된 거주 유형을 보면,
 - (34세 이하 1인 가구) 경기 과천시 등 37개 시군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경기 양주시 등 16개 시군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 특히, 경기 하남시 등 10개 시구는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이, 서울 송파구 등 3개 구는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 (중·장년 1인 가구) 인천 옹진군 등 32개 시군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서울 노원구 등 31개 시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 (노인 1인 가구) 서울 강남구 등 36개 시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인천 옹진군 등 29개 시군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2-3: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유형,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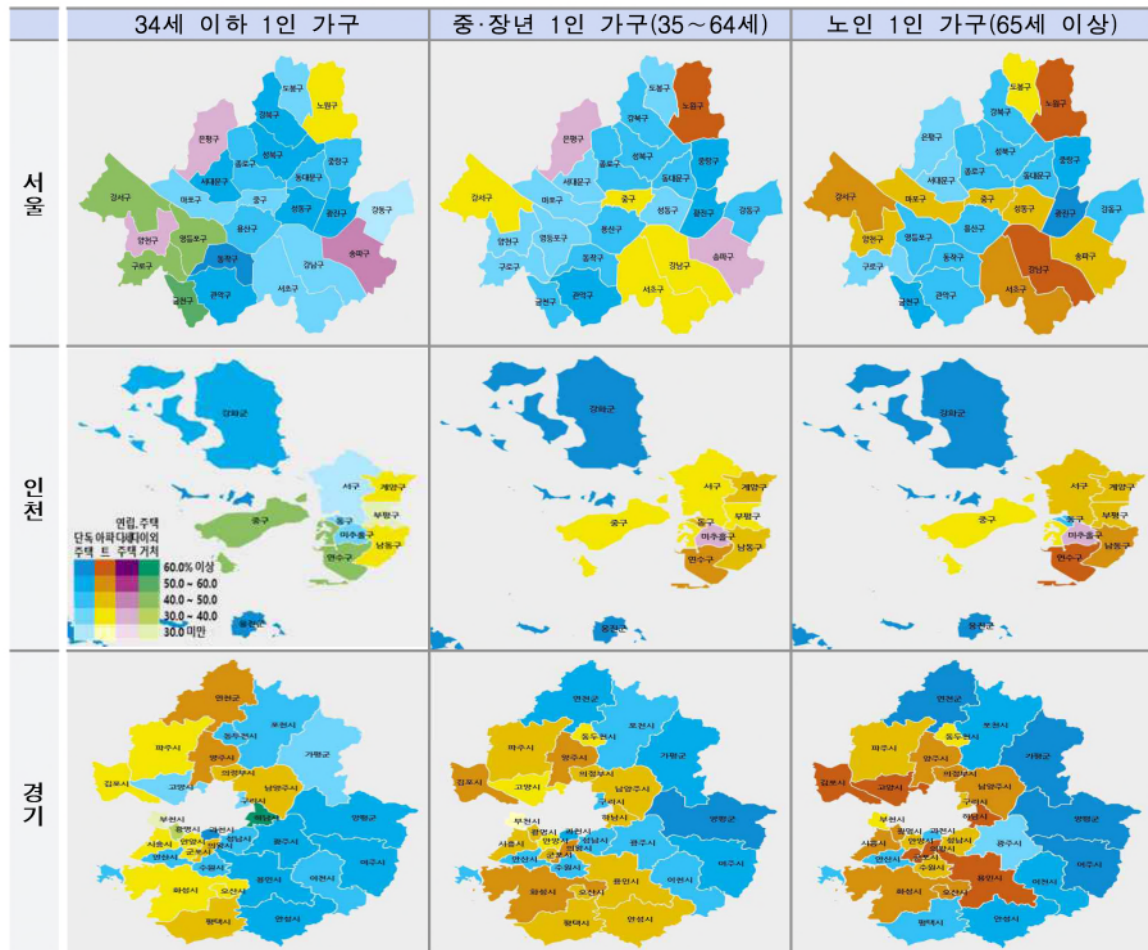




표 2-2: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유형, 2020년

(단위: 가구,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택 이외의 거주						
	34세 이하		중·장년층		노년층			34세 이하		중·장년층		노년층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서울	222,070	39.6	215,954	37.8	99,590	38.3	강화군	355	55.5	2,231	64.3	3,112	78.0
종로구	4,729	43.9	4,168	40.4	2,311	47.2	웅진군	320	60.5	1,455	74.7	1,014	87.1
중구	2,707	31.4	3,344	34.6	1,871	41.3	경기	140,478	35.7	264,238	36.9	134,890	45.4
용산구	6,869	48.0	6,981	43.2	3,112	48.7	수원시	22,851	40.7	27,342	41.2	10,311	42.9
성동구	8,927	50.5	7,009	39.9	3,539	48.1	성남시	16,792	46.8	25,703	45.9	9,670	41.0
광진구	16,213	53.9	14,031	58.4	5,124	62.5	의정부시	5,410	47.0	11,152	43.6	6,517	50.4
동대문구	13,718	47.7	9,155	43.3	5,390	48.7	안양시	3,746	30.9	8,707	35.9	5,530	45.5
종량구	6,740	45.0	16,215	57.2	7,412	55.8	부천시	5,504	28.5	13,349	29.2	7,574	37.8
성북구	14,923	52.2	9,223	43.5	5,124	43.5	광명시	1,798	34.1	5,940	43.2	3,925	52.6
강북구	6,179	51.9	10,507	49.9	5,765	45.4	평택시	8,431	41.3	15,371	41.9	5,085	40.7
도봉구	2,671	37.3	6,216	36.5	4,275	39.9	동두천시	808	45.3	2,058	34.7	1,710	39.6
노원구	5,937	38.9	16,031	68.4	13,860	78.1	안산시	9,498	41.9	20,998	46.4	5,953	42.4
은평구	5,459	31.4	9,408	35.6	5,321	38.0	고양시	8,010	34.0	21,330	40.0	14,267	60.8
서대문구	12,643	52.0	6,538	39.3	3,341	37.5	과천시	521	63.2	1,007	59.3	535	43.9
마포구	11,025	35.6	7,287	30.8	3,629	42.4	구리시	1,374	39.2	4,284	42.1	2,007	45.0
양천구	3,557	37.8	6,534	34.1	4,392	40.5	남양주시	3,947	42.4	14,272	48.4	8,159	55.7
강서구	16,344	48.6	11,022	30.4	8,740	53.6	오산시	3,737	35.5	6,812	44.7	2,269	58.0
구로구	7,719	44.9	7,655	33.3	4,327	40.0	시흥시	4,982	33.6	14,843	45.4	4,884	58.2
금천구	7,853	50.1	8,358	43.9	3,836	50.3	군포시	2,286	36.5	6,352	48.1	4,409	67.4
영등포구	13,021	46.0	9,274	36.1	4,918	49.0	의왕시	1,760	46.0	3,003	50.9	1,984	63.1
동작구	20,106	60.7	10,403	49.4	4,325	43.6	하남시	7,073	62.8	6,784	40.5	3,475	60.7
관악구	40,840	54.3	20,468	50.7	6,623	48.4	용인시	16,146	50.2	17,278	43.9	11,305	60.7
서초구	6,060	35.2	6,084	30.7	3,622	52.6	파주시	3,961	37.0	9,550	41.5	4,839	47.9
강남구	9,215	33.7	9,901	31.6	6,839	66.2	이천시	3,164	43.6	4,849	40.9	3,013	57.7
송파구	11,624	42.6	11,253	33.0	5,177	42.0	안성시	4,025	52.3	5,612	46.0	3,269	53.4
강동구	4,345	28.5	9,953	41.0	4,885	45.1	김포시	4,044	38.1	11,695	52.3	5,190	62.6
인천	25,133	30.3	59,594	36.0	31,212	40.9	화성시	12,725	36.2	22,693	51.1	5,945	51.2
중구	3,664	41.3	3,686	36.4	1,416	34.5	광주시	3,741	53.7	8,469	40.3	2,603	39.6
동구	272	31.9	1,419	41.2	1,404	46.2	양주시	2,553	58.7	6,509	55.0	3,706	59.3
미추홀구	5,247	30.2	8,862	33.9	4,638	35.8	포천시	1,389	43.2	4,144	40.3	3,182	57.1
연수구	5,346	43.8	8,611	52.5	4,368	71.0	여주시	1,158	52.9	3,516	51.9	3,024	69.9
남동구	4,572	32.6	13,266	42.3	7,184	51.2	연천군	597	52.2	1,306	52.7	1,797	69.7
부평구	3,235	29.1	9,685	34.3	6,240	43.6	가평군	428	37.8	2,687	59.3	2,104	63.1
계양구	1,813	33.6	7,316	43.1	3,259	45.0	양평군	872	57.4	5,545	71.6	4,336	76.3
서구	3,360	28.4	9,197	33.3	3,780	40.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20년

II

분석보고서

2-1-3. 시군구별 주택 이외의 거주¹⁾ 거주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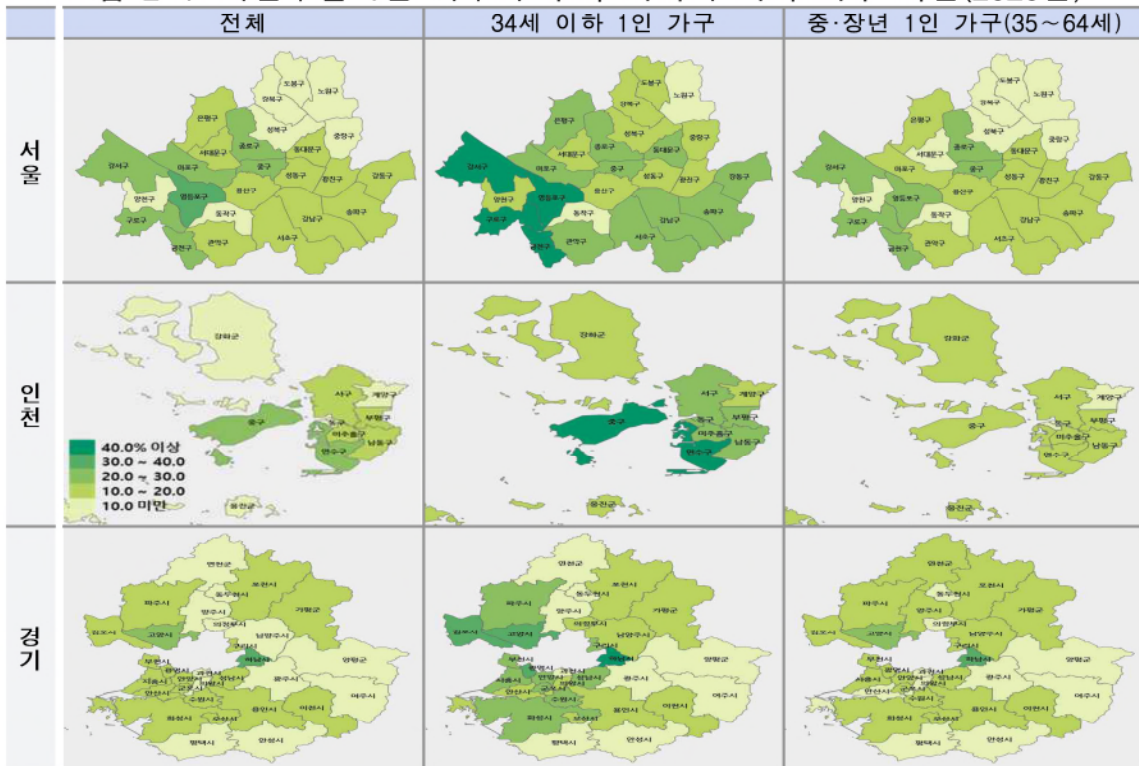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은 경기 하남시(37.5%)에서 가장 높고, 서울 영등포구(33.6%), 서울 강서구(28.8%) 순으로 높음

- 수도권 66개 시군구별로 1인 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을 보면,
- (34세 이하 1인 가구) 경기 하남시(62.8%), 서울 금천구(50.1%), 강서구(48.6%) 등 7개 시구는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음
 - (중·장년 1인 가구) 경기 하남시(30.8%), 서울 영등포구(29.4%), 구로구(22.5%) 등에서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은 높음

표 2-3: 1인 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 상위 (단위: 가구, %)

		전체 1인 가구			34세 이하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35~64세)		
		지역	주택이외거처	비율	지역	주택이외거처	비율	지역	주택이외거처	비율
서울	1위	영등포구	21,477	33.6	금천구	7,853	50.1	영등포구	7,542	29.4
	2위	강서구	24,837	28.8	강서구	16,344	48.6	구로구	5,173	22.5
	3위	금천구	11,979	28.3	영등포구	13,021	46.0	중구	2,140	22.1
인천	1위	중구	5,959	25.8	연수구	5,346	43.8	중구	1,952	19.3
	2위	연수구	7,675	22.1	중구	3,664	41.3	미추홀구	4,031	15.4
	3위	미추홀구	9,031	16.0	남동구	4,185	29.8	부평구	4,129	14.6
경기	1위	하남시	12,653	37.5	하남시	7,073	62.8	하남시	5,171	30.8
	2위	고양시	20,301	20.2	광명시	1,798	34.1	고양시	11,314	21.2
	3위	성남시	22,912	19.8	김포시	3,588	33.8	성남시	10,996	19.6

그림 2-4: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택 이외의 거주 거주 비율(2020년)



1)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



2-2.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자기집 거주(27.2%) 비율은 2010년에 비해 6.4%p 증가한 반면, 전세(24.0%)와 월세 및 사글세(44.2%) 거주 비율은 각각 6.7%p, 1.6%p 감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전국과 비수도권에 비해 자기집 거주 비율은 낮은 반면, 전세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은 높음
 - 자기집 거주 비율은 27.2%로 2010년에 비해 6.4%p 증가한 반면 전세(24.0%)와 월세 및 사글세(44.2%) 거주 비율은 각각 6.7%p, 1.6%p 감소
- 수도권 시도별로 보면, 서울(48.1%), 인천(38.5%), 경기(41.7%) 모두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2-5: 주택 점유 형태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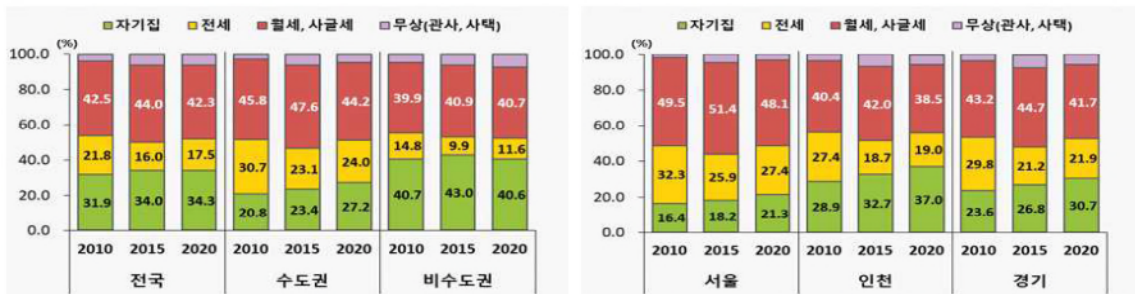


표 2-4: 주택 점유 형태별 1인 가구 규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자기집		전세(월세 없음)		월세 및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전국	2010년	4,142	100.0	1,323	31.9	903	21.8	1,760	42.5	157	3.8
	2015년	5,211	100.0	1,774	34.0	831	16.0	2,291	44.0	315	6.0
	2020년	6,643	100.0	2,279	34.3	1,159	17.5	2,813	42.3	392	5.9
수도권	2010년	1,823	100.0	379	20.8	560	30.7	836	45.8	48	2.6
	2015년	2,386	100.0	559	23.4	552	23.1	1,135	47.6	140	5.9
	2020년	3,122	100.0	848	27.2	750	24.0	1,380	44.2	143	4.6
서울	2010년	855	100.0	140	16.4	276	32.3	423	49.5	16	1.8
	2015년	1,115	100.0	203	18.2	289	25.9	573	51.4	50	4.5
	2020년	1,391	100.0	296	21.3	381	27.4	668	48.1	46	3.3
인천	2010년	191	100.0	55	28.9	52	27.4	77	40.4	6	3.3
	2015년	243	100.0	80	32.7	45	18.7	102	42.0	16	6.6
	2020년	325	100.0	120	37.0	62	19.0	125	38.5	18	5.4
경기	2010년	777	100.0	183	23.6	232	29.8	336	43.2	26	3.4
	2015년	1,028	100.0	276	26.8	218	21.2	459	44.7	74	7.2
	2020년	1,406	100.0	432	30.7	307	21.9	586	41.7	80	5.7
비수도권	2010년	2,319	100.0	944	40.7	343	14.8	924	39.9	108	4.7
	2015년	2,825	100.0	1,215	43.0	279	9.9	1,156	40.9	174	6.2
	2020년	3,522	100.0	1,431	40.6	409	11.6	1,433	40.7	249	7.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2010년), 표본(20%)부문(2015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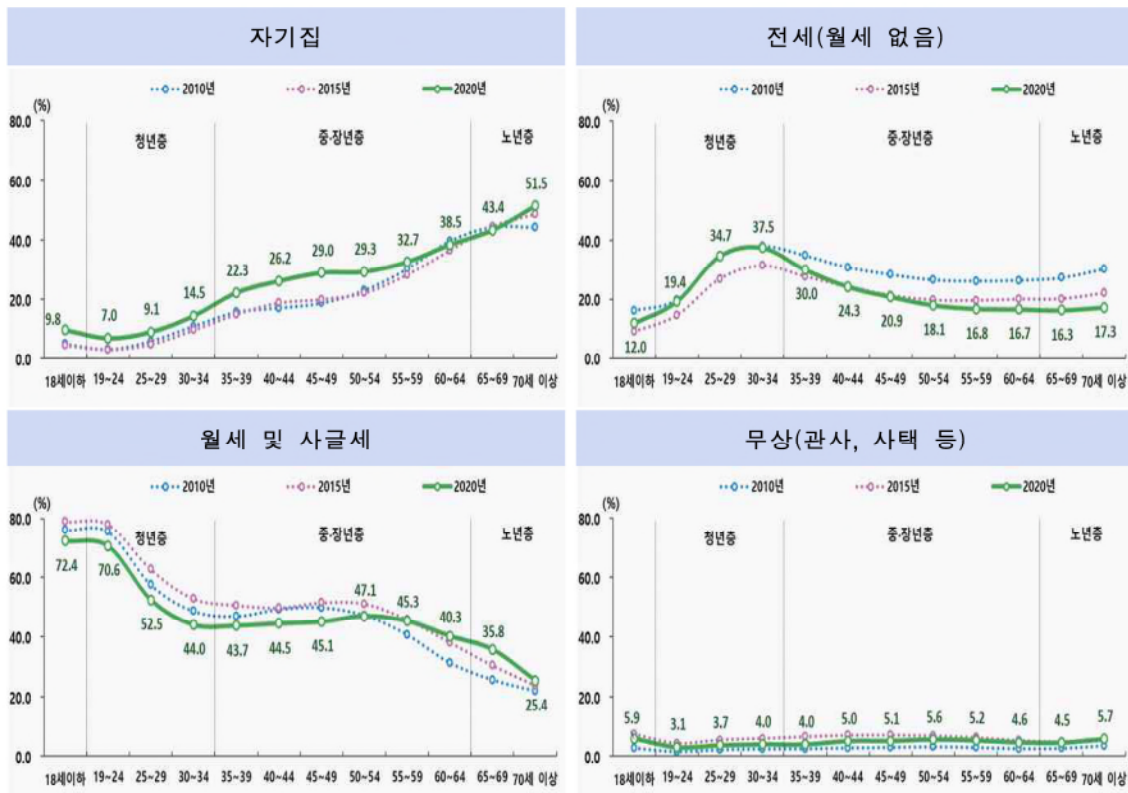
주: * 주택 점유 형태 미상 포함

2-2-1. 연령 및 주택 점유 형태별 1인 가구

2020년 수도권 청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의 전세 거주 비율은 2010년에 비해 감소, 자기집 거주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은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에서 감소한 반면, 노인 1인 가구에서 증가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 및 주택 점유 형태별 비율을 보면,
- (자기집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10.5%, 중·장년 1인 가구는 29.5%, 노인 1인 가구는 49.1%로 2010년에 비해 각각 3.2%p, 7.4%p, 4.7%p 증가
 - (전세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32.2%, 중·장년 1인 가구는 21.3%, 노인 1인 가구는 17.0%로 2010년에 비해 각각 0.7%p, 8.3%p, 12.4%p 감소
 -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 청년 1인 가구는 53.6%, 중·장년 1인 가구는 44.3%로 2010년에 비해 각각 4.1%p, 1.1%p 감소한 반면, 노인 1인 가구는 28.5%로 5.5%p 증가

그림 2-6: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 및 주택 점유 형태별 비율(2010년, 2015년, 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2010년), 표본(20%)부문(2015년, 2020년)」



2-2-2. 시군구 및 주택 점유 형태별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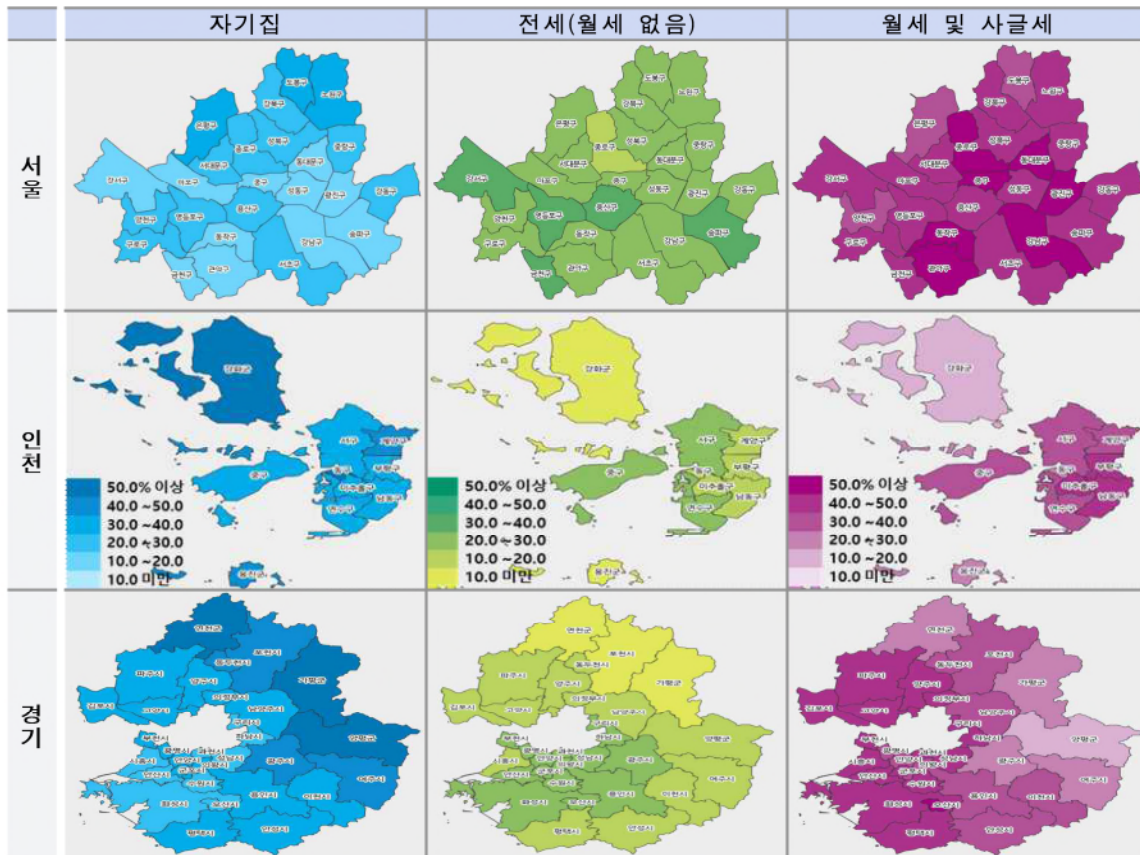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서울 관악구 등 42개 시구는 1인 가구의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음

- 수도권 66개 시군구별로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 인천 강화군(69.2%), 경기 양평군(61.3%) 등 5개 군구는 절반 이상이 자기집에 거주
 - 서울 강서구, 용산구 등 5개 구는 전세 거주 비율이 30% 이상임
 - 서울 관악구, 광진구 등 42개 시구는 월세 및 사글세 거주 비율이 40% 이상임

표 2-5: 주택 점유 형태별 1인 가구 비율 상위 (단위: 가구, %)

		자기집			전세(월세없음)			월세 및 사글세		
		지역	가구 수	비율	지역	가구 수	비율	지역	가구 수	비율
서울	1위	도봉구	12,147	34.8	강서구	28,241	32.8	관악구	74,115	57.3
	2위	은평구	17,647	30.5	용산구	11,638	31.6	광진구	34,795	55.8
	3위	노원구	17,209	30.5	금천구	12,902	30.5	동대문구	33,624	55.2
인천	1위	강화군	5,600	69.2	중구	5,467	23.7	미추홀구	24,497	43.4
	2위	동구	3,911	53.3	서구	11,318	23.2	남동구	25,500	42.9
	3위	옹진군	1,651	45.4	연수구	8,058	23.2	부평구	21,596	40.3
경기	1위	양평군	9,165	61.3	수원시	42,794	29.2	오산시	15,110	50.9
	2위	연천군	3,287	53.0	성남시	33,274	28.8	안산시	40,346	49.2
	3위	가평군	4,646	51.6	하남시	9,504	28.2	시흥시	27,527	49.2

그림 2-7: 시군구 및 주택 점유 형태별 1인 가구 비율(2020년)



2-3. 1인 가구의 평균 주거용 연면적

수도권 1인 가구는 평균 주거용 연면적 40㎡ 이하(47.0%) 거주 비율이 가장 높고, 비수도권 1인 가구는 40㎡ 초과~60㎡ 이하(34.4%)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중 평균 주거용 연면적이 40㎡ 이하인 비율은 47.0%로 전국과 비수도권에 비해 각각 10.1%p, 18.8%p 높음
 - 비수도권 1인 가구는 40㎡ 초과~60㎡ 이하 거주 비율이 34.4%로 가장 높음
- 수도권 시도별로 보면, 평균 주거용 연면적이 40㎡ 이하인 1인 가구 비율은 서울이 57.7%로 가장 높고, 인천(40.8%), 경기(37.8%) 순임
 - 서울은 2010년에 비해 4.3%p 증가, 인천과 경기는 각각 6.4%p, 8.3%p 감소

그림 2-8: 평균 주거용 연면적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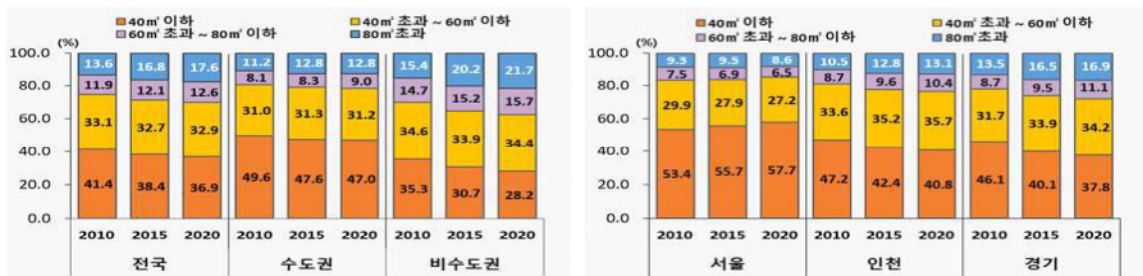


표 2-6: 평균 주거용 연면적별 1인 가구 규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80㎡ 이하		80㎡ 초과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규모	구성비
전국	2010년 ^T	3,903	100.0	1,614	41.4	1,291	33.1	466	11.9	532	13.6
	2015년 ^R	4,974	100.0	1,909	38.4	1,627	32.7	600	12.1	837	16.8
	2020년 ^R	6,348	100.0	2,345	36.9	2,089	32.9	800	12.6	1,115	17.6
수도권	2010년 ^T	1,648	100.0	817	49.6	512	31.0	134	8.1	185	11.2
	2015년 ^R	2,261	100.0	1,077	47.6	707	31.3	188	8.3	290	12.8
	2020년 ^R	2,954	100.0	1,387	47.0	922	31.2	266	9.0	378	12.8
서울	2010년 ^T	759	100.0	406	53.4	227	29.9	57	7.5	70	9.3
	2015년 ^R	1,056	100.0	588	55.7	295	27.9	73	6.9	100	9.5
	2020년 ^R	1,317	100.0	759	57.7	358	27.2	86	6.5	114	8.6
인천	2010년 ^T	176	100.0	83	47.2	59	33.6	15	8.7	19	10.5
	2015년 ^R	234	100.0	99	42.4	82	35.2	22	9.6	30	12.8
	2020년 ^R	311	100.0	127	40.8	111	35.7	32	10.4	41	13.1
경기	2010년 ^T	713	100.0	328	46.1	226	31.7	62	8.7	96	13.5
	2015년 ^R	972	100.0	390	40.1	329	33.9	92	9.5	160	16.5
	2020년 ^R	1,326	100.0	501	37.8	454	34.2	147	11.1	224	16.9
비수도권	2010년 ^T	2,255	100.0	797	35.3	779	34.6	332	14.7	347	15.4
	2015년 ^R	2,712	100.0	833	30.7	920	33.9	412	15.2	547	20.2
	2020년 ^R	3,395	100.0	957	28.2	1,167	34.4	534	15.7	736	2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15년, 2020년

주: (2010년) 가구당 주거면적 산정 대상 가구는 일반가구이며, 연면적 자료가 없는 주택 이외의 거처는 미포함
(2015년, 2020년) 가구당 주거면적 산정 대상 가구는 주택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이며, 연면적 자료가 없는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제외)는 미포함



2-4. 1인 가구 이동(시군구 경계 기준)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이동을 보면,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순유입,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순유출됨

- 1년 전(2019. 11. 1.) 거주지 기준 수도권 1인 가구의 순이동을 보면, 75,195 가구가 순유입됨
 - 가구주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순유입 규모가 큼
 - 가구주 연령별로는 54세 이하 연령대에서 순유입, 55세 이상 연령대에서 순유출됨
- 수도권 1인 가구 중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 가구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 가구에 비해 1.5배 정도 많음

그림 2-9: 수도권 1인 가구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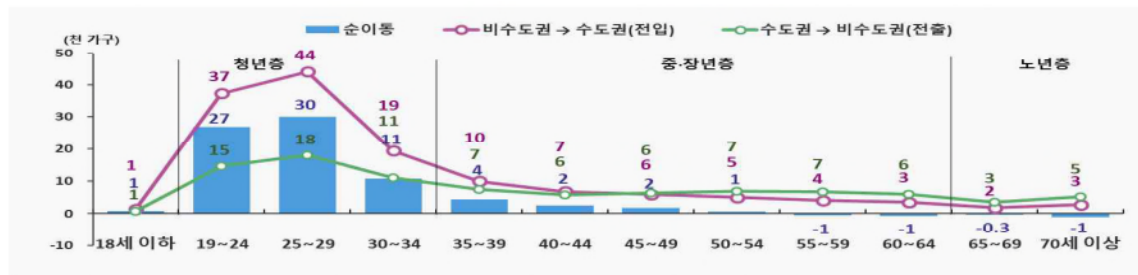


표 1-7: 수도권 1인 가구 순이동, 2020년

(단위: 가구)

		수도권 이동 가구 수						
		총 전입	총 전출	순이동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 → 수도권	수도권 → 비수도권	기타 전입*
전체		588,281	513,086	75,195	420,828	141,954	92,258	25,499
성별	남자	322,751	286,813	35,938	229,788	79,535	57,025	13,428
	여자	265,530	226,273	39,257	191,040	62,419	35,233	12,071
18세 이하		2,220	1,402	818	652	1,352	750	216
청년층	19~24세	93,923	67,043	26,880	52,508	37,360	14,535	4,055
	25~29세	157,480	127,486	29,994	109,554	44,098	17,932	3,828
	30~34세	97,927	87,193	10,734	76,107	19,332	11,086	2,488
중·장년층	35~39세	57,298	52,998	4,300	45,520	9,993	7,478	1,785
	40~44세	36,755	34,262	2,493	28,398	6,770	5,864	1,587
	45~49세	32,928	31,077	1,851	24,745	5,942	6,332	2,241
	50~54세	28,450	27,803	647	20,951	5,038	6,852	2,461
	55~59세	24,600	25,179	-579	18,508	4,015	6,671	2,077
노년층	60~64세	22,262	22,915	-653	16,864	3,488	6,051	1,910
	65~69세	14,017	14,291	-274	10,798	1,829	3,493	1,390
	70세 이상	20,421	21,437	-1,016	16,223	2,737	5,214	1,46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특별조사구와 외국인 가구 제외)」, 2020년

주1: * 기타 전입은 1년 전 거주지가 외국 또는 미상임

주2: (순이동) 특정한 지역 내의 전입자 수와 전출자 수의 차이를 말하며,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경우는 순유입,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경우는 순유출임

2-4-1. 수도권 전입 1인 가구 규모(시군구 경계 기준)

1년 전 거주지 기준 수도권 전입 1인 가구 중 34세 이하에서 절반 이상(59.8%)을 차지

- 수도권 1인 가구 중 1년 전(2019. 11. 1.) 거주지 기준 전입 가구는 588,281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18.8%를 차지
 - 수도권 전입 가구 중 수도권 내 전입이 71.5%,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이 24.1%를 차지
- 연령별로 보면, 수도권 전입 가구 중 34세 이하에서 절반 이상(59.8%)을 차지
 - 가구주가 34세 이하인 가구는 수도권 내 전입 가구 전체의 56.8%,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 가구 전체의 72.0%를 차지

그림 1-10: 수도권 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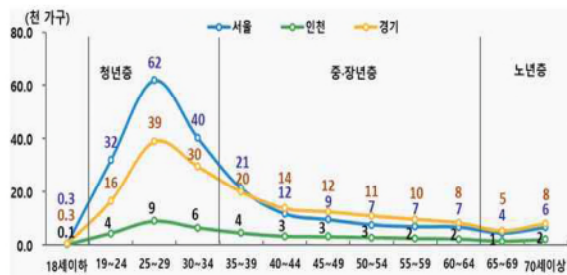


그림 1-11: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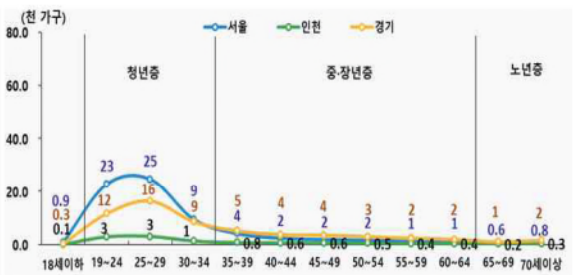


표 1-8: 수도권 전입 1인 가구 규모, 2020년

(단위: 가구)

	1인 가구	전입 가구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기타*
			계	서울	인천	경기	계	서울	인천	경기	
전체	3,121,552	588,281	420,828	207,984	40,113	172,731	141,954	71,656	11,048	59,250	25,499
성별											
남자	1,577,750	322,751	229,788	103,718	23,538	102,532	79,535	35,735	6,432	37,368	13,428
여자	1,543,802	265,530	191,040	104,266	16,575	70,199	62,419	35,921	4,616	21,882	12,071
18세 이하	5,729	2,220	652	330	56	266	1,352	902	109	341	216
청년층											
19~24세	232,199	93,923	52,508	31,804	4,263	16,441	37,360	22,861	2,851	11,648	4,055
25~29세	438,686	157,480	109,554	61,777	8,838	38,939	44,098	24,746	2,972	16,380	3,828
30~34세	359,683	97,927	76,107	40,175	6,364	29,568	19,332	9,436	1,342	8,554	2,488
중·장년층											
35~39세	276,791	57,298	45,520	21,223	4,335	19,962	9,993	4,102	753	5,138	1,785
40~44세	224,886	36,755	28,398	11,629	3,108	13,661	6,770	2,370	625	3,775	1,587
45~49세	236,665	32,928	24,745	9,437	2,942	12,366	5,942	1,849	569	3,524	2,241
50~54세	228,432	28,450	20,951	7,467	2,657	10,827	5,038	1,579	497	2,962	2,461
55~59세	236,821	24,600	18,508	6,714	2,273	9,521	4,015	1,224	413	2,378	2,077
60~64세	248,808	22,262	16,864	6,603	2,087	8,174	3,488	1,127	409	1,952	1,910
노년층											
65~69세	189,703	14,017	10,798	4,343	1,276	5,179	1,829	611	214	1,004	1,390
70세 이상	443,149	20,421	16,223	6,482	1,914	7,827	2,737	849	294	1,594	1,46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특별조사구와 외국인 가구 제외)」, 2020년

주: * 기타 전입 이동은 1년 전 거주지가 외국 또는 미상임



2-4-2. 전입 구분별 주요 전입지역

수도권 내 이동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모두 서울 관악구로 주로 전입

□ 1인 가구의 주요 전입지역을 전입 구분별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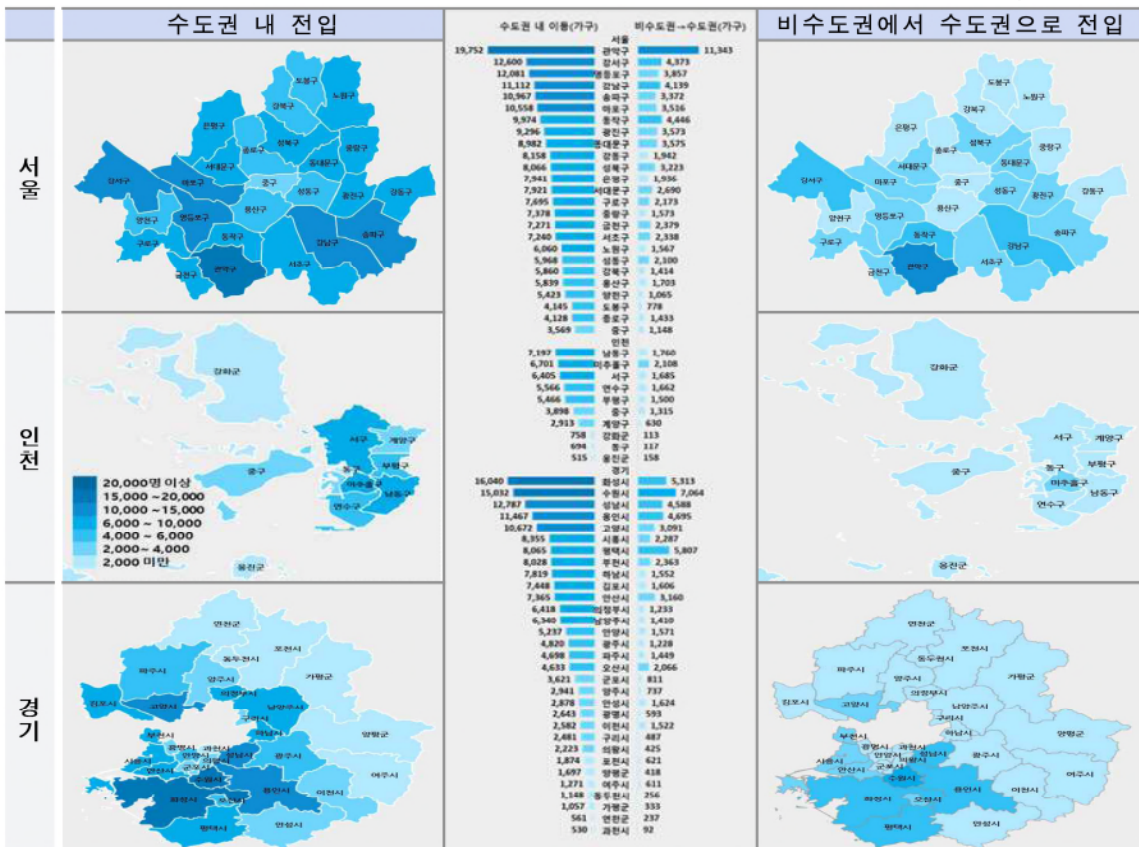
- (수도권 내 이동) 주요 전입지역은 서울 관악구, 강서구,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수원시 등임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주요 전입지역은 서울 관악구, 동작구,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경기 수원시, 평택시 등임

표 1-9: 전입 구분별 1인 가구 전입지역 상위

(단위: 가구)

		수도권 내 이동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시군구	전입가구 수	시군구	전입가구 수
서울	1위	관악구	19,752	관악구	11,343
	2위	강서구	12,600	동작구	4,446
	3위	영등포구	12,081	강서구	4,373
인천	1위	남동구	7,197	미추홀구	2,108
	2위	미추홀구	6,701	남동구	1,760
	3위	서구	6,405	서구	1,685
경기	1위	화성시	16,040	수원시	7,064
	2위	수원시	15,032	평택시	5,807
	3위	성남시	12,787	화성시	5,313

그림 1-12: 전입 구분 및 지역별 1인 가구 이동 규모(2020년)



2-4-3. 연령별 1인 가구의 주요 전입지역

수도권 1인 가구의 주요 전입지역은 34세 이하의 경우 서울 관악구, 중·장년층의 경우 경기 화성시, 노년층의 경우 경기 용인시임

□ 수도권 1인 가구의 주요 전입지역을 연령별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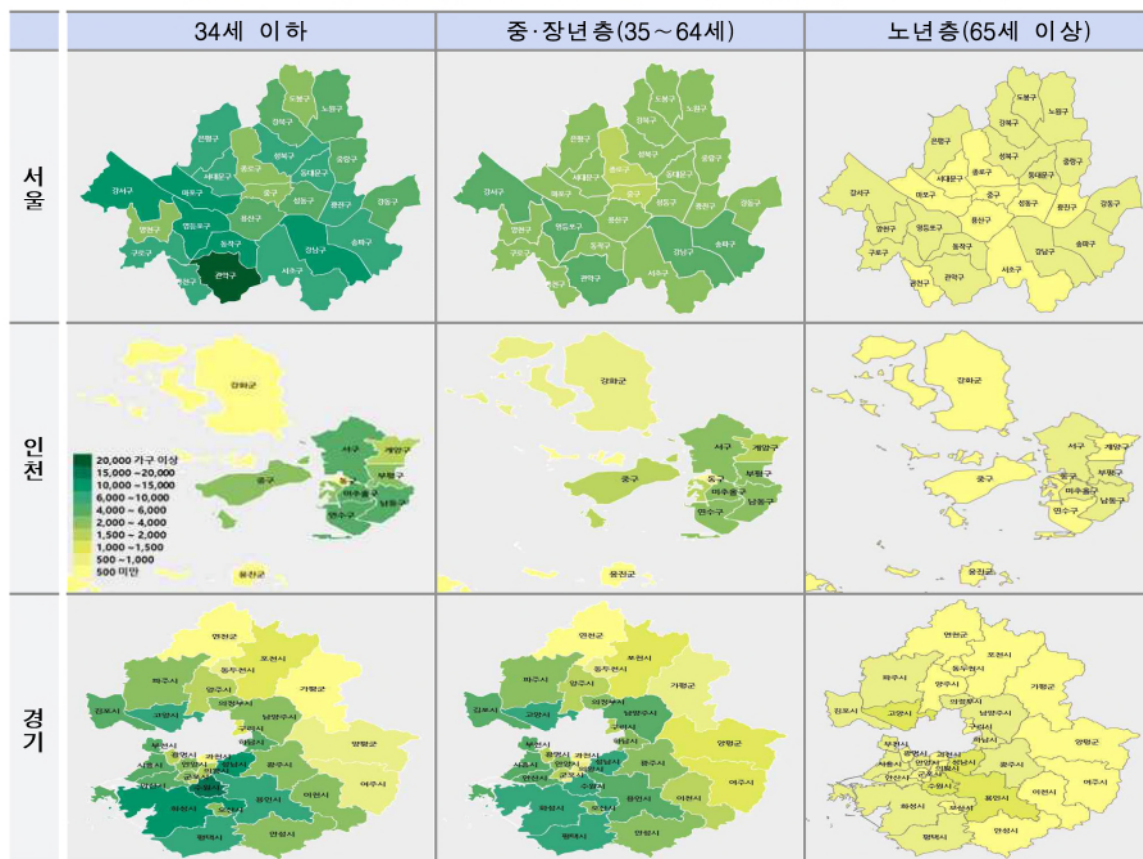
- (34세 이하) 서울 관악구, 경기 수원시, 화성시 등으로 주로 전입
- (중·장년층) 경기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등으로 주로 전입
- (노년층) 경기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등으로 주로 전입

표 1-10: 연령별 1인 가구의 전입지역 상위

(단위: 가구)

		34세 이하		중·장년층(35~64세)		노년층(65세 이상)	
		시군구	전입가구 수	시군구	전입가구 수	시군구	전입가구 수
서울	1위	관악구	26,438	관악구	5,250	노원구	786
	2위	강서구	12,147	강남구	4,930	강동구	785
	3위	동작구	11,561	송파구	4,743	강서구	728
인천	1위	미추홀구	5,249	남동구	3,837	남동구	738
	2위	남동구	4,742	서구	3,736	부평구	626
	3위	연수구	4,316	미추홀구	3,354	미추홀구	566
경기	1위	수원시	15,075	화성시	8,083	용인시	1,333
	2위	화성시	12,867	수원시	7,075	고양시	1,263
	3위	성남시	11,159	평택시	6,511	성남시	1,006

그림 1-13: 시군구 및 연령별 1인 가구 전입 규모(2020년)





Ⅲ. 1인 가구 경제 상황

3-1. 1인 가구의 경제활동(15세 이상)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중 취업가구 비율은 66.0%로 2010년에 비해 3.4%p 증가
 ◇ 남자는 57.4%에서 56.7%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42.6%에서 43.3%로 증가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 중 취업가구 비율은 2010년에 비해 3.4%p 증가한 66.0%로 전국(61.9%)과 비수도권(58.2%)보다 각각 4.1%p, 7.8%p 높음
 - 가구주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2010년 57.4%에서 2020년 56.7%로 0.7%p 감소한 반면, 여자는 42.6%에서 43.3%로 0.7%p 증가
 - 수도권 시도별로 보면, 취업가구 비율은 경기(67.8%)에서, 미취업가구 비율은 인천(36.5%)에서 가장 높음

그림 3-1: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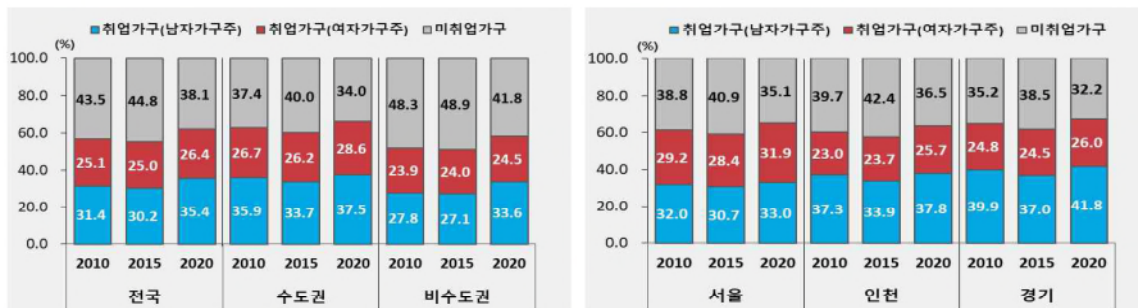


표 3-1: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규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취업가구		남자		여자		미취업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국	2010년	4,142	100.0	2,341	56.5	1,301	55.5	1,041	44.5	1,801	43.5
	2015년	5,211	100.0	2,874	55.2	1,571	54.7	1,303	45.3	2,337	44.8
	2020년	6,643	100.0	4,110	61.9	2,354	57.3	1,756	42.7	2,533	38.1
수도권	2010년	1,823	100.0	1,142	62.6	655	57.4	487	42.6	681	37.4
	2015년	2,386	100.0	1,431	60.0	805	56.3	626	43.7	955	40.0
	2020년	3,121	100.0	2,061	66.0	1,169	56.7	892	43.3	1,060	34.0
서울	2010년	855	100.0	523	61.2	273	52.3	250	47.7	331	38.8
	2015년	1,115	100.0	659	59.1	343	52.0	316	48.0	456	40.9
	2020년	1,391	100.0	902	64.9	459	50.9	443	49.1	489	35.1
인천	2010년	191	100.0	115	60.3	71	61.9	44	38.1	76	39.7
	2015년	243	100.0	140	57.6	83	58.9	58	41.1	103	42.4
	2020년	325	100.0	206	63.5	123	59.6	83	40.4	119	36.5
경기	2010년	777	100.0	503	64.8	310	61.6	193	38.4	274	35.2
	2015년	1,028	100.0	632	61.5	380	60.1	252	39.9	396	38.5
	2020년	1,406	100.0	953	67.8	587	61.6	366	38.4	453	32.2
비수도권	2010년	2,319	100.0	1,200	51.7	646	53.8	554	46.2	1,120	48.3
	2015년	2,825	100.0	1,443	51.1	766	53.1	677	46.9	1,382	48.9
	2020년	3,522	100.0	2,049	58.2	1,185	57.8	864	42.2	1,473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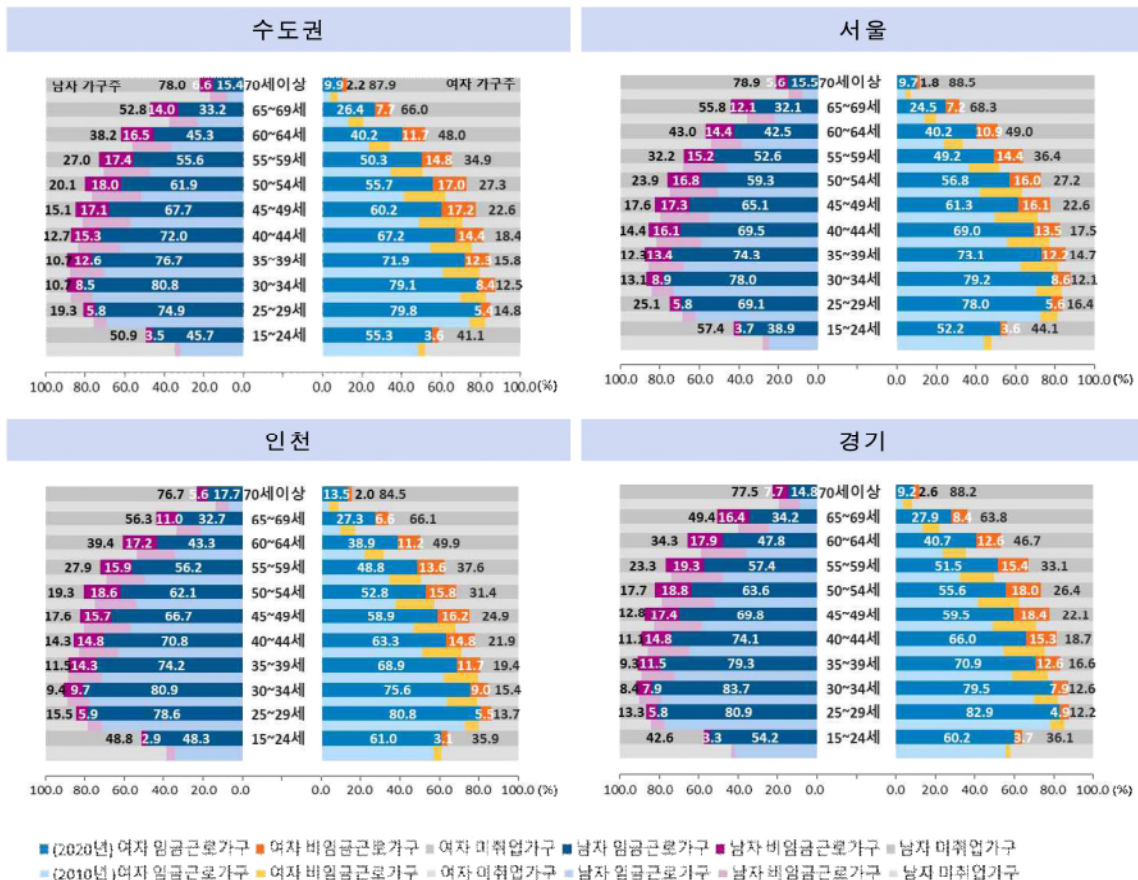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20%)부문」, 2010년, 2015년, 2020년

3-1-1. 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2010년에 비해 수도권 남녀 1인 가구의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가구 비율이 증가, 특히 여자 중·장년 가구(7.9%p), 남녀 노인 가구(7.3%p, 6.7%p)에서 크게 증가

- 2020년 수도권 전체 취업 1인 가구의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
 - 남자 취업가구 전체에서 15~34세 가구 비율은 36.9%로 2010년에 비해 4.0%p 감소한 반면, 중·장년 가구(57.9%)와 노인 가구(5.1%) 비율은 각각 1.7%p, 2.2%p 증가
 - 여자 취업가구 전체에서 15~34세 가구와 중·장년 가구 비율은 42.7%, 48.4%로 2010년에 비해 각각 2.2%p, 0.9%p 감소한 반면, 노인 가구(8.9%) 비율은 3.1%p 증가
- 연령별 전체 1인 가구 대비 취업가구 비율을 보면,
 - 15~34세 남자 1인 가구 중 취업가구 비율은 78.9%, 중·장년 1인 가구는 80.4%, 노인 1인 가구는 32.0%로 2010년에 비해 각각 4.2%p, 0.6%p, 7.3%p 증가
 - 15~34세 여자 1인 가구 중 취업가구 비율은 78.0%, 중·장년 1인 가구는 70.7%, 노인 1인 가구는 17.8%로 2010년에 비해 각각 3.3%p, 7.9%p, 6.7%p 증가

그림 3-2: 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비율(2010년, 2020년)





3-1-2. 교육 · 주거 특성별 및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취업가구는 미취업가구보다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과 월세 · 사글세 거주 비율이 높음

- 수도권 1인 가구의 교육 및 주거 특성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 (교육 정도별) 취업가구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와 대학교 이상이 각각 37.9%, 62.1%를 차지하고, 미취업가구의 경우 각각 66.8%, 33.2%를 차지
 - (거처 유형별) 취업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가 각각 34.1%, 28.0%, 18.3%를 차지하고, 미취업가구의 경우 각각 37.6%, 33.2%, 9.7%를 차지
 - (주택 점유 형태별) 취업가구의 경우 자기집, 전세, 월세 · 사글세 거주가 각각 23.3%, 27.0%, 45.3%를 차지하고, 미취업가구의 경우 각각 34.7%, 18.3%, 42.2%를 차지

그림 3-3: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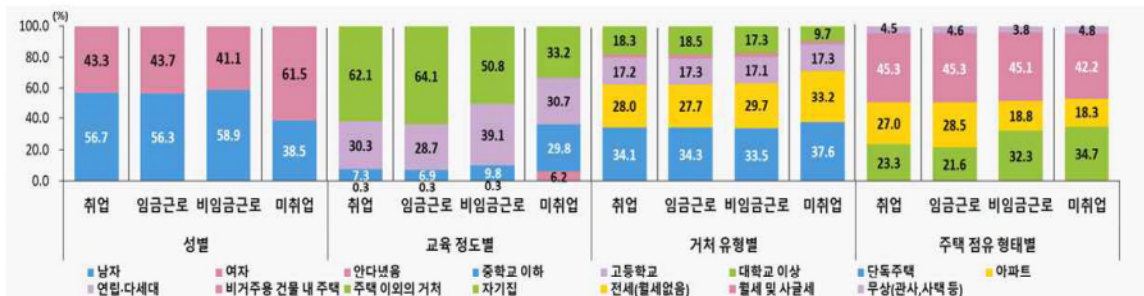


표 3-2: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규모, 2020년 (단위: 가구, %)

특성별		1인 가구		취업가구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미취업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수도권		3,121,460	100.0	2,061,043	100.0	1,741,358	100.0	319,685	100.0	1,060,417	100.0
성별	남자	1,577,699	50.5	1,169,064	56.7	980,683	56.3	188,381	58.9	408,635	38.5
	여자	1,543,761	49.5	891,979	43.3	760,675	43.7	131,304	41.1	651,782	61.5
교육 정도	안다녔음	71,838	2.3	6,057	0.3	5,002	0.3	1,055	0.3	65,781	6.2
	중학교 이하	467,618	15.0	151,178	7.3	119,926	6.9	31,252	9.8	316,440	29.8
	고등학교	950,452	30.4	624,506	30.3	499,568	28.7	124,938	39.1	325,946	30.7
	대학교 이상	1,631,552	52.3	1,279,302	62.1	1,116,862	64.1	162,440	50.8	352,250	33.2
거처 유형	단독주택	1,102,287	35.3	703,842	34.1	596,723	34.3	107,119	33.5	398,445	37.6
	아파트	929,295	29.8	577,204	28.0	482,315	27.7	94,889	29.7	352,091	33.2
	연립·다세대	539,020	17.3	355,302	17.2	300,608	17.3	54,694	17.1	183,718	17.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71,528	2.3	47,971	2.3	40,382	2.3	7,589	2.4	23,557	2.2
	주택이외의 거처	479,330	15.4	376,724	18.3	321,330	18.5	55,394	17.3	102,606	9.7
주택 점유 형태	자기집	848,271	27.2	479,929	23.3	376,619	21.6	103,310	32.3	368,342	34.7
	전세(월세없음)	750,124	24.0	555,654	27.0	495,587	28.5	60,067	18.8	194,470	18.3
	월세 및 사글세	1,380,052	44.2	932,950	45.3	788,631	45.3	144,319	45.1	447,102	42.2
	무상 (관사, 사택 등)	143,013	4.6	92,510	4.5	80,521	4.6	11,989	3.8	50,503	4.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20%)부문」, 2020년

주1: (교육정도) 졸업, 재학, 중퇴, 휴학, 수료 포함

주2: (월세 및 사글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

3-1-3. 시군구별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취업가구 비율은 인천 옹진군, 경기 화성시, 오산시 등에서 높고, 미취업가구 비율은 인천 강화군, 서울 노원구, 경기 양평군 등에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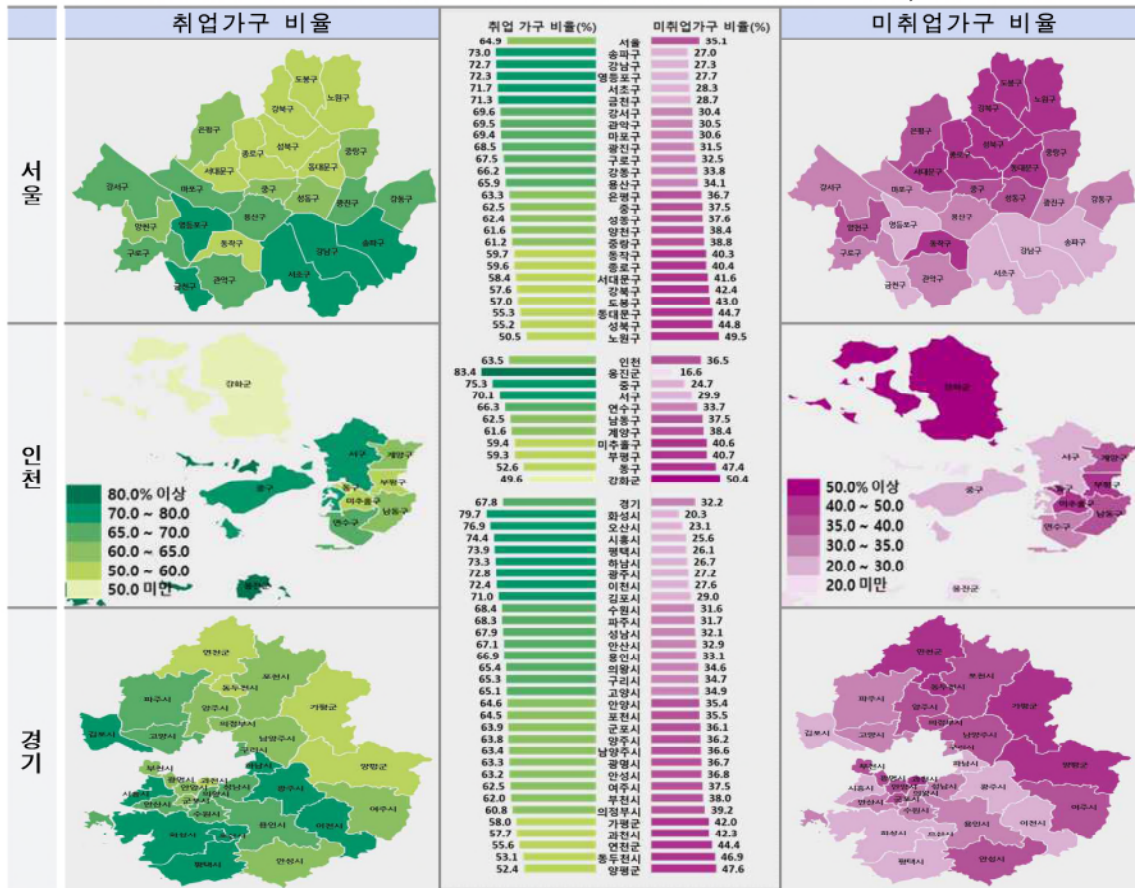
□ 수도권 시군구별로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 취업가구 비율은 서울 송파구, 강남구, 인천 옹진군, 중구, 경기 화성시, 오산시 등에서 높음
- 미취업가구 비율은 서울 노원구, 성북구, 인천 강화군, 동구, 경기 양평군, 동두천시 등에서 높음

표 3-3: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비율 상위 (단위: 가구, %)

		취업가구			미취업가구		
		지역	취업가구	비율	지역	미취업가구	비율
서울	1위	송파구	53,784	73.0	노원구	27,941	49.5
	2위	강남구	50,169	72.7	성북구	27,585	44.8
	3위	영등포구	46,272	72.3	동대문구	27,244	44.7
인천	1위	옹진군	3,037	83.4	강화군	4,083	50.4
	2위	중구	17,400	75.3	동구	3,476	47.4
	3위	서구	34,196	70.1	부평구	21,819	40.7
경기	1위	화성시	72,653	79.7	양평군	7,117	47.6
	2위	오산시	22,815	76.9	동두천시	5,641	46.9
	3위	시흥시	41,608	74.4	연천군	2,750	44.4

그림 3-4: 시군구 및 경제활동 상태별 1인 가구 비율, 2020년





3-2.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25.6%로 2015년에 비해 0.8%p 감소 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주택 소유 비율 감소

- 수도권 일반가구 기준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25.6%로 전국(29.4%)과 비수도권(32.8%)보다 각각 3.8%p, 7.2%p 낮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8%p 감소
- 수도권 시도별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인천(31.8%), 경기(28.0%), 서울 (21.8%) 순으로 높고, 2015년에 비해 모두 주택 소유 비율 감소

그림 3-5: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



표 3-4: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규모

(단위: 천 가구, %)

		1인 가구		주택 소유 가 구		소유 물건 수		소유 주택 자산 가액별				무주택 가구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건	2건 이상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구성비	구성비
전국	2015년	5,203	100.0	1,579	30.4	1,336	243	1,404	133	27	16	3,624	69.6
	2018년	5,849	100.0	1,699	29.1	1,385	314	1,440	182	43	34	4,149	70.9
	2020년	6,643	100.0	1,955	29.4	1,601	354	1,535	273	76	70	4,688	70.6
수도권	2015년	2,386	100.0	630	26.4	532	98	507	90	20	13	1,756	73.6
	2018년	2,703	100.0	680	25.1	559	121	499	122	32	27	2,023	74.9
	2020년	3,122	100.0	800	25.6	663	137	510	180	54	56	2,321	74.4
서울	2015년	1,116	100.0	256	22.9	216	40	182	51	14	10	860	77.1
	2018년	1,229	100.0	264	21.4	217	47	159	66	19	19	966	78.6
	2020년	1,391	100.0	303	21.8	251	51	148	84	33	38	1,088	78.2
인천	2015년	244	100.0	80	32.8	68	12	74	5	1	-	164	67.2
	2018년	276	100.0	89	32.3	74	15	80	7	1	1	187	67.7
	2020년	325	100.0	103	31.8	86	17	87	12	2	1	222	68.2
경기	2015년	1,026	100.0	294	28.6	248	46	251	34	6	3	732	71.4
	2018년	1,198	100.0	327	27.3	268	59	260	49	11	7	870	72.7
	2020년	1,406	100.0	394	28.0	325	69	274	84	20	16	1,012	72.0
비수도권	2015년	2,818	100.0	950	33.7	804	146	897	43	7	3	1,868	66.3
	2018년	3,146	100.0	1,020	32.4	827	193	940	61	12	7	2,126	67.6
	2020년	3,522	100.0	1,155	32.8	938	217	1,025	93	22	15	2,367	67.2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15년, 2018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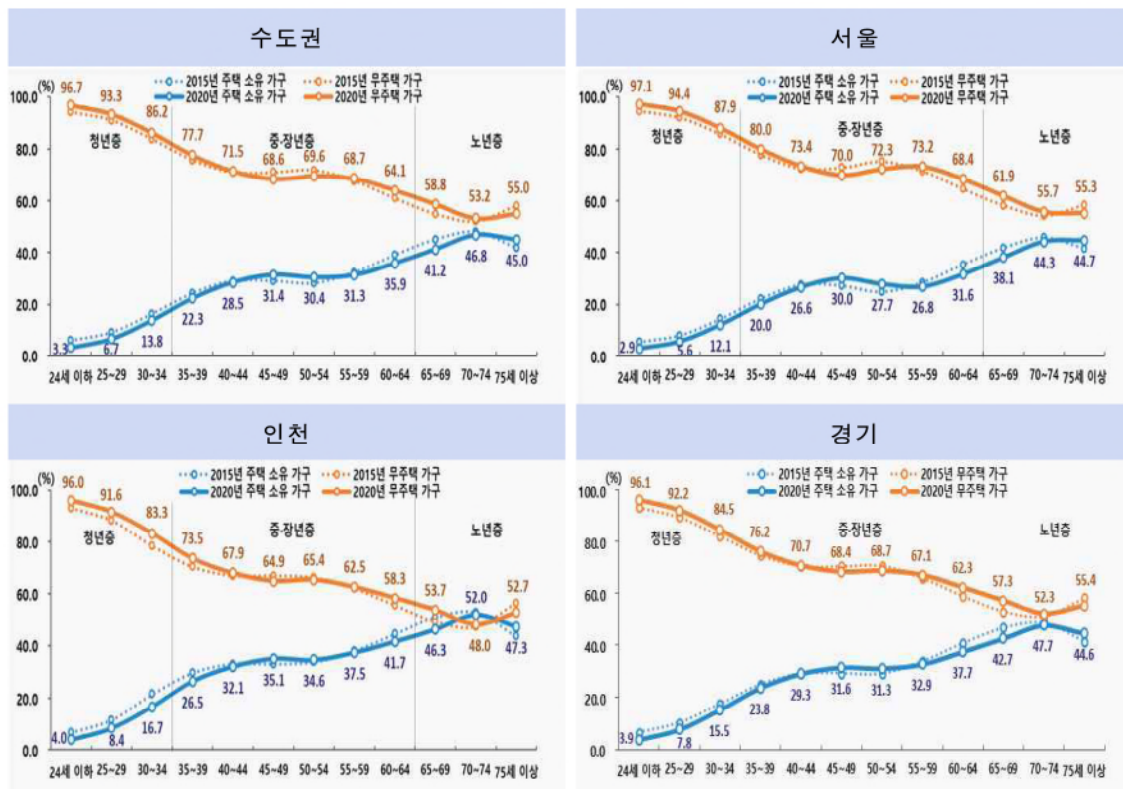
주: 가구의 주택 자산가액은 기준년 익년 1. 1. 기준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을 반영하여 집계

3-2-1. 1인 가구의 연령별 주택 소유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2015년에 비해 45~54세와 7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 수도권 1인 가구의 연령별 주택 소유 비율을 보면,
 - (34세 이하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율은 2015년에 비해 2.8%p 감소한 8.4%로 수도권 전체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25.6%)보다 17.2%p 낮음
 - (중·장년층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1%p 증가한 29.8%이며, 60~64세의 주택 소유 비율이 35.9%로 높음
 - (노인 1인 가구) 주택 소유 비율은 2015년에 비해 0.1%p 감소한 44.3%이며, 65~69세에서 3.8%p 감소한 반면, 75세 이상에서 3.2%p 증가
- 수도권 시도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모두 45~54세와 7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주택 소유 비율 감소

그림 3-6: 1인 가구의 연령별 주택 소유 비율(2015년, 2020년)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15년, 2020년



3-2-2. 시군구별 주택 소유 1인 가구

수도권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은 서울 관악구(86.8%) 등에서 높고, 66개 시군구 중 27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1인 가구 전체(74.4%)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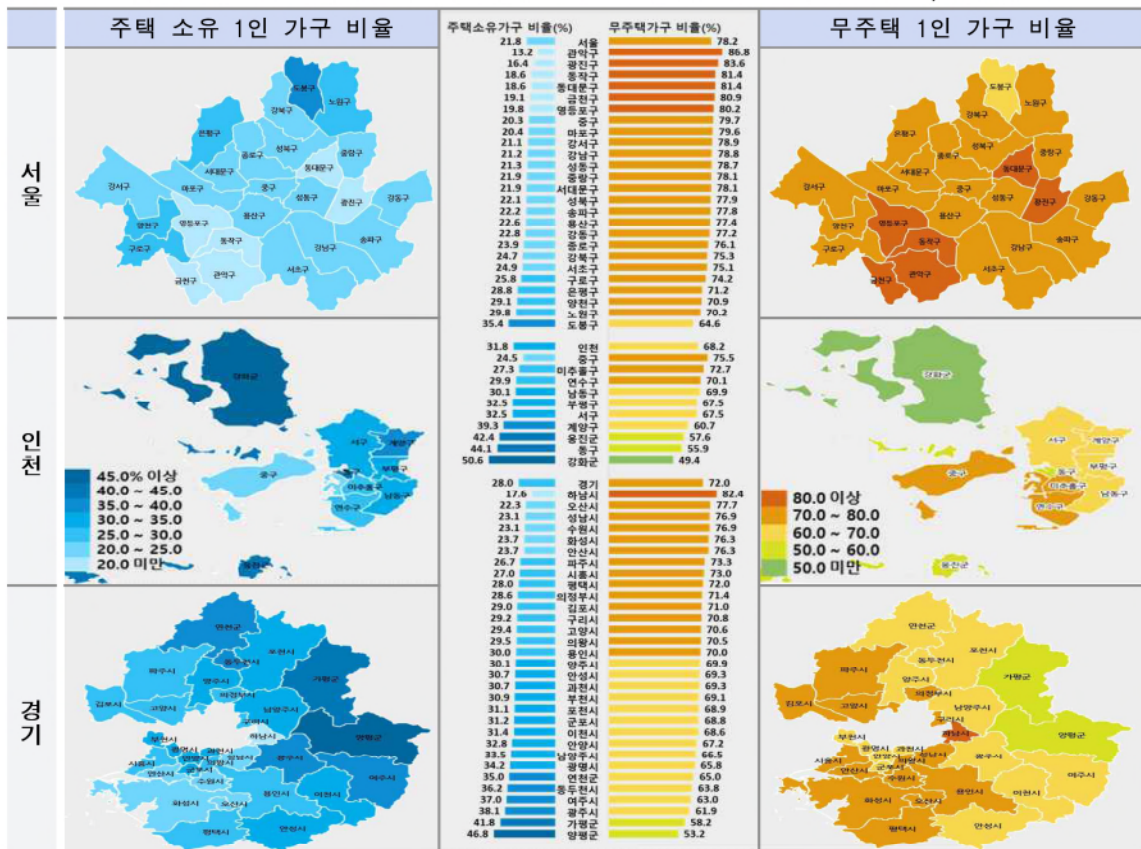
□ 수도권 66개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인천 강화군(50.6%), 경기 양평군(46.8%) 등에서 높고, 39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1인 가구 전체(25.6%)보다 높음
-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은 서울 관악구(86.8%), 광진구(83.6%) 등에서 높고, 27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1인 가구 전체(74.4%)보다 높음

표 3-5: 주택 소유 및 무주택 1인 가구 비율 상위 (단위: 가구, %)

		지역	1인 가구	주택 소유 가구	비율	지역	1인 가구	무주택 가구	비율
서울	1위	도봉구	34,884	12,361	35.4	관악구	129,233	112,189	86.8
	2위	노원구	56,438	16,831	29.8	광진구	62,301	52,102	83.6
	3위	양천구	39,436	11,462	29.1	동작구	64,101	52,191	81.4
인천	1위	강화군	8,095	4,093	50.6	중구	23,101	17,432	75.5
	2위	동구	7,335	3,234	44.1	미추홀구	56,472	41,037	72.7
	3위	옹진군	3,640	1,545	42.4	연수구	34,745	24,353	70.1
경기	1위	양평군	14,949	6,998	46.8	하남시	33,759	27,806	82.4
	2위	가평군	8,996	3,764	41.8	오산시	29,692	23,058	77.7
	3위	광주시	34,577	13,180	38.1	성남시	115,433	88,818	76.9

그림 3-7: 시군구별 주택 소유 및 무주택 1인 가구 비율, 2020년



3-2-3. 연령별 무주택 1인 가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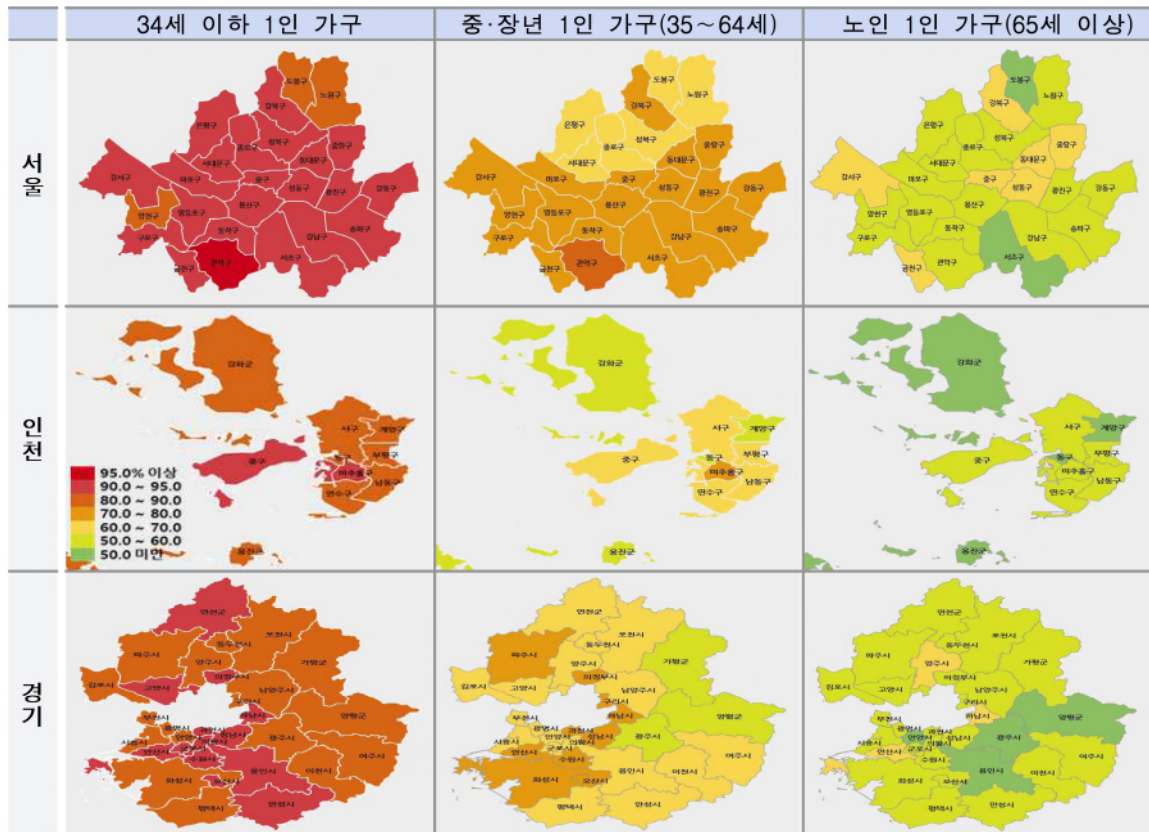
34세 이하 1인 가구는 수도권 모든 시군구에서, 중·장년 1인 가구는 13개 시군구에서 무주택 비율이 수도권 1인 가구 전체(74.4%)보다 높음

- 수도권 시군구별로 무주택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 (34세 이하 1인 가구) 서울 관악구(95.6%), 광진구(94.9%) 등에서 높고, 66개 시군구 모두 수도권 전체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74.4%)보다 높음
 - (중·장년 1인 가구) 서울 관악구(80.0%), 광진구(78.6%) 등에서 높고, 13개 시군구에서 수도권 전체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74.4%)보다 높음
 - (노인 1인 가구) 경기 하남시(68.8%), 서울 중구(66.9%) 등에서 무주택 비율이 높음

표 3-6: 연령별 무주택 1인 가구 비율 상위 (단위: 가구, %)

		34세 이하 1인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지역	무주택가구	비율	지역	무주택가구	비율	지역	무주택가구	비율
서울	1위	관악구	71,837	95.6	관악구	32,328	80.0	중구	3,029	66.9
	2위	광진구	28,547	94.9	광진구	18,884	78.6	강서구	10,638	65.3
	3위	동작구	31,306	94.5	중랑구	22,127	78.1	금천구	4,781	62.8
인천	1위	미추홀구	16,194	93.2	미추홀구	18,320	70.0	남동구	7,835	55.9
	2위	중구	8,141	91.7	중구	7,001	69.1	중구	2,290	55.9
	3위	남동구	12,598	89.8	남동구	21,084	67.2	부평구	7,799	54.5
경기	1위	하남시	10,689	94.9	하남시	13,179	78.6	하남시	3,938	68.8
	2위	오산시	9,743	92.6	성남시	42,160	75.3	안산시	8,618	61.3
	3위	수원시	51,688	92.0	안산시	33,166	73.4	양주시	3,795	60.7

그림 3-8: 시군구 및 연령별 무주택 1인 가구 비율, 2020년





IV. 1인 가구 건강 특성

4-1. 1인 가구의 건강행태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49.3%)과 우울감 경험률(10.5%)은 2010년에 비해 각각 7.1%p, 0.6%p 높고, 스트레스 인지율(28.5%)은 6.1%p 낮음

□ 2020년 수도권 1인 가구의 건강행태를 보면,

-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49.3%로 전국(46.4%)과 비수도권(44.1%)보다 높고, 2010년에 비해 7.1%p 높음
-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로 전국(25.3%)과 비수도권(22.7%)보다 높고, 2010년에 비해 6.1%p 낮음
- 우울감 경험률은 10.5%로 전국(9.4%)과 비수도권(8.5%)보다 높고, 2010년에 비해 0.6%p 높음

그림 4-1: 1인 가구의 건강행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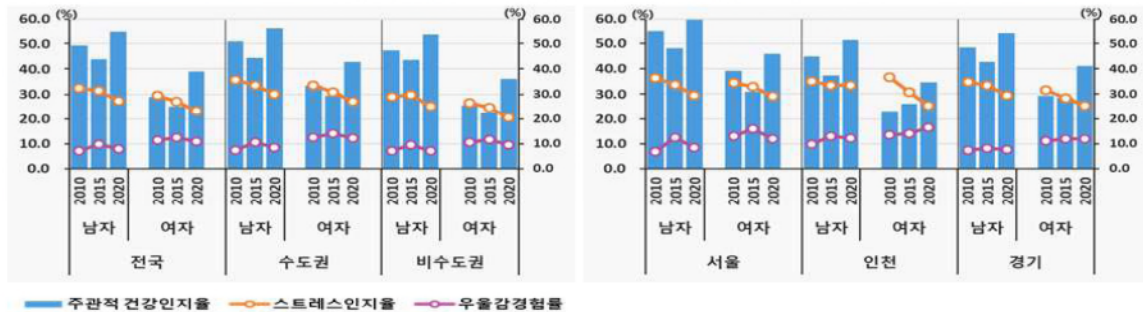


표 4-1: 1인 가구의 건강행태 변화

(단위: %)

		주관적 건강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1인가구	가구주 성별 남자	여성	1인가구	가구주 성별 남자	여성	1인가구	가구주 성별 남자	여성
전국	2010년	37.9	49.3	28.9	30.7	32.4	29.4	9.5	7.2	11.3
	2015년	33.7	44.0	25.1	29.0	31.4	27.0	11.4	9.9	12.6
	2020년	46.4	54.6	38.9	25.3	27.4	23.4	9.4	7.8	10.8
수도권	2010년	42.2	51.0	33.5	34.6	35.6	33.5	9.9	7.4	12.4
	2015년	36.8	44.6	29.4	32.1	33.6	30.7	12.4	10.5	14.1
	2020년	49.3	55.9	42.7	28.5	29.9	27.1	10.5	8.6	12.4
서울	2010년	46.9	54.8	39.3	35.5	36.6	34.5	10.1	6.8	13.1
	2015년	39.1	48.2	31.0	33.3	33.8	32.9	14.3	12.4	16.0
	2020년	52.5	59.8	46.1	29.4	29.4	29.3	10.3	8.5	12.0
인천	2010년	34.3	44.9	23.2	35.9	35.2	36.6	11.6	9.7	13.6
	2015년	31.6	37.4	26.1	32.0	33.4	30.8	13.5	12.9	14.0
	2020년	44.1	51.4	34.7	30.0	33.5	25.5	14.1	12.2	16.5
경기	2010년	39.0	48.4	29.2	33.1	34.7	31.5	9.2	7.3	11.2
	2015년	35.7	42.7	28.4	30.9	33.4	28.4	10.1	8.2	12.0
	2020년	47.7	54.0	41.2	27.4	29.3	25.5	9.8	7.7	11.9
비수도권	2010년	34.2	47.5	25.6	27.5	28.9	26.5	9.2	7.1	10.5
	2015년	31.5	43.5	22.5	26.9	29.8	24.7	10.7	9.4	11.7
	2020년	44.1	53.5	36.1	22.7	25.3	20.5	8.5	7.2	9.6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년, 2015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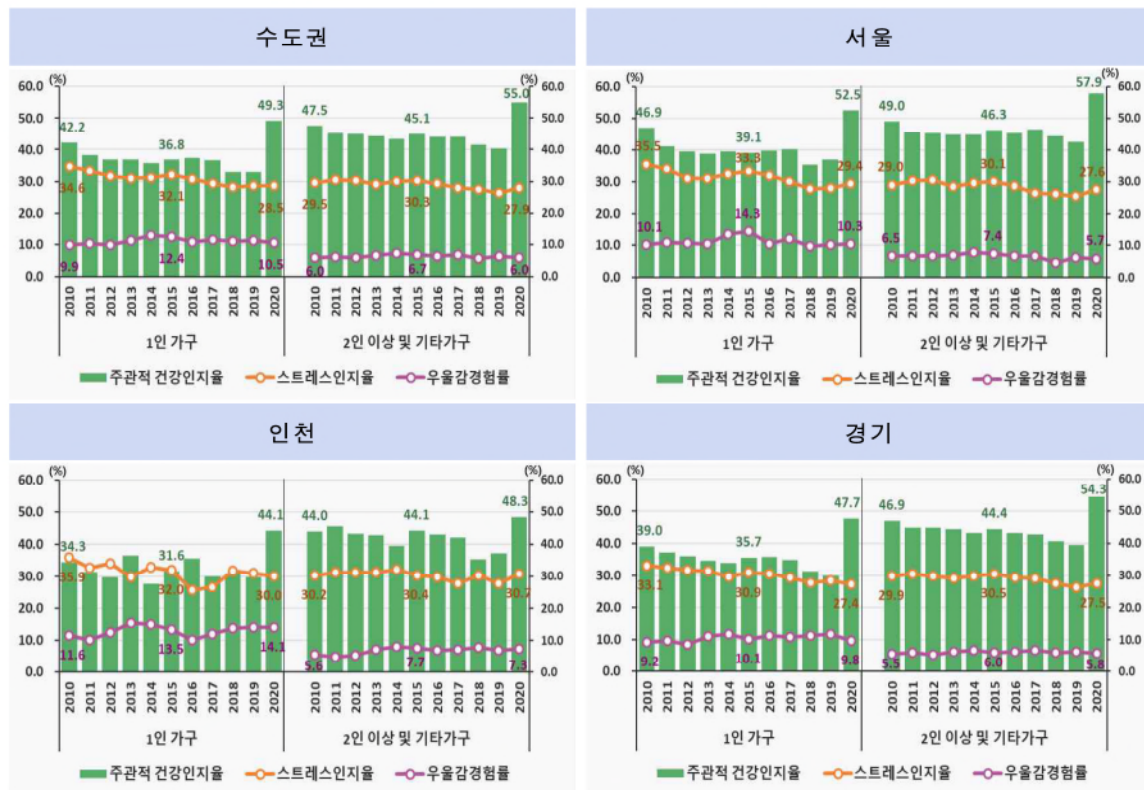
주: (조사 대상) 조사 시점에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4-2. 가구원 수별 건강행태

수도권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지난 10년(2010~2020년) 동안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대체로 낮고,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대체로 높음

- 2010~2020년 동안 수도권 1인 가구의 건강행태를 보면,
- 수도권 1인 가구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지난 10년 동안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남
 - 수도권 1인 가구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지난 10년 동안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 가구원 수별 건강행태 변화



자료: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0년~2020년

주1: (주관적 건강 인지율) 주관적 건강 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

주2: (스트레스 인지율)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주3: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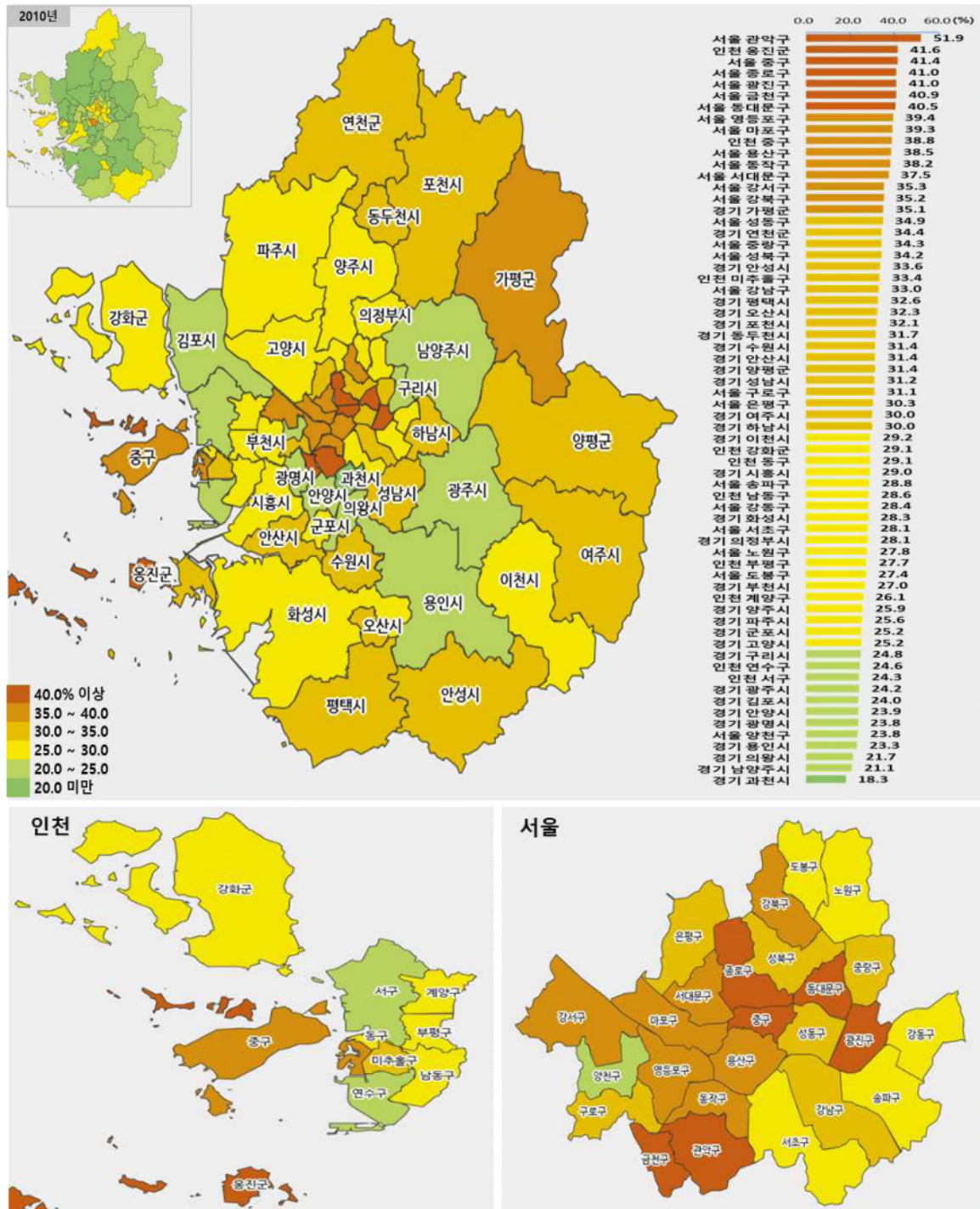
주4: * 기타 가구(미상 등) 포함



부록

지도로 보는 수도권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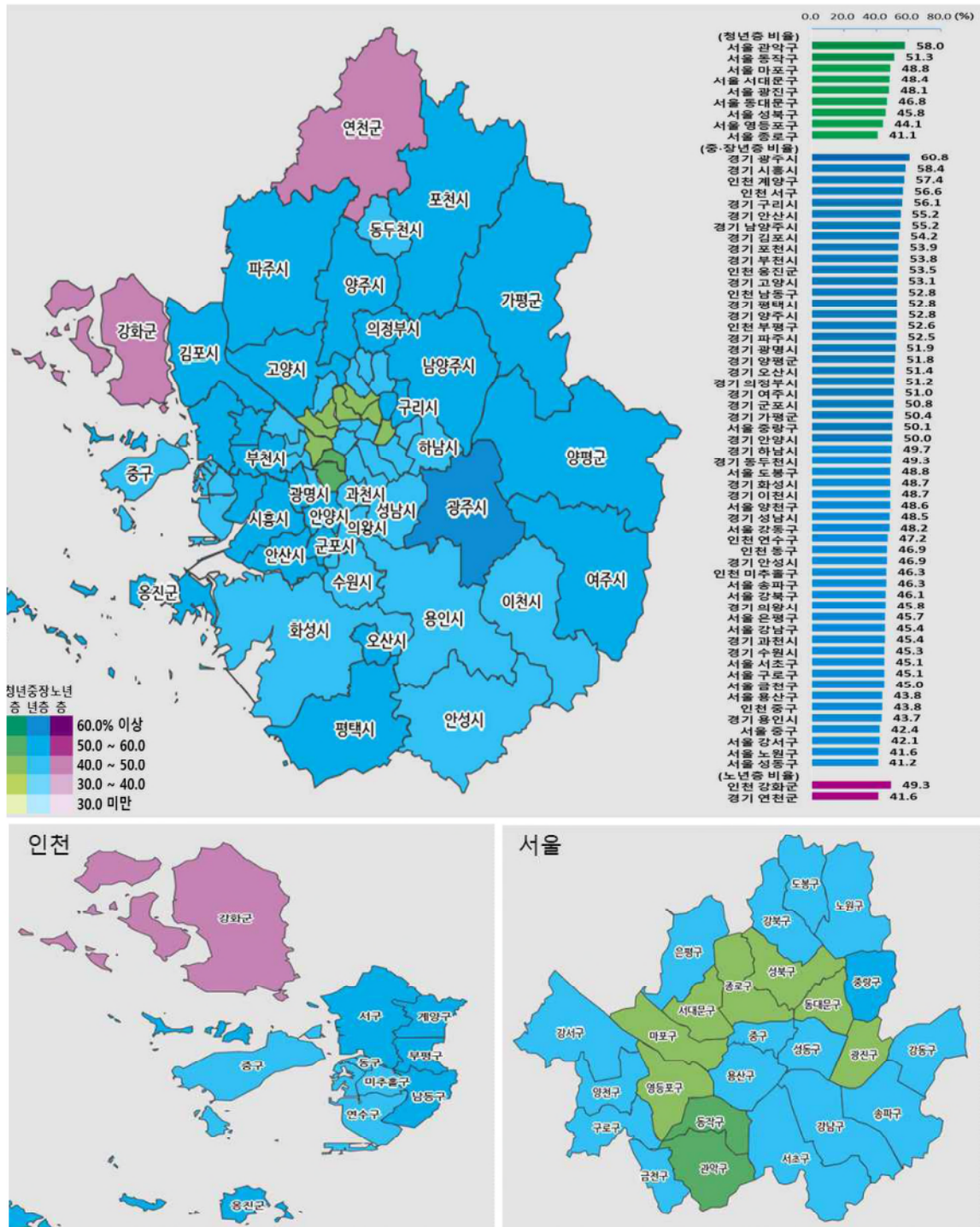
그림 1: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20년

주: 현장조사 방식: 2010년^{T(Traditional)}, 등록센서스 방식: 2020년^{R(Register-b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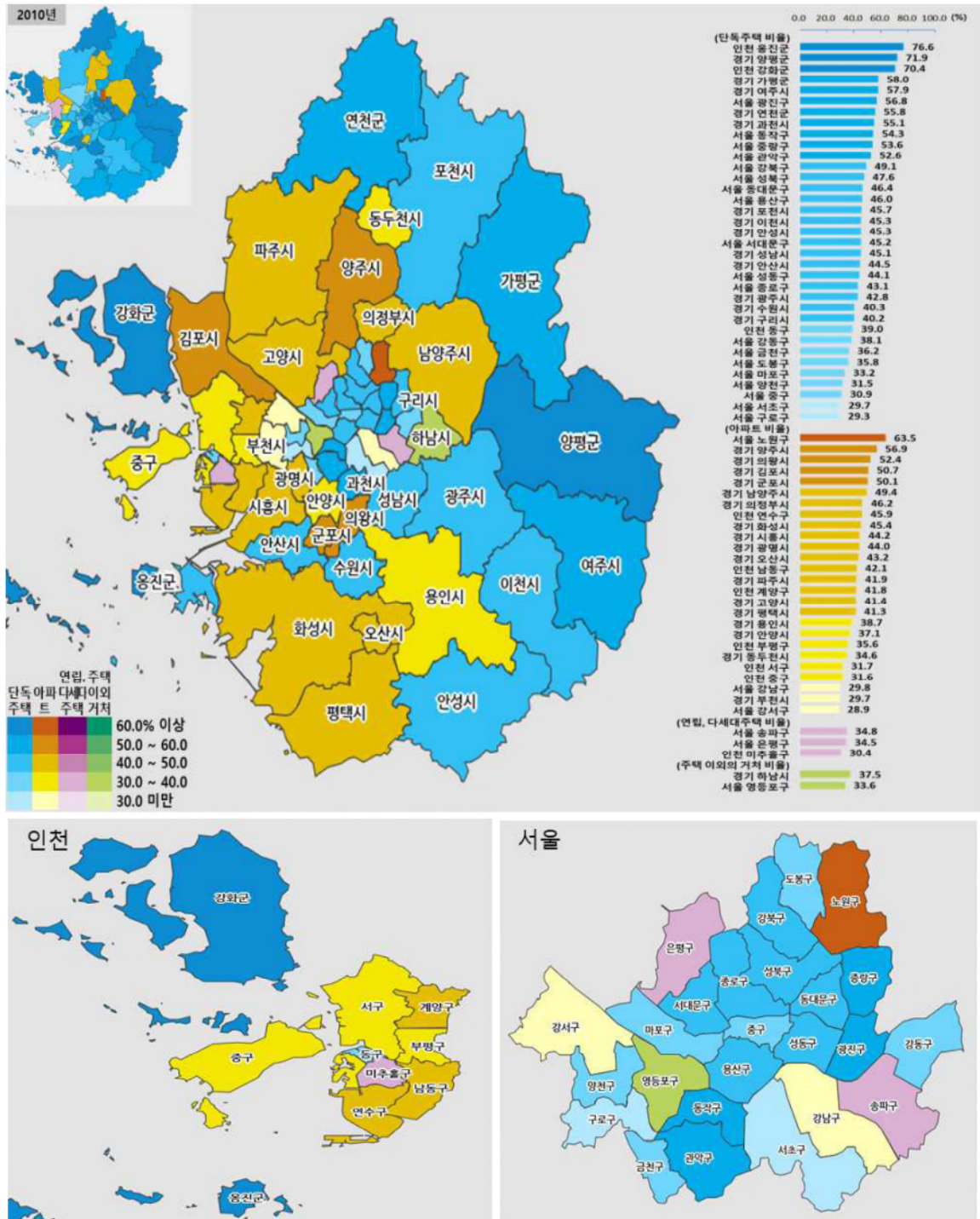
그림 2: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연령층(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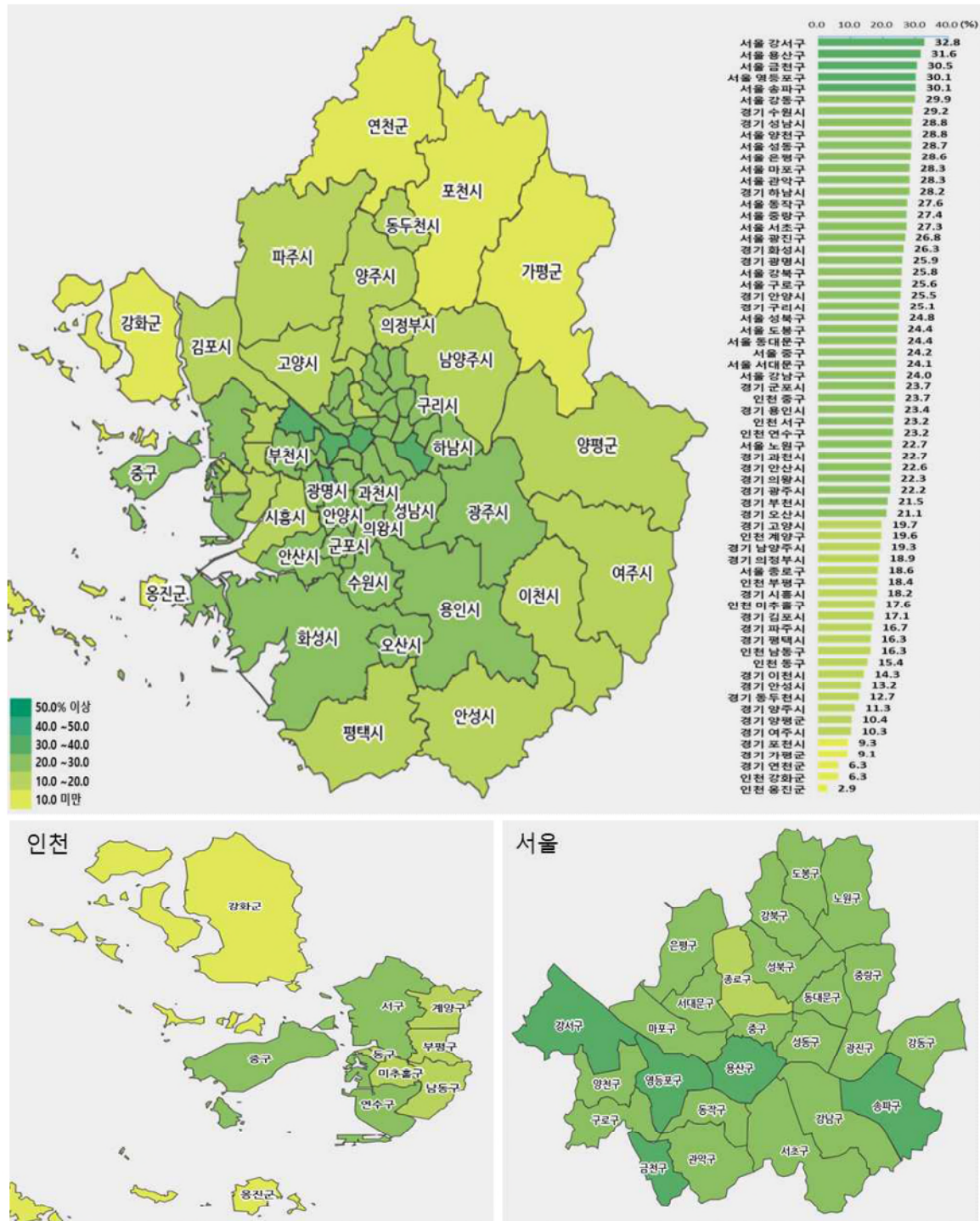
그림 3: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된 거처 유형(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10년, 2020년

주: 현장조사 방식: 2010년^{T(Traditional)}, 등록센서스 방식: 2020년^{R(Register-b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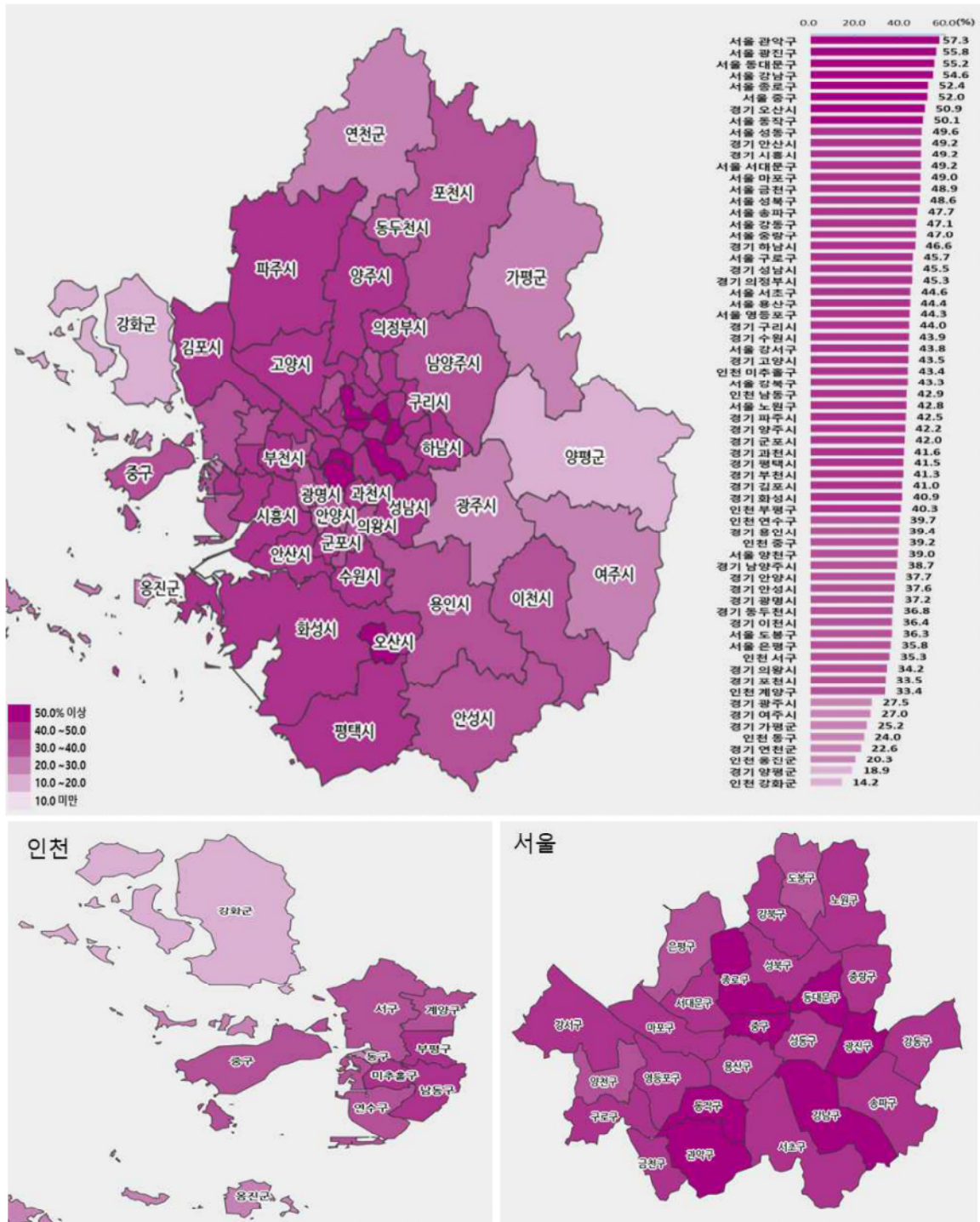
그림 4: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전세 거주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20%)부문」, 2020년



그림 5: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월세 거주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20%)부문」, 2020년

- 34세 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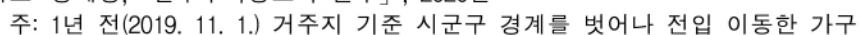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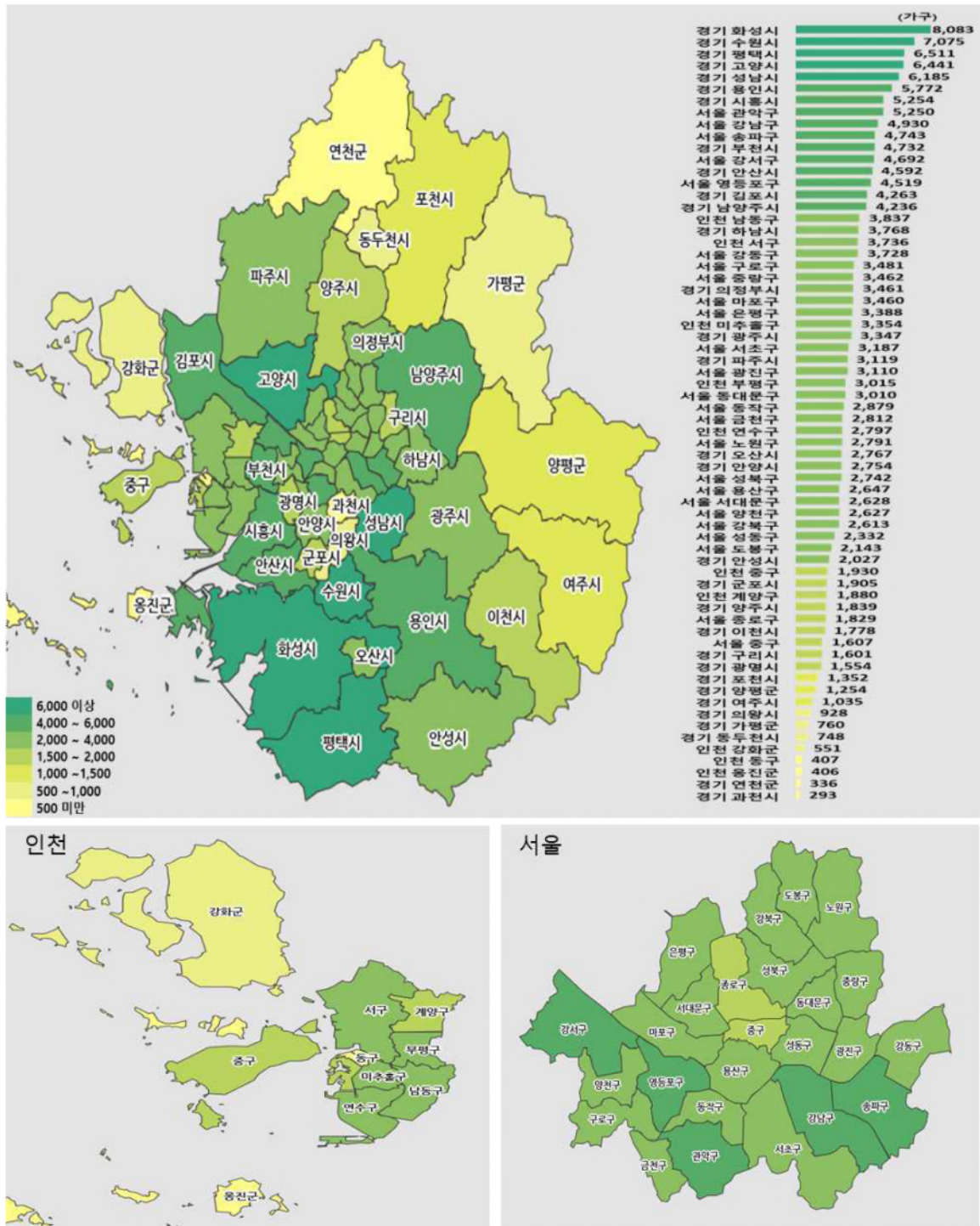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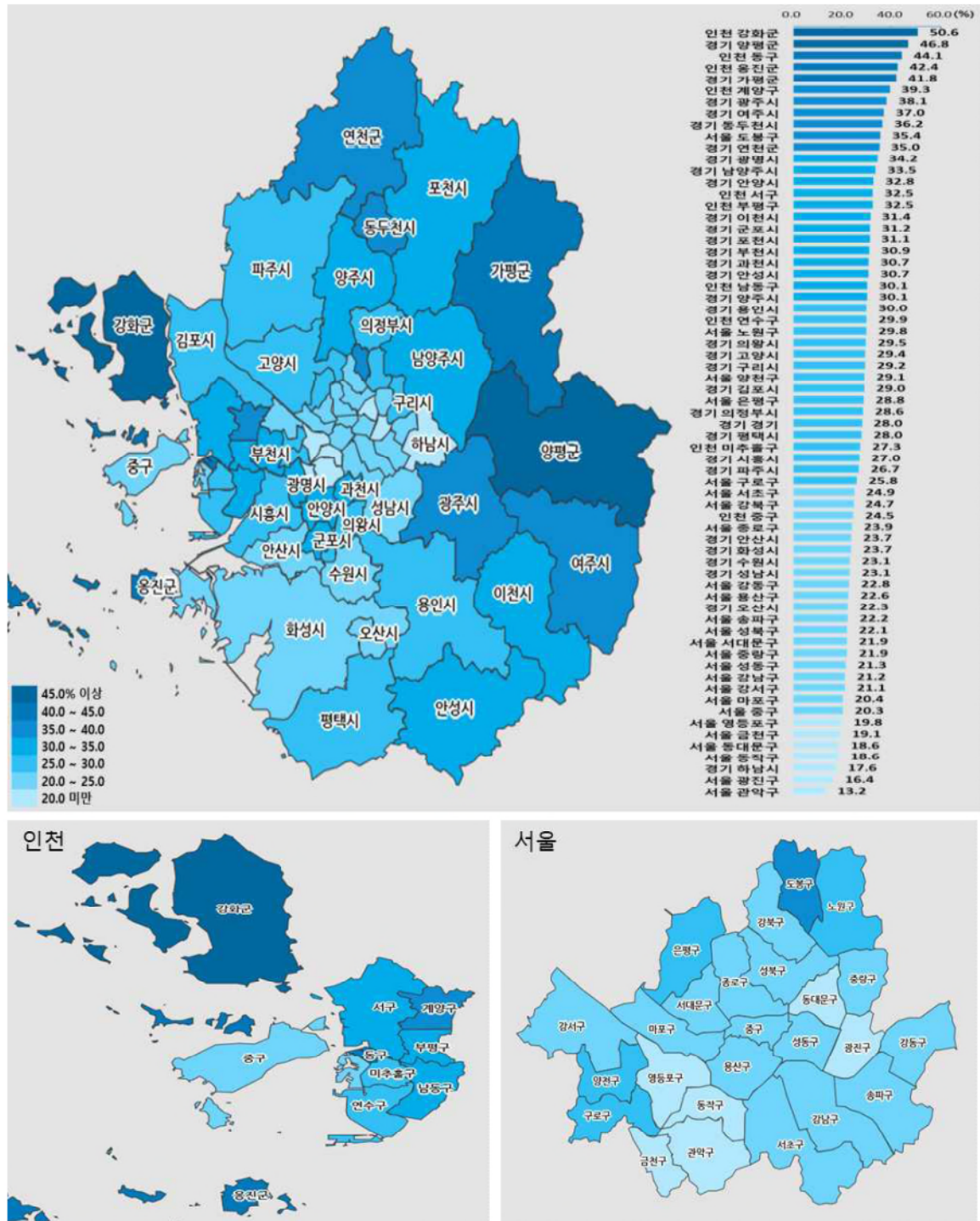
그림 7: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 전입 규모(2020년)
- 중·장년층(35~64세)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2020년

주: 1년 전(2019. 11. 1.) 거주지 기준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 전입 이동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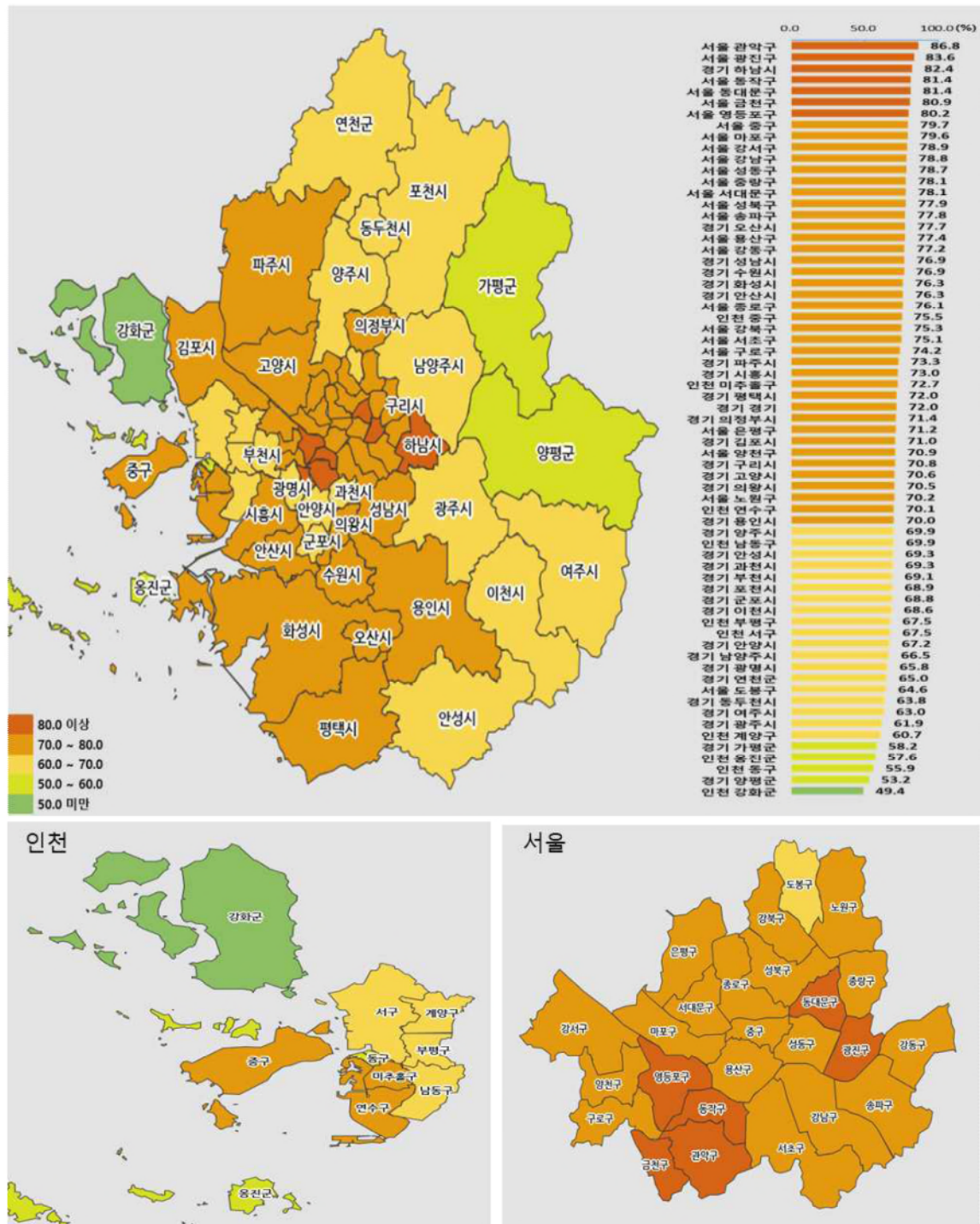
그림 8: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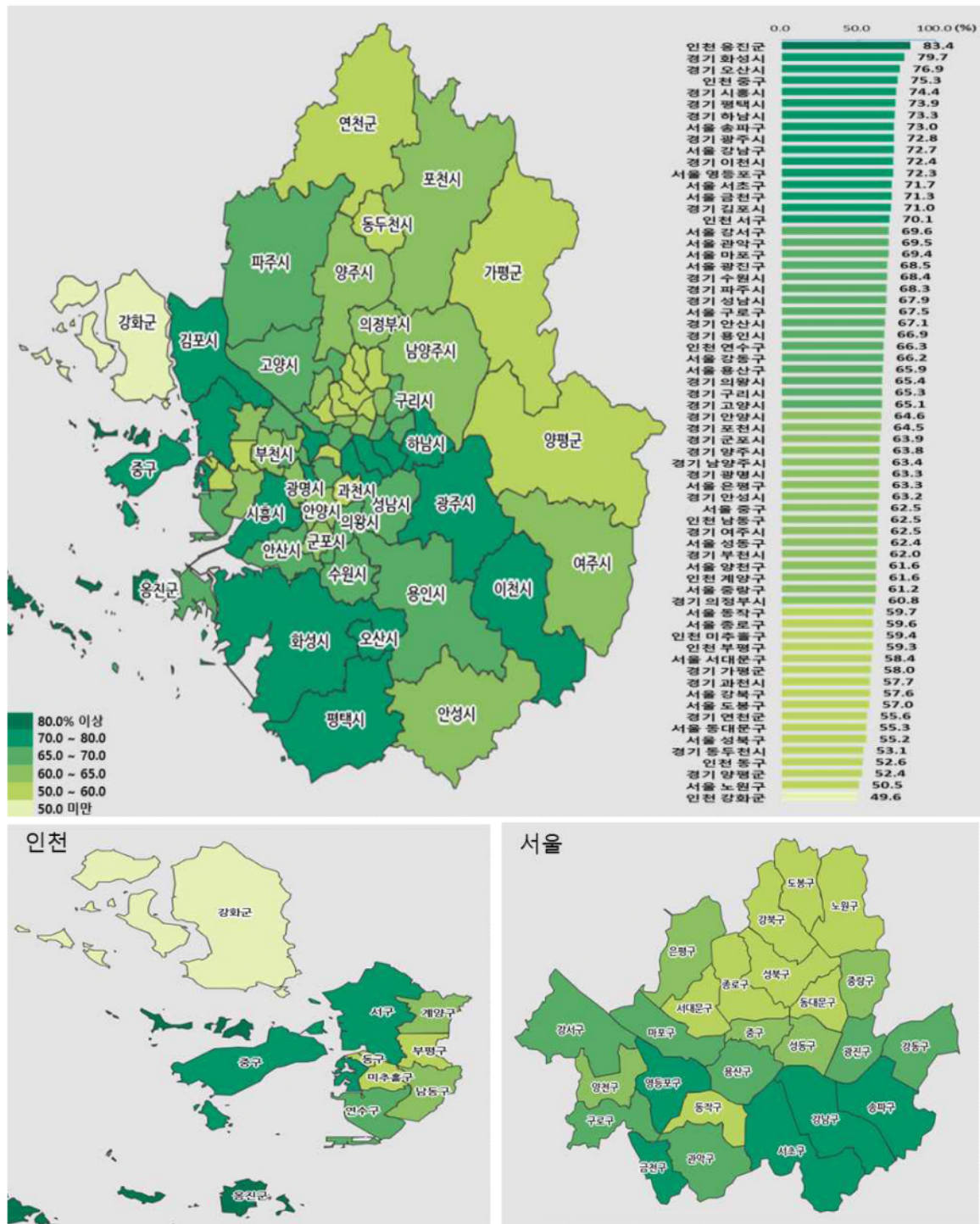


그림 9: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무주택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2020년

그림 10: 수도권 시군구별 1인 가구의 취업 비율(2020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표본(20%)부문」, 2020년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이윤정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분석 틀 및 지표구성

영역	하위영역	지표	출처
I. 인구 · 가구	-	고령인구 비중	장래인구추계
		지역별 고령인구	장래인구추계, 인구총조사
		고령가구 비중	인구총조사
		지역별 고령인구 순이동	국내인구이동통계
II. 건강	건강상태	기대여명	생명표
		사망원인별 사망률	사망원인통계
	의료이용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통계
	돌봄,요양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장기요양보험통계
III. 소득 보장	소득자산	자산 소유액 및 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노후보장	공적연금 수급률	직역연금DB 등
IV. 참여	경제활동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조사
	여가	주 여가활동	국민여가활동조사
V. 대인 관계	가족관계	혼인상태	인구총조사
		이혼 및 재혼건수	인구동향조사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조사
	사회관계	사회적 관계망	사회조사
VI. 생활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	주거환경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실태조사
	이동성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생활안전	학대피해율	노인학대현황
	복지환경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복지시설현황
	노인차별	차별경험률	국가인권실태조사
	노후가치관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사회조사
VII. 주관적 웰빙	-	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조사

일러두기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2년 수도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5.4%, 2027년 20.3%, 2050년 36.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인지방통계청은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를 작성하였습니다.
-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출처 및 대상 연령 >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은퇴연령층)」: 66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60세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60세 이상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60세 이상

-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는 통계청을 비롯한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하고 가공하여 작성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보도자료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regional/gj>)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요약]	134
----------------------------	-----

I.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139
2. 지역별 고령인구	142
3. 고령자 가구	144
4. 지역별 고령인구 순이동	145

II. 건강

5. 기대여명	148
6. 사망원인별 사망률	149
6-1. 코로나19 사망	151
7. 본인부담 의료비	152
8.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153

III. 소득보장

9. 자산 소유액 및 구성	154
10. 소득분배지표	155
11. 공적연금 수급률	156
12. 고용률	157

IV. 참여

13. 사회단체 참여율	159
14. 주 여가활동	160



V. 대인관계

15. 혼인상태	161
16. 이혼 및 재혼	163
17. 가족관계 만족도	164
18. 사회적 관계망	165

VI. 생활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66
20. 보행안전성	167
21.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168
22. 노인복지시설 현황	169
23. 노인차별	170
24.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171

VII.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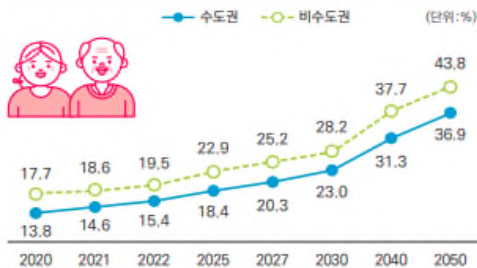
25. 삶에 대한 만족도	172
---------------------	-----

2022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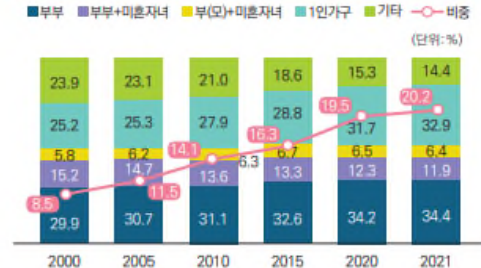


인구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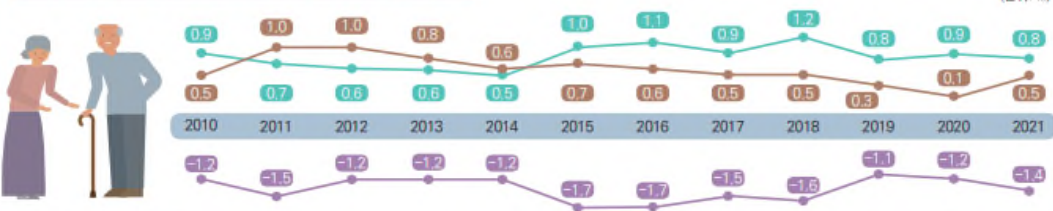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수도권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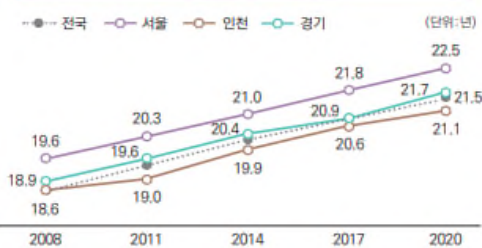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순아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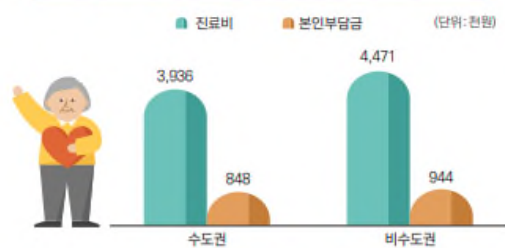


건강

65세 생존자 기대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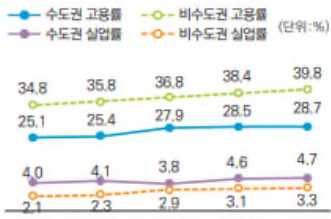


고령자(60세 이상)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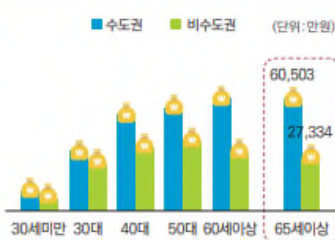


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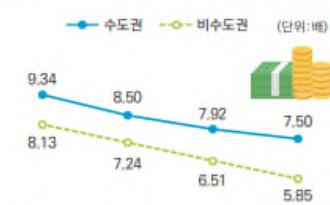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및 실업률



연령대별 순자산(2021)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소득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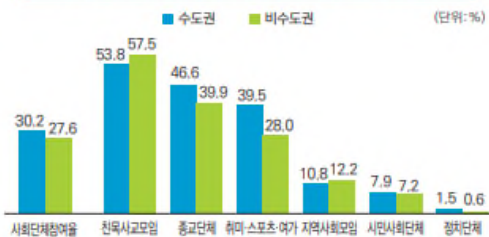


2022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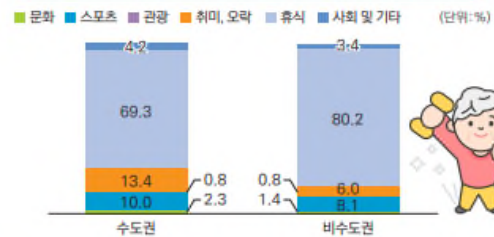


참여

고령자(65세 이상) 사회단체 참여율(2021)



고령자(60세 이상) 주 여가활동(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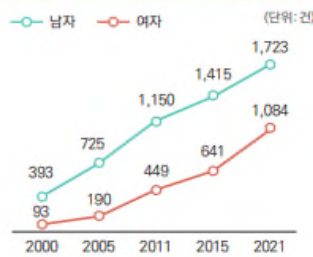


대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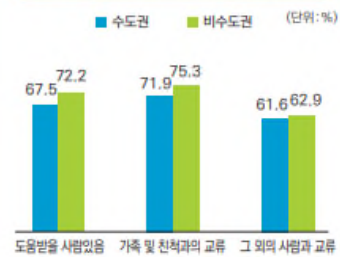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이혼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재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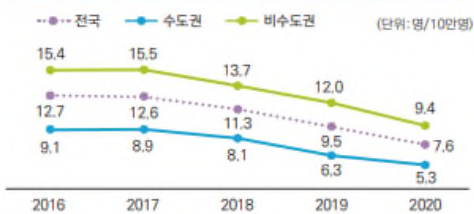


고령자(65세 이상) 사회적 관계망(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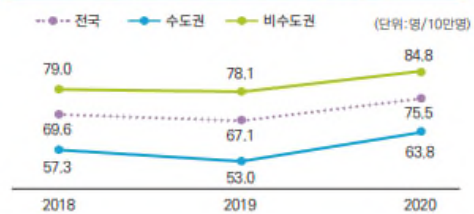


생활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고령자(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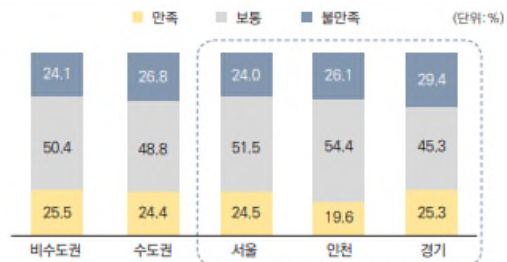


고령자(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



주관적 웰빙

고령자(65세 이상) 삶 만족도(2021)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재요약

I 인구·가구

2022년 수도권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5.4%,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

※ 65세 인구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 이상) 구분

- '22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인 402만 3천 명임
- 수도권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1년 14.6%로 고령사회, '27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50년에는 3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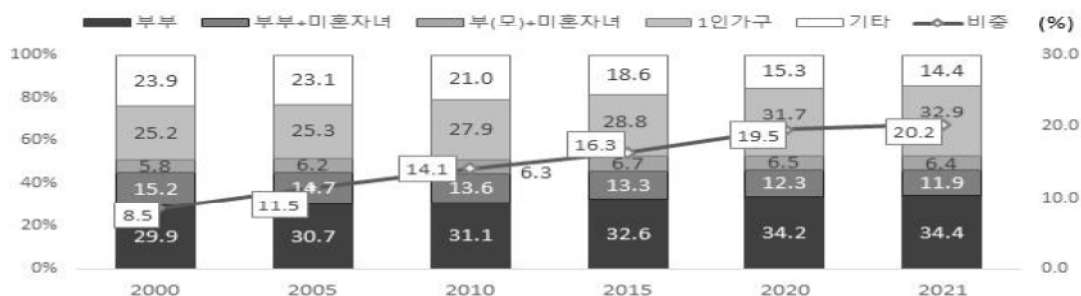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2%임

- '21년 수도권에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2%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34.4%)와 1인 가구(32.9%) 비중이 가장 높음

< 수도권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통계청, 「인구총조사」



II 건강

2020년 수도권 65세 생존자 기대여명은 서울 22.5년, 경기 21.7년, 인천 21.1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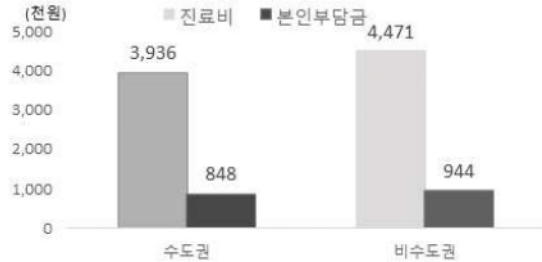
- '20년 수도권 65세 생존자 기대여명은 서울 22.5년, 경기 21.7년, 인천 21.1년
 - 서울과 경기도는 전국(21.5년)보다 1.0년과 0.2년 높고, 인천은 0.4년 낮음
- '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 1인당 본인 부담 의료비는 84만 8천원으로 비수도권보다 9만 6천원 적음

<65세 생존자 기대여명>



통계청, 「생명표」

<고령자(60세 이상)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20)」

III 소득보장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7%, 실업률은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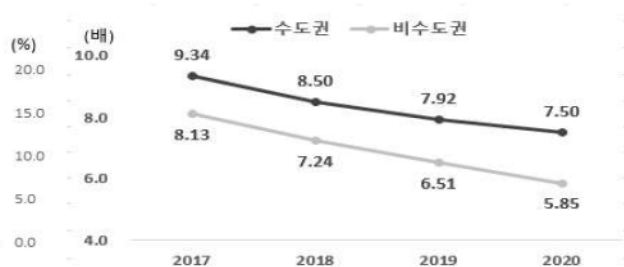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28.7%, 4.7%로, 비수도권에 비해 고용률은 11.1%p 낮고, 실업률은 1.4%p 높음
- '20년 수도권 66세 이상 고령자 처분가능소득으로 본 상대적 빈곤율은 36.4%, 소득 5분위 배율은 7.50배로, 소득 5분위 배율은 비수도권(5.85배)보다 높음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 및 실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은퇴연령층 소득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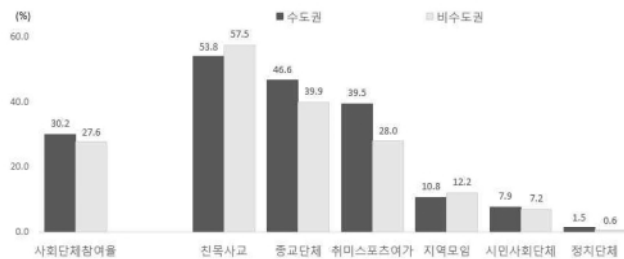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IV 참여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30.2%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사회단체 참여율은 30.2%로 비수도권(27.6%)보다 높음
 - 유형별로는 친목(53.8%), 종교(46.6%), 취미·스포츠·여가(39.5%) 참여율이 높음
- '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 여가활동은 휴식(69.3%), 취미·오락(13.4%), 스포츠(10.0%) 순임

<고령자(65세 이상) 사회단체 참여율>



통계청, 「사회조사(2021)」

<고령자(60세 이상) 주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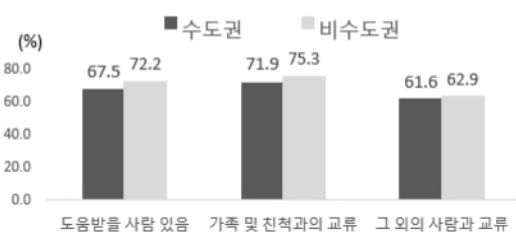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20)」

V 대인관계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67.5%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음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67.5%는 집안일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67.5%)이 비수도권(72.2%)보다 4.7%p 낮게 나타남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내국인의 혼인상태는 배우자있음(64.4%), 사별(27.5%), 이혼(6.3%), 미혼(1.8%) 순으로 나타남

<고령자(65세 이상) 사회적 관계망>



통계청, 「사회조사(2021)」

<지역별 고령자(65세 이상)혼인상태>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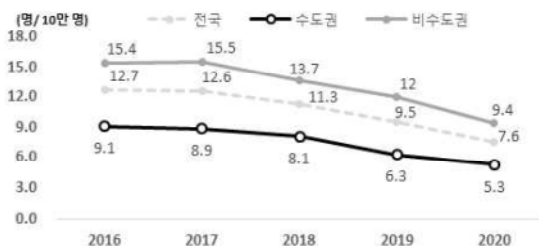


VI 생활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비수도권의 0.6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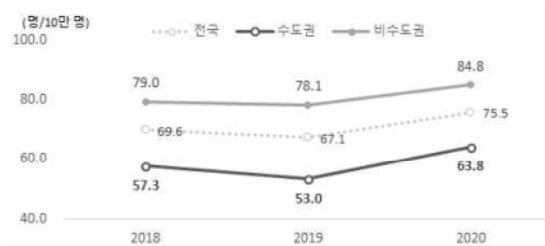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10만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 부상률은 107.0명으로 비수도권의 0.6배, 0.9배 수준임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학대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63.8명으로 전년 대비 10.8명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의 84.8명보다 낮음

<고령자(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고령자(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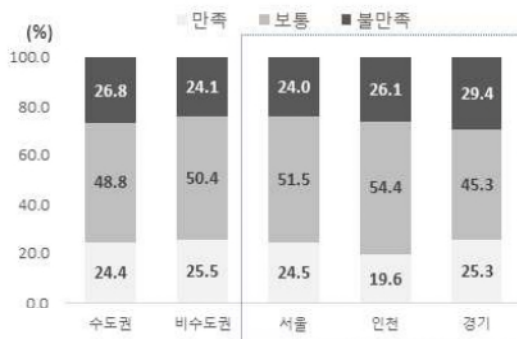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VII 주관적 웰빙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24.4%는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24.4%는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함
 - 비수도권에서 삶에 대해 만족하는 고령자의 비중(25.5%)에 비해 1.1%p 낮음
 - 시도별로는, 경기(25.3%), 서울(24.5%), 인천(19.6%) 순으로 나타남

<고령자(65세 이상) 삶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2021)」

통계로 보는 수도권 고령자



I. 인구 · 가구

1. 인구 추이

2022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5.4%, 202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 '22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4%인 402만 3천 명임
- 수도권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1년 14.6%로 고령사회, '27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50년에는 3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비수도권 고령인구 비중은 '22년 19.5%, '25년 22.9%, '50년 43.8%로 수도권의 고령화는 비수도권에 비하여 다소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수도권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 수도권 인구 추이 >

(단위: 천명, %)

	수도권			비수도권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2000	21,747	1,199	5.5	25,261	2,196	8.7
2010	24,431	2,148	8.8	25,123	3,218	12.8
2015	25,247	2,793	11.1	25,768	3,748	14.5
2020	26,021	3,595	13.8	25,815	4,557	17.7
2021	26,054	3,804	14.6	25,691	4,767	18.6
2022	26,053	4,023	15.4	25,575	4,996	19.5
2025	26,172	4,805	18.4	25,276	5,780	22.9
2027	26,245	5,338	20.3	25,103	6,332	25.2
2030	26,334	6,054	23.0	24,865	7,003	28.2
2040	26,278	8,218	31.3	23,915	9,026	37.7
2050	25,086	9,255	36.9	22,273	9,749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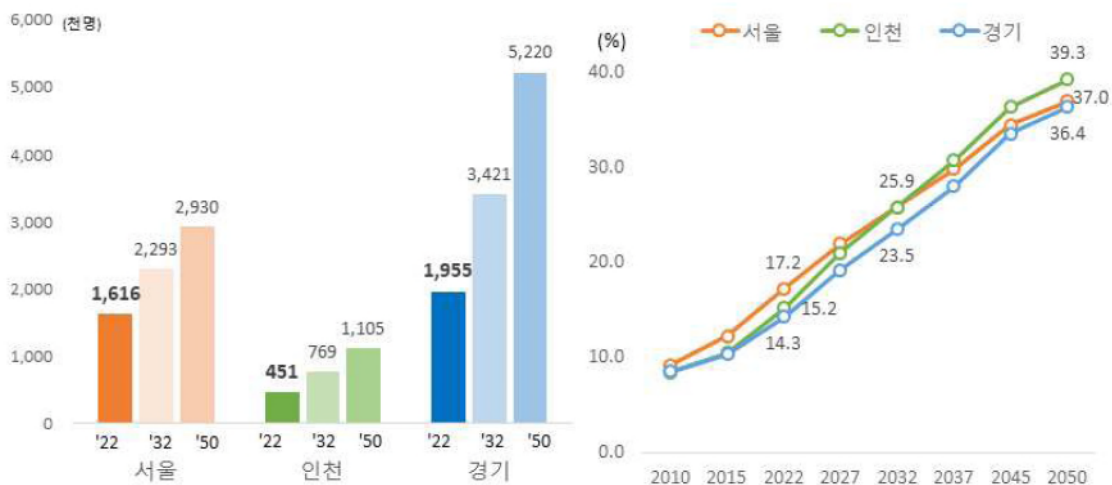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022년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서울 17.2%, 인천 15.2%, 경기 14.3% 순임

- '22년 수도권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경기 195만 5천명, 서울 161만 6천명, 인천 45만 1천명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50년에는 경기 522만명, 서울 293만명, 인천 110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2년 수도권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서울 17.2%, 인천 15.2%, 경기 14.3%를 차지함
 - 시도별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 '50년에는 인천 39.3%, 서울 37.0%, 경기 36.4% 순으로 전망됨

<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추이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추이 >

(단위: 천명, %)

	서울			인천			경기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총 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¹⁾
2000	10,078	539	5.3	2,522	138	5.5	9,146	523	5.7
2010	10,089	928	9.2	2,723	230	8.5	11,619	990	8.5
2015	9,941	1,209	12.2	2,883	303	10.5	12,423	1,281	10.3
2020	9,618	1,477	15.4	2,951	398	13.5	13,452	1,720	12.8
2021	9,502	1,546	16.3	2,941	423	14.4	13,612	1,836	13.5
2022	9,411	1,616	17.2	2,961	451	15.2	13,681	1,955	14.3
2025	9,210	1,853	20.1	2,959	551	18.6	14,003	2,401	17.1
2030	8,948	2,188	24.5	2,965	714	24.1	14,421	3,152	21.9
2032	8,860	2,293	25.9	2,967	769	25.9	14,550	3,421	23.5
2040	8,540	2,728	31.9	2,947	980	33.2	14,791	4,511	30.5
2050	7,919	2,930	37.0	2,814	1,105	39.3	14,353	5,220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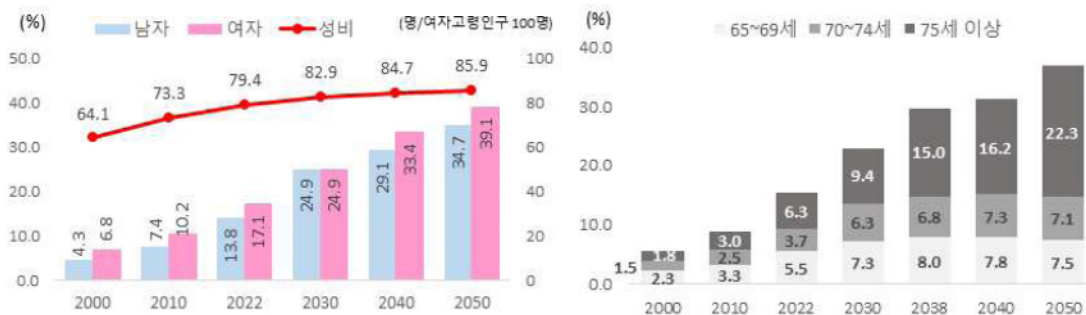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022년 수도권 고령화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자 17.1%, 남자 13.8%임

- '22년 수도권 고령화 정도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7.1%, 남자가 13.8%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3.3%p 높음
 -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2년 79.4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50년 85.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2년 수도권 전체 인구의 15.4%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5.5%, 70~74세 3.7%, 75세 이상이 6.3%임
 - 65~74세 인구는 239만 9천 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77만 5천명 더 많지만,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 수도권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성별					연령별					
		남자	고령 비중 ¹⁾	여자	고령 비중 ¹⁾	성비 ²⁾	65~69세	구성비 ³⁾	70~74세	구성비 ³⁾	75세 이상	구성비 ³⁾
2000	1,199	468	4.3	731	6.8	64.1	498	2.3	321	1.5	380	1.8
2010	2,148	909	7.4	1,239	10.2	73.3	813	3.3	608	2.5	727	3.0
2015	2,793	1,205	9.6	1,588	12.6	75.9	966	3.8	770	3.0	1,058	4.2
2020	3,595	1,580	12.2	2,015	15.4	78.4	1,225	4.7	906	3.5	1,463	5.6
2021	3,804	1,678	13.0	2,126	16.2	78.9	1,344	5.2	941	3.6	1,519	5.8
2022	4,023	1,780	13.8	2,243	17.1	79.4	1,431	5.5	968	3.7	1,624	6.3
2030	6,054	2,744	21.0	3,310	24.9	82.9	1,929	7.3	1,652	6.3	2,473	9.4
2038	7,868	3,603	27.7	4,265	31.9	84.5	2,118	8.0	1,796	6.8	3,954	15.0
2040	8,218	3,769	29.1	4,449	33.4	84.7	2,054	7.8	1,907	7.3	4,258	16.2
2050	9,255	4,277	34.7	4,978	39.1	85.9	1,871	7.5	1,783	7.1	5,601	22.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20~2050」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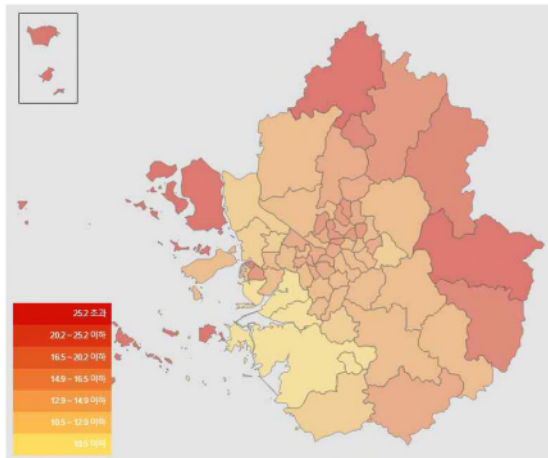
2. 지역별 고령인구

2021년 시군구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인천 강화 34.3%, 인천 옹진 28.0%, 경기 연천 27.2%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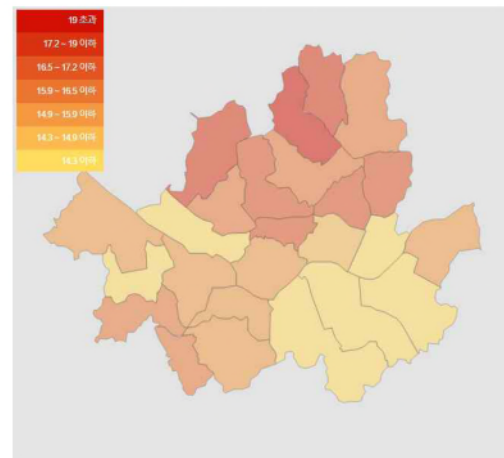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인 시군구는 총 10곳임
 - 서울 2곳(강북 21.4%, 도봉 20.2%), 인천 3곳(강화 34.3%, 옹진 28.0%, 동구 23.6%), 경기 5곳(연천 27.2%, 양평·가평 26.7%, 여주 22.3%, 동두천 21.3%)임
- '21년 수도권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낮은 시군구는 경기 화성 8.9%, 경기 시흥 9.7%, 인천 연수 10.2% 등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구는 인천 강화 (34.3%), 인천 옹진(28.0%), 경기 연천(27.2%) 등으로 나타남

< 수도권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1) >

<수도권 시군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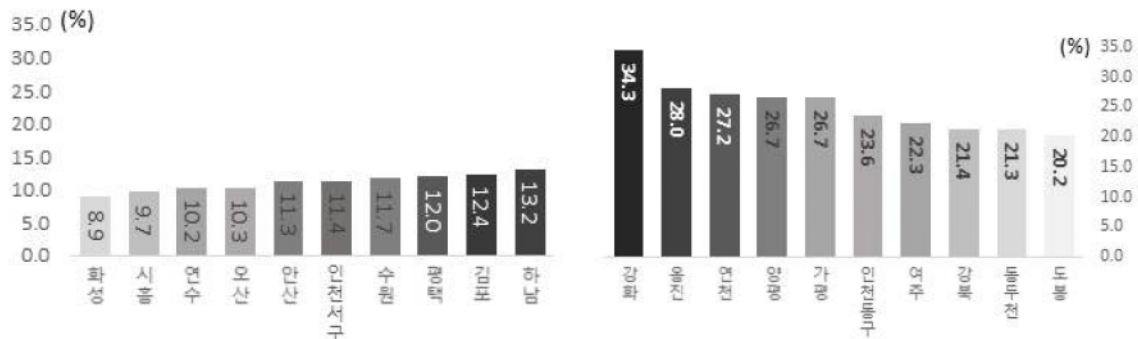


<서울시 구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고령인구 비중이 낮은 시군구(2021) > <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구(2021)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 수도권 시군구별 고령인구(65세 이상, 2021) >

(단위: 천명, %)

시군구	고령인구	구성비 ¹⁾	시군구	고령인구	구성비 ¹⁾	시군구	고령인구	구성비 ¹⁾
강화군	23	34.3	동작구	65	16.7	남동구	76	14.6
옹진군	5	28.0	성북구	73	16.7	광진구	51	14.6
연천군	11	27.2	서대문구	52	16.6	고양시	153	14.6
양평군	31	26.7	강동구	73	16.1	안양시	78	14.6
가평군	16	26.7	용산구	36	16.1	군포시	39	14.3
인천 동구	14	23.6	강서구	90	16.1	과천시	9	14.3
여주시	25	22.3	의정부시	73	16.0	마포구	52	14.3
강북구	63	21.4	영등포구	65	16.0	파주시	68	14.2
동두천시	20	21.3	관악구	79	16.0	이천시	32	14.1
도봉구	63	20.2	성동구	45	15.7	용인시	150	14.1
포천시	30	19.1	부평구	77	15.5	광주시	54	14.0
은평구	84	18.5	양천구	67	15.4	계양구	41	14.0
중랑구	70	18.3	종구	21	15.1	하남시	40	13.2
인천 중구	23	17.9	남양주시	107	15.0	김포시	61	12.4
구로구	75	17.6	성남시	136	14.9	평택시	69	12.0
미추홀구	72	17.4	송파구	95	14.9	수원시	141	11.7
동대문구	61	17.4	강남구	75	14.8	서구	63	11.4
종로구	26	17.4	서초구	58	14.8	안산시	81	11.3
금천구	42	17.1	부천시	121	14.7	오산시	25	10.3
안성시	35	17.0	광명시	43	14.7	연수구	41	10.2
노원구	86	17.0	구리시	27	14.6	시흥시	54	9.7
양주시	40	16.8	의왕시	23	14.6	화성시	81	8.9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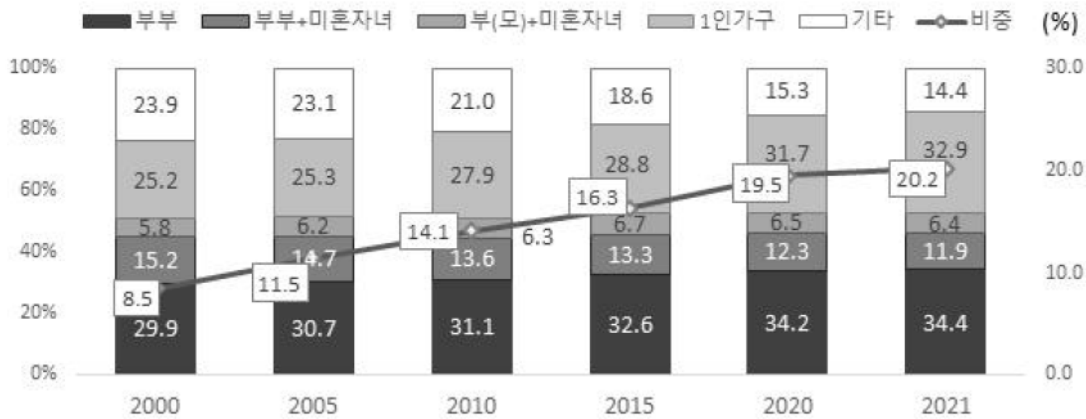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3. 고령자 가구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2%임

- '21년 수도권에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0.2%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가구 유형별로 보면, 부부(34.4%), 1인 가구(32.9%), 부부+미혼자녀(11.9%), 부(모)+미혼자녀(6.4%) 순임

< 수도권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수도권 고령자 가구¹⁾ >

(단위: 천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¹⁾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 미혼자녀	구성비	부(모)+ 미혼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6,502	554	8.5	165	29.9	84	15.2	32	5.8	140	25.2	133	23.9
2005	7,462	856	11.5	262	30.7	126	14.7	53	6.2	216	25.3	198	23.1
2010	8,254	1,163	14.1	362	31.1	158	13.6	73	6.3	325	27.9	245	21.0
2015	9,215	1,499	16.3	489	32.6	199	13.3	100	6.7	432	28.8	279	18.6
2016	9,332	1,567	16.8	510	32.6	202	12.9	102	6.5	462	29.5	291	18.5
2017	9,496	1,665	17.5	547	32.9	214	12.9	109	6.6	496	29.8	299	17.9
2018	9,686	1,751	18.1	583	33.3	221	12.6	115	6.5	529	30.2	304	17.4
2019	9,925	1,862	18.8	626	33.6	231	12.4	121	6.5	575	30.9	310	16.6
2020	10,228	1,995	19.5	681	34.2	246	12.3	130	6.5	633	31.7	305	15.3
2021	10,521	2,127	20.2	732	34.4	252	11.9	136	6.4	701	32.9	306	14.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지역별 고령인구 순이동

2021년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순유출, 경기와 인천은 순유입

- '21년 수도권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순유입된 시도는 경기(15천명)와 인천(2천명)이며, 서울(-22천명)은 순유출됨
 -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경기, 인천은 순유입, 서울은 순유출
- '21년 수도권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 순이동률은 경기(0.8%), 인천(0.5%), 서울(-1.4%)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순이동률 추이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수도권 광역 시도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순이동 추이 >

(단위: 천명, %)

	서울			인천			경기		
	전체	65세 이상	순이동률 ¹⁾	전체	65세 이상	순이동률 ¹⁾	총 인구	65세 이상	순이동률 ¹⁾
2010	-115	-12	-1.2	4	1	0.5	142	9	0.9
2011	-113	-15	-1.5	29	2	1.0	76	8	0.7
2012	-104	-13	-1.2	28	2	1.0	83	6	0.6
2013	-101	-13	-1.2	22	2	0.8	74	6	0.6
2014	-88	-14	-1.2	9	2	0.6	57	6	0.5
2015	-137	-20	-1.7	10	2	0.7	95	13	1.0
2016	-140	-21	-1.7	6	2	0.6	134	15	1.1
2017	-98	-19	-1.5	-2	2	0.5	116	13	0.9
2018	-110	-21	-1.6	0	2	0.5	170	17	1.2
2019	-50	-15	-1.1	-2	1	0.3	135	13	0.8
2020	-65	-18	-1.2	-16	0	0.1	168	15	0.9
2021	-106	-22	-1.4	11	2	0.5	151	1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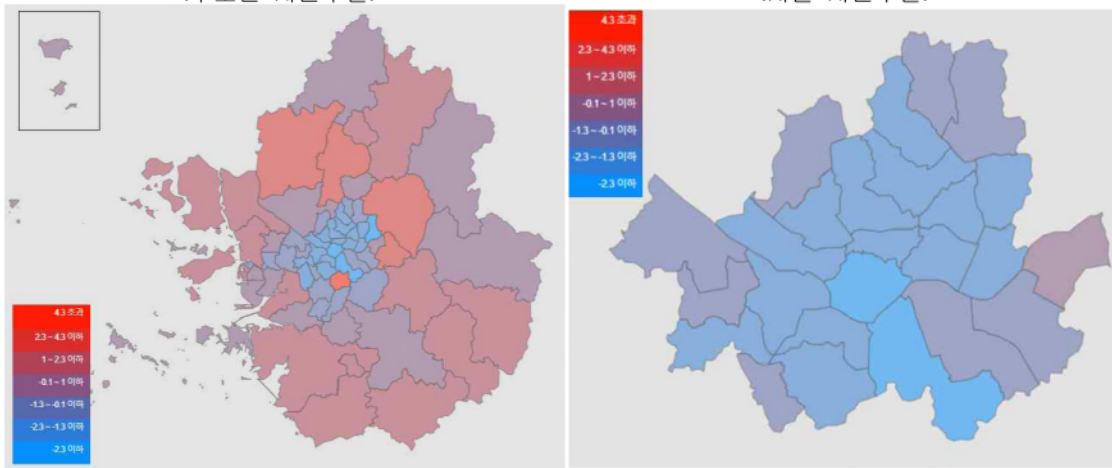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순이동률 = 연도별 순이동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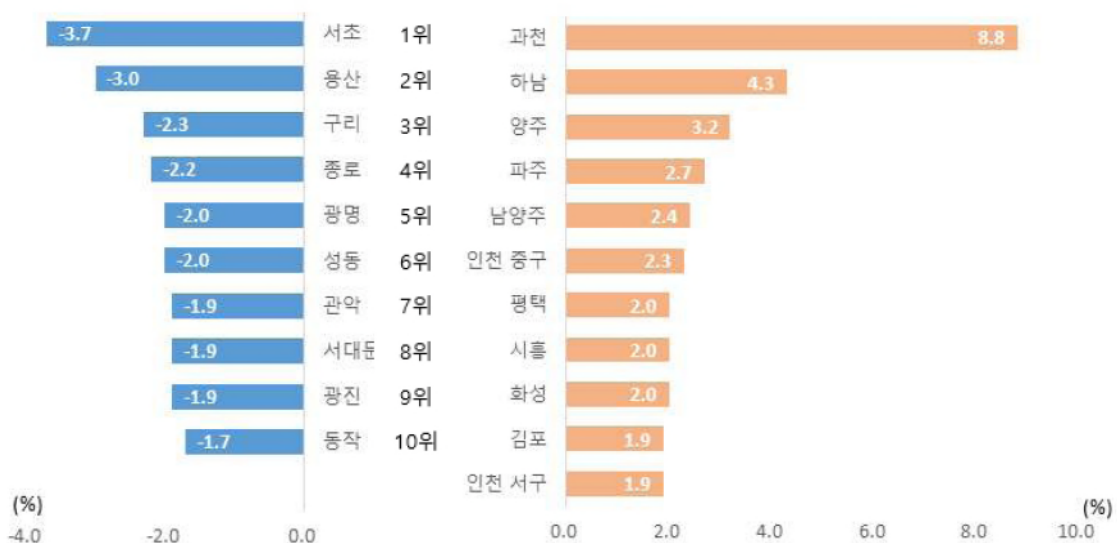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과천 8.8%, 하남 4.3%, 양주 3.2% 등임

- '21년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30개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순유입 되었고, 34개 시군구는 순유출이, 2개 군구는 유입과 유출이 동일하게 나타남
 -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순유입 된 시군구는 인천 7곳, 경기 23곳이며, 서울은 1개 구를 제외한 시군구에서 고령인구 순유출이 나타남
- '21년 경기 과천(8.8%), 하남(4.3%), 양주(3.2%) 순으로 고령인구 순유입률이 높고, 서울 서초(3.7%), 용산(3.0%), 경기 구리(2.3%) 순으로 순유출률이 높음

< 수도권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순이동률(2021) >
 <수도권 시군구별> <서울 시군구별>



< 수도권 시군구 고령인구(65세 이상) 순유입률 및 순유출률(2021)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



< 수도권 시군구별 고령인구(65세 이상) 순이동자 및 순이동률(2021)¹⁾>

(단위: 명, %)

시군구	순이동자	순이동률	시군구	순이동자	순이동률	시군구	순이동자	순이동률
과천시	835	8.8	고양시	1,099	0.7	금천구	-416	-1.1
하남시	1,691	4.3	연수구	231	0.6	도봉구	-721	-1.2
양주시	1,179	3.2	용인시	749	0.5	송파구	-1,090	-1.2
파주시	1,786	2.7	연천군	62	0.5	성남시	-1,546	-1.2
남양주시	2,476	2.4	가평군	74	0.4	중구	-297	-1.3
인천 중구	475	2.3	안산시	239	0.3	중랑구	-873	-1.3
화성시	1,590	2.0	남동구	129	0.2	강북구	-804	-1.3
시흥시	988	2.0	미추홀구	51	0.1	성북구	-1,041	-1.4
평택시	1,334	2.0	수원시	71	0.1	영등포구	-837	-1.4
인천 서구	1,143	1.9	강동구	7	0.0	동대문구	-912	-1.5
김포시	1,167	1.9	옹진군	-1	0.0	구로구	-1,010	-1.5
이천시	532	1.7	의왕시	-12	-0.1	마포구	-822	-1.6
광주시	839	1.6	부천시	-596	-0.5	동작구	-1,063	-1.7
양평군	501	1.6	강남구	-419	-0.6	광진구	-944	-1.9
안성시	508	1.5	군포시	-249	-0.7	서대문구	-1,010	-1.9
포천시	455	1.5	부평구	-608	-0.8	관악구	-1,479	-1.9
여주시	382	1.5	양천구	-551	-0.8	성동구	-902	-2.0
동두천시	276	1.4	노원구	-765	-0.9	광명시	-829	-2.0
오산시	308	1.4	안양시	-706	-0.9	종로구	-574	-2.2
강화군	280	1.2	인천 동구	-136	-1.0	구리시	-608	-2.3
계양구	392	1.0	은평구	-879	-1.0	용산구	-1,096	-3.0
의정부시	508	0.7	강서구	-883	-1.0	서초구	-2,166	-3.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

주: 1) 순이동률 = 연도별 순이동인구/주민등록 연앙인구×100

II

분석보고서

II. 건강

5. 기대여명

2020년 수도권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서울 22.5년, 경기 21.7년, 인천 21.1년 순으로 나타남

- '20년 수도권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서울 22.5년, 경기 21.7년, 인천 21.1년으로 3년 전에 비해 각각 0.7년, 0.8년, 0.5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서울 24.5년, 경기 23.7년, 인천 23.2년으로 남자보다 각각 4.2년, 4.1년, 4.4년 더 길었음
- '20년 서울과 경기의 65세 생존자 기대여명은 22.5년, 21.7년으로 전국의 65세 생존자 기대여명인 21.5년보다 길지만, 인천은 21.1년으로 전국보다 짧았음

< 수도권 시도별 성별 기대여명(65세) >



< 수도권 시도별 기대여명(65세) >



자료: 통계청, 「생명표」

< 수도권 시도별 성별 기대여명(65세)¹⁾ >

(단위: 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8	18.6	16.3	20.7	19.6	17.6	21.5	18.6	16.4	20.6	18.9	16.8	20.8
2011	19.4	17.1	21.5	20.3	18.1	22.2	19.0	16.9	20.8	19.6	17.5	21.6
2014	20.2	17.9	22.3	21.0	19.0	22.8	19.9	17.8	21.8	20.4	18.3	22.4
2017	20.8	18.6	22.7	21.8	19.8	23.7	20.6	18.2	22.7	20.9	19.0	22.7
2020	21.5	19.2	23.6	22.5	20.3	24.5	21.1	18.8	23.2	21.7	19.6	23.7

자료: 통계청, 「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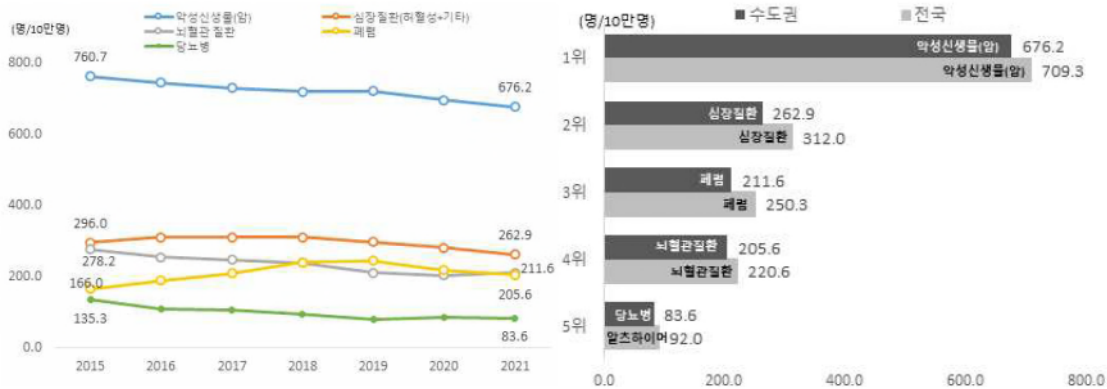
6. 사망원인별 사망률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순임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676.2명), 심장질환(262.9명), 뇌혈관질환(211.6명), 폐렴(205.6명) 순으로 나타남

-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당뇨병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임
- 전국과 수도권 모두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으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수도권이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사망원인별 사망률 > < 고령자(65세 이상) 사망원인별 사망률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고령자(65세 이상)의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 >

(단위: 명/인구 10만명)

		2000	2010	2015	2020	2021
전국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3)	악성신생물(암) (882.4)	악성신생물(암) (803.0)	악성신생물(암) (733.3)	악성신생물(암) (709.3)
	2순위	뇌혈관질환 (789.9)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51.0)	심장질환 (331.9)	심장질환 (312.0)
	3순위	심장질환 (363.5)	심장질환 (344.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57.5)	폐렴 (250.3)
	4순위	당뇨병 (220.0)	당뇨병 (153.1)	폐렴 (209.1)	뇌혈관질환 (225.3)	뇌혈관질환 (220.6)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210.3)	폐렴 (127.6)	당뇨병 (133.2)	알츠하이머병 (91.4)	알츠하이머병 (92.0)
수도권	1순위	악성신생물(암) (899.2)	악성신생물(암) (821.5)	악성신생물(암) (760.7)	악성신생물(암) (694.4)	악성신생물(암) (676.2)
	2순위	뇌혈관질환 (775.1)	뇌혈관질환 (379.2)	심장질환 (296.0)	심장질환 (281.5)	심장질환 (262.9)
	3순위	심장질환 (366.0)	심장질환 (300.2)	뇌혈관질환 (278.2)	폐렴 (219.0)	뇌혈관질환 (211.6)
	4순위	당뇨병 (233.2)	당뇨병 (164.0)	폐렴 (166.0)	뇌혈관질환 (203.5)	폐렴 (205.6)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183.0)	폐렴 (119.9)	당뇨병 (135.3)	당뇨병 (84.6)	당뇨병 (83.6)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II

분석보고서

□ 시도별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코로나19가 사망원인 5위로 나타남

< 수도권 시도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사망원인별 사망률(2021)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1)」

< 수도권 시도별 고령자(65세 이상)의 사망원인별 사망률¹⁾²⁾ >

(단위: 명/인구 10만명)

		2000	2010	2015	2020	2021
서울	1순위	악성신생물(암) (885.8)	악성신생물(암) (774.0)	악성신생물(암) (741.0)	악성신생물(암) (664.8)	악성신생물(암) (642.9)
	2순위	뇌혈관질환 (714.1)	뇌혈관질환 (327.0)	심장질환 (258.4)	심장질환 (256.4)	심장질환 (253.8)
	3순위	심장질환 (358.2)	심장질환 (262.5)	뇌혈관질환 (247.8)	뇌혈관질환 (192.9)	뇌혈관질환 (191.4)
	4순위	당뇨병 (223.1)	당뇨병 (137.4)	폐렴 (163.0)	폐렴 (161.3)	폐렴 (154.5)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166.7)	폐렴 (106.6)	당뇨병 (85.8)	알츠하이머병 (76.8)	코로나19 (103.3)
인천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2)	악성신생물(암) (879.2)	악성신생물(암) (784.5)	악성신생물(암) (770.3)	악성신생물(암) (702.9)
	2순위	뇌혈관질환 (897.0)	뇌혈관질환 (443.5)	심장질환 (332.2)	폐렴 (269.9)	폐렴 (303.5)
	3순위	심장질환 (403.5)	심장질환 (417.5)	뇌혈관질환 (320.3)	심장질환 (260.8)	심장질환 (249.6)
	4순위	당뇨병 (244.2)	폐렴 (189.4)	폐렴 (219.2)	뇌혈관질환 (199.9)	뇌혈관질환 (217.6)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195.8)	당뇨병 (170.3)	당뇨병 (175.4)	당뇨병 (84.0)	고혈압성질환 (95.9)
경기	1순위	악성신생물(암) (903.6)	악성신생물(암) (854.0)	악성신생물(암) (773.7)	악성신생물(암) (702.5)	악성신생물(암) (698.3)
	2순위	뇌혈관질환 (808.2)	뇌혈관질환 (414.7)	심장질환 (323.1)	심장질환 (308.1)	심장질환 (273.8)
	3순위	심장질환 (364.5)	심장질환 (309.3)	뇌혈관질환 (296.9)	폐렴 (257.3)	뇌혈관질환 (227.5)
	4순위	당뇨병 (241.0)	당뇨병 (188.1)	당뇨병 (172.6)	뇌혈관질환 (213.5)	폐렴 (226.5)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197.2)	만성하기도질환 (119.8)	폐렴 (156.1)	당뇨병 (92.8)	당뇨병 (85.5)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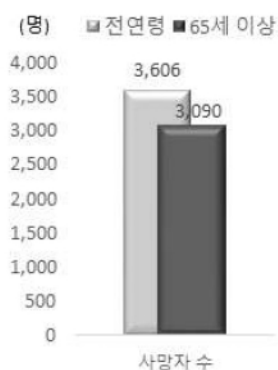


6-1. 코로나19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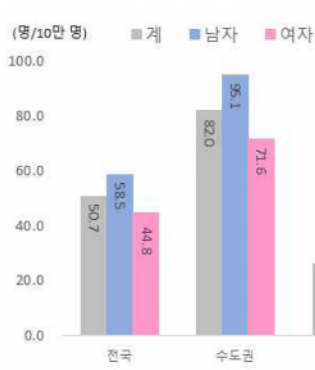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은 82.0명임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090명으로 수도권 전 연령 코로나19 사망자(3,606명)의 85.7%를 차지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인구 10만명 당 명)은 82.0명임
 - 수도권 고령자의 코로나19 사망률(82.0명)은 비수도권(26.2명)의 약 3.1배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95.1명)가 여자(71.6명)보다 23.5명 높음
 - 시도별로는 서울 103.3명, 경기 71.8명, 인천 47.5명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고령자 코로나19 사망자 수(2021) >



< 고령자(65세 이상) 성별 코로나19 사망률(2020) >



< 시도별 고령자(65세 이상) 코로나19 사망률 >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수도권 코로나19 사망자 수 및 사망률(65세 이상)¹⁾²⁾ >

(단위: 명, 명/인구 10만명)

		전 연령 사망자수	사망률	65세 이상 사망자수	사망률
전국		5,030	9.8	4,351	50.7
비수도권		1,424	5.6	1,261	26.2
수도권		3,606	14.0	3,090	82.0
성 별	남자	1,941	15.2	1,585	95.1
	여자	1,665	12.8	1,505	71.6
시 도 별	서울	1,823	19.3	1,592	103.3
	인천	237	8.1	199	47.5
	경기	1,546	11.5	1,299	71.8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주: 1)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1),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U07.2),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U10.9)에 의한 사망을 집계함
 2)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코로나19 내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집계하였으며, 집계기준의 차이로 질병관리청과 수치가 다름

7. 본인부담 의료비

20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393만 6천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84만 8천원임

- '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1인당 진료비는 393만 6천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84만 8천원으로 나타남
-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의료비는 비수도권에 비해 각각 53만 5천원, 9만 6천원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시도별로는 경기(21.7%), 서울(21.6%), 인천(20.6%) 순으로 나타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20)」

< 60세 이상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2020) >

(단위: 억원, 천원, %)

		진료비 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⁴⁾
			1인당 진료비 ²⁾		1인당 본인부담금 ³⁾	
전국		529,064	4,228	112,685	901	21.3
비수도권		305,478	4,471	64,520	944	21.1
수도권		223,586	3,936	48,165	848	21.5
연령별	60-69세	95,036	2,936	21,355	660	22.5
	70-79세	77,610	4,721	16,308	992	21.0
	80세 이상	50,940	6,373	10,502	1,314	20.6
시도별	서울	89,716	3,927	19,367	848	21.6
	인천	27,004	4,202	5,573	867	20.6
	경기	106,866	3,882	23,225	844	21.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20)」

-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의료보장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의료보장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B) ÷ 진료비(A) × 100
 5)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8.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8.7%로 전년 대비 0.2%p 증가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8.7%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함
-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최근 5년간 2.1%p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3.9%p 증가함
-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11.4%)가 남자(5.4%)의 2.1배임
- 시도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인천(10.5%), 경기(9.5%), 서울(7.4%) 순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인정자(65세 이상) 비중 > < 수도권 시도별 장기요양인정자(65세 이상) 비중(20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65세 이상) 비중¹⁾²⁾³⁾ >

(단위: %)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성별		시도별			전체	성별	
		남자	여자	서울	인천	경기		남자	여자
2015	6.6	4.0	8.5	5.8	7.6	7.1	6.6	4.0	8.4
2016	7.0	4.2	9.1	6.1	8.2	7.6	7.2	4.3	9.2
2017	7.4	4.5	9.7	6.4	8.7	8.1	7.8	4.6	10.1
2018	8.0	4.9	10.4	6.8	9.5	8.7	8.7	5.2	11.3
2019	8.5	5.3	11.1	7.2	10.2	9.3	9.8	5.8	12.7
2020	8.7	5.4	11.4	7.4	10.5	9.5	10.5	6.2	13.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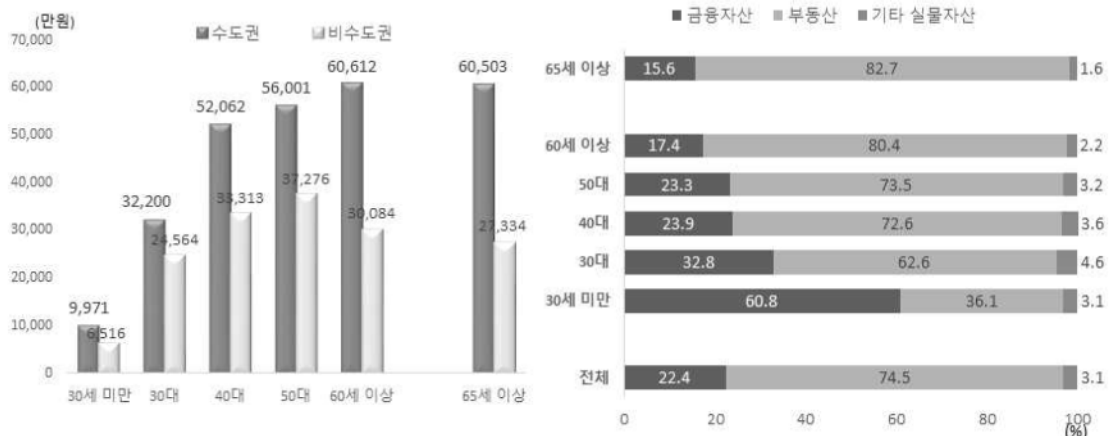
III. 소득보장

9. 자산 소유액 및 구성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순자산액은 6억 503만원으로 비수도권(2억 7,334만원)보다 3억 3,169만원 높은 수준임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6억 503만원으로 비수도권(2억 7,334만원)보다 3억 3,169만원 높은 수준임
 -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50대에서 가장 높음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7%이며, 금융자산의 비중은 15.6%임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1) > < 수도권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1)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가구¹⁾ 자산 소유액 및 구성²⁾ >

(단위: 만원)

	순자산 ³⁾	자산	자산 구성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9	48,296	55,314	8,936	46,378	45,128	1,250	7,018	3,265	3,753
2020	51,057	58,296	9,572	48,724	47,713	1,011	7,239	3,368	3,871
2021	60,503	67,693	10,582	57,111	56,011	1,100	7,190	3,673	3,517
2021 (비수도권)	27,334	30,052	5,249	24,803	23,396	1,407	2,719	1,892	826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3) 순자산 = 자산 -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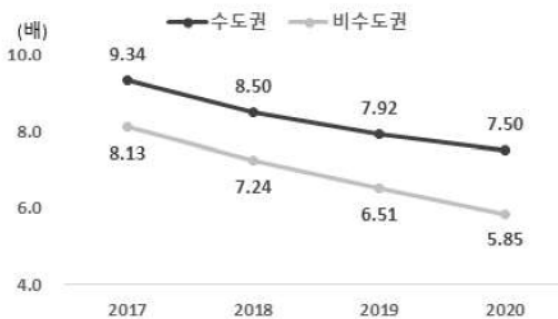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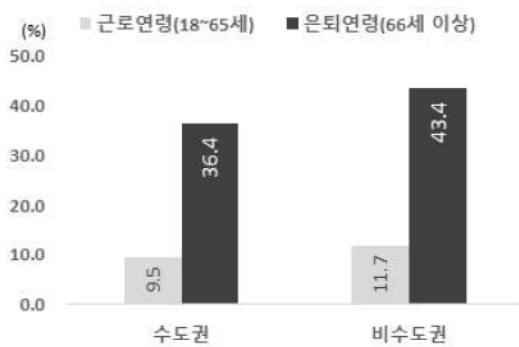
10. 소득분배지표

2020년 수도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36.4%, 소득5분위 배율 7.50배이며, 소득 5분위 배율은 비수도권(5.85배)보다 높음

- '20년 수도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36.4%, 소득 5분위 배율 7.50배임
 - 수도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36.4%)은 비수도권(43.4%)보다 낮았으나, 소득 5분위 배율(7.50배)은 비수도권(5.85배)보다 높았음
- '20년 수도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및 소득5분위 배율은 '19년에 비해 낮아짐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20)>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소득 5분위 배율>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수도권 연령대별 상대적빈곤율¹⁾ 및 소득5분위 배율 >

(단위: %, 배)

	중위소득 50% ²⁾				중위소득 60% ³⁾				소득5분위 배율 ⁴⁾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근로연령 (18~65세)	은퇴연령 (66세 이상)	근로연령 (18~65세)	은퇴연령 (66세 이상)	근로연령 (18~65세)	은퇴연령 (66세 이상)	근로연령 (18~65세)	은퇴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66세 이상)
2017	13.9	49.2	11.3	36.7	19.9	58.0	16.3	44.6	8.13	9.34
2018	13.0	49.1	10.5	35.7	18.9	57.3	15.1	44.4	7.24	8.50
2019	12.1	47.2	10.2	38.0	17.8	56.4	15.3	47.4	6.51	7.92
2020	11.7	43.4	9.5	36.4	17.7	53.3	15.0	45.1	5.85	7.50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2) 전국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3) 전국의 중위소득 6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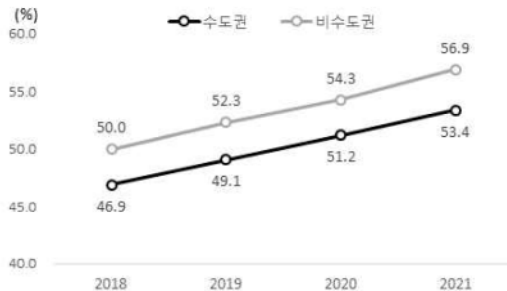
4)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11. 공적연금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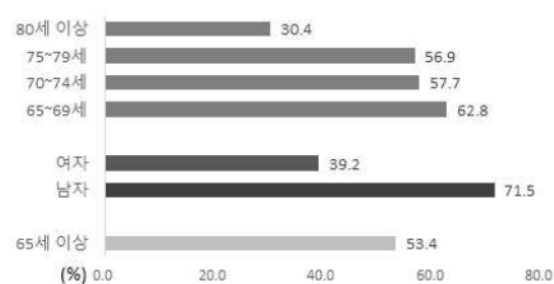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53.4%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는 203만명이며, 공적연금 수급률은 53.4%임
- 수도권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53.4%)은 비수도권 고령자의 56.9%에 비해 3.5%p 낮지만,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성별로 보면,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39.2%)이 남자(71.5%)의 약 54.8% 수준임
- 연령대별로는 65~69세의 연금 수급률이 62.8%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70~74세(57.7%), 75~79세(56.9%), 80세 이상(30.4%) 순임

<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



< 성 및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2020) >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통계청, 「직역연금DB」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공적연금¹⁾ 수급률 >

(단위: 천명, %)

	공적연금 수급자 수 ²⁾	구성비				공적연금 수급률 ⁴⁾
		소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타 ³⁾	
2018	1,500	100.0	88.6	7.5	3.9	46.9
2019	1,652	100.0	88.9	7.4	3.7	49.1
2020	1,840	100.0	89.1	7.3	3.7	51.2
2021	2,032	100.0	89.4	7.1	3.5	53.4
남자	1,199	100.0	87.8	8.2	4.0	71.5
여자	832	100.0	91.8	5.6	2.6	39.2
65~69세	844	100.0	91.1	6.2	2.7	62.8
70~74세	543	100.0	91.2	6.3	2.5	57.7
75~79세	394	100.0	90.1	6.6	3.3	56.9
80세 이상	251	100.0	78.8	12.8	8.5	30.4
서울	835	100.0	88.4	7.7	3.9	54.0
인천	218	100.0	92.7	5.4	1.9	51.6
경기	978	100.0	89.6	7.0	3.5	53.3
2021(전국) ⁵⁾	4,743	100.0	89.1	8.1	2.8	55.3
2021(비수도권) ⁵⁾	2,711	100.0	88.8	8.8	2.5	56.9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통계청, 「직역연금DB」

주: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및 일시금 수급자 수의 합계

3)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 연금

4)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 ÷ 인구 × 100, 단, 인구는 2020년 기준 추계인구

5) 2020년 전국 및 비수도권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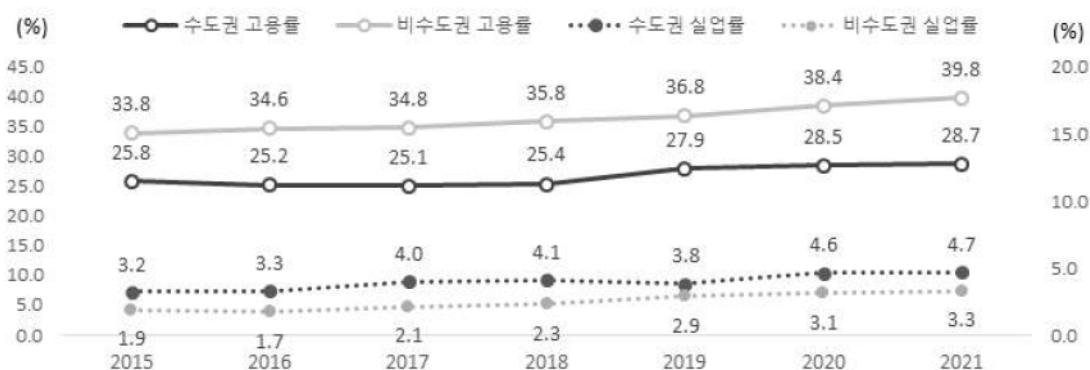


12. 고용률

2021년 수도권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7%, 실업률은 4.7%임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28.7%), 실업률(4.7%)은 전년 대비 각각 0.2%p, 0.1%p 상승함
- 수도권 고령자의 고용률(28.7%)은 비수도권(39.8%)에 비해 11.1%p 낮으나, '17년 이후 증가 추세임
- 수도권 고령자의 실업률(4.7%)은 비수도권 고령자 실업률(3.3%)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19년에 다소 하락한 이후 최근 2년간 증가함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현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명, %)

	고령총인구				고용률 ¹⁾		실업률 ²⁾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2012	2,376	599	578	21	24.3	34.1	3.5	1.4
2013	2,515	656	643	13	25.6	34.4	1.9	1.3
2014	2,651	729	710	19	26.8	34.3	2.7	1.7
2015	2,788	742	719	24	25.8	33.8	3.2	1.9
2016	2,901	756	731	25	25.2	34.6	3.3	1.7
2017	3,048	796	764	32	25.1	34.8	4.0	2.1
2018	3,206	849	815	34	25.4	35.8	4.1	2.3
2019	3,377	978	941	37	27.9	36.8	3.8	2.9
2020	3,598	1,074	1,025	49	28.5	38.4	4.6	3.1
2021	3,818	1,150	1,096	55	28.7	39.8	4.7	3.3
2021(전체 ³⁾)	22,776	14,362	13,767	595	60.4	60.6	4.1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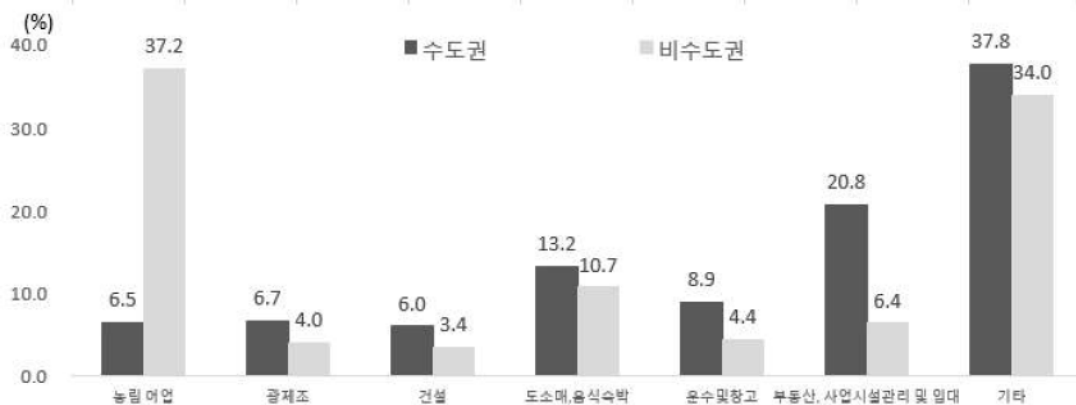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수도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 (산업별 취업자) '21년 하반기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부동산·사업시설 관리·임대업 20.8%, 도소매·음식숙박업 13.2%로 나타남

- 수도권 65세 이상 취업자는 비수도권에 비하여 부동산·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업 종사 비중이 14.4%p 높은 반면, 농림어업 종사비중은 30.7%p 낮음
 - 여자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비중은 남자(11.2%)보다 5.0%p 높음
 - 서울(0.6%), 인천(2.8%)보다 경기(11.5%)의 농림어업 비중이 각각 10.9%p, 8.7%p 높음
- 수도권 15세 이상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업, 농림어업, 운수 및 창고업 등임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산업별 취업자 분포(2021년 하반기)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산업별¹⁾ 취업자 분포(2021년 하반기) >

(단위: 천명, %)

	취업자	소계	농림 어업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 박업	운수 및 창고업	부동산, 사업관리 임대	개인·공공 및 기타 ²⁾
전 국	3,235	100.0	26.0	5.0	4.3	11.6	6.0	11.7	35.4
비수도권	2,052	100.0	37.2	4.0	3.4	10.7	4.4	6.4	34.0
수도권	1,183	100.0	6.5	6.7	6.0	13.2	8.9	20.8	37.8
남 자	695	100.0	7.2	8.7	9.6	11.2	14.8	22.9	25.7
여 자	488	100.0	5.6	3.9	0.8	16.2	0.6	18.0	55.0
서 울	428	100.0	0.6	6.5	6.3	15.2	11.2	22.2	37.9
인 천	141	100.0	2.8	6.9	5.9	10.6	10.5	17.2	46.1
경 기	614	100.0	11.5	6.8	5.7	12.5	7.0	20.8	35.7
수도권 전체 ³⁾	13,967	100.0	1.0	14.9	7.8	20.6	6.5	8.4	40.8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21년 하반기)」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전기가스, 수도하수폐기,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복지업, 예술스포츠, 협회단체, 가구내고용, 국제기구

3) 수도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IV. 참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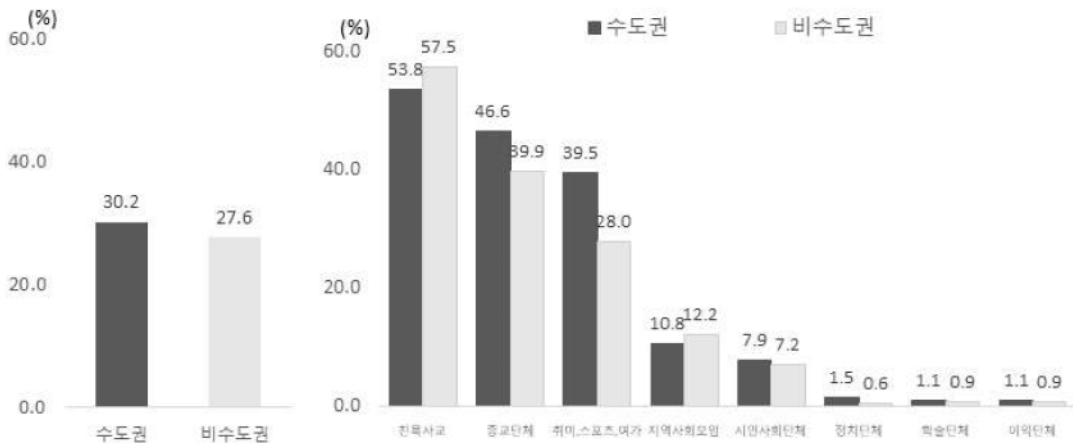
13. 사회단체 참여율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30.2%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30.2%로 비수도권 (27.6%)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참여유형별로는 친목·사교 모임(53.8%), 종교단체(46.6%), 취미·스포츠·여가 단체(39.5%)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고령자는 비수도권보다 취미·스포츠·여가단체, 종교단체 참여율은 11.5%p, 6.7%p 높고, 친목·사교 및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은 각각 3.7%p, 1.4%p 낮음

< 고령자(65세 이상) 사회단체 참여율(2021) >

< 사회단체 유형별 고령자(65세 이상) 참여율(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1)」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사회단체 참여율(2021) >

(단위: %)

	참여율	참여 유형 ¹⁾							
		친목·사교 모임	종교 단체	취미·스포츠·여가 단체	지역·사회 모임	시민·사회 단체	정치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전국	28.7	55.8	43.0	33.3	11.5	7.5	1.0	1.0	1.0
비수도권	27.6	57.5	39.9	28.0	12.2	7.2	0.6	0.9	0.9
수도권	30.2	53.8	46.6	39.5	10.8	7.9	1.5	1.1	1.1
시	서울	30.0	55.8	38.9	50.9	7.9	5.2	1.1	1.5
도	인천	26.7	64.7	40.6	35.6	10.8	9.5	2.0	1.9
별	경기	31.0	50.2	54.1	30.8	13.2	9.8	1.6	0.6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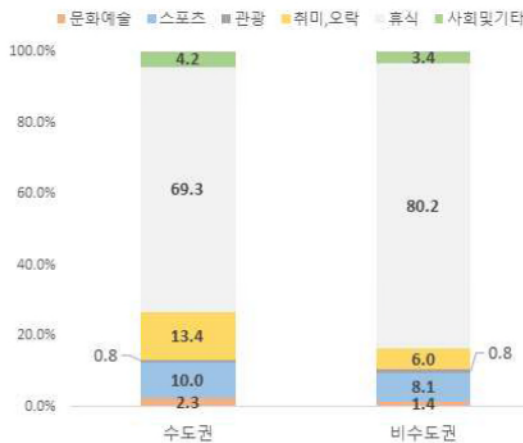
주: 1) 복수응답

14. 주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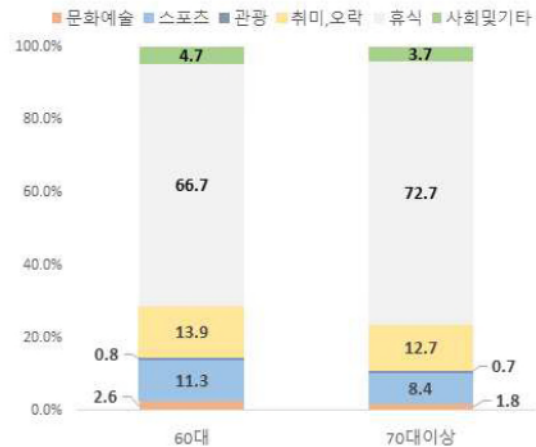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 여가활동은 휴식(69.3%), 취미·오락(13.4%), 스포츠(10.0%) 순으로 나타남

- '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 여가활동은 휴식(69.3%), 취미·오락(13.4%), 스포츠(10.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휴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 반면 취미·오락, 스포츠는 높게 나타남

< 고령자 주 여가활동(2020) >



< 수도권 연령대별 고령자 주 여가활동(202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20)」

< 수도권 고령자(60세 이상) 주 여가활동(2020) >

(단위: %)

		주 여가활동 ¹⁾					
		문화예술 ²⁾	스포츠 ³⁾	관광	취미오락	휴식	사회및기타
전국		1.8	9.0	0.8	9.4	75.3	3.8
비수도권		1.4	8.1	0.8	6.0	80.2	3.4
수도권		2.3	10.0	0.8	13.4	69.3	4.2
성별	남자	1.6	10.4	0.9	16.9	67.2	2.9
	여자	2.9	9.7	0.6	10.5	71.1	5.3
연령별	60~69세	2.6	11.3	0.8	13.9	66.7	4.7
	70세 이상	1.8	8.4	0.7	12.7	72.7	3.7
시도별	서울	1.8	9.8	0.7	12.8	70.0	4.9
	인천	3.4	4.0	0.0	4.3	86.6	1.6
	경기	2.4	11.6	1.0	16.1	64.6	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20)」

주: 1)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

2) 문화예술관람 및 문화예술참여 활동

3) 스포츠관람 및 스포츠참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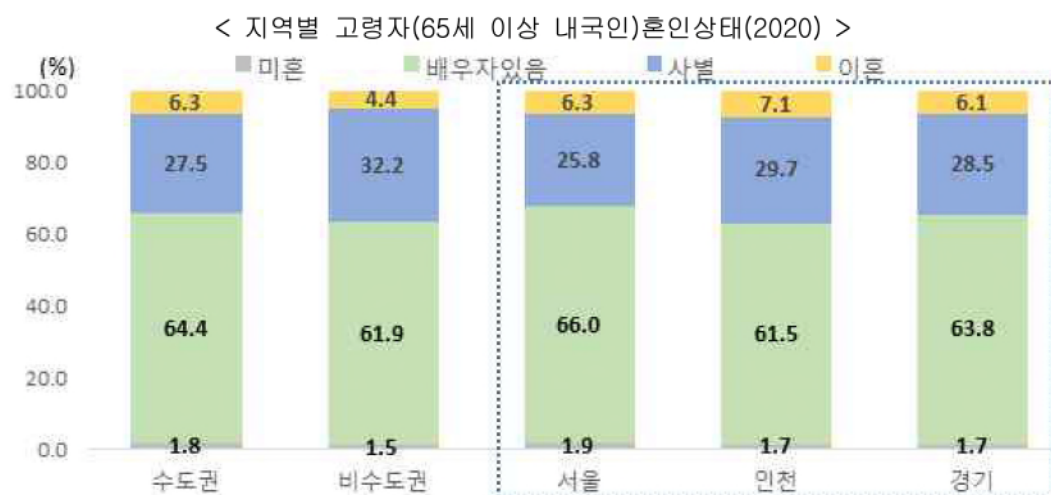


V. 대인관계

15. 혼인상태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내국인의 혼인상태는 배우자있음(64.4%), 사별(27.5%), 이혼(6.3%), 미혼(1.8%) 순으로 나타남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내국인의 혼인상태는 배우자있음(64.4%), 사별(27.5%), 이혼(6.3%), 미혼(1.8%)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65세 이상 내국인의 배우자있음, 이혼, 미혼의 비중은 비수도권보다 각각 2.5%p, 1.9%p, 0.3%p 높지만 사별은 4.7%p 낮음
- 시도별로는 서울(66.0%), 경기(63.8%), 인천(61.5%) 순으로 배우자있음의 비중이 높음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지역별 혼인상태(65세 이상 내국인, 2020) >

(단위: %)

		15세 이상 내국인					65세 이상 내국인				
		소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소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100.0	31.1	55.9	7.2	5.8	100.0	1.6	63.0	30.1	5.2
비수도권		100.0	29.0	56.9	8.5	5.7	100.0	1.5	61.9	32.2	4.4
수도권		100.0	33.3	54.9	5.9	5.9	100.0	1.8	64.4	27.5	6.3
시 도 별	서울	100.0	36.6	52.1	5.9	5.4	100.0	1.9	66.0	25.8	6.3
	인천	100.0	31.6	54.8	6.4	7.2	100.0	1.7	61.5	29.7	7.1
	경기	100.0	31.2	57.1	5.7	6.0	100.0	1.7	63.8	28.5	6.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여자의 사별 비중이 남성보다 34.3%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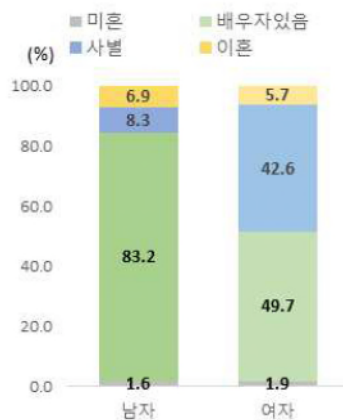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내국인의 혼인상태는 남녀 모두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혼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가 사별인 여자의 비중은 42.6%로 남자의 8.3%에 비해 34.3%p 높음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내국인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배우자 있음 및 이혼 비중이 낮아지고, 사별의 비중이 높아짐

○ 80세 이상은 배우자 있음의 비중이 50% 이하로 낮아짐

< 수도권 성별 고령자 혼인상태(2020) >



< 수도권 연령별 고령자 혼인상태(2020)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 수도권 성 및 연령대별 혼인상태(65세 이상 내국인, 2020) >

(단위: 천명, %)

	65세 이상	혼인상태별							
		미혼	구성비 ¹⁾	배우자 있음	구성비 ¹⁾	사별	구성비 ¹⁾	이혼	구성비 ¹⁾
수도권 전체	3,598	64	1.8	2,319	64.4	990	27.5	226	6.3
남자	1,584	25	1.6	1,318	83.2	131	8.3	110	6.9
여자	2,014	38	1.9	1,001	49.7	859	42.6	116	5.7
65~69세	1,222	31	2.5	920	75.3	152	12.4	119	9.8
70~74세	907	15	1.6	645	71.1	186	20.5	61	6.7
75~79세	691	8	1.2	430	62.2	223	32.2	30	4.4
80~84세	456	5	1.1	227	49.8	213	46.7	11	2.4
85세 이상	323	5	1.6	97	30.0	217	67.1	4	1.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내국인) ÷ 혼인상태별 인구 × 100



16. 이혼 및 재혼

2021년 수도권의 이혼과 재혼은 10년 전보다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이혼과 재혼은 증가

- '21년 수도권의 전체 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12.4%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약 2.5배, 3.4배 증가함
 - 수도권의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7%, 6.7%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1년 수도권의 전체 재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40.3%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약 1.5배, 2.4배 증가함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이혼 >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재혼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남자	여자
2000	58,270	589	1.0	199	0.3	19,887	393	93
2005	64,304	1,324	2.1	475	0.7	27,309	725	190
2010	56,932	2,254	4.0	948	1.7	24,469	1,079	386
2011	55,901	2,338	4.2	961	1.7	24,299	1,150	449
2015	52,980	3,049	5.8	1,416	2.7	21,326	1,415	641
2020	51,196	5,135	10.0	2,870	5.6	15,725	1,550	905
2021	48,963	5,743	11.7	3,258	6.7	14,503	1,723	1,084
2021(비수도권)	52,710	5,428	10.3	2,950	5.6	16,556	1,432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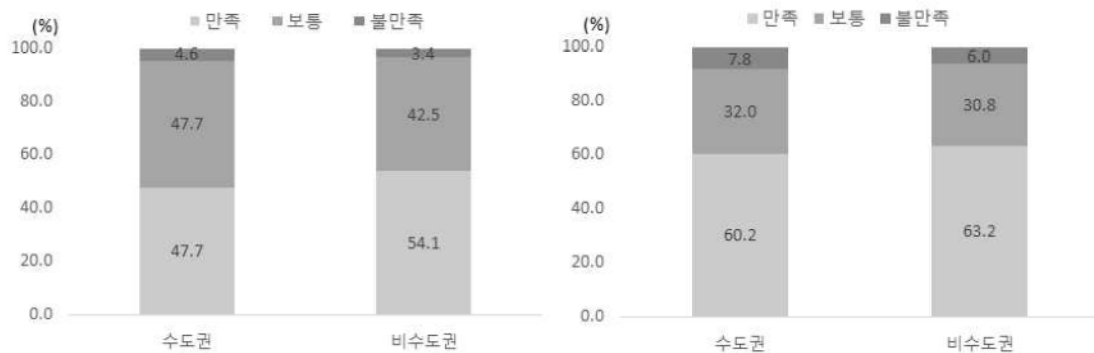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17. 가족관계 만족도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47.7%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서 만족하며, 60.2%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함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47.7%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함
 - 수도권(47.7%)이 비수도권(54.1%)보다 「만족한다」 비중이 6.4%p 낮음
 - 성별로는 남자(49.9%)가 여자(46.1%)보다 「만족한다」의 비중이 높음
 - 시도별로 보면, 인천(56.3%), 경기(49.0%), 서울(43.9%) 순으로 나타남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60.2%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함
 - 수도권(60.2%)이 비수도권(63.2%)보다 「만족한다」 비중이 3.0%p 낮음
 - 성별로는 남자(68.9%)가 여자(48.8%)보다 20.1%p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보면, 인천(65.4%), 경기(61.2%), 서울(57.9%)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65세 이상) 가족관계 만족도(2020) > < 고령자(65세 이상)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2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0)」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가족관계 만족도(2020)¹⁾ >

(단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전국		51.3	44.8	3.9	61.9	31.3	6.8
비수도권		54.1	42.5	3.4	63.2	30.8	6.0
수도권		47.7	47.7	4.6	60.2	32.0	7.8
성 별	남자	49.9	45.5	4.6	68.9	27.0	4.1
	여자	46.1	49.4	4.5	48.8	38.6	12.6
시 도 별	서울	43.9	50.4	5.6	57.9	33.9	8.1
	인천	56.3	39.2	4.5	65.4	29.0	5.6
	경기	49.0	47.4	3.6	61.2	30.9	7.9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0)」

주: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3)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18. 사회적 관계망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67.5%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으며, 71.9%는 가족·친척과, 61.6%는 가족·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67.5%는 집안일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수도권(67.5%)이 비수도권(72.2%)보다 4.7%p 낮게 나타남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71.9%가 평소 가족 및 친척과 교류하며, 61.6%는 평소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사람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보다 각각 3.4%p, 1.3%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65세 이상) 사회적 관계망(2021) >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성별 사회적 관계망(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사회적 관계망(2021)¹⁾ >

(단위: %)

		도움받을 사람 ²⁾		가족 및 친척과의 교류 ³⁾		그 외의 사람과 교류 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국		69.1	30.9	73.8	26.2	62.3	37.7
비수도권		72.2	27.8	75.3	24.7	62.9	37.1
수도권		67.5	32.5	71.9	28.1	61.6	38.4
성별	남자	64.3	35.7	69.3	30.7	61.0	39.0
	여자	70.0	30.0	74.0	26.0	62.0	38.0
시도별	서울	68.8	31.2	73.8	26.2	65.8	34.2
	인천	67.5	32.6	73.2	26.8	60.4	39.6
	경기	66.4	33.6	70.0	30.0	58.2	41.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1)」

주: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집안 일, 갑자기 큰 돈을 빌리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등

3) 동거인 제외

4) 가족, 친척 외의 사람과의 교류, 단순 업무관계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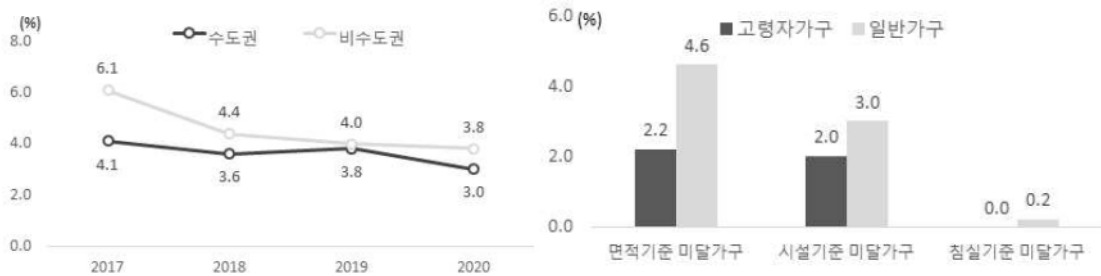
VI. 생활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0%임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3.0%로 나타남
- 수도권 거주 고령자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3.0%)이 비수도권 거주 가구(3.8%)보다 0.8%p 낮음
-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3.0%)가 일반 가구(5.6%)보다 2.6%p 낮음

<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020) > < 세부항목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020)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고령자 가구¹⁾ 중 최저주거기준²⁾ 미달가구 >

(단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³⁾	시설기준 미달가구 ⁴⁾	침실기준 미달가구 ⁵⁾
전국	2017	5.3	1.7	4.3	0.1
	2018	4.1	1.4	3.4	0.1
	2019	3.9	1.5	3.1	0.0
	2020	3.4	1.6	2.8	0.0
수도권	2017	4.1	2.6	2.6	0.1
	2018	3.6	2.3	2.3	0.1
	2019	3.8	2.5	2.5	0.0
	2020	3.0	2.2	2.0	-
	일반가구	5.6	4.6	3.0	0.2
비수도권	2017	6.1	1.0	5.5	0.0
	2018	4.4	0.8	4.1	0.0
	2019	4.0	0.8	3.5	0.0
	2020	3.8	1.2	3.4	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11.5.27)에 따른 기준임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1개, 2인-1개, 3인-2개, 4인-3개, 5인-3개, 6인-4개 미만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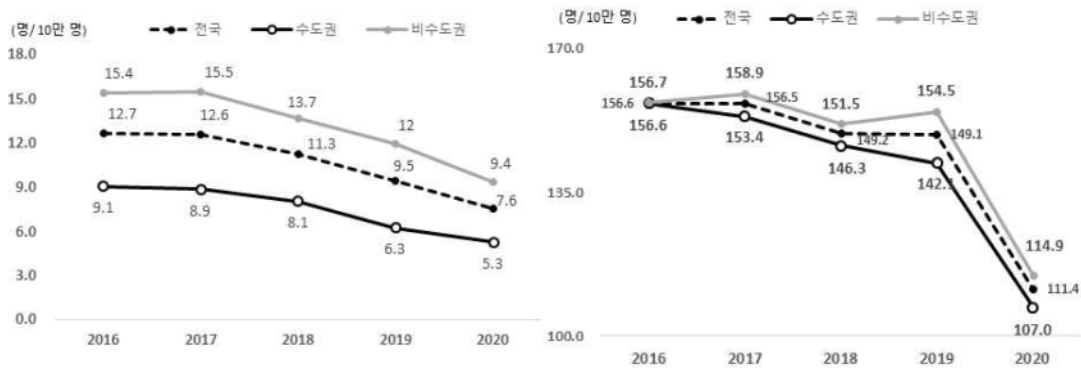


20. 보행안전성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10만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 부상률은 107.0명임

- '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10만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07.0명으로 35.1명 감소함
- 수도권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과 부상률은 비수도권의 0.6배, 0.9배 수준으로, 수도권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 고령자(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명/10만명)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사망자수	사망률 ¹⁾	부상자수	부상률 ²⁾	사망자수	사망률 ¹⁾	부상자수	부상률 ²⁾	사망자수	사망률 ¹⁾	부상자수	부상률 ²⁾
2016	866	12.7	10,693	156.6	266	9.1	4,584	156.6	600	15.4	6,109	156.7
2017	906	12.6	11,224	156.5	274	8.9	4,748	153.4	632	15.5	6,476	158.9
2018	842	11.3	11,124	149.2	263	8.1	4,744	146.3	579	13.7	6,380	151.5
2019	743	9.5	11,653	149.1	217	6.3	4,872	142.1	526	12.0	6,781	154.5
2020	628	7.6	9,233	111.4	195	5.3	3,918	107.0	433	9.4	5,315	114.9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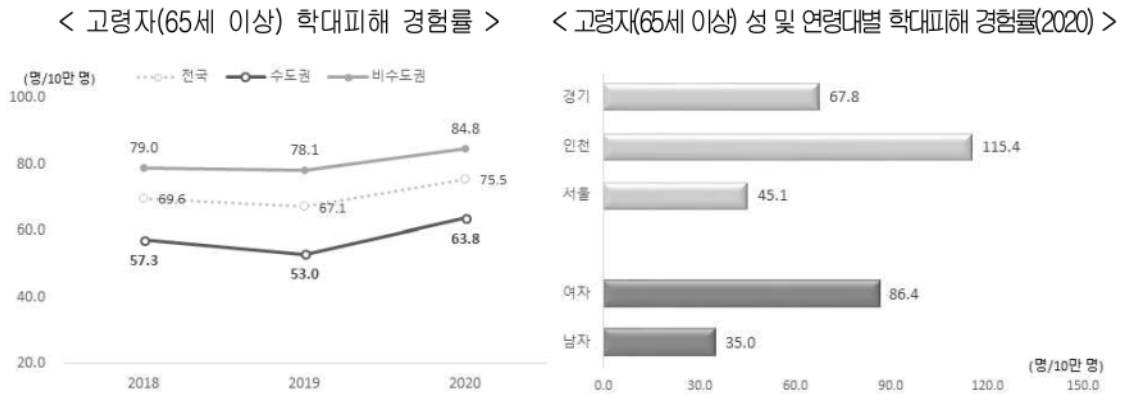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해당 연령대 인구 × 100,000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해당 연령대 인구 × 100,000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1.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2020년 65세 이상 수도권 고령자 10만명 당 64명은 학대 피해를 경험함

- '20년 65세 이상 수도권 고령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명당 63.8명으로 전년 대비 10.8명 증가함
- 수도권의 학대피해경험률은 63.8명으로 비수도권의 84.8명보다 낮으며, 시도별로는 인천 115.4명, 경기 67.8명, 서울 45.1명 순으로 나타남
-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86.4명으로 남자의 경험률인 35.0명 대비 2.5배 이상 높은 수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피해¹⁾²⁾ 경험률³⁾ >

(단위: 명/인구 10만명)

	전국	비수도권	수도권	성별 ⁴⁾		시도별 ⁵⁾		
				남자	여자	서울	인천	경기
2018	69.6	79.0	57.3	33.9	75.5	38.5	122.3	58.9
2019	67.1	78.1	53.0	27.7	72.7	37.6	97.5	56.1
2020	75.5	84.8	63.8	35.0	86.4	45.1	115.4	67.8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현황」

-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고령 인구는 인구총조사 총인구 기준
 4) 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성별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성별 고령 인구는 인구총조사의 총 인구 기준
 5) 시도별 학대피해 경험률 = 시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 연령대별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시도별 고령 인구는 인구총조사의 총인구 기준



22.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1년 수도권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57개, 의료복지시설 2,911개, 여가복지시설 15,573개, 재가복지시설 4,386개로 나타남

- '21년 수도권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157개, 의료복지시설 2,911개, 여가복지시설 15,573개, 재가복지시설 4,386개로 나타남
- 입소정원은 주거복지시설 1만 천명, 의료복지시설 10만 4천명, 재가복지시설 3만 8천명으로 나타남
- '20년에 비해 주거복지시설 수는 감소하였으나, 재가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수는 증가함

< 수도권 노인복지시설 현황(2021)¹⁾ >

(단위: 개소, 명)

		2020	2021							
		수도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시설 수	시설 수	정원	시설 수	정원	시설 수	정원	시설 수	정원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 계	164	157	11,354	26	3,040	21	825	110	7,488
	양로시설	94	85	4,451	11	1,245	14	507	60	2,698
	노인공동 생활가정	44	44	377	4	36	6	54	34	281
	노인복지주택	26	28	6,526	11	1,759	1	264	16	4,500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 계	2,863	2,911	104,171	499	15,860	464	16,734	1,948	71,571
	노인요양시설	1,850	1,976	95,797	220	13,212	360	15,843	1,396	66,74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013	935	8,374	279	2,648	104	891	552	4,830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 계	15,551	15,573	-	3,869	-	1,571	-	10,133	-
	노인복지관 ³⁾	168	122	-	36	-	24	-	62	-
	경로당	14,838	14,923	-	3,487	-	1,516	-	9,920	-
	노인교실	545	528	-	346	-	31	-	151	-
재가 노인 복지 시설 ²⁾	소 계	3,115	4,386	38,298	1,432	14,257	656	4,547	2,298	19,494
	방문요양	1,098	1,742	-	529	-	274	-	939	-
	주·야간보호	1,047	1,152	37,932	448	13,995	132	4,525	572	19,412
	단기보호	38	39	366	23	262	4	22	12	82
	방문목욕	760	1,208	-	383	-	203	-	622	-
	방문간호	49	70	-	21	-	11	-	38	-
	복지옹구지원	43	100	-	28	-	11	-	61	-
	재가노인지원	80	75	-	0	-	21	-	54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50	53	-	18	-	11	-	24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	4	-	1	-	1	-	2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현황(2021)」

주: 1) 노인복지주택의 정원은 세대주임(주택은 1세대에 노인 1명 또는 여러 명이 거주 가능하므로 정원이 없음)

2)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신고된 시설 현황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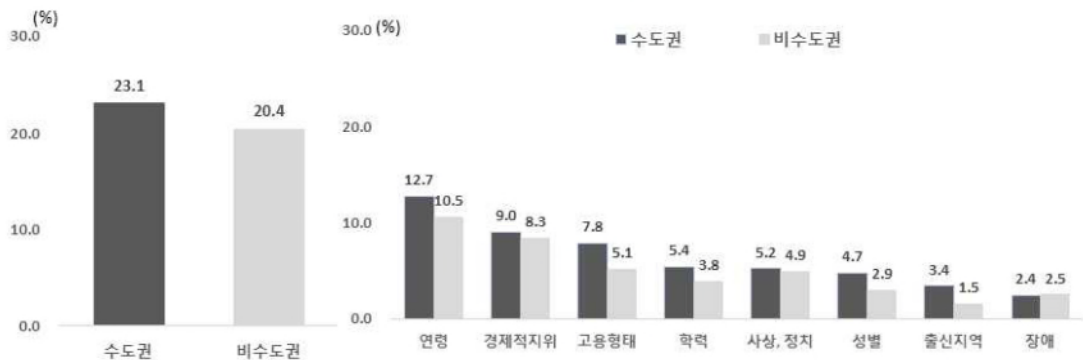
3) 노인복지관 현황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관임

23. 노인 차별

20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 중 10명 중 2명은 차별을 경험함

- '20년 수도권의 60세 이상 고령자 중 23.1%는 차별을 경험함
 -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로 연령(12.7%), 경제적 지위(9.0%), 고용 형태(7.8%), 학력(5.4%) 등으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함
 - 성별로 보면, ' 20년 수도권 60세 이상 고령자 중 남자의 차별 경험률이 27.0%로 여자의 19.8%보다 7.2%p 높음
 - 연령, 고용형태, 출신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보다 각 4.9%p, 4.7%p, 3.5%p 높게 나타남

< 고령자(60세 이상) 차별 경험률(202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2020)」

< 고령자(60세 이상) 차별 경험률(2020)¹⁾ >

(단위: %)

		차별 경험률 ²⁾	차별 경험 여부							
			연령	경제적 지위	고용 형태	학력	사상, 정치	성별	출신 지역	장애
전국		21.5	11.4	8.6	6.3	4.5	5.0	3.7	2.3	2.5
비수도권		20.4	10.5	8.3	5.1	3.8	4.9	2.9	1.5	2.5
수도권		23.1	12.7	9.0	7.8	5.4	5.2	4.7	3.4	2.4
성별	남자	27.0	15.3	10.6	10.4	6.4	6.6	3.4	5.3	2.3
	여자	19.8	10.4	7.7	5.7	4.6	4.0	5.9	1.8	2.5
시 도 별	서울	21.2	11.1	6.6	6.4	4.2	5.8	4.9	3.5	2.6
	인천	19.1	10.4	7.4	5.1	6.8	2.6	3.9	3.3	1.8
	경기	25.8	14.7	11.6	9.8	6.3	5.3	4.8	3.4	2.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2020)」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성별, 임신출산, 종교, 사상정치, 장애, 연령, 경제적지위, 고용형태, 학력차별, 인종피부색, 신체조건, 혼인상황, 가족상황, 질병 및 병력, 출신지역 중 하나라도 차별을 경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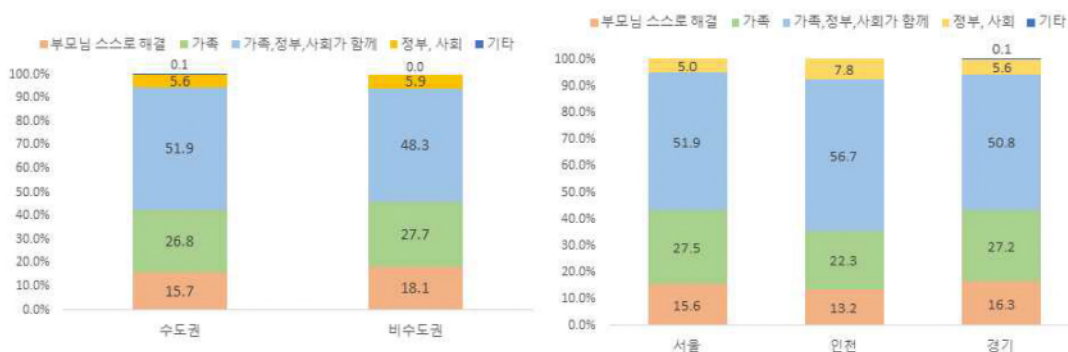


24.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2020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9%는 「가족, 정부, 사회가 부모를 함께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 '20년 수도권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9%는 「가족, 정부, 사회가 부모를 함께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함
 - 비수도권에 비해, 「가족, 정부, 사회가 부모부양을 함께해야 한다」는 3.6%p 높은 반면, 「가족 또는 부모님 스스로 해야 한다」는 3.3%p 낮음
 - 시도별로는, 인천(56.7%)이 서울(51.9%), 경기(50.8%)에 비해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부모부양에 대한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의 견해(202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부모부양에 대한 고령자(65세 이상) 견해(2020) >

(단위: %)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부모님 스스로	가족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정부, 사회	기타
전국		17.0	27.3	49.9	5.8	0.0
비수도권		18.1	27.7	48.3	5.9	0.0
수도권		15.7	26.8	51.9	5.6	0.1
성별	남자	16.4	25.0	54.0	4.4	0.1
	여자	15.0	28.2	50.4	6.5	0.0
시도별	서울	15.6	27.5	51.9	5.0	0.0
	인천	13.2	22.3	56.7	7.8	0.0
	경기	16.3	27.2	50.8	5.6	0.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0)」

II

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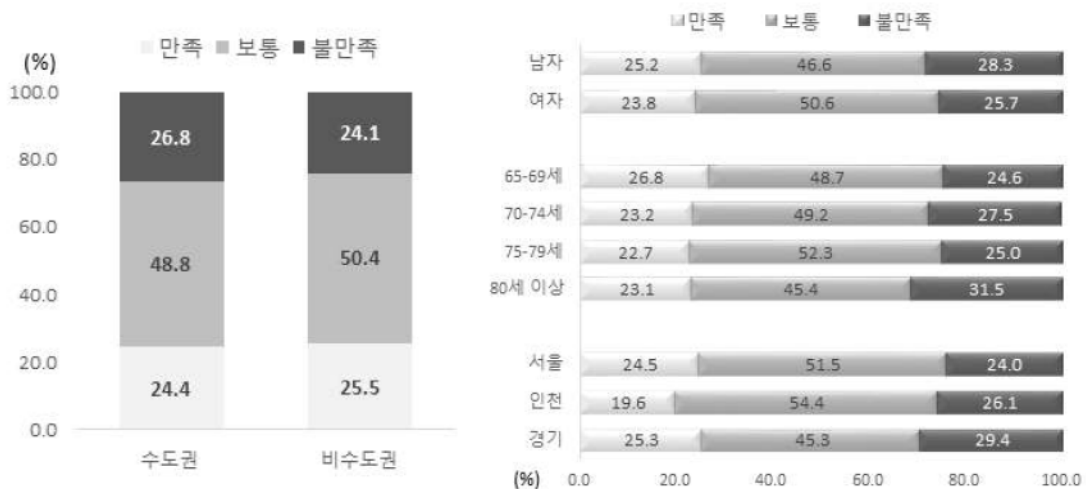
VII. 주관적 웰빙

25. 삶에 대한 만족도

20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24.4%는 전반적인 삶에 만족함

- '21년 수도권 65세 이상 고령자의 24.4%는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25.5%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는 25.2%, 여자는 23.8%가 만족하여 남자의 만족도가 1.4%p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가 타 연령대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시도별로는 경기(25.3%), 서울(24.5%), 인천(19.6%)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삶 만족도(2021)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1)」

< 수도권 고령자(65세 이상) 삶 만족도(2021) >

(단위: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만족 ¹⁾	보통	불만족 ²⁾
전국		25.0	49.7	25.3
비수도권		25.5	50.4	24.1
수도권		24.4	48.8	26.8
성별	남자	25.2	46.6	28.3
	여자	23.8	50.6	25.7
연령별	65-69	26.8	48.7	24.6
	70-74	23.2	49.2	27.5
	75-79	22.7	52.3	25.0
	80세 이상	23.1	45.4	31.5
시도별	서울	24.5	51.5	24.0
	인천	19.6	54.4	26.1
	경기	25.3	45.3	29.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2021)」

주: 1)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수치

2)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수치

분석보고서 2022-03

수도권 광역지표

김세용



일러두기

- 경인지방통계청은 광역생활권 단위의 증거기반 행정과 정책 결정의 기초 수요와 지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20~'21)에 거쳐 「수도권 광역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지표」가 수도권 광역 단위의 경쟁력과 발전, 지역민의 생활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현 지역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고,
 - 경제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협업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 지표 체계는 총 3개 영역(경쟁력, 발전, 생활)으로 구성되고, 이 중 경쟁력영역은 수도권을 국내 타 광역권역과 비교하였습니다.
 - ※1. 지표 체계는 53쪽 <참고>에 요약 수록함
 - ※2. 광역권역 분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 산업연구원의 광역경제권 분류 기준에 따라 5+2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눔
- 부록 편에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시군구 지표」를 작성하여, 최신 연도의 시군구 지표를 지도 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지표」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웹콘텐츠 형태로도 온라인 시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 경로: 경인지방통계청(<http://kostat.go.kr/gji/>) → 배너 「수도권 광역지표」



- 보고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광역권역으로 통계치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마이크로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가중평균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였고, 지표마다 그 산출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목 차

□ 수도권 광역지표(요약)	179
----------------------	-----

□ 수도권 광역지표

I. 경쟁력지표

1. 자원	187
2. 역량	189
3. 번영	191
4. 매력	193

II. 발전지표

1. 기초역량과 여건	195
2. 경제적 성과	199
3. 지속가능성	202

III. 생활지표

1. 내면세계	203
2. 개인생활	204
3. 공동생활	210
4. 환경	212

II

분석보고서

수도권 광역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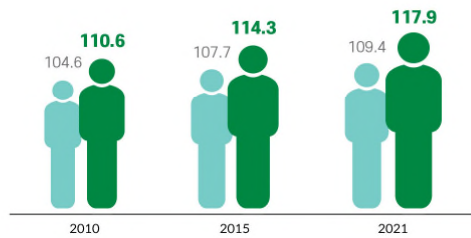
경쟁력지표

● 전국 ● 수도권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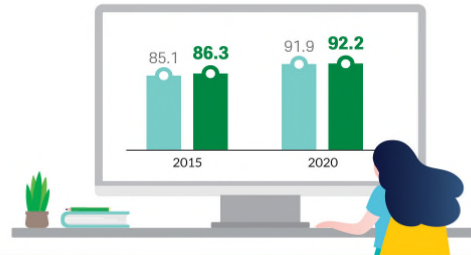
인구성장지수

(단위: 2001년=100)



인터넷 이용률

(단위: %)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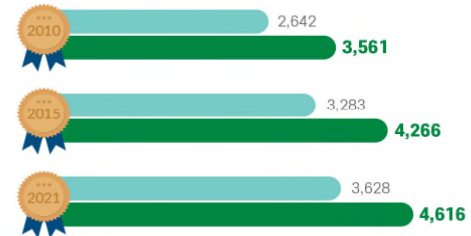
창업기업 증감률

(단위: %, 전년대비)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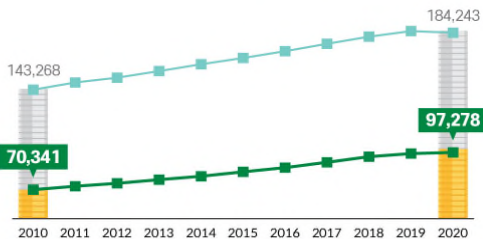
(단위: 건)



경제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단위: 백억원)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단위: 만원)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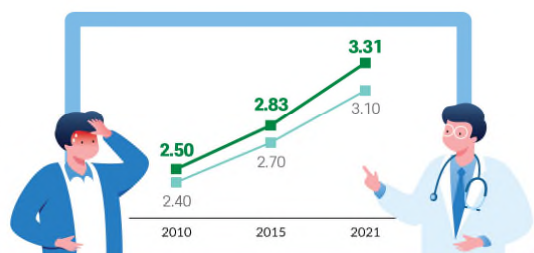
인구 순유입률

(단위: %)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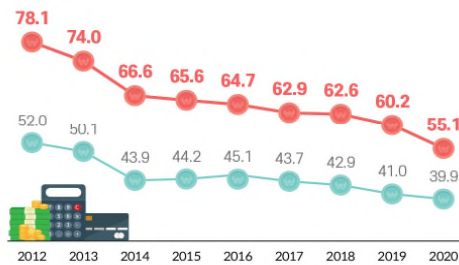
수도권 광역지표 발전지표

● 전국 ● 수도권

기초역량과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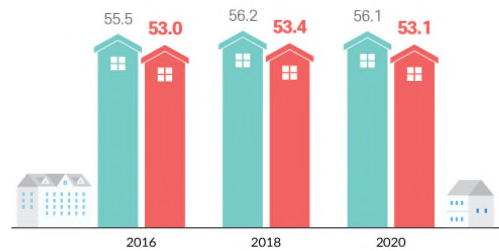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단위: %)



주택 소유 가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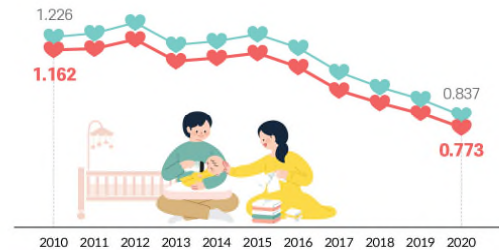
교원당 학생 수

(단위: 명)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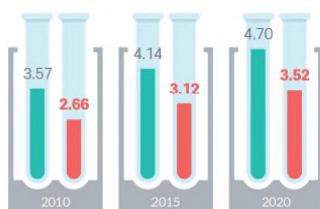
(단위: 가입 여자 1명당 명)



경제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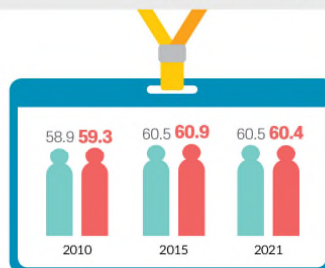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단위: %)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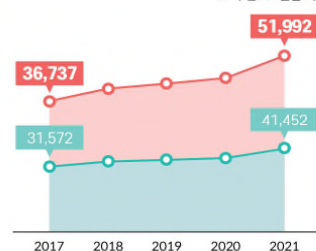
(단위: %)



가구당 순자산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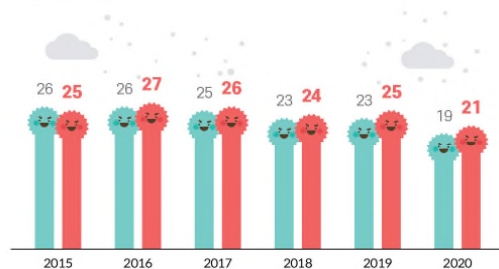
※ 각년도 3월말 기준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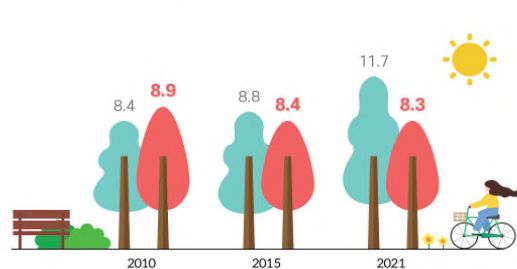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단위: $\mu\text{g}/\text{m}^3$)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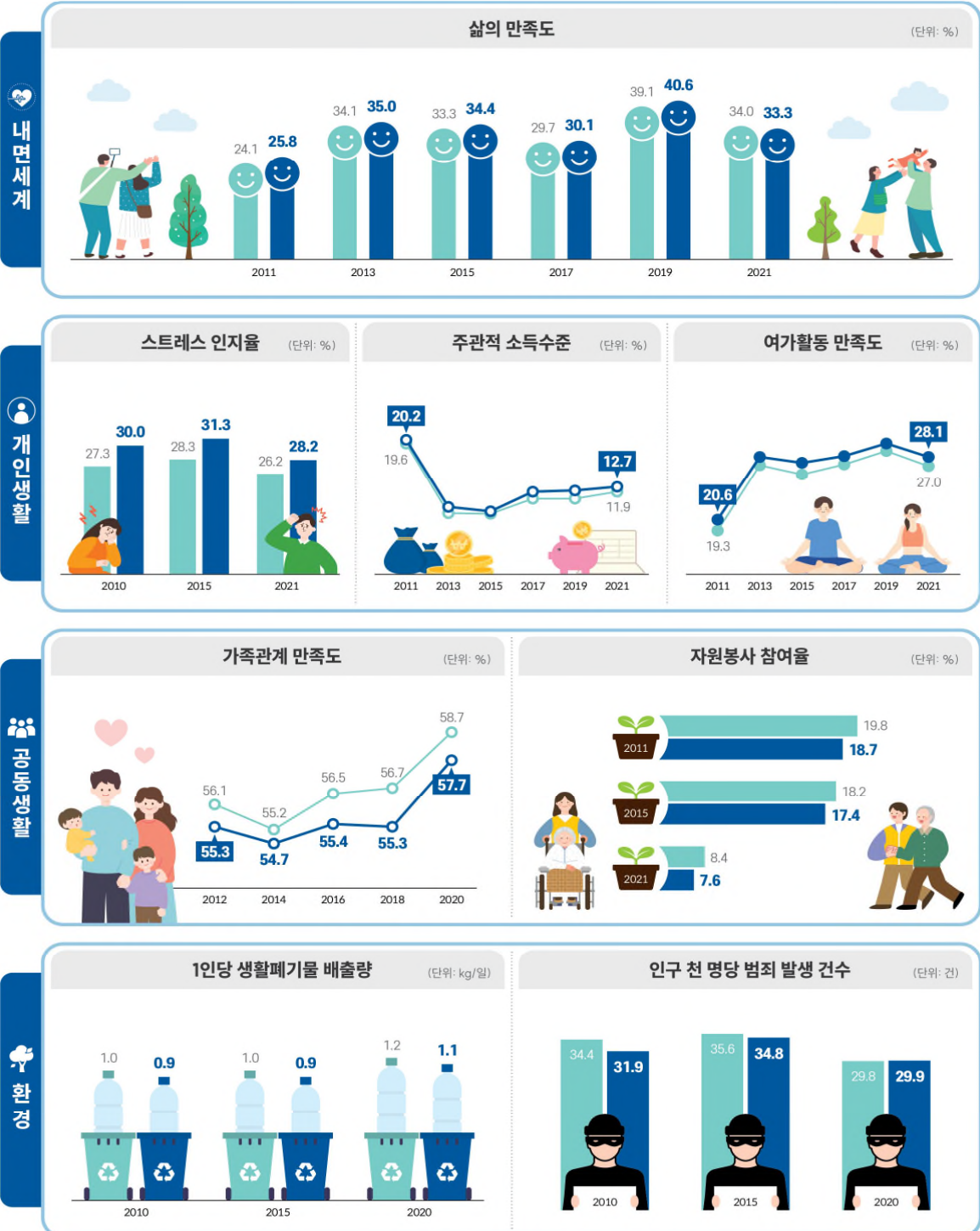
(단위: 천 m^2)



II 분석보고서

수도권 광역지표 생활지표

● 전국 ● 수도권





수도권 광역지표(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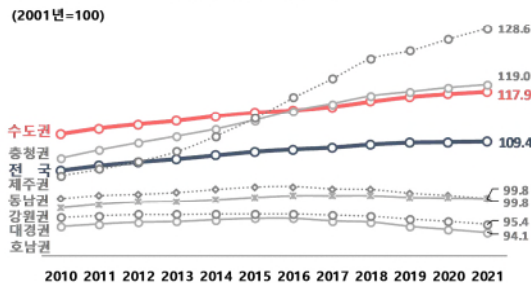
I. 경쟁력지표

◆ 자원

20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로 2001년(기준년) 대비 1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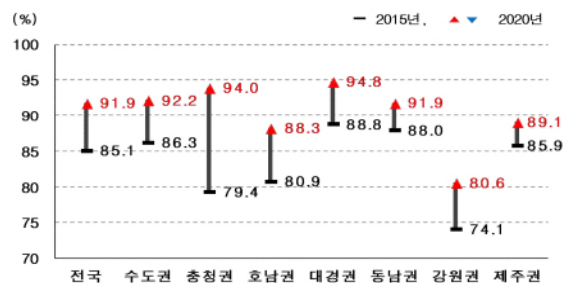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완만해짐
- '20년 수도권 만 3세 이상 인구 중 92.2%는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함

< 인구성장지수 >



출처: OECD 「Regions and Cities」

< 인터넷 이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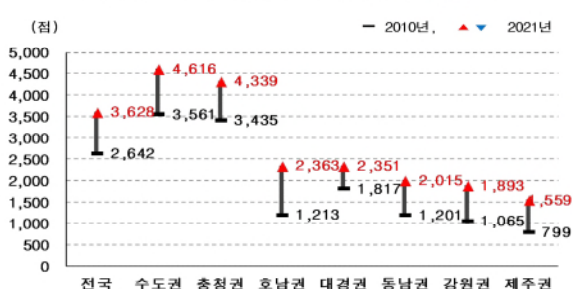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역량

20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2010년 대비 29.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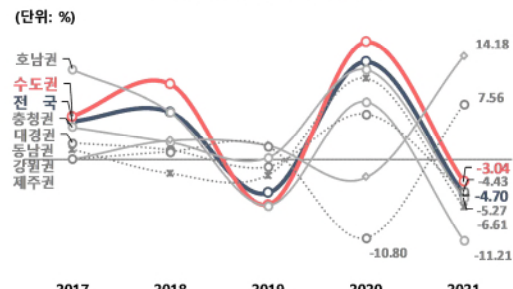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616건으로 '10년 대비 1,055건(29.6%) 증가, 전국은 986건(37.3%) 증가함
- '21년 수도권과 전국의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각각 3.04%, 4.70% 감소

<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



출처: 특허청 「지식 재산권 통계」

< 창업기업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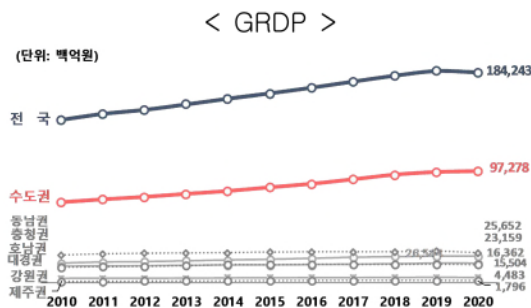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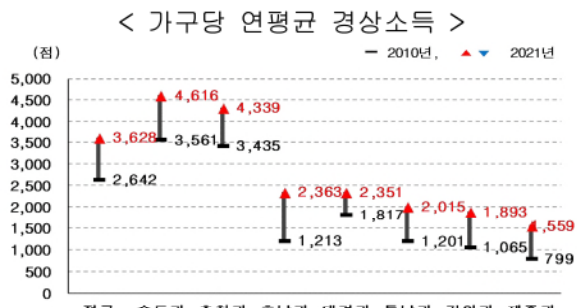
◆ 변영

20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8.3% 증가

- '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10년 대비 26,937백억 원(38.3%), '15년 대비 14,050백억 원(16.9%) 증가함
- '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으로 '11년 대비 2,053만 원(44.0%) 증가하였고, 전국(6,125만 원)보다 593만 원 많음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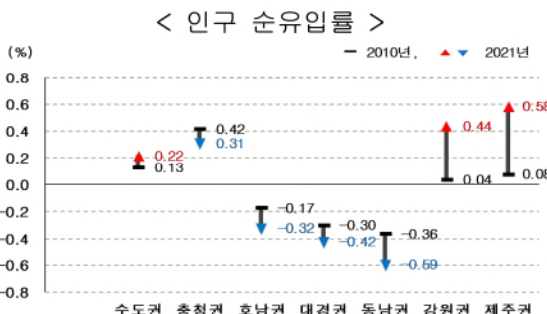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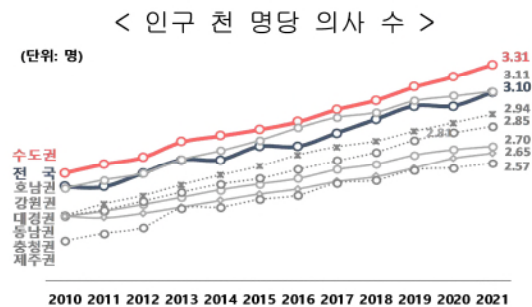
◆ 매력

2021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22%로 2010년 대비 0.09%p 증가

- '21년 인구가 유입된 권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이며, 인구가 유출된 권역은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임
- '21년 수도권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1명으로 '10년(2.50명) 대비 0.81명(32.4%) 증가하였고, 전국(3.10명)보다 0.21명 많음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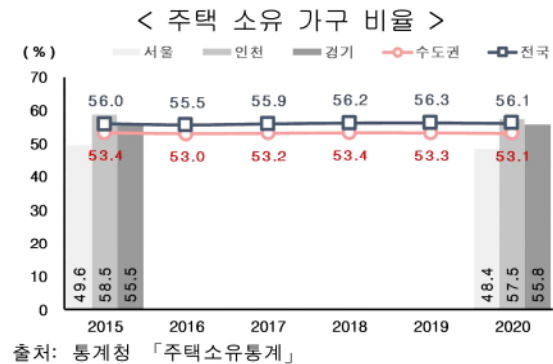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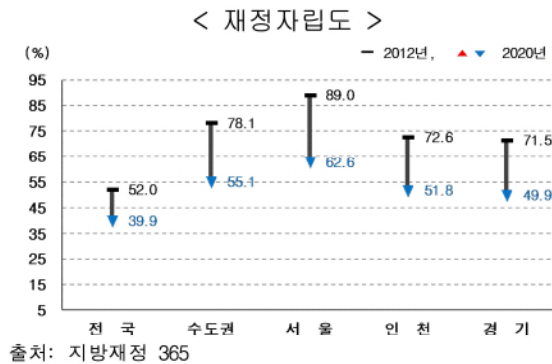


II. 발전지표

◆ 기초역량과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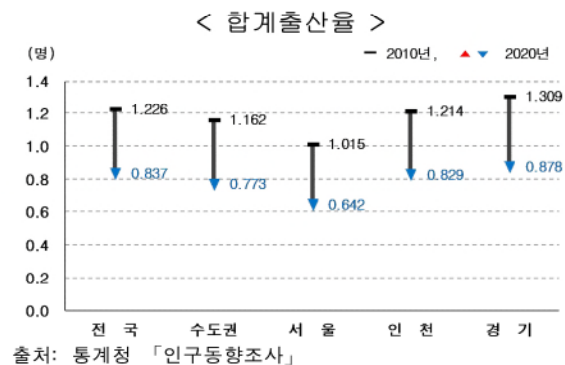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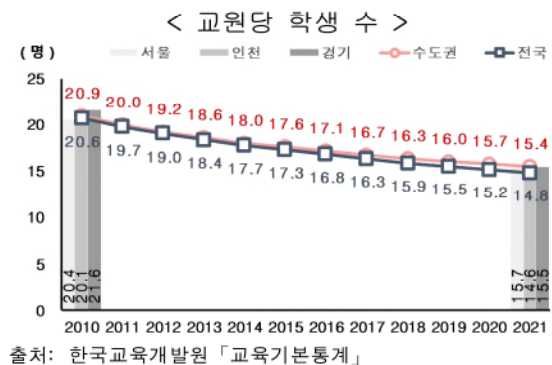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재정 자립도는 55.1%로 전국(39.9%) 대비 15.2%p 높음

- 수도권 재정 자립도는 '12년 78.1% '15년 65.6% '20년 55.1%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의 감소세가 전국보다 더 큼
-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20년 53.1%으로 '15년(53.4%)에 비해 0.3%p 감소하였고, 전국(56.1%)보다 3.0%p 낮음



20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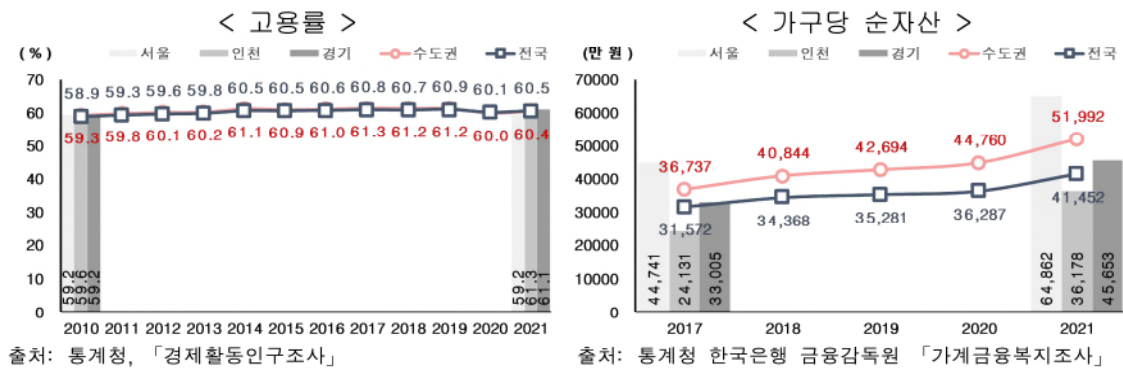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10년(20.9명) 대비 5.5명 (26.3%) 감소하였고, 전국 14.8명보다 0.6명 많음
-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 1.162명에서 '20년 0.773명으로 10년간 0.390명 감소함



◆ 경제적 성과

2021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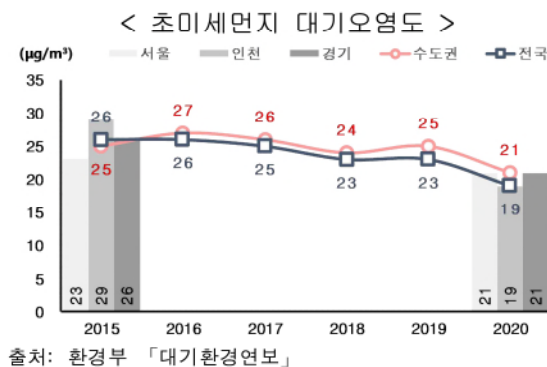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고용률은 60.4%로, 전국(6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인천 61.3%, 경기 61.1%, 서울 59.2% 순임
- '21년 수도권 가구당 순자산은 51,992만 원으로 '17년 대비 15,255만원 (41.5%) 증가하였고, 전국(41,452만 원)보다 10,540만 원 많음



◆ 지속 가능성

20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1\mu g/m^3$ 로 2015년 대비 16.0% 감소

- '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1\mu g/m^3$ 로 '15년에 비해 $4\mu g/m^3$ (16.0%) 감소했고, 전국은 $19\mu g/m^3$ 로 '15년에 비해 $7\mu g/m^3$ (26.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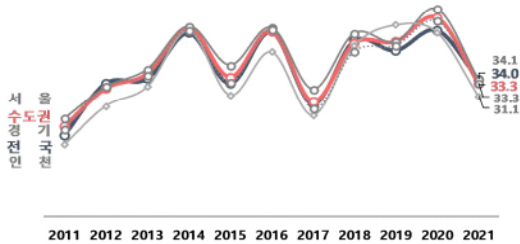
III. 생활지표

◆ 내면세계

2021년 수도권 주민의 33.3%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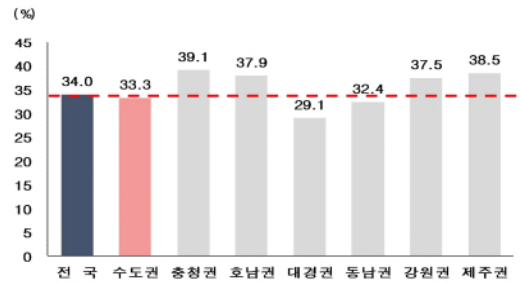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삶에 대한 만족도는 33.3%로 '11년(25.8%) 대비 7.6%p 증가 하였으며, 전국은 24.1%에서 34.0%로 9.9%p 증가함
- '21년 삶의 만족도는 서울이 34.1%로 인천(31.1%)과 경기(33.3%)에 비해 각각 3.0%p, 0.8%p 높음

< 삶의 만족도 추이, 2011-2021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삶의 만족도,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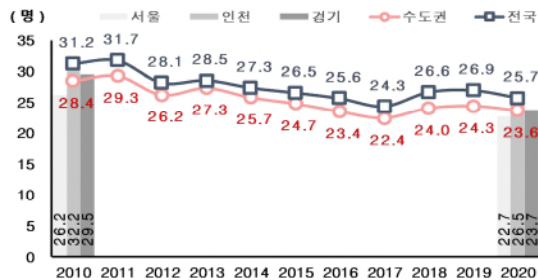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 개인생활

2021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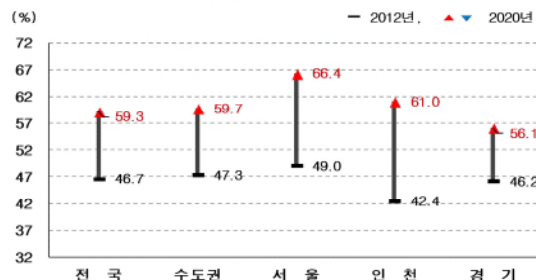
- '21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10년 대비 4.8명(-16.9%), '15년 대비 1.1명(-4.5%) 감소함
- 수도권에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12년 47.3%에서 '20년 59.7%로 12.4%p 증가함

<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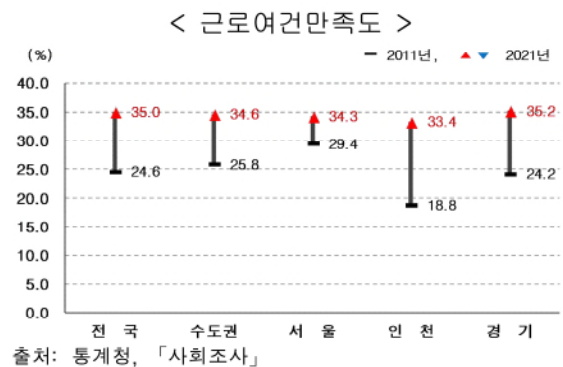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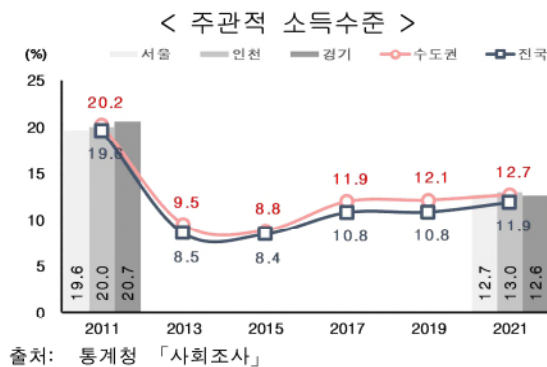
< 학교생활 만족도 >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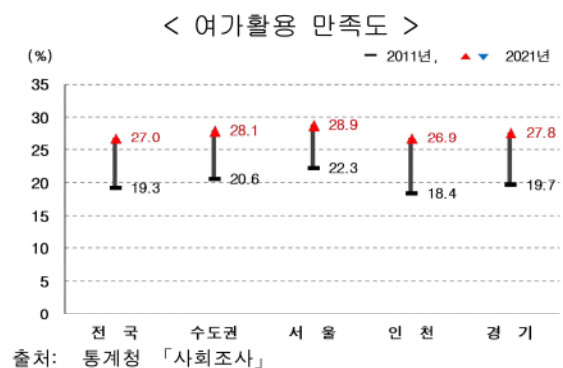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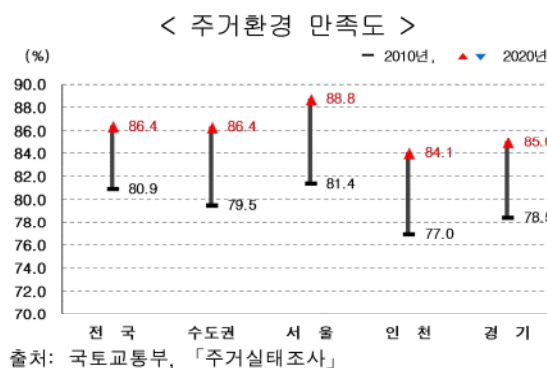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가구주의 12.7%는 가구소득에 여유가 있다고 느낌

- '21년 수도권 거주 가구주 중 월평균 가구 소득수준이 최소 생활비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12.7%이며, '11년(20.2%) 대비 7.5%p 감소함
- '21년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34.6%로 '11년 대비 8.8%p 증가함



2020년 수도권 주민의 86.4%는 주거환경에 만족함

- '20년 전국과 수도권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6.4%로 동일하며, '10년 대비 각각 5.5%p, 6.9%p 증가함
- '21년 개인의 여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8.1%로 '11년(20.6%) 대비 7.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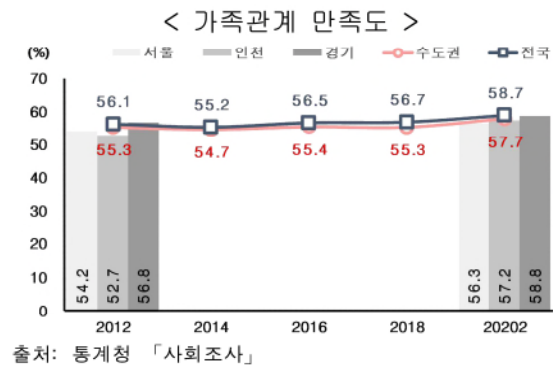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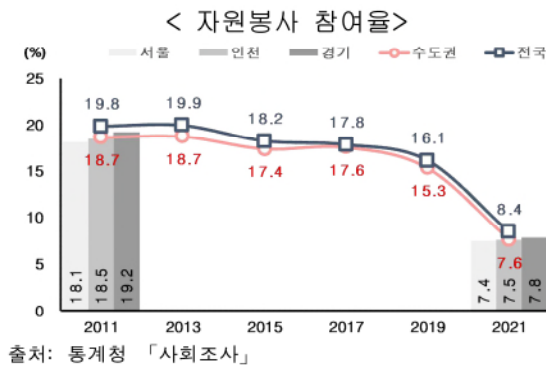




◆ 공동생활 > 시민사회

2021년 수도권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6%로 2011년 대비 11.0%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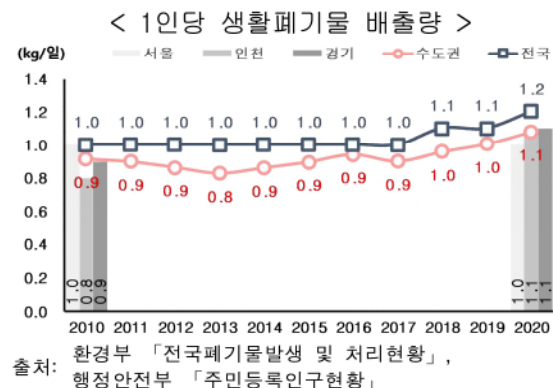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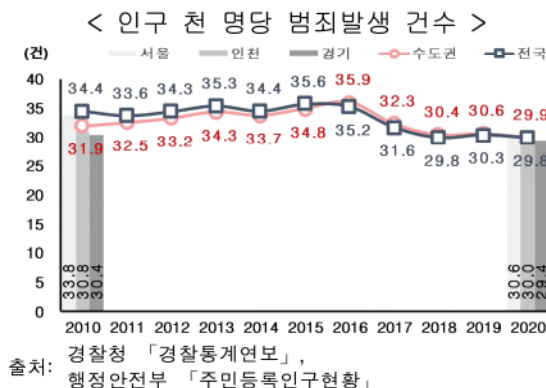
- '21년 자원봉사 참여율은 수도권 7.6%, 전국 8.4%로 '11년 대비 각각 11.0%p, 11.4%p 감소함
- '20년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57.7%, 전국 58.7%로, '12년 대비 각각 2.4%p, 2.6%p 증가함



◆ 환경 > 생활환경

202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2010년 대비 6.1% 감소

- '2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10년(31.9건)에 비해 2.0건(6.1%) 감소하였고, 전국(29.8건)에 비해 0.1건 많음
- '20년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kg/일이며, 전국은 1.2kg/일임



수도권 광역지표



I. 경쟁력지표

1. 자원 > 인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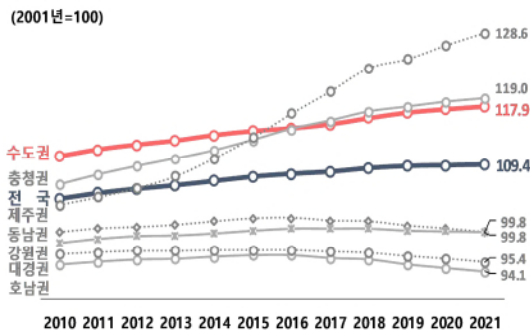
1-1. 인구성장지수

- 정의: 2001년 기준, 인구의 증감률
- 산식: (당해년 전체인구수 ÷ 2001년 전체인구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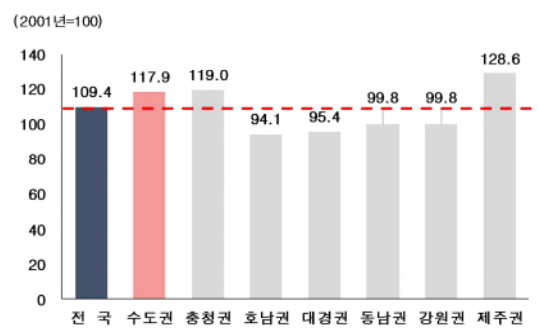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로 2001년(기준년) 인구 대비 17.9%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성장지수는 117.9이며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음
- 권역별로는 '21년 제주권이 128.6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충청권 (119.0), 수도권(117.9) 순임

<그림 I -1> 인구성장지수 추이, 2010-2021



<그림 I -2> 인구성장지수, 2021



<표 I -1> 인구성장지수

(단위: 2001년=100)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	104.6	107.7	109.4	4.8	1.7
	수도권	110.6	114.3	117.9	7.3	3.6
	충청권	106.6	113.0	119.0	12.4	6.0
	호남권	95.1	96.4	94.1	-1.0	-2.3
	대경권	96.6	97.2	95.4	-1.2	-1.8
	동남권	99.8	101.7	99.8	0.0	-1.9
	강원권	98.2	100.0	99.8	1.6	-0.2
	제주권	103.7	113.4	128.6	24.9	15.2

자료: OECD 「Regions and Cities」

II

분석보고서

1. 자원 > 물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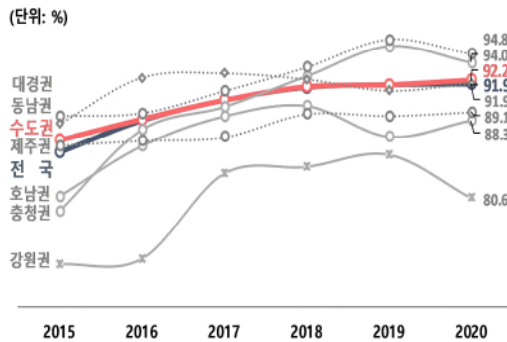
1-2. 인터넷 이용률

■ 정의: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산식: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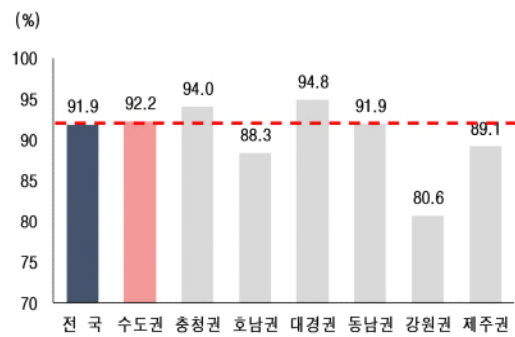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만 3세 이상 인구 중 92.2%는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

- '20년 수도권 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내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은 92.2%로 '15년(86.3%) 대비 5.9%p 증가함
- 권역별로는 대경권(94.8%), 충청권(94.0%)이 수도권(92.2%)보다 높고, 강원권이 80.6%로 가장 낮음

<그림 1-7> 인터넷 이용률 추이, 2015-2020



<그림 1-8> 인터넷 이용률, 2020



<표 1-4> 인터넷 이용률¹⁾

		(단위: %, %p)		
		2015	2020	증감
				'15년 대비
	전 국	85.1	91.9	6.7
	수도권	86.3	92.2	5.9
	충청권	79.4	94.0	14.6
	호남권	80.9	88.3	7.4
	대경권	88.8	94.8	6.1
	동남권	88.0	91.9	3.9
	강원권	74.1	80.6	6.5
	제주권	85.9	89.1	3.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권역별 인터넷 이용률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2. 역량 > 제도적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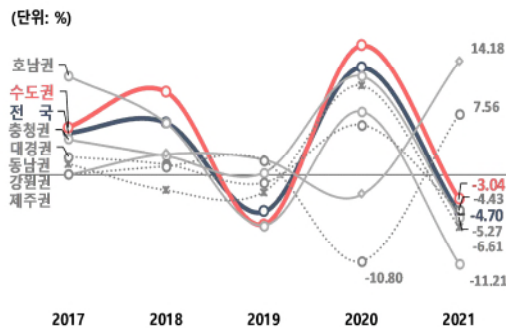
2-1. 창업기업 증감률

- 정의: 전년도 대비 지역별 창업기업 수의 증감률
- 산식: $\{(\text{당해년 창업기업 수} - \text{전년도 창업기업 수}) \div \text{전년도 창업기업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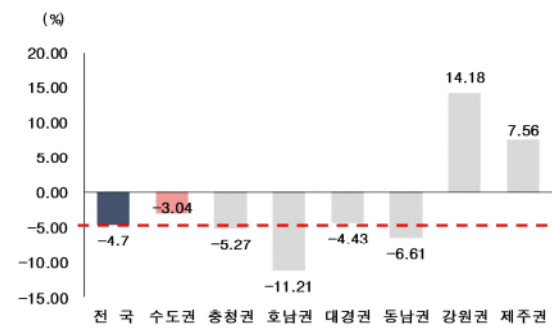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의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3.04% 감소

- '21년 창업기업 수는 전년 대비 수도권 3.04%, 전국 4.70% 각각 감소함
- 강원권과 제주권은 전년 대비 각각 14.18%, 7.56% 증가한 반면, 수도권과 그 외 권역은 모두 감소함

<그림 I -13> 창업기업 증감률 추이, 2017-2021



<그림 I -14> 창업기업 증감률, 2021



<표 I -7> 창업기업 증감률

(단위: %, %p)			
	2017	2021	증감
			'17년 대비
전국	5.26	-4.70	-9.96
수도권	5.92	-3.04	-8.96
충청권	4.47	-5.27	-9.74
호남권	12.35	-11.21	-23.56
대경권	2.21	-4.43	-6.65
동남권	1.29	-6.61	-7.91
강원권	0.00	14.18	14.18
제주권	0.00	7.56	7.5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

2. 역량 > 혁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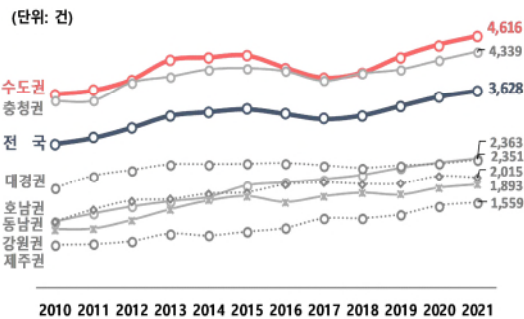
2-2.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 정의: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 측정: (특허 출원 건수 ÷ 인구 수) × 1,0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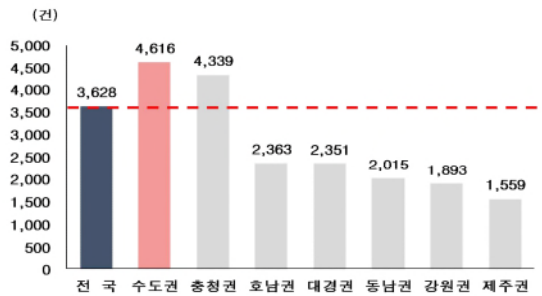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616건으로 2010년 대비 29.6% 증가

- '21년 수도권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는 4,616건으로 '10년 대비 1,055건(29.6%) 증가, 전국은 986건(37.3%) 증가함
- 권역별로는 '21년 수도권(4,616건)과 충청권(4,339건)이 높고, '10년 대비 증가율은 제주권(95.0%)과 호남권(94.9%)이 높음

<그림 I -15>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추이, 2010-2021



<그림 I -16>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2021



<표 I -8>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¹⁾

(단위: 건,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	2,642	3,283	3,628	37.3	10.5
수도권	3,561	4,266	4,616	29.6	8.2
충청권	3,435	4,037	4,339	26.3	7.5
호남권	1,213	1,867	2,363	94.9	26.6
대경권	1,817	2,274	2,351	29.4	3.4
동남권	1,201	1,740	2,015	67.8	15.8
강원권	1,065	1,677	1,893	77.8	12.9
제주권	799	1,031	1,559	95.0	51.3

자료: 특허청 「지식 재산권 통계」

주: 1) 지역은 제1 출원인 주소지 기준이며, 내국인 출원에 한함



3. 번영 >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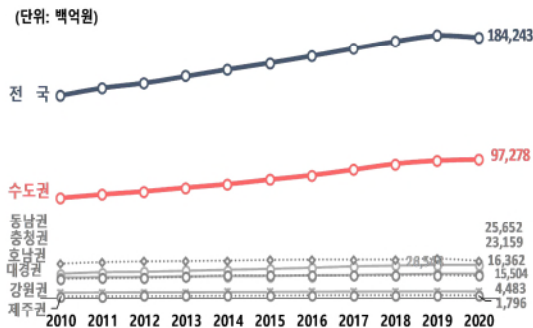
3-1.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 정의: 지역 내 실질 총생산(GRDP)으로 지역 내에서 창출된 총부가가치
- 산식: 실질,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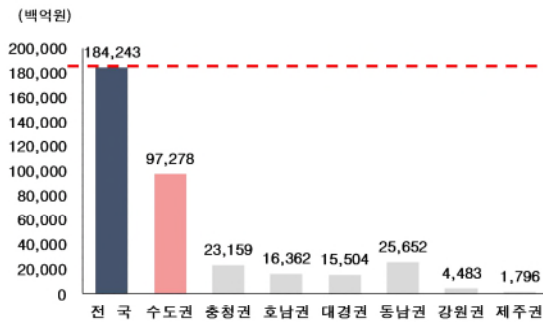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2010년 대비 38.3% 증가

- '20년 수도권 GRDP는 97,278백억 원으로 '10년 대비 26,937백억 원 (38.3%) '15년 대비 14,050백억 원(16.9%) 증가함
- '10년 대비 GRDP 증가율은 제주권(45.0%)과 수도권(38.3%)이 높고, 동남권(8.4%)이 가장 낮음

<그림 I -21> GRDP 추이, 2010-2020



<그림 I -22> GRDP, 2020



<표 I -11> GRDP¹⁾

(단위: 백억 원, %)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전 국	143,268	166,084	184,243	28.6	10.9
	수도권	70,341	83,228	97,278	38.3	16.9
	충청권	16,887	20,291	23,159	37.1	14.1
	호남권	13,983	15,074	16,362	17.0	8.5
	대경권	13,617	15,494	15,504	13.9	0.1
	동남권	23,660	26,215	25,652	8.4	-2.1
	강원권	3,545	4,087	4,483	26.4	9.7
	제주권	1,238	1,695	1,796	45.0	6.0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주: 1) 권역별 GRDP는 「지역소득」 자료로 재산출

3. 번영 > 생활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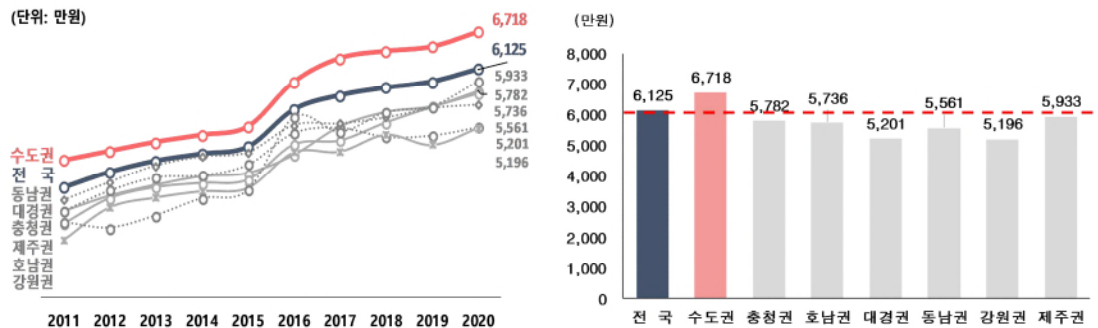
3-2.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 정의: 가구에서 한 해 동안 경상적(정기적, 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
 ■ 산식: 당해년 총 경상소득÷가구 수

20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6,718만 원으로 2011년 대비 44.0% 증가

- '20년 수도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11년 4,665만 원 대비 44.0% 증가한 6,718만 원으로 전국(6,125만 원)보다 593만 원 많음
- '20년 제주권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은 '11년 대비 61.1% 증가했으며, 호남권은 56.7%, 강원권은 52.6%가 증가함

<그림 I -27>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추이, <그림 I -28>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2020 2011-2020



<표 I -14>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¹⁾

(단위: 만 원, %)

		2011	2015	2020	증감률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4,233	4,882	6,125	44.7	25.5
	수도권	4,665	5,206	6,718	44.0	29.0
	충청권	3,858	4,464	5,782	49.9	29.5
	호남권	3,660	4,357	5,736	56.7	31.6
	대경권	3,872	4,605	5,201	34.3	12.9
	동남권	4,033	4,797	5,561	37.9	15.9
	강원권	3,405	4,230	5,196	52.6	22.8
	제주권	3,683	4,191	5,933	61.1	41.6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주: 1) 권역별 경상소득=Σ(시도별 경상소득×해당 시도 가구 수/해당 권역 가구 수)



4. 매력 > 경제적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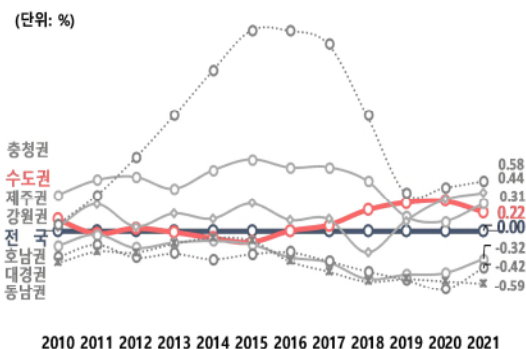
4-1. 인구 순유입률

■ 정의: 인구가동 중 전입에서 전출을 뺀 인구
 ■ 산식: $\{(\text{전입인구} - \text{전출인구}) \div \text{주민등록 연앙인구}^{1)}\}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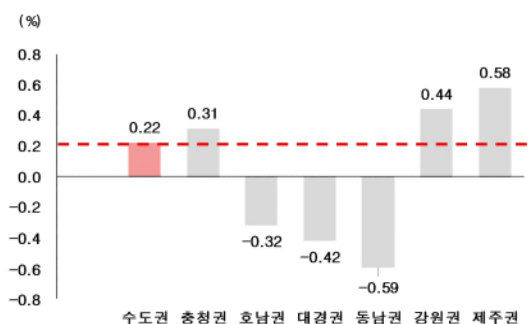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0.22%로 2010년 대비 0.09%p 증가

-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은 '10년 0.13%, '15년 -0.13%, '21년 0.22%임
- '21년 인구가 유입된 권역은 수도권(0.22%), 충청권(0.31%), 강원권(0.44%), 제주권(0.58%)이며, 유출된 권역은 호남권(-0.32%), 대경권(-0.42%), 동남권(-0.59%)임

<그림 I -29> 인구 순유입률 추이, 2010-2021



<그림 I -30> 인구 순유입률, 2021



<표 I -15> 인구 순유입률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	-	-	-	-	-
수도권	0.13	-0.13	0.22	0.09	0.35
충청권	0.42	0.83	0.31	-0.11	-0.52
호남권	-0.17	-0.16	-0.32	-0.15	-0.16
대경권	-0.30	-0.26	-0.42	-0.12	-0.16
동남권	-0.36	-0.11	-0.59	-0.23	-0.49
강원권	0.04	0.31	0.44	0.40	0.13
제주권	0.08	2.33	0.58	0.51	-1.75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가동통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1) 주민등록 연앙인구=(연초 주민등록인구+연말 주민등록인구)/2

II

분석보고서

4. 매력 >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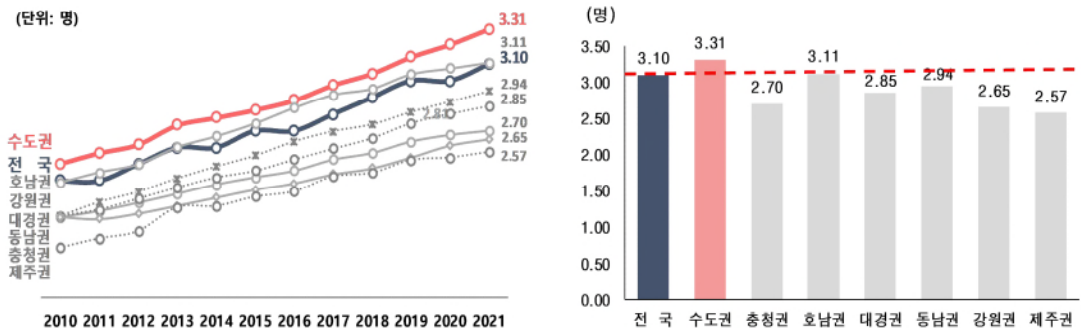
4-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 정의: 인구 천 명당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의사 수
 ■ 산식: (의사 수÷주민등록연앙인구)×1000

2021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1명으로 2010년 대비 32.4% 증가

- '21년 수도권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31명으로 '10년(2.50명) 대비 0.81명(32.4%) 증가, 전국(3.10명)보다 0.21명 많음
- 권역별로는 '21년 수도권(3.31명)과 호남권(3.11명)이 타 권역보다 많고, 제주권(2.57명)과 강원권(2.65명)은 적음

<그림 I-37>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추이, 2010-2021 <그림 I-38>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21



<표 I-19>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2.40	2.70	3.10	29.2	14.8
수도권	2.50	2.83	3.31	32.4	17.2
충청권	2.18	2.42	2.70	24.0	11.7
호남권	2.39	2.75	3.11	30.3	13.3
대경권	2.19	2.46	2.85	30.5	16.0
동남권	2.19	2.55	2.94	34.3	15.2
강원권	2.18	2.35	2.65	21.5	13.0
제주권	2.00	2.30	2.57	28.8	1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II. 발전지표

1. 기초역량과 여건 > 재정

1-1.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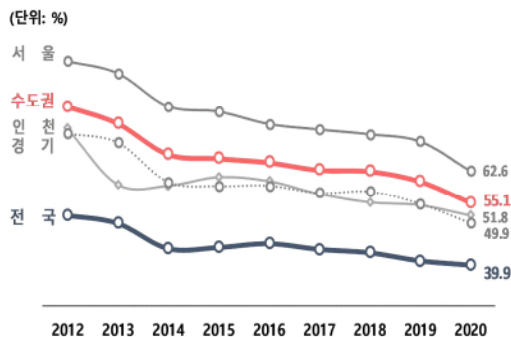
■ 정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산식: (자체수입액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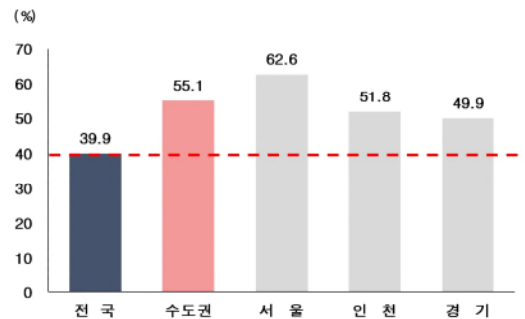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재정자립도는 55.1%로 전국(39.9%) 대비 15.2%p 높음

- 전국과 수도권 모두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의 감소세가 전국보다 더 가파름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이 62.6%로 인천, 경기보다 각각 10.8%p, 12.7%p 높으며, '10년에 비해 시도 간 격차는 줄어들

<그림 II-1> 재정자립도 추이, 2012-2020



<그림 II-2> 재정자립도, 2020



<표 II-1> 재정자립도

(단위: %, %p)

	2012	2015	2020	증감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52.0	44.2	39.9	-12.1	-4.3
수도권(B)	78.1	65.6	55.1	-23.0	-10.6
서울	89.0	76.8	62.6	-26.4	-14.2
인천	72.6	61.0	51.8	-20.9	-9.3
경기	71.5	58.9	49.9	-21.5	-9.0
차이(B-A)	26.1	21.4	15.2		

자료: 지방재정 365

1. 기초역량과 여건 > 주거/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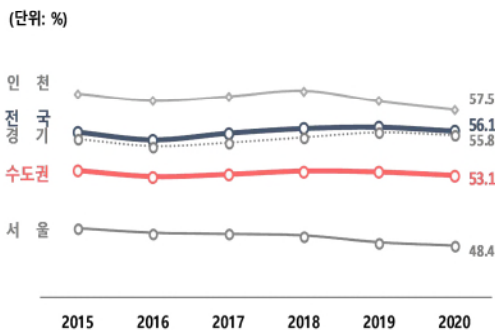
1-2. 주택 소유 가구 비율

■ 정의: 일반 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 비율
 ■ 산식: (주택 소유 가구 ÷ 총가구(일반 가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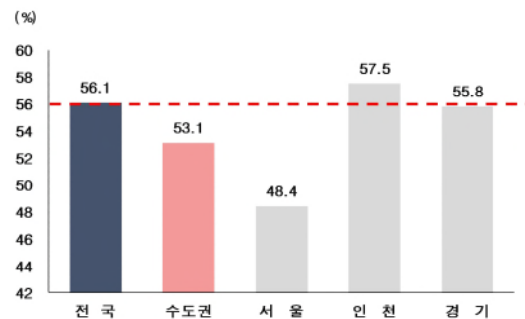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53.1%로 전국 대비 3.0%p 낮음

-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은 '15년 53.4%에서 '20년 53.1%으로 0.3%p 감소, 전국(56.1%)보다 3.0%p 낮음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 57.5%, 경기 55.8%, 서울 48.4% 순이며, 서울과 인천은 '15년 대비 1.1%p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0.3%p 증가함

<그림 II-15> 주택 소유 가구 비율 추이, 2015-2020



<그림 II-16> 주택 소유 가구 비율, 2020



<표 II-8> 주택 소유 가구 비율

(단위: %, %p)

	2015	2020	증감
			'15년 대비
전국(A)	56.0	56.1	0.1
수도권(B)	53.4	53.1	-0.3
서울	49.6	48.4	-1.1
인천	58.5	57.5	-1.1
경기	55.5	55.8	0.3
차이(B-A)	-2.6	-3.0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1. 기초역량과 여건 >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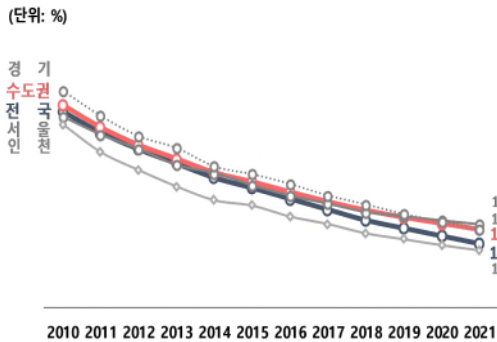
1-3. 교원당 학생 수

- 정의: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
- 산식: 재적 학생 수 ÷ 교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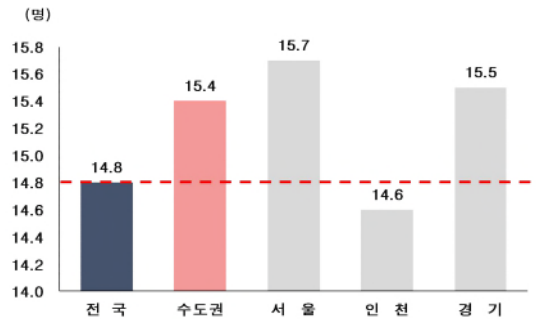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감소세 지속

- '21년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는 15.4명으로 '10년(20.9명) 대비 5.5명 (26.3%) 감소, 전국 14.8명보다 0.6명 많음
- 교원당 학생 수는 수도권 내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경기도는 '10년 21.6명에서 '21년 15.5명으로 가장 큰 감소 폭(28.2%)을 보임

<그림 II-21> 교원당 학생 수 추이, 2010-2021



<그림 II-22> 교원당 학생 수, 2021



<표 II-11> 교원당 학생 수¹⁾

(단위: 명, %)

	2010	2015	2021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20.6	17.3	14.8	-28.1	-14.2
수도권(B)	20.9	17.6	15.4	-26.3	-12.0
서울	20.4	17.4	15.7	-23.3	-9.9
인천	20.1	16.5	14.6	-27.6	-11.9
경기	21.6	17.9	15.5	-28.2	-13.6
차이(B-A)	0.3	0.3	0.6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주: 1)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원 수와 학생 수

1. 기초역량과 여건 > 인구/건강

1-4.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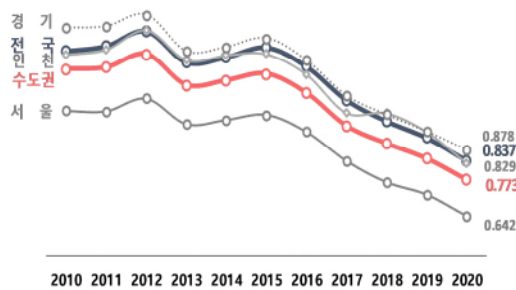
■ 정의: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 산식: 연령별(15-49세) 출산율의 합÷1000

2020년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0.773명으로 2010년 대비 0.390명 감소

- 수도권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10년 1.162명에서 '20년 0.773명으로 10년간 0.390명 감소함
- '20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2명이며, 인천(0.829명), 경기(0.878명) 보다 각각 0.187명, 0.236명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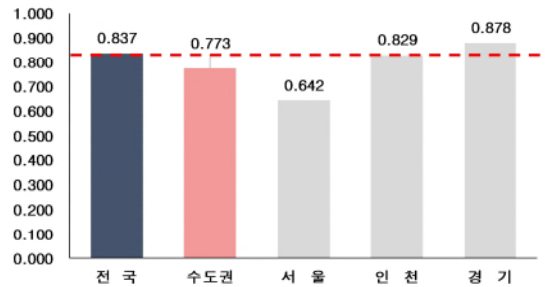
<그림 II-27> 합계출산율 추이, 2010-2020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그림 II-28> 합계출산율, 2020

(가임여자 1명당 명)



<표 II-14>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자 1명당 명)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 국(A)	1.226	1.239	0.837	-0.389	-0.402
수도권 ¹⁾ (B)	1.162	1.146	0.773	-0.390	-0.373
서울	1.015	1.001	0.642	-0.373	-0.359
인천	1.214	1.216	0.829	-0.385	-0.387
경기	1.309	1.272	0.878	-0.431	-0.394
차이(B-A)	-0.064	-0.093	-0.06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주: 1) 수도권 합계 출산율은 「인구동향조사」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로 재산출



2. 경제적 성과 > 성장/혁신

2-1.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정의: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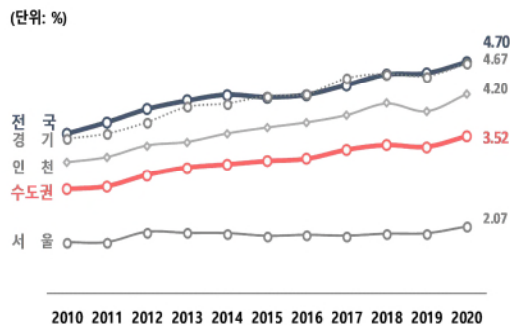
■ 산식: (연구개발비 ÷ 실질 GRDP) × 100

2020년 수도권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3.52%로 2010년 대비 0.85%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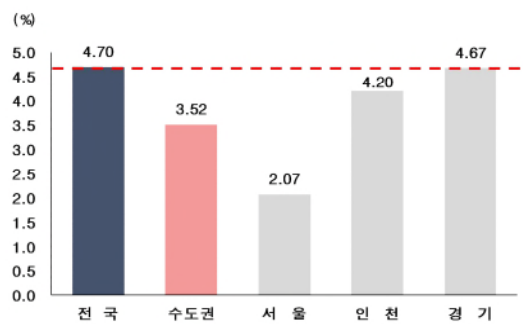
□ '20년 수도권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은 3.52%로 '10년(2.66%) 대비 0.85%p 증가, 전국(4.70%) 대비 1.18%p 낮음

□ 시도별로는 '20년 경기도는 4.67%로 인천(4.20%)과 서울(2.07%)보다 각각 0.47%p, 2.60%p 높음

<그림 II-41>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추이, 2010-2020



<그림 II-42>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2020



<표 II-21>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단위: %, %p)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3.57	4.14	4.70	1.13	0.56
수도권(B)	2.66	3.12	3.52	0.85	0.40
서울	1.83	1.93	2.07	0.24	0.14
인천	3.10	3.66	4.20	1.10	0.54
경기	3.49	4.16	4.67	1.19	0.52
차이(B-A)	-0.90	-1.02	-1.18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II

분석보고서

2. 경제적 성과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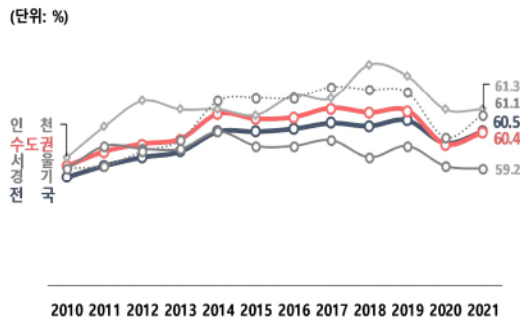
2-2. 고용률

-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산식: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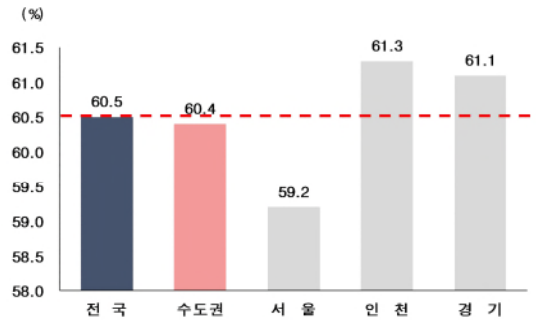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60.4%

- '21년 수도권 고용률은 60.4%로, 전국(60.5%)과 비슷한 수준임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 61.3% 경기 61.1%, 서울 59.2% 순이며, '10년 대비 증가 폭은 경기(1.9%p)가 가장 큼

<그림 II-45> 고용률 추이, 2010-2021



<그림 II-46> 고용률, 2021



<표 II-23> 고용률

(단위: %, %p)

	2010	2015	2021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58.9	60.5	60.5	1.6	0.0
수도권(B)	59.3	60.9	60.4	1.1	-0.5
서울	59.2	60.0	59.2	0.0	-0.8
인천	59.6	61.1	61.3	1.7	0.2
경기	59.2	61.7	61.1	1.9	-0.6
차이(B-A)	0.4	0.4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경제적 성과 > 소득/소비/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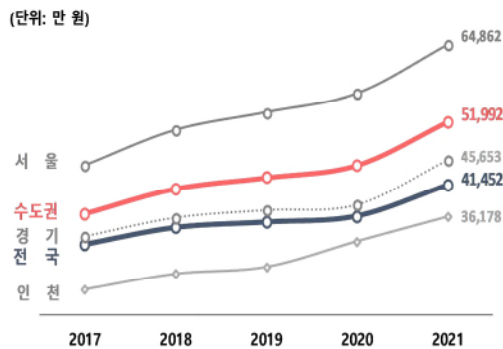
2-3. 가구당 순자산

- 정의: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에서 평균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산식: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전체 가구 평균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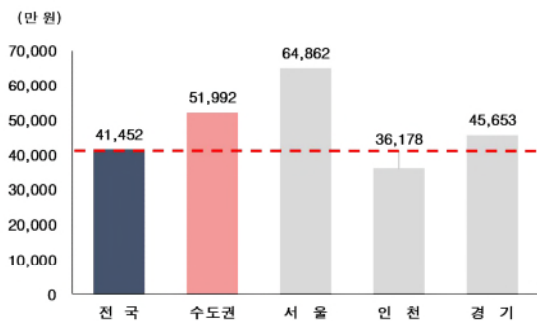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가구당 순자산은 51,992만 원으로 전국 대비 10,540만 원 많음

- '21년 수도권 가구당 순자산은 51,992만 원으로 '17년 대비 15,255만 원 (41.5%) 증가, 전국(41,452만 원)보다는 10,540만 원 많음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64,862만 원, 경기 45,653만 원, 인천 36,178만 원이며, '17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49.9%)임

<그림 II-59> 가구당 순자산 추이,
2017-2021



<그림 II-60> 가구당 순자산, 2021



<표 II-30> 가구당 순자산¹⁾

	2017	2021	증감률
			'17년 대비
전국(A)	31,572	41,452	31.3
수도권(B)	36,737	51,992	41.5
서울	44,741	64,862	45.0
인천	24,131	36,178	49.9
경기	33,005	45,653	38.3
차이(B-A)	5,165	10,54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각 년도 3월말 기준

3. 지속가능성 >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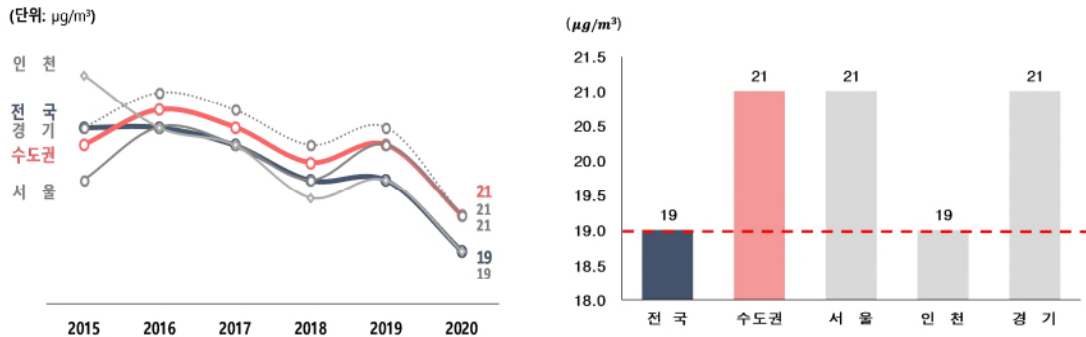
3-1.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정의: 도심(거주)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입자크기 2.5 μg 이하인 미세먼지) 농도
- 산식: $\sum \text{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div 12$

20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1 $\mu\text{g}/\text{m}^3$ 로 2015년 대비 16.0% 감소

- '20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는 21 $\mu\text{g}/\text{m}^3$ 로 '15년 25 $\mu\text{g}/\text{m}^3$ 보다 4 $\mu\text{g}/\text{m}^3$ (16.0%) 감소, 전국은 26 $\mu\text{g}/\text{m}^3$ 에서 19 $\mu\text{g}/\text{m}^3$ 로 7 $\mu\text{g}/\text{m}^3$ (26.9%) 감소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과 경기 21 $\mu\text{g}/\text{m}^3$, 인천 19 $\mu\text{g}/\text{m}^3$ 로, 인천은 '15년 대비 10 $\mu\text{g}/\text{m}^3$ (34.5%) 감소함

<그림 II-63>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추이, <그림 II-64>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20
2015-2020



<표 II-32>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¹⁾

	2015	2020	증감률
			'15년 대비
전국(A)	26	19	-26.9
수도권(B)	25	21	-16.0
서울	23	21	-8.7
인천	29	19	-34.5
경기	26	21	-19.2
차이(B-A)	-1	2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

주: 1) 측정소의 자료 획득률이 75%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정



III. 생활지표

1. 내면세계 > 주관적 웰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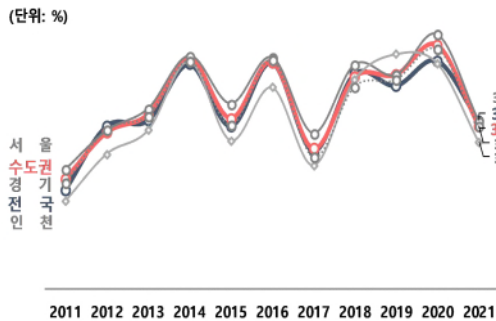
1-1. 삶의 만족도

- 정의: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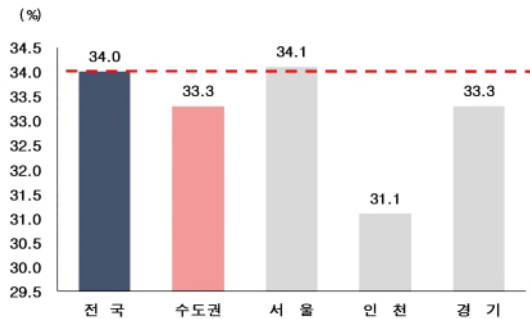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주민의 33.3%는 현재 삶에 대해 만족

- '21년 수도권 삶에 대한 만족도는 33.3%로 '11년(25.8%) 대비 7.6%p 증가, 전국은 24.1%에서 34.0%로 9.9%p 증가함
- 서울의 '21년 삶의 만족도는 34.1%로 인천(31.1%)과 경기(33.3%)에 비해 각각 3.0%p, 0.8%p 높음

<그림 III-1> 삶의 만족도 추이, 2011-2021



<그림 III-2> 삶의 만족도, 2021



<표 III-1> 삶의 만족도¹⁾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24.1	33.3	34.0	9.9	0.7
수도권 ²⁾ (B)	25.8	34.4	33.3	7.6	-1.1
서울	27.2	36.6	34.1	6.9	-2.5
인천	22.6	31.3	31.1	8.5	-0.2
경기	25.3	33.4	33.3	8.0	-0.1
차이(B-A)	1.6	1.1	-0.7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삶의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2. 개인생활 >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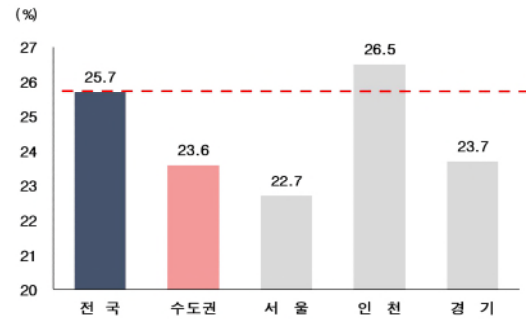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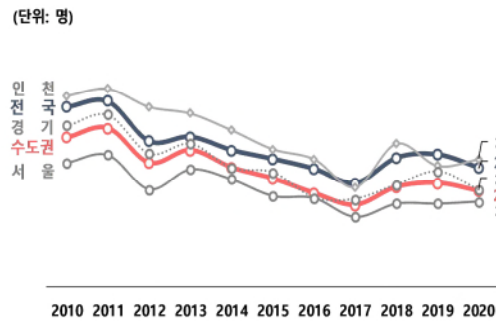
2-1.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
 ■ 산식: (자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 연앙인구) × 100,000

2020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년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3.6명으로 '10년 대비 16.9%, '15년 대비 4.5% 감소함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 26.5명, 경기 23.7명, 서울 22.7명 순이며, '10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19.7%)임

<그림 III-3>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추이, 2010-2020



<표 III-2>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단위: 명, %)

	2010	2015	2020	증감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31.2	26.5	25.7	-17.6	-3.0
수도권(B)	28.4	24.7	23.6	-16.9	-4.5
서울	26.2	23.2	22.7	-13.4	-2.2
인천	32.2	27.4	26.5	-17.7	-3.3
경기	29.5	25.3	23.7	-19.7	-6.3
차이(B-A)	-2.8	-1.8	-2.1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 개인생활 >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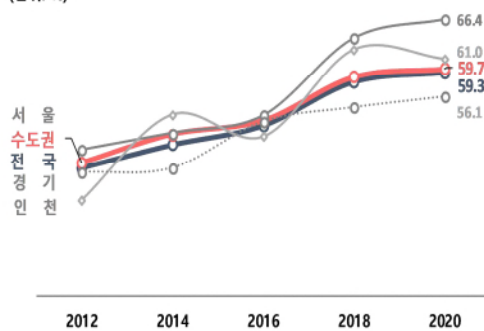
2-2. 학교생활 만족도

- 정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등)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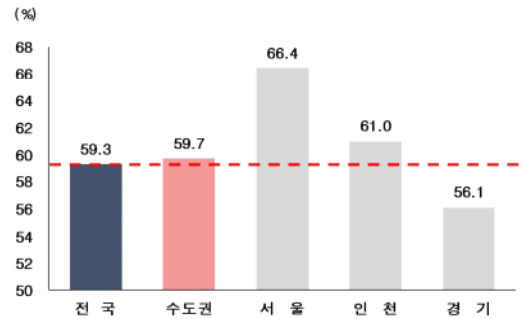
2020년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수도권 59.7%로 2012년 대비 12.4%p 증가

-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은 '12년 47.3%에서 '20년 59.7%로 12.4%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0년 서울 66.4%, 인천 61.0%, 경기 56.1% 순이며, '12년 대비 증가 폭은 인천(18.6%p)이 가장 큼

<그림 II-25> 학교생활 만족도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단위: %)



<그림 II-26> 학교생활 만족도, 2020



<표 II-13> 학교생활 만족도¹⁾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국(A)	46.7	52.3	59.3	12.6	7.0
수도권 ²⁾ (B)	47.3	52.9	59.7	12.4	6.8
서울	49.0	53.6	66.4	17.3	12.8
인천	42.4	50.8	61.0	18.6	10.2
경기	46.2	52.8	56.1	9.9	3.3
차이(B-A)	0.6	0.6	0.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2012~2016년은 13세 이상 재학생,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학교생활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2. 개인생활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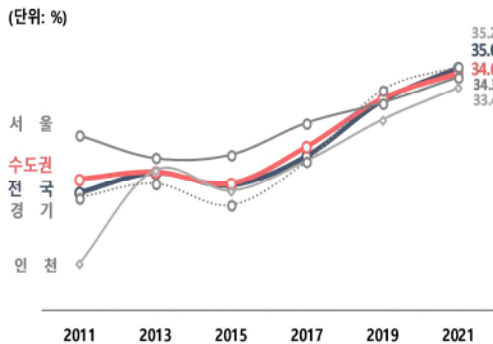
2-3. 근로여건만족도

- 정의: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전반적인(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등)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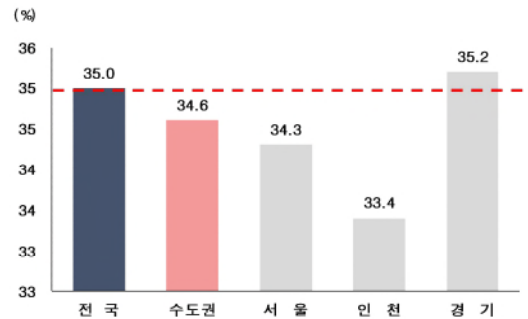
2021년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34.6%로 2011년 대비 8.8%p 증가

- '21년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34.6%로 '11년(25.8%) 대비 8.8%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35.2%, 서울 34.3%, 인천 33.4% 순이며, '11년 대비 증가 폭은 인천이 14.6%p 가장 큼

<그림 II-47> 근로여건만족도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 II-48> 근로여건만족도, 2021



<표 II-24> 근로여건 만족도¹⁾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24.6	25.3	35.0	10.4	0.0
수도권 ²⁾ (B)	25.8	25.4	34.6	8.8	-0.5
서울	29.4	27.8	34.3	4.8	-0.8
인천	18.8	24.8	33.4	14.6	0.2
경기	24.2	23.6	35.2	10.9	-0.6
차이(B-A)	1.2	0.2	-0.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근로여건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2. 개인생활 > 소득/소비

2-4. 주관적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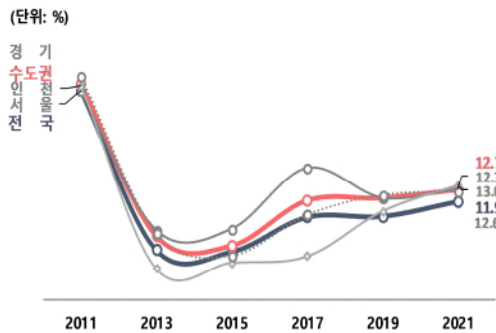
■ 정의: 가구 월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 실제 소득수준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 산식: ('매우 여유', '약간 여유'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수도권 가구주의 12.7%는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월평균 최소 생활비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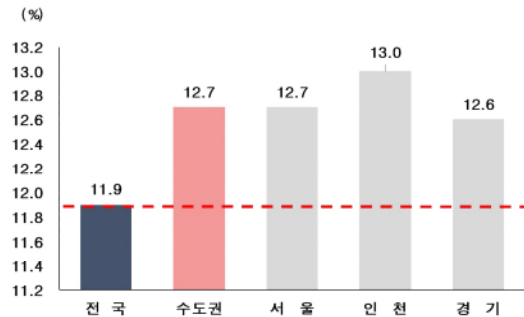
□ '21년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이 월평균 최소 생활비에 비해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수도권 가구주는 12.7%이며, '11년(20.2%) 대비 7.5%p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인천(13.0%), 서울(12.7%), 경기(12.6%) 순으로 높음

<그림 III-21> 주관적 소득수준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 III-22> 주관적 소득수준, 2021



<표 III-11> 주관적 소득수준¹⁾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19.6	8.4	11.9	-7.8	3.5
수도권 ²⁾ (B)	20.2	8.8	12.7	-7.5	3.9
서울	19.6	9.9	12.7	-6.9	2.8
인천	20.0	7.6	13.0	-7.0	5.4
경기	20.7	8.1	12.6	-8.1	4.4
차이(B-A)	0.5	0.4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주관적 소득수준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2. 개인생활 > 문화/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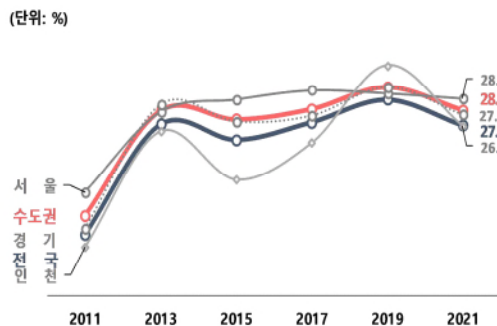
2-5. 여가활동 만족도

- 정의: 개인의 여가 활용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2021년 개인의 여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28.1%로 2011년 대비 7.5%p 증가

- 개인의 여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1년 수도권 28.1%로 '11년 대비 7.5%p 증가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28.9%, 경기 27.8%, 인천 26.9%이며, '11년 대비 가장 증가 폭이 큰 지역은 인천(8.5%p)임

<그림 III-23> 여가활동 만족도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 III-24> 여가활동 만족도, 2021



<표 III-12> 여가활동 만족도¹⁾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19.3	26.0	27.0	7.7	1.0
수도권 ²⁾ (B)	20.6	27.4	28.1	7.5	0.7
서울	22.3	28.9	28.9	6.7	0.1
인천	18.4	23.2	26.9	8.5	3.8
경기	19.7	27.3	27.8	8.0	0.5
차이(B-A)	1.4	1.5	1.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여가활동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2. 개인생활 >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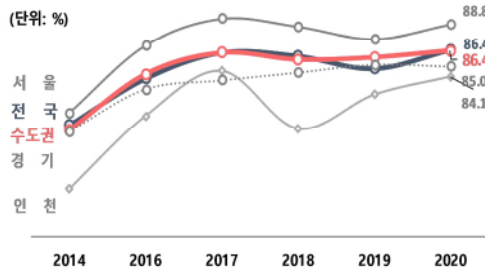
2-6. 주거환경 만족도

- 정의: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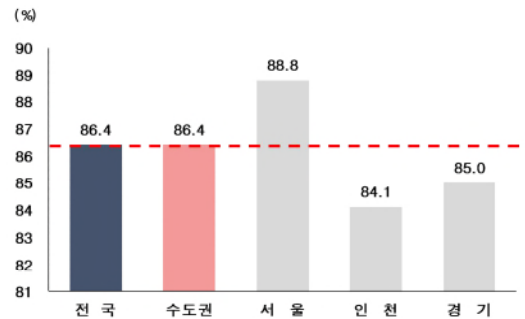
2020년 수도권 주민의 86.4%는 주거환경에 만족함

- '20년 전국과 수도권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6.4%로 동일하며, 수도권은 '10년(79.5%) 대비 6.9%p, 전국은 5.5%p 증가함
- '20년 서울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88.8%로 수도권보다 2.4%p 높고, 인천(84.1%)은 2.3%p, 경기(85.0%)는 1.4%p 낮음

<그림 II-7> 주거환경 만족도 추이, 2014 2016-2020



<그림 II-8> 주거환경 만족도, 2020



<표 II-4> 주거환경 만족도

	2010	2016	2020	(단위: %, %p)	
				증감	
				'12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80.9	83.9	86.4	5.5	2.5
수도권(B) ¹⁾	79.5	84.3	86.4	6.9	2.1
서울	81.4	86.9	88.8	7.4	1.9
인천	77.0	80.6	84.1	7.1	3.5
경기	78.5	83.0	85.0	6.5	2.0
차이(B-A)	-1.4	0.4	0.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주: 1) 수도권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3. 공동생활 > 가족/친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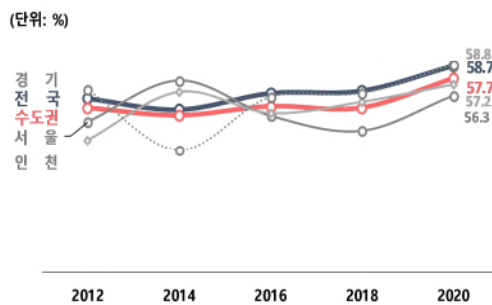
3-1. 가족관계 만족도

- 정의: 전반적인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 산식: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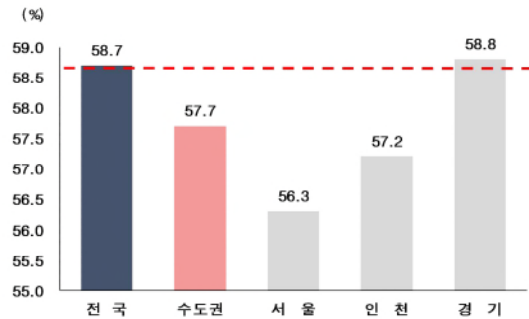
2020년 전반적인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57.7%로 2012년 대비 2.4%p 증가

- '20년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수도권 57.7%, 전국 58.7%이며, '12년 대비 각각 2.4%p, 2.6%p 증가함
- 가족관계 만족도는 '20년 경기 58.8%, 인천 57.2%, 서울 56.3%이며, '12년 대비 각각 2.0%p, 4.5%p, 2.1%p 증가함

<그림 III-39>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2012 2014 2016 2018 2020



<그림 III-40> 가족관계 만족도, 2020



<표 III-20> 가족관계 만족도¹⁾

(단위: %, %p)

	2012	2016	2020	증감	
				'12년 대비	'16년 대비
전국(A)	56.1	56.5	58.7	2.6	2.2
수도권 ²⁾ (B)	55.3	55.4	57.7	2.4	2.3
서울	54.2	54.7	56.3	2.1	1.6
인천	52.7	54.9	57.2	4.5	2.3
경기	56.8	56.2	58.8	2.0	2.6
차이(B-A)	-0.8	-1.1	-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가족관계 만족도는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3. 공동생활 > 시민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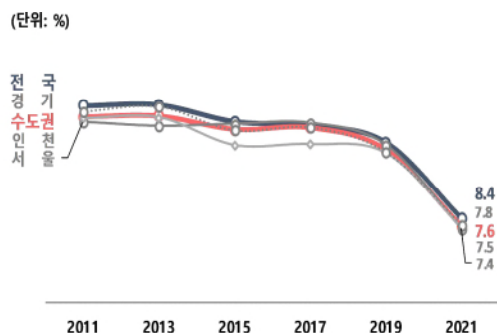
3-2. 자원봉사 참여율

- 정의: 지난 1년간(전년 5월~당해년 5월)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 산식: ('참여한 적 있다' 응답자÷전체 응답자)×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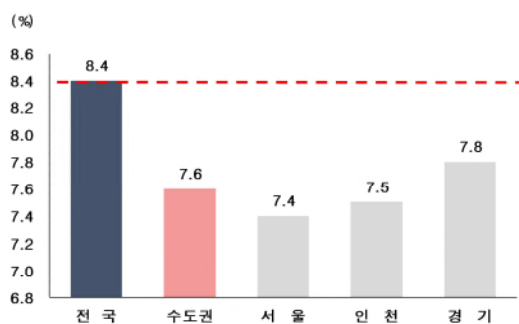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6%로 2011년 대비 11.0%p 감소

- 수도권 자원봉사 참여율은 '11년 18.7%에서 '21년 7.6%로 11.0%p 감소, 전국은 19.8%에서 8.4%로 11.4%p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경기 7.8%, 인천 7.5%, 서울 7.4%로 '11년 대비 각각 11.4%p, 11.0%p, 10.7%p 감소함

<그림 III-53> 자원봉사 참여율 추이,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그림 III-54> 자원봉사 참여율, 2021



<표 III-27> 자원봉사 참여율¹⁾

(단위: %, %p)

	2011	2015	2021	증감	
				'11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19.8	18.2	8.4	-11.4	-9.8
수도권 ²⁾ (B)	18.7	17.4	7.6	-11.0	-9.8
서울	18.1	17.9	7.4	-10.7	-10.5
인천	18.5	15.8	7.5	-11.0	-8.3
경기	19.2	17.3	7.8	-11.4	-9.5
차이(B-A)	-1.1	-0.8	-0.8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수도권 자원봉사 참여율은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로 재산출

4. 환경 > 생활환경

4-1.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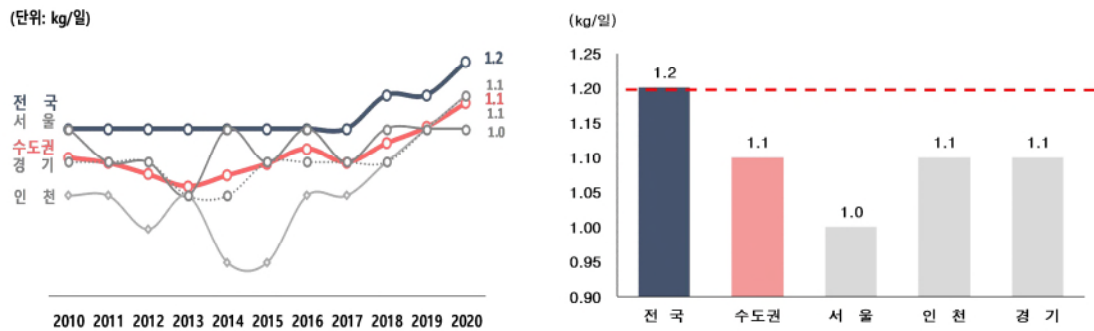
- 정의: 주민 1인당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
- 산식: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주민등록인구

2020년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kg/일

□ '20년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1kg/일이며, 전국은 1.2kg/일임

□ 시도별로는 '20년 인천과 경기도는 1.1kg/일, 서울 1.0kg/일임

<그림 III-59>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이, 2010-2020 <그림 III-60>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2020



<표 III-30>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단위: kg/일)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1.0	1.0	1.2	0.2	0.2
수도권(B)	0.9	0.9	1.1	0.2	0.2
서울	1.0	0.9	1.0	0.0	0.1
인천	0.8	0.6	1.1	0.3	0.5
경기	0.9	0.9	1.1	0.2	0.2
차이(B-A)	-0.1	-0.1	-0.1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4. 환경 >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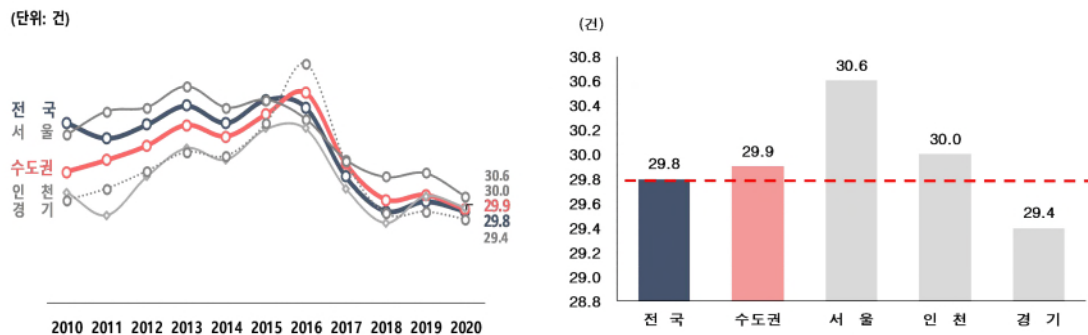
4-2.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 정의: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 산식: (범죄 발생 건수÷주민등록인구)×1,000

2020년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9.9건으로 2010년 대비 6.1% 감소

- 수도권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 31.9건에서 '20년 29.9건으로 2.0건(6.1%) 감소, 전국은 34.4건에서 29.8건으로 4.6건(13.4%) 감소함
- 시도별로는 '21년 서울 30.6건으로 인천(30.0건)과 경기(29.4건)보다 높고, '10년 대비 감소율도 9.5%로 가장 큼

<그림 III-67>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추이, 2010-2020 <그림 III-68>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2020



<표 III-34>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2010	2015	2020	증감률	
				'10년 대비	'15년 대비
전국(A)	34.4	35.6	29.8	-13.4	-16.3
수도권(B)	31.9	34.8	29.9	-6.1	-14.2
서울	33.8	35.6	30.6	-9.5	-14.0
인천	30.8	34.1	30.0	-2.6	-12.0
경기	30.4	34.4	29.4	-3.3	-14.5
차이(B-A)	-2.5	-0.8	0.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시군구 지표



목 차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시군구 지표

1. GRDP	216
2. 인구 순유입률	217
3.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18
4.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19
5. 재정자립도	220
6. 주택 소유 가구 비율	221
7. 교원당 학생 수	222
8. 합계 출산율	223
9.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24
10.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225
참고	226

지도로 보는 수도권 시군구 지표

1.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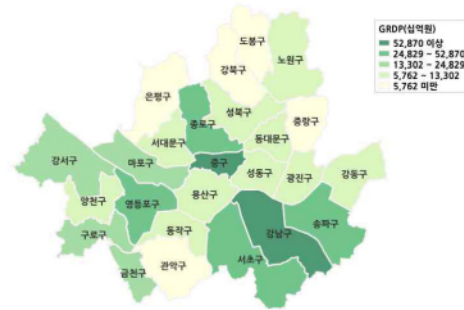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76,110십억원)와 서울 강남구(67,790십억원)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남구, 인천은 서구, 경기도는 화성시가 가장 높고, 경제활동과 생산에 따른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662십억원)이며, 경기 연천군(1,563십억원), 인천 강화군(1,609십억원) 순임
 - 시도 내 지역간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경기이며, 가장 낮은 연천군(1,563십억원)과 가장 높은 화성시(76,110십억원) 간에 약 48.7배 차이가 남

< 수도권 GRDP, 2019 >

【서울】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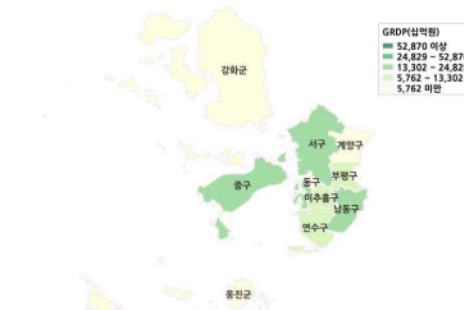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강남구 67,790	강북구 3,088
2	종구 52,870	도봉구 3,208
3	영등포구 34,202	중랑구 4,448
4	서초구 33,420	은평구 4,601
5	종로구 32,428	관악구 5,649



【인천】

(단위: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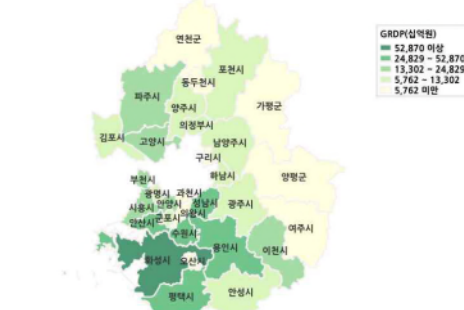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서구 18,894	옹진군 662
2	중구 15,460	강화군 1,609
3	남동구 15,388	동구 3,318
4	연수구 11,235	계양구 4,659
5	부평구 9,880	미추홀구 6,849



【경기】

(단위: 십억원)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화성시 76,110	연천군 1,563
2	성남시 41,967	가평군 1,678
3	수원시 34,485	동두천시 1,824
4	평택시 31,406	양평군 1,890
5	용인시 28,708	구리시 3,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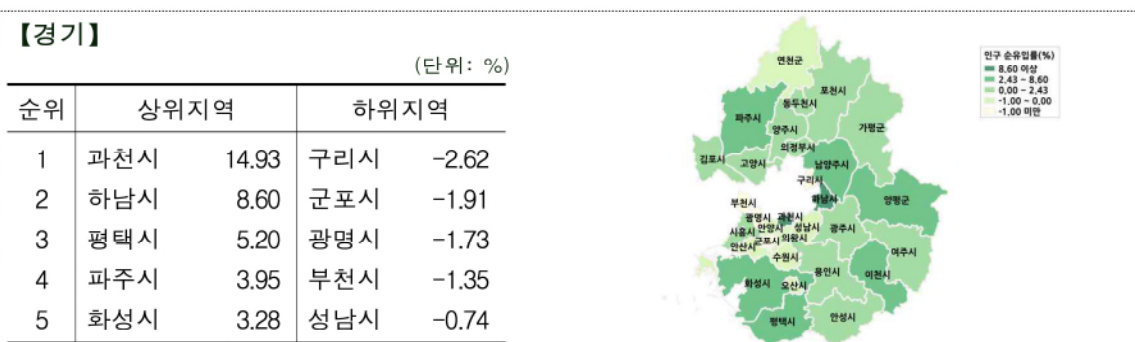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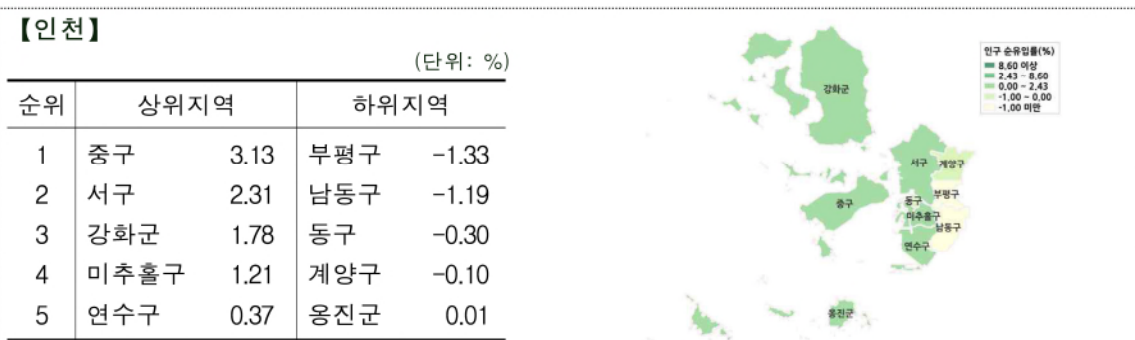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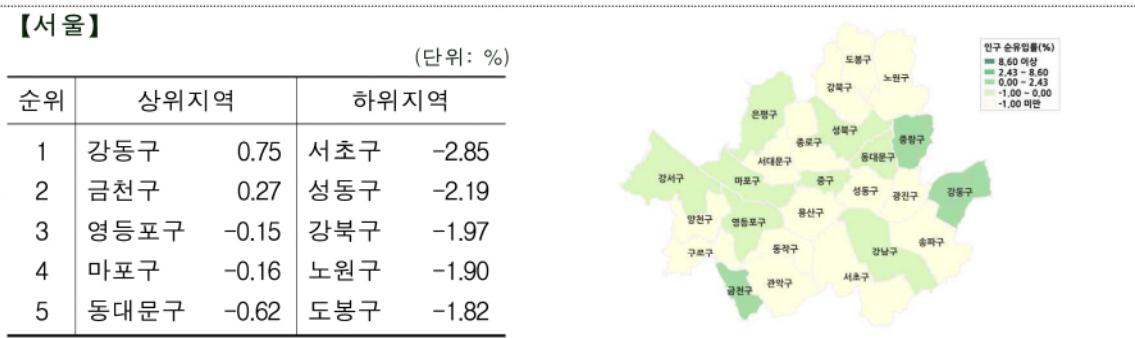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 인구 순유입률

- 2021년 인구 순유입은 경기 과천시(14.93%), 경기 하남시(8.60%), 경기 평택시(5.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동구(0.75%), 인천은 중구(3.13%), 경기도는 과천시(14.93%)가 가장 높음
- 인구 순유출은 서울 서초구(-2.85%), 경기 구리시(-2.62%), 서울 성동구(-2.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2.85%), 인천은 부평구(-1.33%), 경기도는 구리시(-2.62%)가 가장 높고, 서울은 강동구와 금천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순유출 됨

< 수도권 인구 순유입률, 2021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순이동률=(순이동자수÷주민등록연안인구)×100

3.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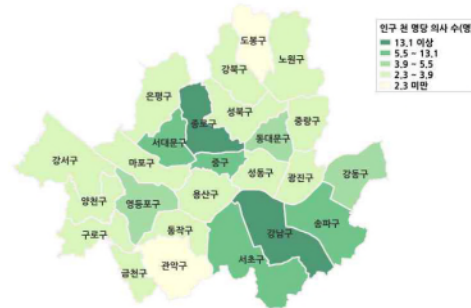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종로구(21.1명)이며, 서울 강남구(13.1명), 서울 중구(10.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종로구(21.1명), 인천은 중구(4.3명), 경기도는 성남시(4.7명)가 가장 많고, 특히 서울은 최상·최하위지역(종로구 21.1명, 도봉구 2.0명) 간에 10배 이상 크게 차이남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와 광주시(1.3명), 경기 의왕시(1.4명)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도봉구(2.0명), 인천은 강화군과 연수구(1.9명), 경기도는 과천시와 광주시(1.3명)가 가장 적음

< 수도권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2021 >

【서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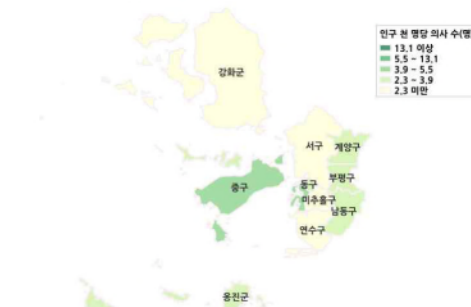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종로구 21.1	도봉구 2.0
2	강남구 13.1	관악구 2.2
3	중구 10.2	강북,금천구 2.5
4	서초구 7.7	은평,중랑구 2.7
5	서대문구 6.9	강서,마포구 2.9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4.3	강화군,연수구 1.9
2	남동구 3.4	서구 2.1
3	부평구 2.8	미추홀구 2.2
4	동구,용진군 2.7	계양구 2.5
5	-	-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성남시 4.7	과천,광주시 1.3
2	구리시 3.9	의왕시 1.4
3	수원시 3.3	남양주,연천,파주 1.6
4	고양,안양시 3.2	시흥,안성,양평 1.7
5	부천,의정부 3.1	가평,양주,이천, 포천,하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4.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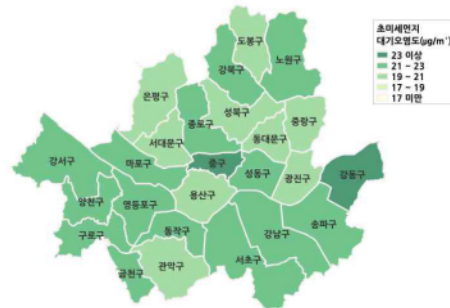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초미세먼지(PM2.5) 대기 농도가 높은 지역은 경기 부천시 (26 $\mu\text{g}/\text{m}^3$), 경기 여주시(25 $\mu\text{g}/\text{m}^3$), 경기 이천시(24 $\mu\text{g}/\text{m}^3$)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강동구와 중구(23 $\mu\text{g}/\text{m}^3$), 인천은 미추홀구(21 $\mu\text{g}/\text{m}^3$), 경기도는 부천시(26 $\mu\text{g}/\text{m}^3$)가 가장 높고, 특히 경기 남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 농도가 높은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음
- 초미세먼지 대기 농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연천군과 하남시(16 $\mu\text{g}/\text{m}^3$)이며, 인천 남동구와 중구, 경기 가평군(17 $\mu\text{g}/\text{m}^3$)이 뒤를 이음
 - 시도별로는 인천이 서울,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수도권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2020 >

【서울】

(단위: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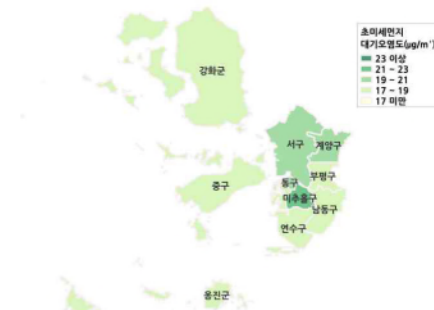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강동, 중구 23	관악,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북, 은평, 중랑 19
2	금천, 노원, 동작, 양천 22	광진, 용산 20



【인천】

(단위: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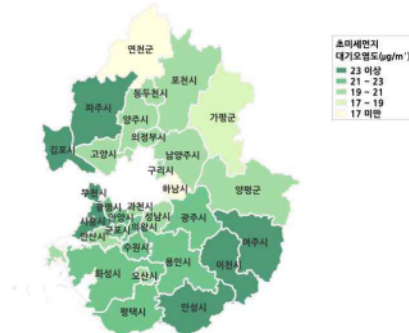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미추홀구 21	남동구, 중구 17
2	계양구, 동구, 서구 19	부평구, 연수구 18



【경기】

(단위: $\mu\text{g}/\text{m}^3$)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부천시 26	연천군, 하남시* 16
2	여주시* 25	가평군 17
3	이천시 24	과천시, 동두천시, 안산시, 양평군 19



*는 자료 획득율이 50%이상 75%미만인 도시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5. 재정자립도

- 202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시(45.6%)이며, 다음은 경기 화성시(43.3%) 서울 서초구(41.7%)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서초구(41.7%), 인천은 중구(41.0%), 경기도는 성남시(45.6%)가 가장 높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인천 동구와 용진군(10.2%), 서울 노원구(12.0%), 경기 연천군(12.2%) 순임

< 수도권 재정자립도, 2020 >

【서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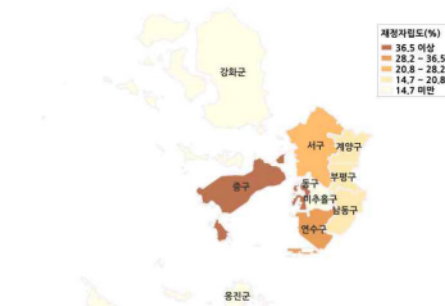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서초구 41.7	노원구 12.0
2	강남구 41.0	강북,도봉구 13.0
3	중구 40.4	종로구 13.4
4	종로구 35.3	은평구 13.9
5	용산구 30.1	관악구 14.2



【인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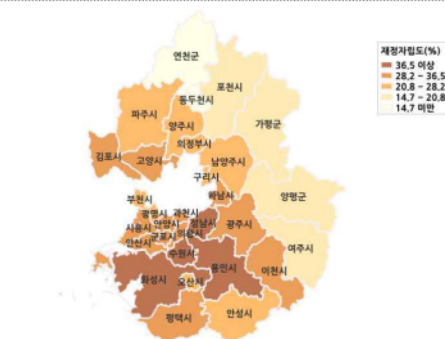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41.0	동구,용진군 10.2
2	연수구 29.0	미추홀구 13.2
3	서구 27.8	강화군 14.2
4	남동구 19.8	계양구 15.9
5	부평구 17.1	-



【경기】

(단위: %)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성남시 45.6	연천군 12.2
2	화성시 43.3	동두천시 12.7
3	용인시 41.3	가평군 14.7
4	수원시 36.5	양평군 16.0
5	하남시 35.6	여주시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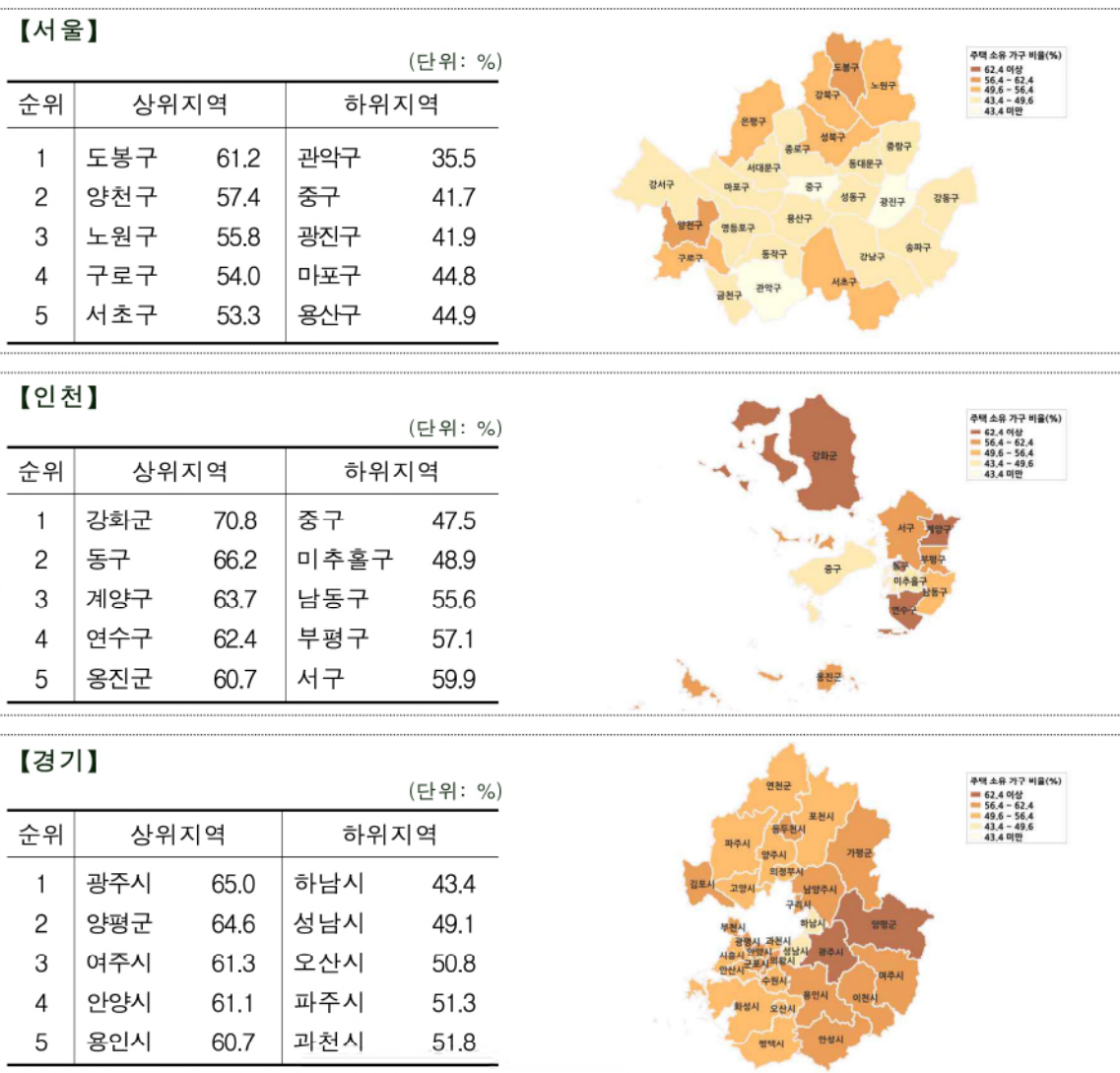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6. 주택 소유 가구 비율

- 2020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70.8%)이며, 다음은 인천 동구(66.2%), 경기 광주시(65.0%)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도봉구(61.2%), 인천은 강화군(70.8%), 경기도는 광주시(65.0%)가 가장 높음
-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35.5%)이며, 서울 중구(41.7%), 서울 광진구(41.9%)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35.5%), 인천은 중구(47.5%), 경기도는 하남시(43.4%)가 가장 낮았고, 서울이 인천, 경기도에 비해 다소 낮았음

< 수도권 주택 소유 가구 비율, 2020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7. 교원당 학생 수

- 2021년 기준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22.3명)이며, 서울 성북구(20.5명), 서울 광진구(20.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동대문구(22.3명), 인천은 미추홀구(18.9명), 경기도는 안성시(19.4명)가 가장 많음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4.7명), 경기 연천군(7.7명), 인천 강화군(8.2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금천구(11.1명), 인천은 옹진군(4.7명), 경기도는 연천군(7.7명)이 가장 적고, 군 지역이 구 또는 시 지역보다 적음

< 수도권 교원당 학생 수, 2021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동대문구 22.3	금천구 11.1
2	성북구 20.5	서초구 11.2
3	광진구 20.2	관악,영등포구 11.9
4	동작구 19.7	강북,은평구 12.5
5	서대문구 19.6	강서구 12.7

교원당 학생 수(명)

- 18.5 이상
- 15.8 ~ 18.5
- 13.6 ~ 15.8
- 9.7 ~ 13.6
- 9.7 미만

【인천】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미추홀구 18.9	옹진군 4.7
2	동구 18.2	강화군 8.2
3	연수구 16.3	중구 11.7
4	서구 14.3	부평구 12.7
5	남동구 13.9	계양구 13.7

교원당 학생 수(명)

- 18.5 이상
- 15.8 ~ 18.5
- 13.6 ~ 15.8
- 9.7 ~ 13.6
- 9.7 미만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안성시 19.4	연천군 7.7
2	오산시 18.0	가평군 9.7
3	안양,양주시 17.4	양평군 10.7
4	용인시 17.0	광명시 12.5
5	화성시 16.8	동두천시 13.0

교원당 학생 수(명)

- 18.5 이상
- 15.8 ~ 18.5
- 13.6 ~ 15.8
- 9.7 ~ 13.6
- 9.7 미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교원 수, 학생 수: 유치원, 초·중·고·대 학교 해당



8. 합계 출산율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강화군(1.31명)이며, 경기 연천군(1.28명), 인천 옹진군(1.13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성동구(0.78명), 인천은 강화군(1.31명), 경기도는 연천군(1.28명)이 가장 높음
-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관악구(0.47명)이며, 서울 종로구(0.52명), 서울 광진구(0.53명)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0.47명), 인천은 계양구(0.67명), 경기도는 부천시(0.75명)가 가장 낮고, 서울은 모든 지역에서 1명 미만으로 인천, 경기보다 낮음

< 수도권 합계 출산율, 2020 >

【서울】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성동구 0.78	관악구 0.47
2	강동구 0.75	종로구 0.52
3	구로구 0.74	광진구 0.53
4	영등포구 0.71	강남구 0.54
5	동대문구 0.70	강북구 0.55



【인천】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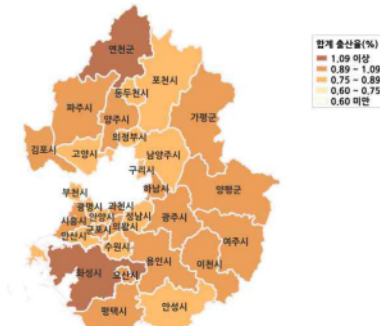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강화군 1.31	계양구 0.67
2	옹진군 1.13	동구 0.70
3	연수구 0.95	부평구 0.71
4	중구 0.82	미추홀구 0.80
5	남동구 0.81	남동구 0.81



【경기】

(단위: 가임 여자 1명당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연천군 1.28	부천시 0.75
2	화성시 1.09	성남시 0.77
3	평택시 1.06	구리시 0.78
4	여주시 1.05	고양시 0.79
5	가평군 1.03	수원·의정부시 0.8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

9.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2020년 기준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 수는 경기 동두천시(44.3명), 인천 중구(33.2명), 경기 포천시(32.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서울은 관악구(29.2명), 인천은 중구(33.2명), 경기도는 동두천시(44.3명)가 가장 높음
- 자살자 수가 낮은 지역은 인천 동구(16.0명), 서울 중구(16.5명), 경기 용인시(17.2명) 순임

< 수도권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020 >

【서울】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관악구 29.2	중구 16.5
2	금천구 28.0	종로구 17.9
3	동대문구 26.6	서초구 18.1
4	강북구 26.5	양천구 19.3
5	도봉구 25.5	구로,마포구 19.7



【인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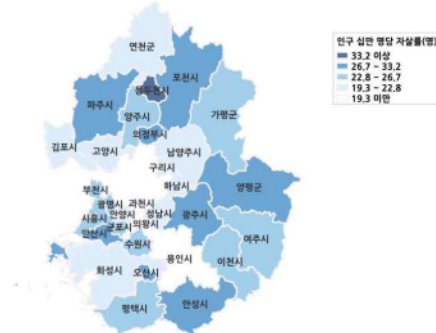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33.2	동구 16.0
2	남동구 30.1	연수구 19.0
3	미추홀구 29.2	강화군 21.8
4	서구 27.4	옹진군 24.6
5	부평구 25.9	계양구 25.2



【경기】

(단위: 명)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동두천시 44.3	용인시 17.2
2	포천시 32.1	과천시 18.4
3	의정부시 31.7	의왕시 18.6
4	안성시 31.0	화성시 20.5
5	양평군 29.1	김포시 20.7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0.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 2021년 기준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의왕시 (7.2kg)이며, 경기 이천시(6.4kg), 경기 양평군(4.4kg)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구(2.9kg), 인천은 중구(1.8kg), 경기도는 의왕시 (7.2kg)가 가장 많음
-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안양시와 의정부시 (0.2kg)이며, 경기 안산시(0.4kg), 경기 군포·성남·시흥·용인시(0.5kg) 순임
 - 시도별로는 서울은 중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이 적고, 인천은 연수구 (0.6kg), 경기도는 안양시와 의정부시(0.2kg)가 가장 적음

< 수도권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2021 >

【서울】			
(단위: kg/일)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2.9	강동,강북,관악, 구로,노원,동작, 성북,은평	0.8
2	종로구 1.8	강서,도봉, 서대문구, 양천,중랑	0.9

【인천】			
(단위: kg/일)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중구 1.8	연수구	0.6
2	서구 1.6	미추홀,부평	0.8
3	강화군 1.2	남동구, 동구, 옹진군	0.9

【경기】			
(단위: kg/일)			
순위	상위지역	하위지역	
1	의왕시 7.2	안양시, 의정부시	0.2
2	이천시 6.4	안산시	0.4
3	양평군 4.4	군포,성남, 시흥,용인	0.5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참고

수도권 광역지표 개발

□ 개발목적

- 수도권 광역 단위의 경쟁력과 발전, 지역민의 생활을 양적·질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현 지역 상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
- 경제 사회구조 변화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협업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 결정 및 효과 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

□ 개발 연혁

- (2020년) 「수도권 광역지표 개발 연구」 연구용역 실시(한국삶의질학회)
 - 3개 부문(경쟁력, 발전, 생활) 프레임워크 구축. 경쟁력지표 개발
- (2021년) 수도권 광역지표 개발 연구」 2차 연구용역 실시(세종경영자문)
 - 3개 부문 중 발전, 생활지표 개발
- (2022년) 3개 부문, 11개 영역 총 103개 지표 확정 공표 및 온라인 시범서비스

□ 개발 결과

- 영역 및 지표 구성 현황

부문	지표 정의	영역 수	하위영역 수	세부지표 수
경쟁력	국내외적으로 다른 광역에 비해 더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갖춘 결과 물질/비물질적으로 반영하고 내외적으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측정	4	8	21
발전	경제 발전 결과로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하고 주민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광역단위의 경제 및 사회체계가 부작용 없이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는 상태 및 과정을 측정	3	8	33
생활	물질적 생활, 내 삶의 기회 등 양적 개념과 일상적 삶의 질 등 질적 개념을 포함하여 광역주민들의 생활을다면적으로 측정	4	11	49



1. 경쟁력 지표

영역(4)	하위영역(8)	지표(21)
자원	인적자원	인구성장지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물적자원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인터넷 이용률, 가구원당 평균 방수
역량	제도적 역량	공공기관 청렴도, 창업기업 증감률
	혁신 역량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건수,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집약 서비스 활동 근로자 수
번영	경제성장	지역내 실질 총생산(GRDP), GRDP 증가율, 노동생산성
	생활수준	고용률,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매력	경제적 기회	인구 순유입률, 유학생 수
	생활·환경의 지속가능성	주거환경 만족도,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삶의 만족도

2. 발전지표

영역(3)	하위영역(8)	지표(33)
기초 역량과 여건	재정	재정자립도,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주거/교통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접근성, 통근 시간, PIR, 주택 소유 가구 비율, 공공임대주택 수
	교육/훈련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교원당 학생 수, 학교 교육의 효과, 학교 생활 만족도
	인구/건강	합계출산율, 인구 증가율, 고령인구 비율, 인구 백만 명당 응급 의료기관 수,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인구 부양비
경제적 성과	성장/혁신	GRDP 증가율, GRDP 중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창업기업 수
	일	고용률, 근로여건만족도, 근로시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소득/소비/자산	월평균 임금,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가구 순자산
지속 가능성	환경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최종에너지 소비량



3. 생활지표

영역(4)	하위영역(11)	지표(49)
내면세계	주관적웰빙	삶의 만족도
개인생활	건강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 비만 유병률
	교육/훈련	학교생활 만족도, 학급당 학생 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 학교 교육의 효과, 1인당 사교육비
	일	월평균 임금, 근로여건만족도, 고용률, 근로시간, 실업률,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소득/소비	가구당 연평균 경상소득, 소비생활 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문화/여가	여가활동 만족도, 1일 평균 여가시간,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
	주거	주거환경 만족도, PIR, 자가 보유율, 주택당 평균 거주인 수, 공공 임대주택 수, 월세/전세 가격지수
공동생활	가족/친밀성	공공보육시설 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1인 가구 비율,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조혼인율/조이혼율, 독거노인 비율
	시민사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율, 사회단체 참여율
환경	생활환경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녹지환경 만족도,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재생에너지 비율
	안전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강력범죄 발생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교통사고 발생 건수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 수원 · 고양 · 용인 · 성남 >

[사회조사과] 김효자 · 안정은





일러두기

-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함
 - 경인지방통계청은 관내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고양.용인시와 더불어 인구 100만에 근접한 수도권 주요 도시인 성남시에 대해 해당 시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자 본 보도자료를 기획함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인구,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고용 등 해당 분야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제시하여 관련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자료는 기존 국가통계*를 가공.분석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통계자료에 따라 기간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이용시 주의하기 바람
 - * 인구총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자체별 사회조사 등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원)자료를 그대로 인용 또는 가공한 결과임
 - 일부 통계표의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0.0」은 단위 미만, 「-」는 해당 숫자 없음
- 본 자료는 경인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giro>)에 게시함



목 차

□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요약)	235
□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237
I. 인구	
1. 인구 수	237
2. 인구 구조	238
3.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240
4. 전·출입 및 순이동률	241
5.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242
6. 사망자 수,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243
7.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44
II. 가구	
8. 총가구 수	245
9. 가구 구조	246
10. 1인 가구	247
11. 고령자 가구	248
12. 다문화 가구	249
13. 혼인과 이혼	250
III. 문화와 여가	
14.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251
15. 공연 및 스포츠 관람	252
16.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	253
17. 여가활동 만족도	254
18. 공공도서관 수	255
19. 문화 및 관광 예산	256



IV. 복지

2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257
21.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258
22.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259
23.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260
24.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261
25.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	262
26. 노후준비 방법	263
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64
28. 사회복지 예산	265

V. 건강

29. 근린체육시설 수	266
30. 건강생활 실천율	267
3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률	268
32.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269
33. 흡연 및 음주율	270
34.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271

VI. 교육

35.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272
36. 학급당 학생 수	273
37. 교원 1인당 학생 수	274
38. 유치원 및 원아 수	275
39. 대학교 및 대학생 수	276
40. 교육환경 만족도	277
41. 교육 예산	278

VII. 주거와 교통

42.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279
43. 주택만족도	280
44. 녹지면적 및 녹지율	281
45. 1인당 주거 및 녹지지역 면적	282
46. 통근·통학 교통수단	283
47. 대중교통 이용수단별 만족도	284
48.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86



VIII. 안전

49. 지역안전등급현황	287
50. CCTV 설치 현황	288
51. 경찰·소방관서 및 공무원 수	289
52.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290
53.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291

IX. 고용

54. 취업자 및 고용률	292
55. 산업별 취업자	293
56. 직업별 취업자	294
57. 실업자 및 실업률	295

X. 소득과 소비

58. 가구 월평균 소득	296
59. 가구의 소득원	297
60. 소득만족도	298
61. 소비생활 만족도	299
62. 소비자물가 등락률	300
63.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스러운 지출	301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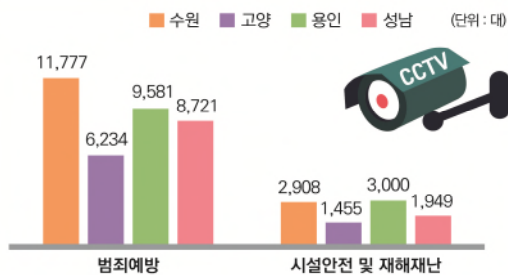
분석보고서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수원·고양·용인·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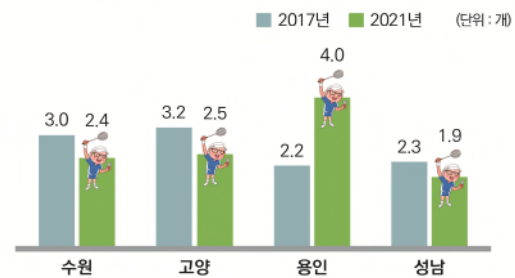
안전

CCTV 설치 현황(2021년)



복지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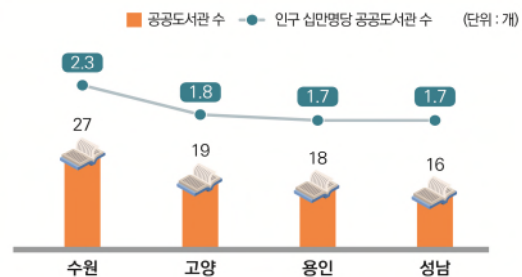
교육

학급당 학생 수(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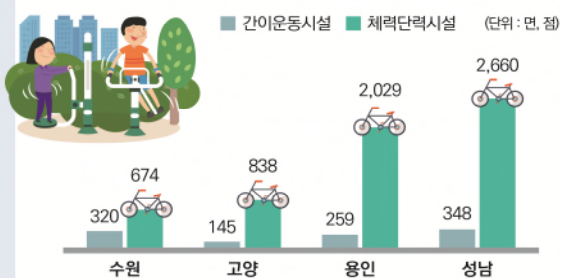
문화와 여가

공공도서관 수(2020년)



건강

근린체육시설 수(2020년)



건강생활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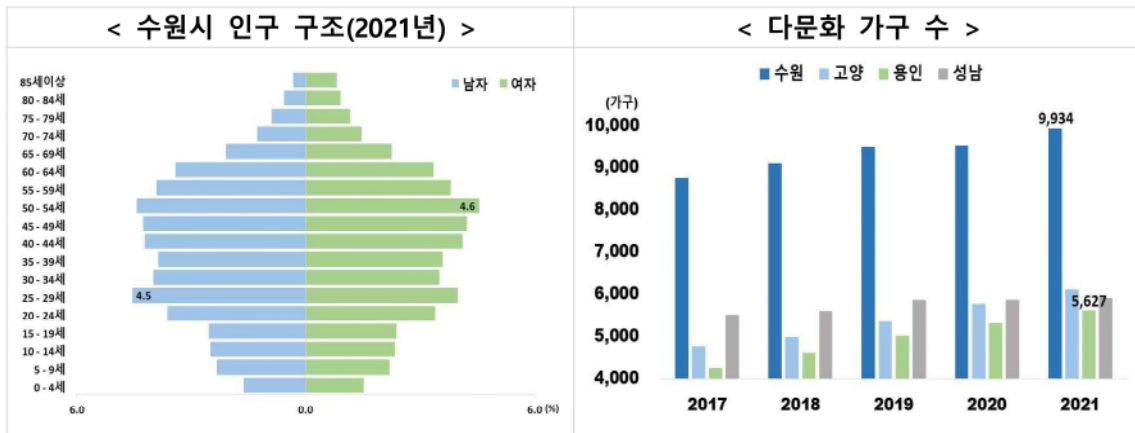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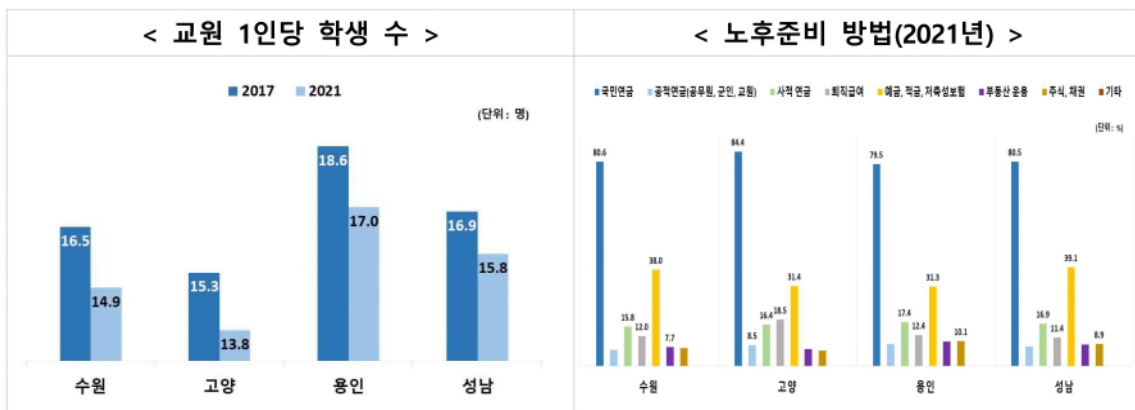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요약)

각 분야별 생활지표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수원시는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고양시는 「안정과 균형의 도시」, 용인시는 「푸른 교육 도시」, 성남시는 「여유로운 생활 도시」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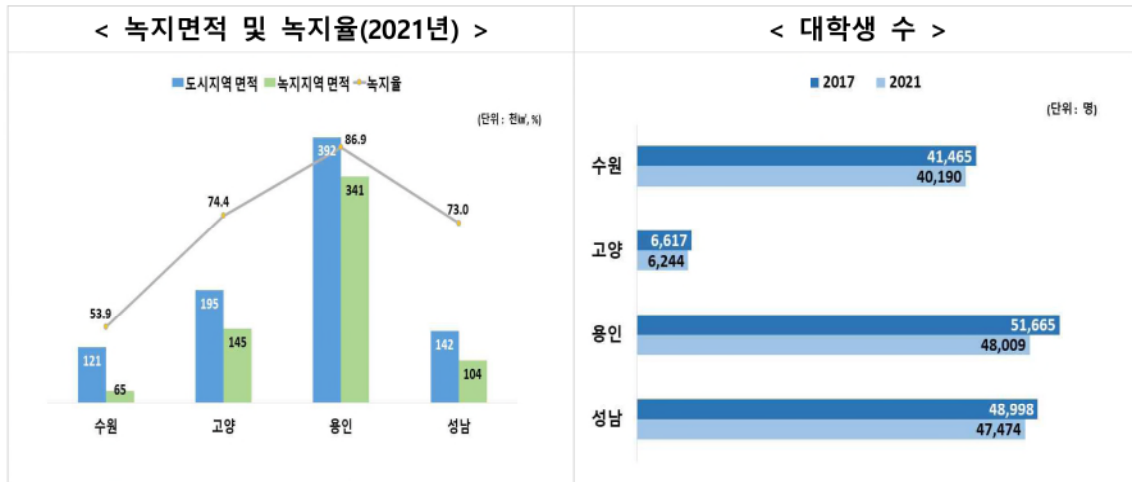
-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수원」) 수원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75.7%)과 청년층인구(15-29세) 비율(20.5%)이 4개 시중 가장 높고, 다문화 가구도 9,934가구로 가장 많아 활력과 다채로움이 공존하는 도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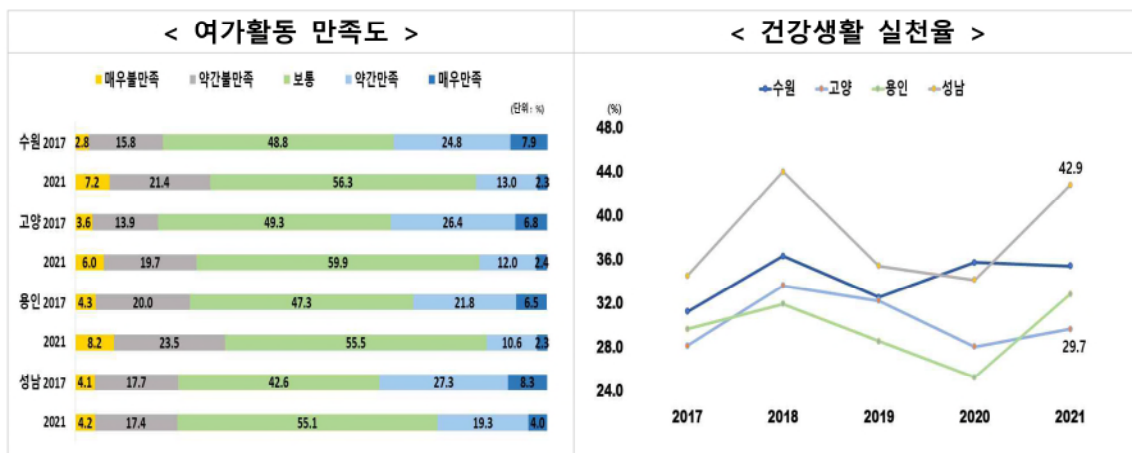
- (안정과 균형의 도시 「고양」) 고양시는 인구 구조를 비롯한 여러 지표상의 수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도시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4개 시중 가장 적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며, 노후준비 방법에 있어서도 4개 시중 「국민연금(84.4%)」, 「퇴직급여(18.5%)」의 비율이 가장 높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준비된 도시로 나타남



○ (푸른 교육 도시 「용인」) 용인시는 도시지역 면적 392천㎢ 대비 녹지 지역 면적 341천㎢으로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녹지지역(86.9%)으로 이루어짐. 4개 시중 지역내 가장 많은 대학교(7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의 대학생(48,009명)이 학업 중인 교육 도시임



○ (여유로운 생활 도시 「성남」) 성남시는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비율이 23.3%로 4개 시중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음. 또한,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도 성남시가 42.9%로 다른 시에 비해 가장 높아 여가 및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도시로 보여짐





수도권 인구 100만 도시 생활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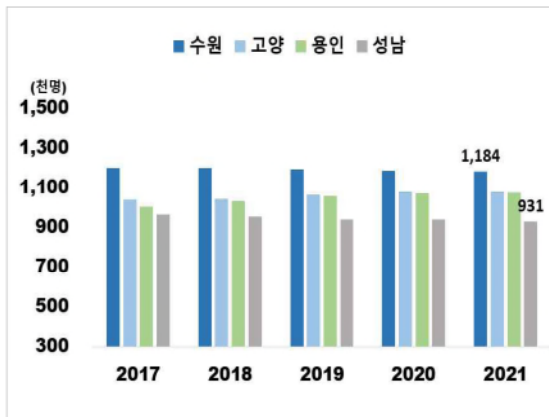
I 인구

1.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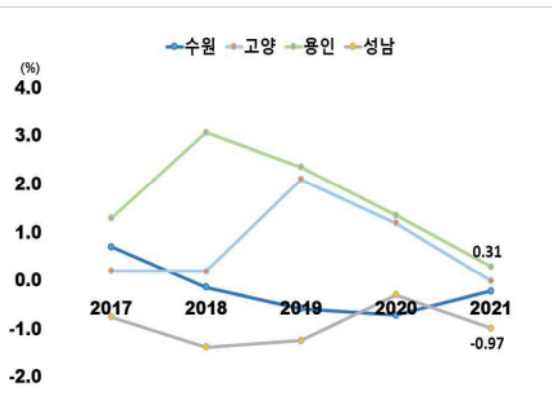
2021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인구 수는 수원시가 1,184천명으로 가장 많음

-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수원시(1,184천명), 고양시(1,079천명), 용인시(1,078천명), 성남시(931천명)순임
-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된 가운데, 용인시(0.31%)와 고양시(0.01%)는 증가한 반면, 성남시(-0.97%)와 수원시(-0.20%)는 감소함

< 주민등록인구 >



< 인구증가율 >



< 주민등록인구, 인구증가율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주민 등록 인구	인구 증가 율 ¹⁾	주민 등록 인구	인구 증가 율	주민 등록 인구	인구 증가 율	주민 등록 인구	인구 증가 율	주민 등록 인구	인구 증가 율	주민 등록 인구	인구 증가 율
2017	51,779	0.16	12,874	1.24	1,203	0.72	1,042	0.22	1,004	1.31	968	-0.73
2018	51,826	0.09	13,077	1.58	1,201	-0.12	1,044	0.21	1,035	3.09	954	-1.36
2019	51,850	0.05	13,240	1.24	1,194	-0.56	1,066	2.12	1,060	2.37	943	-1.22
2020	51,829	-0.04	13,427	1.42	1,186	-0.70	1,079	1.21	1,074	1.37	940	-0.28
2021	51,639	-0.37	13,565	1.03	1,184	-0.20	1,079	0.01	1,078	0.31	931	-0.97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주 : 1) 인구증가율 = [(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 - 전년도 주민등록인구)/전년도 주민등록인구] × 100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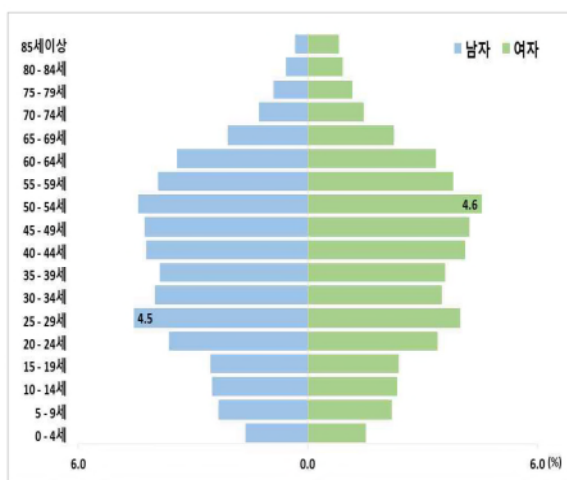
분석보고서

2.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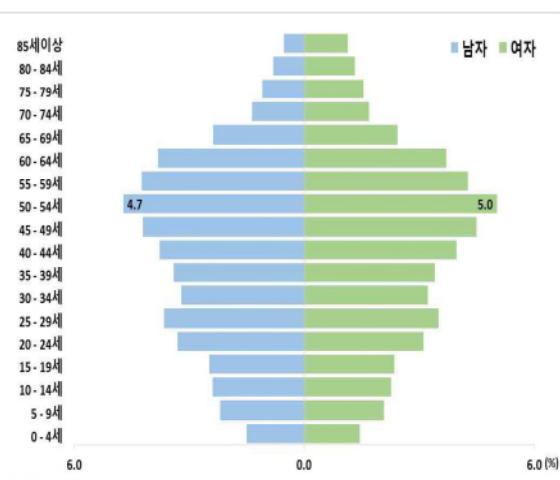
유소년인구는 용인시(14.6%), 생산연령인구는 수원시(75.7%), 고령 인구는 성남시(14.8%)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은 용인시(14.6%), 수원시(12.5%), 고양시(11.9%), 성남시(11.6%)순으로 나타남
-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수원시(75.7%), 고양시(73.8%), 성남시(73.6%), 용인시(71.5%)순임
-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은 성남시(14.8%), 고양시(14.3%), 용인시(13.9%), 수원시(11.7%)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는 전체 인구 중 「50-54세」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용인시는 「45-49세」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음
- 수원시는 「15-29세」 청년층 연령대 비율이 20.5%로 4개 시중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 비율(10.7%)이 높게 나타남

< 수원시 인구 구조(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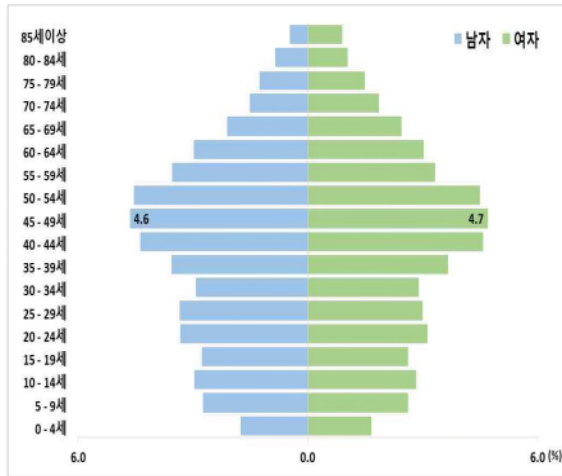


< 고양시 인구 구조(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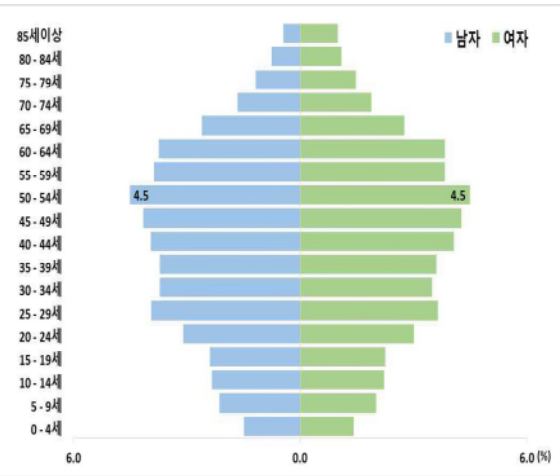




< 용인시 인구 구조(2021년) >



< 성남시 인구 구조(2021년) >



< 성별·연령별 인구 구성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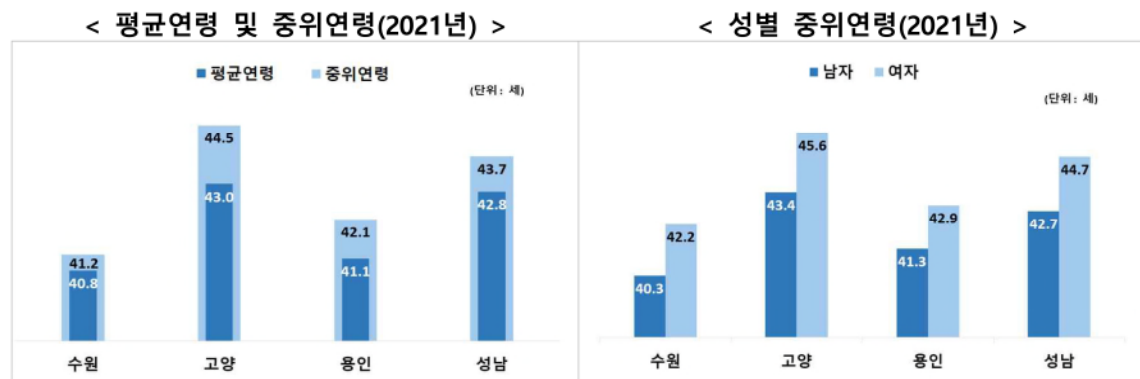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계	100.0	50.3	49.7	100.0	48.9	51.1	100.0	49.6	50.4	100.0	49.5	50.5
0 - 4세	3.2	1.6	1.5	2.9	1.5	1.4	3.4	1.7	1.7	2.9	1.5	1.4
5 - 9세	4.5	2.3	2.2	4.3	2.2	2.1	5.4	2.7	2.6	4.1	2.1	2.0
10 - 14세	4.8	2.5	2.3	4.7	2.4	2.3	5.8	3.0	2.8	4.6	2.3	2.2
15 - 19세	4.9	2.5	2.4	4.8	2.5	2.4	5.4	2.8	2.6	4.6	2.4	2.3
20 - 24세	7.0	3.6	3.4	6.4	3.3	3.1	6.4	3.3	3.1	6.1	3.1	3.0
25 - 29세	8.5	4.5	4.0	7.2	3.7	3.5	6.3	3.3	3.0	7.6	3.9	3.6
30 - 34세	7.5	4.0	3.5	6.4	3.2	3.2	5.8	2.9	2.9	7.2	3.7	3.5
35 - 39세	7.5	3.9	3.6	6.8	3.4	3.4	7.2	3.6	3.7	7.3	3.7	3.6
40 - 44세	8.3	4.2	4.1	7.7	3.8	4.0	9.0	4.4	4.6	8.0	3.9	4.1
45 - 49세	8.5	4.3	4.2	8.7	4.2	4.5	9.4	4.6	4.7	8.4	4.1	4.3
50 - 54세	9.0	4.4	4.6	9.7	4.7	5.0	9.0	4.5	4.5	9.0	4.5	4.5
55 - 59세	7.7	3.9	3.8	8.5	4.2	4.3	6.9	3.5	3.3	7.7	3.9	3.8
60 - 64세	6.8	3.4	3.4	7.5	3.8	3.7	6.0	3.0	3.0	7.6	3.7	3.8
65 - 69세	4.3	2.1	2.3	4.8	2.4	2.4	4.6	2.1	2.5	5.4	2.6	2.8
70 - 74세	2.7	1.3	1.5	3.1	1.4	1.7	3.4	1.5	1.9	3.5	1.6	1.9
75 - 79세	2.1	0.9	1.2	2.6	1.1	1.5	2.8	1.2	1.5	2.7	1.2	1.5
80 - 84세	1.5	0.6	0.9	2.1	0.8	1.3	1.9	0.8	1.0	1.8	0.7	1.1
85세이상	1.1	0.3	0.8	1.7	0.5	1.1	1.4	0.5	0.9	1.4	0.4	1.0
0 - 14세	12.5	6.5	6.1	11.9	6.1	5.8	14.6	7.4	7.1	11.6	5.9	5.7
15 - 29세	20.5	10.7	9.8	18.4	9.4	9.0	18.2	9.4	8.7	18.3	9.4	8.9
15 - 64세	75.7	38.8	37.0	73.8	36.7	37.1	71.5	36.0	35.5	73.6	37.0	36.6
65세이상	11.7	5.1	6.6	14.3	6.1	8.1	13.9	6.2	7.8	14.8	6.6	8.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도

3.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4개 시 모두 평균연령보다 중위연령이 높은 상태로 인구노령화가 진행중임

- 평균연령과 중위연령은 고양시가 각각 43.0세, 44.5세로 가장 높고, 평균연령과 중위연령 차이도 1.5세로 가장 큼
- 2017년 대비 중위연령 증가폭은 수원시가 2.5세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평균연령 증가폭은 고양시가 2.4세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성별 중위연령은 고양시가 남자 43.4세, 여자 45.6세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가 남자 40.3세, 여자 42.2세로 가장 낮음



< 평균연령 및 중위연령 >

(단위 : 세)

지역	시점	평균연령 ¹⁾			중위연령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021	43.5	42.3	44.7	44.5	43.1	46.0
경기	2021	41.9	40.9	42.8	42.6	41.7	43.8
수원	2017	38.5	37.6	39.3	38.7	37.7	39.7
	2019	39.6	38.7	40.5	40.0	39.0	41.0
	2021	40.8	39.9	41.7	41.2	40.3	42.2
고양	2017	40.6	39.6	41.5	42.2	41.3	43.0
	2019	41.8	40.8	42.8	43.5	42.5	44.4
	2021	43.0	41.9	44.0	44.5	43.4	45.6
용인	2017	38.8	37.9	39.6	39.7	38.9	40.4
	2019	39.9	39.0	40.7	40.7	39.9	41.5
	2021	41.1	40.2	42.0	42.1	41.3	42.9
성남	2017	40.7	39.9	41.6	41.6	40.7	42.4
	2019	41.9	41.0	42.8	42.9	41.9	43.8
	2021	42.8	42.0	43.7	43.7	42.7	44.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주 : 1) 총인구의 산술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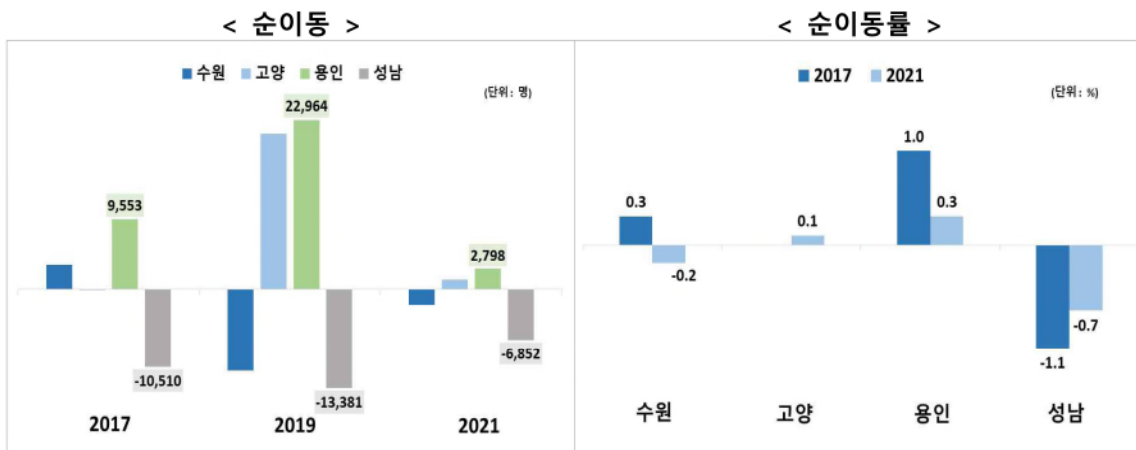
2)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평균연령보다 인구특성을 더 잘 반영함



4. 전·출입 및 순이동률

2021년 기준 인구 순유입은 용인시가 2,798명, 인구 순유출은 성남시가 6,852명으로 가장 많음

- 용인시는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9,553명^{17년}→22,964명^{19년}→2,798명^{21년})으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성남시는 인구 순유출(10,510명^{17년}→13,381명^{19년}→6,852명^{21년})로 인구가 감소함
- 순이동률은 2017년 대비 고양시(0.1%p), 성남시(0.4%p)는 각각 증가, 수원시(-0.5%p), 용인시(-0.7%p)는 각각 감소함



< 전·출입 및 순이동률 >

지역	시점	순이동 ¹⁾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률 ²⁾	(명, %)	총전입률	(명, %)	총전출률	(명, %)
경기	2021	150,517	1.1	2,036,215	15.2	1,885,698	14.1
	2017	3,312	0.3	177,059	14.9	173,747	14.6
	2019	-11,068	-0.9	173,336	14.6	184,404	15.5
	2021	-2,097	-0.2	183,258	15.6	185,355	15.7
수원	2017	-120	0.0	139,002	13.5	139,122	13.5
	2019	21,089	2.0	165,154	15.8	144,065	13.8
	2021	1,266	0.1	149,815	14.0	148,549	13.9
	2017	9,553	1.0	142,704	14.4	133,151	13.4
고양	2019	22,964	2.2	163,901	15.8	140,937	13.5
	2021	2,798	0.3	156,128	14.6	153,330	14.3
	2017	-10,510	-1.1	157,557	16.4	168,067	17.5
	2019	-13,381	-1.4	126,568	13.5	139,949	14.9
용인	2021	-6,852	-0.7	143,716	15.5	150,568	16.3
	2017	-	-	-	-	-	-
	2019	-	-	-	-	-	-
	2021	-	-	-	-	-	-
성남	2017	-	-	-	-	-	-
	2019	-	-	-	-	-	-
	2021	-	-	-	-	-	-
	2021	-	-	-	-	-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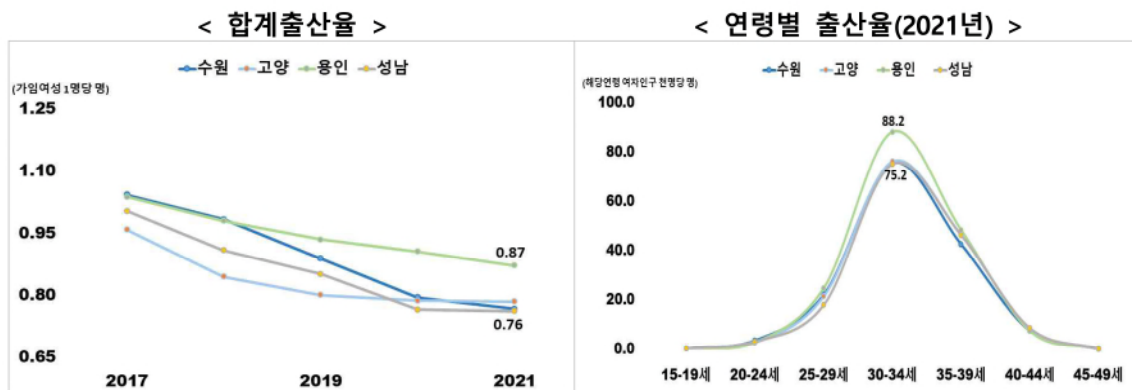
주 : 1) 순이동(명) = 총전입 - 총전출

2) 순이동률(%) = 순이동/연앙인구 × 100

5.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성남시가 0.76명으로 가장 낮음

- 합계출산율은 용인시(0.87명), 고양시(0.79명), 수원시(0.77명), 성남시(0.76명)순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4명에서 2021년 0.77명으로 0.27명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짐
- 연령별 출산율은 4개 시 모두 「30-34세」, 「35-39세」, 「25-29세」연령순으로 높았으며, 「30-34세」연령의 출산율은 용인시가 88.2명으로 가장 높음



<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명)

지역	시점	합계출산율 ¹⁾	연령별 출산율 ²⁾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2021	0.81	0.4	5.0	27.5	76.1	43.5	7.6	0.2
경기	2021	0.85	0.4	4.9	29.0	81.2	45.6	7.9	0.2
수원	2017	1.04	0.7	6.9	43.8	104.5	47.4	4.9	0.1
	2019	0.89	0.7	5.2	31.9	87.4	44.1	6.6	0.1
	2021	0.77	0.3	3.6	22.1	75.5	42.7	7.6	0.1
고양	2017	0.96	0.5	6.0	36.1	93.9	47.0	6.2	0.1
	2019	0.80	0.3	4.2	25.5	77.4	43.3	7.4	0.2
	2021	0.79	0.4	2.7	21.4	76.3	46.5	8.3	0.1
용인	2017	1.04	0.4	5.7	42.6	104.6	46.3	5.5	0.2
	2019	0.94	0.4	4.0	31.5	94.1	46.8	7.4	0.2
	2021	0.87	0.2	2.8	24.7	88.2	48.5	7.5	0.2
성남	2017	1.01	0.9	5.6	35.5	100.0	53.2	6.3	0.1
	2019	0.85	0.4	4.3	24.5	83.1	48.4	8.2	0.1
	2021	0.76	0.2	3.1	17.9	75.2	46.4	8.6	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주 : 1)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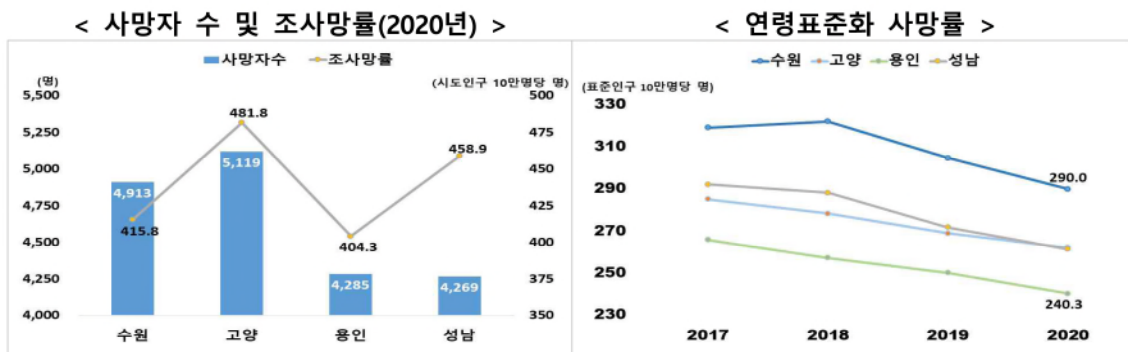
2) 특정 연령의 가임기 여성인구 천명당 해당 연령의 모가 출산한 아이 수



6. 사망자 수,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2020년 기준 사망자 수는 고양시가 5,119명으로 가장 많음

- 사망자 수는 고양시(5,119명), 수원시(4,913명), 용인시(4,285명), 성남시(4,269명)순임
- 조사망률은 고양시가 48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용인시가 404.3명으로 가장 낮음
-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수원시(290.0명), 고양시(262.3명), 성남시(261.6명) 용인시(240.3명)순으로 나타남



< 사망자 수, 조사망률 및 연령표준화 사망률 >

(단위 : 명, 시도인구 10만명당 명, 표준인구¹⁾ 10만명당 명)

지역	시점	사망자수	1일 평균 사망자수	조사망률 ²⁾	연령표준화 사망률 ³⁾
전국	2020	304,948	835	593.9	300.0
경기	2020	62,794	172	475.0	285.4
수원	2017	4,644	13	390.4	319.2
	2018	4,993	14	418.5	322.1
	2019	4,939	14	415.4	304.8
	2020	4,913	13	415.8	290.0
고양	2017	4,572	13	443.6	285.2
	2018	4,755	13	460.4	278.5
	2019	4,857	13	464.8	269.1
	2020	5,119	14	481.8	262.3
용인	2017	3,800	10	383.4	266.0
	2018	3,960	11	391.0	257.4
	2019	4,144	11	398.4	250.3
	2020	4,285	12	404.3	240.3
성남	2017	4,174	11	435.0	292.2
	2018	4,324	12	455.4	288.3
	2019	4,253	12	453.8	272.0
	2020	4,269	12	458.9	261.6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주 : 1) 표준인구는 2005년 전국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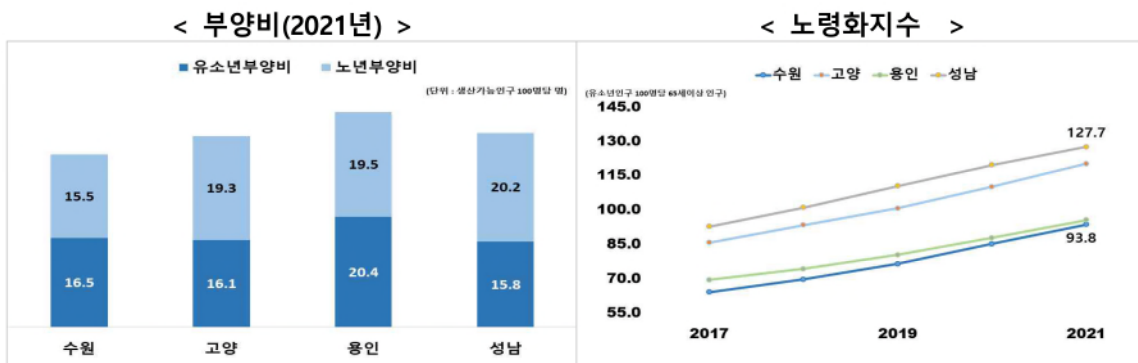
2)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수를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표시

3)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7.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21년 기준 유소년부양비는 용인시가 2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년부양비는 성남시가 20.2명으로 가장 높음

- 4개 시 모두 유소년부양비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노령화지수는 성남시가 127.7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수원시는 93.8명으로 가장 낮음
-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4개 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성남시는 5.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단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

지역	시점	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령화지수 ⁴⁾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수
		총부양비 ¹⁾	유소년부양비 ²⁾	노년부양비 ³⁾		
전국	2021	40.8	16.7	24.1	144.5	4.1
경기	2021	36.9	17.9	19.0	106.1	5.3
수원	2017	31.1	18.9	12.2	64.3	8.2
	2019	31.3	17.7	13.6	76.7	7.4
	2021	32.1	16.5	15.5	93.8	6.4
고양	2017	33.3	17.9	15.4	85.9	6.5
	2019	33.8	16.8	17.0	100.9	5.9
	2021	35.4	16.1	19.3	120.2	5.2
용인	2017	39.5	23.3	16.2	69.7	6.2
	2019	39.5	21.9	17.6	80.6	5.7
	2021	39.9	20.4	19.5	95.7	5.1
성남	2017	33.0	17.1	15.9	92.9	6.3
	2019	34.1	16.2	17.9	110.5	5.6
	2021	36.0	15.8	20.2	127.7	5.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 주: 1)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연령층 인구(0-14세 인구와 65세이상 인구의 합)의 비율
 2)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율
 3)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4) 유소년인구(0-1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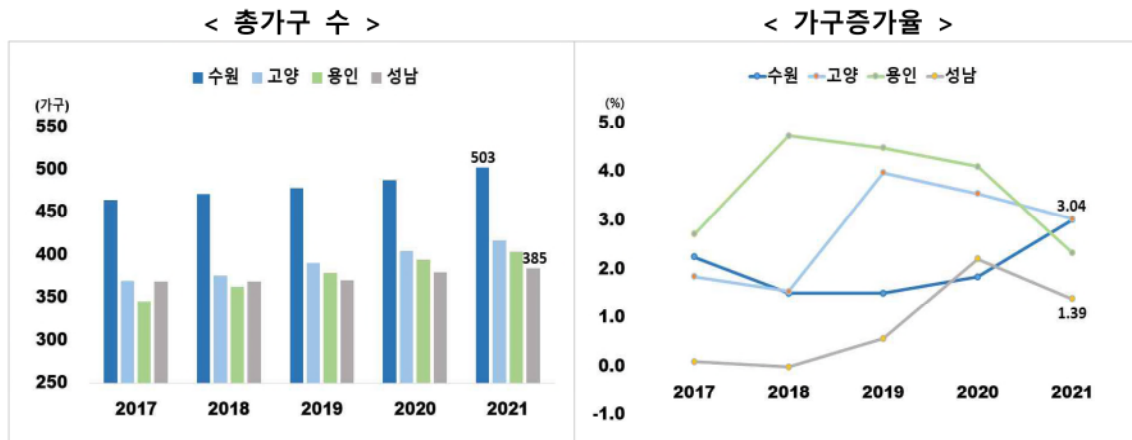
II 가구

8. 총가구 수

2021년 기준 총가구 수는 수원시가 503천 가구로 가장 많음

□ 총가구 수 기준으로 수원시(503천 가구), 고양시(417천 가구), 용인시(404천 가구), 성남시(385천 가구)순임

○ 가구증가율은 전년대비 고양시(3.04%), 용인시(2.34%), 성남시(1.39%)순으로 감소 추세이나, 수원시(3.02%)는 증가함



< 총가구 수 및 가구증가율 >

(단위 : 천 가구,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총가구 수 ¹⁾	가구 증가율 ²⁾	총가구 수	가구 증가율	총가구 수	가구 증가율	총가구 수	가구 증가율	총가구 수	가구 증가율	총가구 수	가구 증가율
2017	20,168	1.66	4,774	2.72	465	2.25	370	1.85	346	2.72	369	0.10
2018	20,500	1.64	4,934	3.36	472	1.51	376	1.55	363	4.74	369	-0.01
2019	20,891	1.91	5,098	3.32	479	1.51	391	3.98	379	4.49	371	0.57
2020	21,485	2.84	5,295	3.86	488	1.84	405	3.55	395	4.11	380	2.21
2021	22,023	2.50	5,493	3.74	503	3.02	417	3.04	404	2.34	385	1.3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주 : 1) 집단 · 외국인가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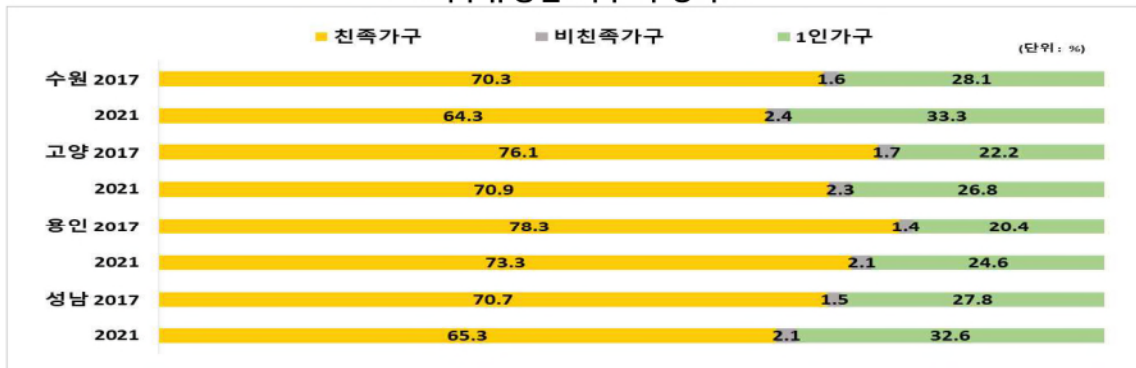
2) 가구증가율 = [(해당 연도 가구 수 - 전년도 가구 수)/전년도 가구 수] × 100

9. 가구 구조

친족가구는 용인시(73.3%), 비친족가구와 1인 가구는 수원시가 각각 2.4%, 3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가구 수는 수원시(481천 가구), 고양시(411천 가구), 용인시(396천 가구), 성남시(375천 가구)순으로 많음
- 친족가구 비율은 용인시(73.3%), 고양시(70.9%), 성남시(65.3%), 수원시(64.3%)순임
- 비친족가구 비율은 수원시(2.4%), 고양시(2.3%), 용인시(2.1%), 성남시(2.1%)순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비율은 수원시(33.3%), 성남시(32.6%), 고양시(26.8%), 용인시(24.6%)순임

<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비 >



< 가구유형별 가구 구조 >

지역	시점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비			
		일반 가구	친족 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일반 가구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전국	2021	21,448	13,810	4,054	9,050	706	473	7,166	100.0	64.4	2.2	33.4
경기	2021	5,291	3,622	930	2,494	197	126	1,543	100.0	68.5	2.4	29.2
수원	2017	445	313	61	231	21	7	125	100.0	70.3	1.6	28.1
	2021	481	309	73	221	15	12	160	100.0	64.3	2.4	33.3
고양	2017	364	277	58	199	21	6	81	100.0	76.1	1.7	22.2
	2021	411	292	73	202	17	10	110	100.0	70.9	2.3	26.8
용인	2017	340	266	56	189	21	5	69	100.0	78.3	1.4	20.4
	2021	396	290	72	201	17	8	97	100.0	73.3	2.1	24.6
성남	2017	360	254	56	181	18	5	100	100.0	70.7	1.5	27.8
	2021	375	245	63	169	13	8	122	100.0	65.3	2.1	32.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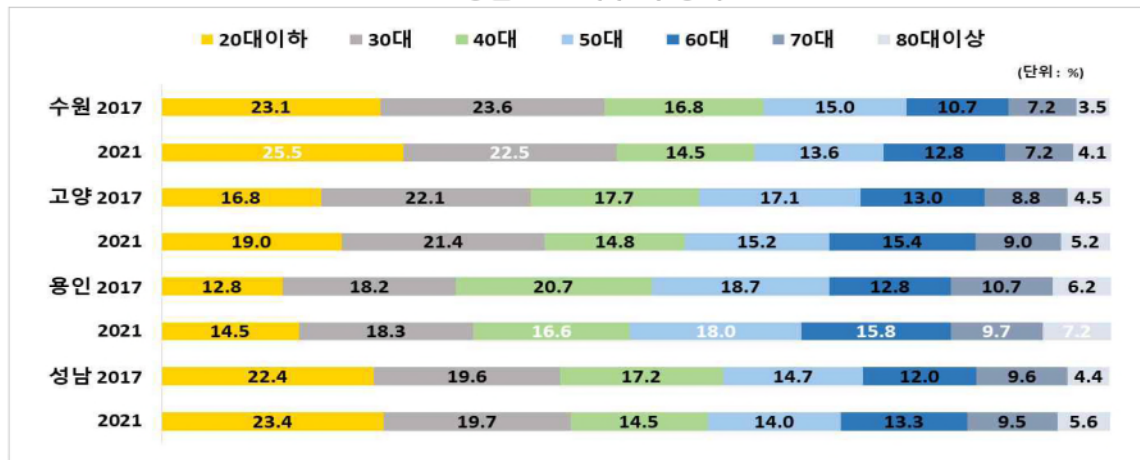


10. 1인 가구

30대 이하 1인 가구 비율은 수원시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용인시는 4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4개 시중 가장 높은 67.3%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도 32.7%로 가장 높음
- 수원시와 성남시는 20대 이하(25.5%, 23.4%), 고양시는 30대(21.4%), 용인시는 50대(18.0%) 1인 가구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남

< 연령별 1인 가구 구성비 >



< 연령별 1인 가구 >

(단위 :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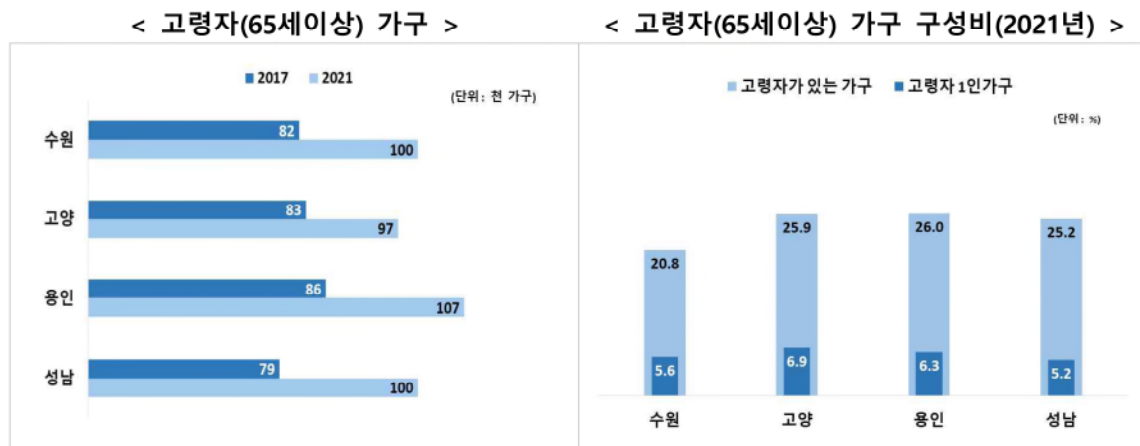
지역	시점	1인가구								구성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국	2021	7,166	1,418	1,226	950	1,101	1,176	771	524	100.0	19.8	17.1	13.3	15.4	16.4	10.8	7.3
경기	2021	1,543	272	305	242	256	244	140	84	100.0	17.6	19.7	15.7	16.6	15.8	9.1	5.5
수원	2017	125	29	29	21	19	13	9	4	100.0	23.1	23.6	16.8	15.0	10.7	7.2	3.5
	2021	160	41	36	23	22	20	11	7	100.0	25.5	22.5	14.5	13.6	12.8	7.2	4.1
고양	2017	100	17	22	18	17	13	9	5	100.0	16.8	22.1	17.7	17.1	13.0	8.8	4.5
	2021	122	23	26	18	19	19	11	6	100.0	19.0	21.4	14.8	15.2	15.4	9.0	5.2
용인	2017	81	10	15	17	15	10	9	5	100.0	12.8	18.2	20.7	18.7	12.8	10.7	6.2
	2021	110	16	20	18	20	17	11	8	100.0	14.5	18.3	16.6	18.0	15.8	9.7	7.2
성남	2017	69	16	14	12	10	8	7	3	100.0	22.4	19.6	17.2	14.7	12.0	9.6	4.4
	2021	97	23	19	14	14	13	9	5	100.0	23.4	19.7	14.5	14.0	13.3	9.5	5.6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11. 고령자 가구

고령자(65세이상) 가구 비율은 용인시가 26.0%로 가장 높음

- 고령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용인시(26.0%), 고양시(25.9%), 성남시(25.2%), 수원시(20.8%)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만 있는 가구 비율은 고양시(12.4%), 성남시(12.0%), 용인시(11.9%), 수원시(9.8%)순임
-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고양시(6.9%), 용인시(6.3%), 수원시(5.6%), 성남시(5.2%)순으로 나타남



< 고령자(65세이상) 가구 >

(단위 : 천 가구, %)

지역	시점	가구				구성비			
		일반 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고령자만 있는 가구	고령자 1인가구	일반 가구	고령자가 있는 가구	고령자만 있는 가구	고령자 1인가구
전국	2021	21,448	6,161	3,239	1,824	100.0	28.7	15.1	8.5
경기	2021	5,291	1,307	616	330	100.0	24.7	11.6	6.2
수원	2017	445	82	33	19	100.0	18.5	7.4	4.3
	2021	481	100	47	27	100.0	20.8	9.8	5.6
고양	2017	360	83	34	19	100.0	22.9	9.4	5.2
	2021	375	97	46	26	100.0	25.9	12.4	6.9
용인	2017	364	86	34	18	100.0	23.5	9.4	5.0
	2021	411	107	49	26	100.0	26.0	11.9	6.3
성남	2017	340	79	32	13	100.0	23.4	9.3	3.9
	2021	396	100	47	21	100.0	25.2	12.0	5.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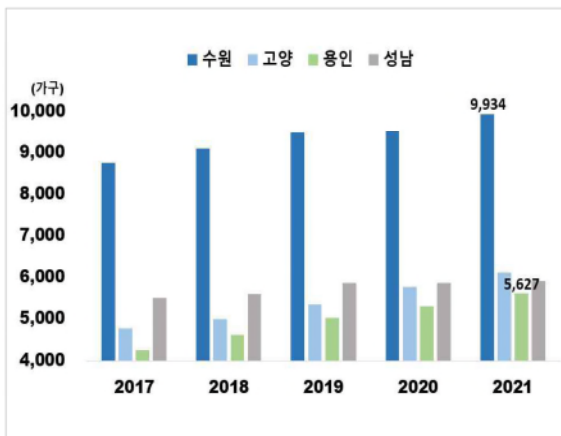


12. 다문화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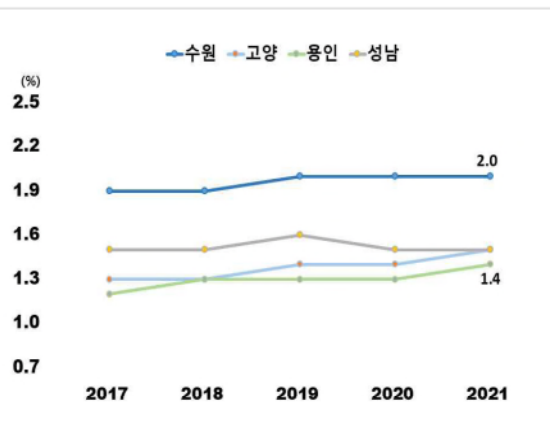
다문화 가구는 4개 시 모두 증가 추세이며, 다문화 가구 비율은 수원시가 2.0%로 가장 높음

- 다문화 가구는 4개 시 모두 증가 추세로 수원시(9,934가구), 고양시(6,116가구), 성남시(5,912가구), 용인시(5,627가구)순으로 많음
- 다문화 가구 비율도 수원시(2.0%), 고양시·성남시(1.5%), 용인시(1.4%)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 가구 수 >



< 다문화 가구 비율 >



< 다문화 가구 >

(단위 :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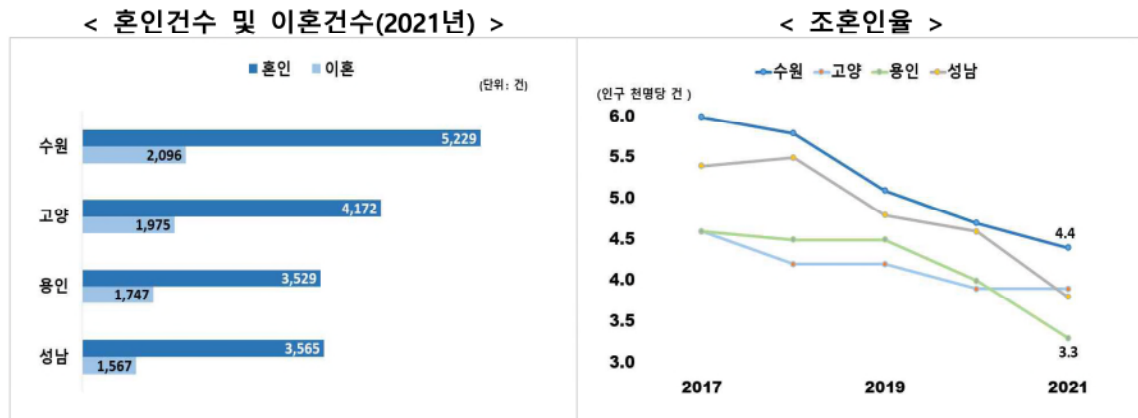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2017	318,917	1.6	92,834	1.9	8,761	1.9	4,772	1.3	4,252	1.2	5,523	1.5
2018	334,856	1.6	99,008	2.0	9,098	1.9	4,981	1.3	4,615	1.3	5,609	1.5
2019	353,803	1.7	105,779	2.1	9,482	2.0	5,360	1.4	5,018	1.3	5,866	1.6
2020	367,775	1.7	110,592	2.1	9,520	2.0	5,776	1.4	5,312	1.3	5,877	1.5
2021	385,219	1.7	117,478	2.1	9,934	2.0	6,116	1.5	5,627	1.4	5,912	1.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년도

13. 혼인과 이혼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는 수원시가 4.4건으로 가장 높음

- 혼인건수는 수원시(5,229건), 고양시(4,172건), 성남시(3,565건), 용인시(3,529건)순으로 나타남
-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수원시(4.4건), 고양시(3.9건), 성남시(3.8건), 용인시(3.3건)순임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수원시가 325건으로 가장 많음
- 이혼건수는 수원시가 2,096건으로 가장 많음



< 혼인과 이혼 >

지역	시점	혼인			이혼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	조혼인율 ¹⁾	이혼건수	조이혼율 ²⁾
전국	2021	192,507	13,102	3.8	101,673	2.0
경기	2021	54,658	4,050	4.1	27,256	2.0
수원	2017	7,112	532	6.0	2,324	2.0
	2019	6,026	552	5.1	2,329	2.0
	2021	5,229	325	4.4	2,096	1.8
고양	2017	4,730	350	4.6	1,964	1.9
	2019	4,440	414	4.2	1,889	1.8
	2021	4,172	277	3.9	1,975	1.8
용인	2017	4,528	377	4.6	1,637	1.7
	2019	4,670	383	4.5	1,747	1.7
	2021	3,529	268	3.3	1,747	1.6
성남	2017	5,162	423	5.4	1,843	1.9
	2019	4,453	429	4.8	1,796	1.9
	2021	3,565	266	3.8	1,567	1.7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주 : 1) 특정 1년간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비로 나타낸 것

2) 특정 1년간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비로 나타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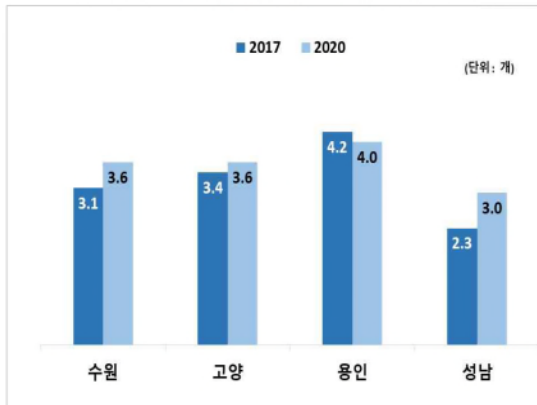
Ⅲ 문화와 여가

14.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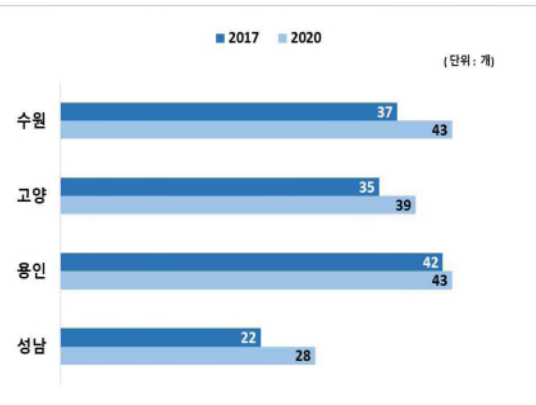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용인시가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가 3.0개로 가장 적음

-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용인시(4.0개), 수원시·고양시(3.6개), 성남시(3.0개)순임
- 문화기반시설 수는 수원시·용인시(43개), 고양시(39개), 성남시(28개)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성남시가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가 2.3개에서 3.0개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 문화기반시설 수 >



<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¹⁾ 수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인구 십만명 당
2017	2,749	5.3	526	4.1	37	3.1	35	3.4	42	4.2	22	2.3
2018	2,825	5.5	537	4.1	39	3.2	34	3.3	42	4.1	23	2.4
2019	3,017	5.8	567	4.3	43	3.6	35	3.3	44	4.2	25	2.7
2020	3,087	6.0	569	4.2	43	3.6	39	3.6	43	4.0	28	3.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량»,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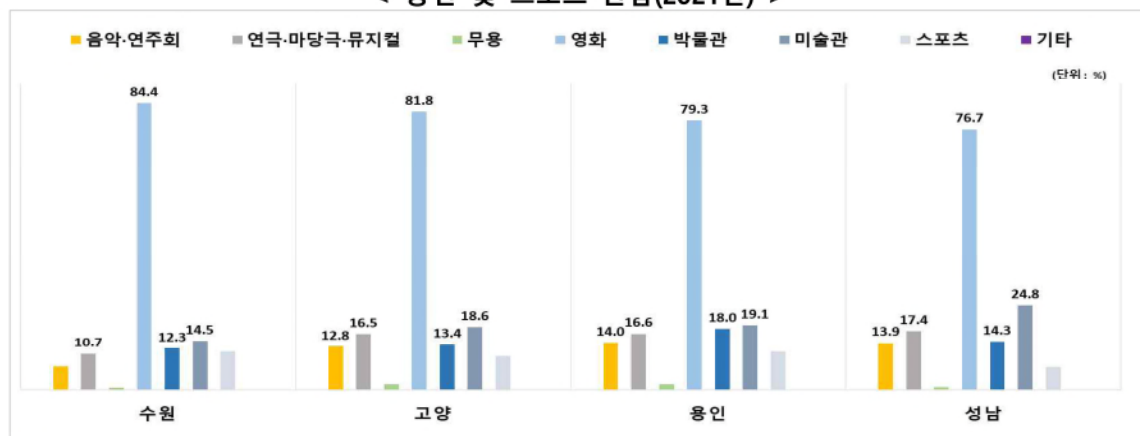
주 : 1)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15. 공연 및 스포츠 관람

최근 1년 기준 공연 및 스포츠 관람을 한 번이라도 관람한 비율은 고양시가 32.3%로 가장 높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4개 시 모두 전반적으로 관람 비율이 2017년 대비 30%p이상 감소한 가운데, 수원시는 「영화」(84.4%), 「스포츠」(11.3%) 관람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용인시는 「음악·연주회」(14.0%), 「무용」(1.7%), 「박물관」(18.0%), 「스포츠」(11.3%), 성남시는 「연극·마당극·뮤지컬」(17.4%), 「미술관」(24.8%) 관람 비율이 각각 높음

< 공연 및 스포츠 관람(2021년) >



< 공연 및 스포츠 관람 >

(단위: %)

지역	시점	공연 및 스포츠 관람(복수응답)								
		관람함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기타
경기	2021	28.0	9.9	14.5	1.0	82.6	12.9	16.4	9.2	0.0
	2017	64.0	14.7	17.4	1.2	91.2	16.1	14.3	22.5	0.1
수원	2021	30.6	6.9	10.7	0.6	84.4	12.3	14.5	11.3	0.0
	2017	62.2	17.2	17.0	1.1	91.3	14.4	16.4	13.5	0.3
고양	2021	32.3	12.8	16.5	1.6	81.8	13.4	18.6	10.0	0.0
	2017	63.7	19.4	21.7	2.0	87.4	22.2	17.8	15.6	0.5
용인	2021	31.9	14.0	16.6	1.7	79.3	18.0	19.1	11.3	0.2
	2017	61.5	22.3	23.2	1.6	91.6	15.6	18.3	14.7	0.5
성남	2021	30.0	13.9	17.4	0.8	76.7	14.3	24.8	6.7	0.0
	2017	61.5	22.3	23.2	1.6	91.6	15.6	18.3	14.7	0.5

자료: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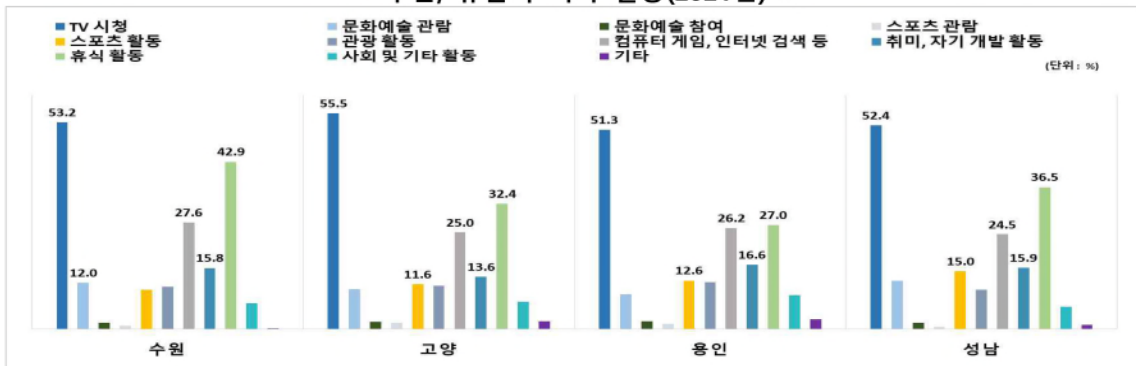


16.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

주말, 휴일의 여가 시간을 4개 시 모두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활동」,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음

- 「TV시청」 다음으로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휴식활동」으로 수원시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고양시는 「TV시청」(55.5%)외에 「스포츠 관람」(1.5%), 성남시는 「문화예술관람」(12.5%), 「스포츠 활동」(15.0%) 등이 높게 나타남
- 용인시는 「문화예술참여」(1.9%), 「관광활동」(12.2%), 「취미, 자기개발활동」(16.6%), 「사회 및 기타활동」(8.8%) 등에서 다른 시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음

<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2021년) >



< 주말, 휴일의 여가 활용 >

(단위 : %)

지역	시점	여가 활용(복수응답)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경기	2021	56.0	11.1	1.8	0.9	10.2	11.7	25.1	13.6	36.8	6.7	1.1
수원	2017	47.9	22.8	1.0	3.5	10.1	9.3	16.8	8.6	45.2	8.8	1.4
	2021	53.2	12.0	1.6	0.8	10.3	11.0	27.6	15.8	42.9	6.8	0.2
고양	2017	53.0	14.1	2.1	3.1	10.4	9.7	15.2	12.1	34.4	10.5	2.9
	2021	55.5	10.4	1.8	1.5	11.6	11.3	25.0	13.6	32.4	7.2	2.0
용인	2017	53.3	11.9	2.2	2.4	12.6	13.3	15.0	10.3	30.4	13.9	7.2
	2021	51.3	9.1	1.9	1.3	12.6	12.2	26.2	16.6	27.0	8.8	2.4
성남	2017	49.2	21.4	1.5	12.1	8.4	14.5	12.2	38.7	10.7	3.0	4.6
	2021	52.4	12.5	1.6	0.6	15.0	10.3	24.5	15.9	36.5	5.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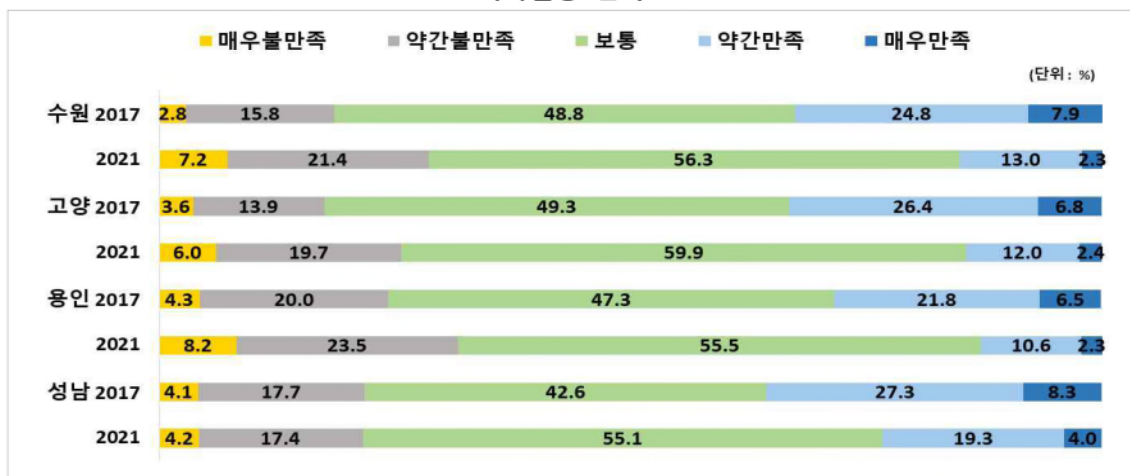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17.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가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23.3%), 수원시(15.3%), 고양시(14.4%), 용인시(12.9%)순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매우불만족」 8.2%, 「약간불만족」 23.5%로 불만족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아 다른 시에 비해 여가활동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 만족도 >



<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지역	시점	여가활동 만족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경기	2021	7.1	23.1	30.2	58.0	11.9	10.0	1.9
수원	2017	2.8	15.8	18.6	48.8	32.7	24.8	7.9
	2021	7.2	21.4	28.6	56.3	15.3	13.0	2.3
고양	2017	3.6	13.9	17.5	49.3	33.2	26.4	6.8
	2021	6.0	19.7	25.7	59.9	14.4	12.0	2.4
용인	2017	4.3	20.0	24.3	47.3	28.3	21.8	6.5
	2021	8.2	23.5	31.7	55.5	12.9	10.6	2.3
성남	2017	4.1	17.7	21.8	42.6	35.6	27.3	8.3
	2021	4.2	17.4	21.6	55.1	23.3	19.3	4.0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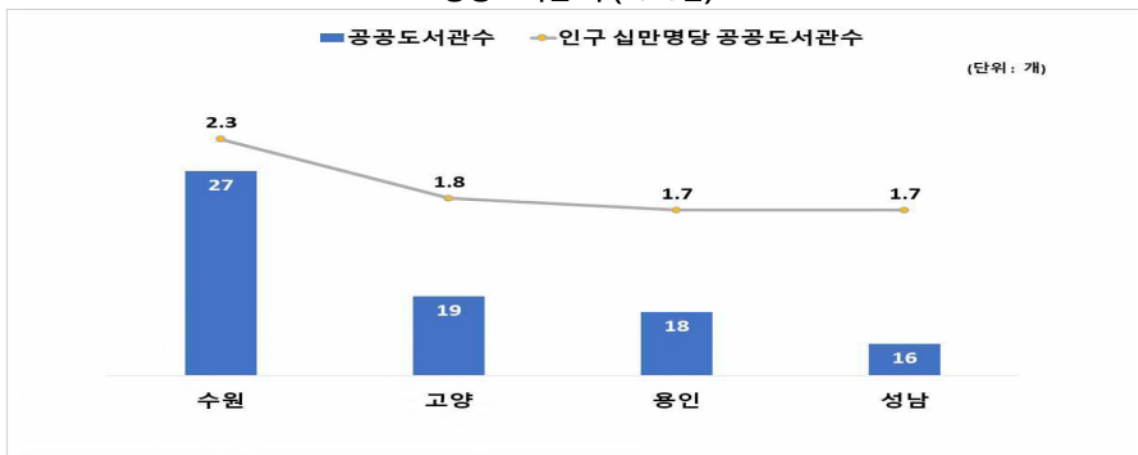


18. 공공도서관 수

지역내 공공도서관은 수원시가 27개로 가장 많음

- 지역내 소재한 공공도서관 수는 수원시(27개), 고양시(19개), 용인시(18개), 성남시(16개)순으로 나타남
- 인구 십만명당 공공도서관 수는 수원시(2.3개), 고양시(1.8개), 용인시·성남시(1.7개)순으로 많음

< 공공도서관 수(2020년) >



< 공공도서관 수 >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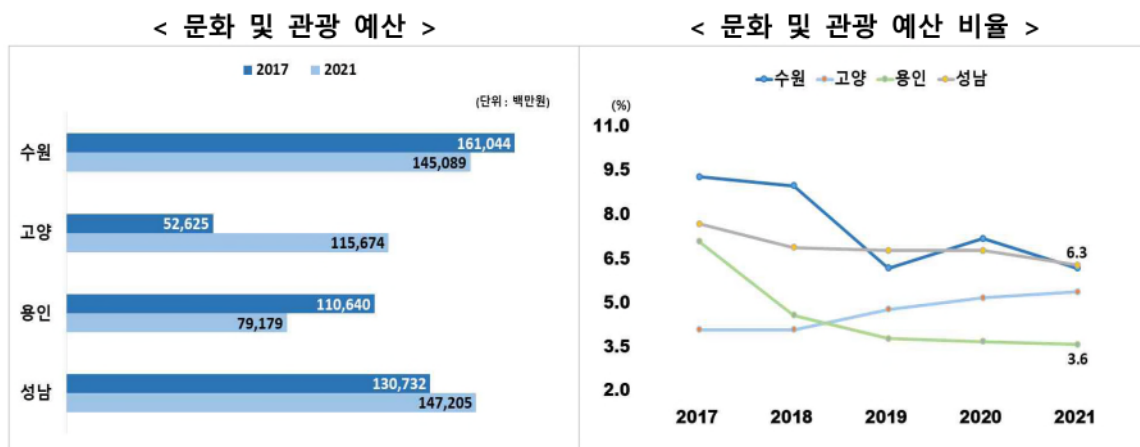
지역	공공도서관				인구 십만명당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전국	1,172	914	235	23	2.3
경기	286	271	11	4	2.1
수원	27	24	2	1	2.3
고양	19	18	-	1	1.8
용인	18	17	-	1	1.7
성남	16	15	1	-	1.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2021. 1. 1.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9. 문화 및 관광 예산

일반회계 중 문화 및 관광 예산은 성남시가 147,205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일반회계 중 문화 및 관광 예산 규모는 성남시(147,205백만원), 수원시(145,089백만원), 고양시(115,674백만원), 용인시(79,179백만원)순임
- 2017년 대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는 전체 예산 중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고양시는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이 1.3%p 증가함
- 각 지자체 전체 예산 중 문화 및 관광 예산 비율은 성남시(6.3%), 수원시(6.2%), 고양시(5.4%), 용인시(3.6%)순으로 나타남



< 문화 및 관광 예산 >

(단위 : 백만원,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비율 ¹⁾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7	389,273	2.0	161,044	9.3	52,625	4.1	110,640	7.1	130,732	7.7
2018	418,121	2.0	182,440	9.0	63,965	4.1	84,816	4.6	142,318	6.9
2019	439,013	2.0	141,212	6.2	87,327	4.8	73,159	3.8	142,864	6.8
2020	587,599	3.0	172,108	7.2	109,562	5.2	78,640	3.7	147,806	6.8
2021	563,530	2.0	145,089	6.2	115,674	5.4	79,179	3.6	147,205	6.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자체별 예산기준 재정공시(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각 연도

주 : 1) 각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문화 및 관광 예산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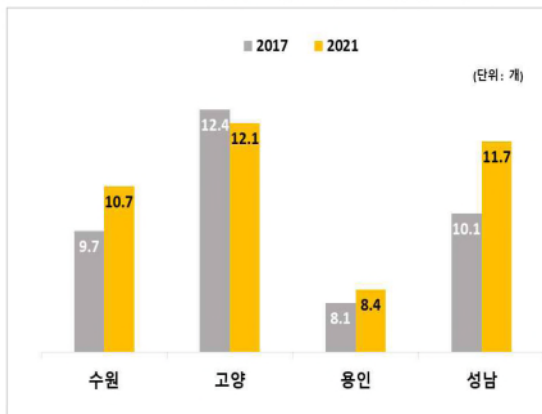
IV 복지

20.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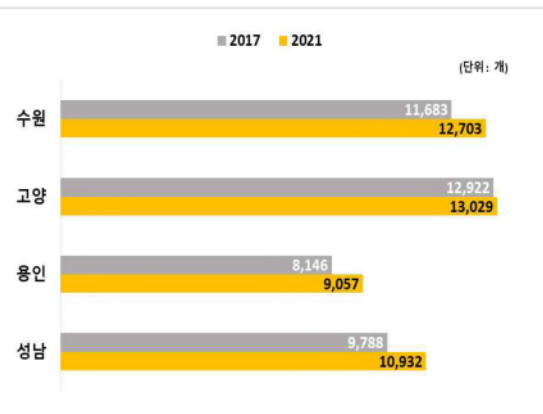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고양시가 1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가 8.4개로 가장 적음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가 고양시(12.1개), 성남시(11.7개), 수원시(10.7개), 용인시(8.4개)순임
- 의료기관 병상 수는 고양시(13,029개), 수원시(12,703개), 성남시(10,932개), 용인시(9,057개)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성남시가 10.1개에서 11.7개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 의료기관 병상 수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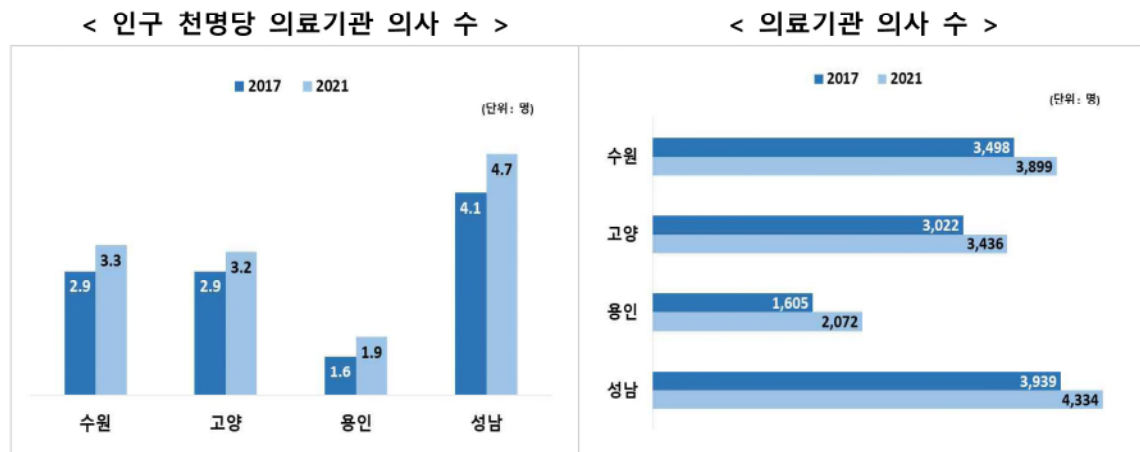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2017	701,744	13.6	131,236	10.2	11,683	9.7	12,922	12.4	8,146	8.1	9,788	10.1
2018	707,349	13.6	133,698	10.2	11,737	9.8	12,722	12.2	8,796	8.5	9,845	10.3
2019	703,468	13.6	133,118	10.1	11,913	10.0	12,596	11.8	8,101	7.6	10,040	10.6
2020	716,292	13.8	139,190	10.4	12,773	10.8	13,121	12.2	8,773	8.2	10,911	11.6
2021	722,671	14.0	141,282	10.4	12,703	10.7	13,029	12.1	9,057	8.4	10,932	11.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21.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성남시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가 1.9명으로 가장 적음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가 성남시(4.7명), 수원시(3.3명), 고양시(3.2명), 용인시(1.9명)순임
- 의료기관 의사 수는 성남시(4,334명), 수원시(3,899명), 고양시(3,436명), 용인시(2,072명)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성남시가 4.1명에서 4.7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 >

(단위 : 명)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2017	145,930	2.8	29,038	2.3	3,498	2.9	3,022	2.9	1,605	1.6	3,939	4.1
2018	149,022	2.9	30,130	2.3	3,561	3.0	3,089	3.0	1,716	1.7	4,037	4.2
2019	153,744	3.0	31,510	2.4	3,709	3.1	3,130	2.9	1,808	1.7	4,176	4.4
2020	156,992	3.0	32,830	2.4	3,835	3.2	3,370	3.1	2,010	1.9	4,250	4.5
2021	159,970	3.1	33,919	2.5	3,899	3.3	3,436	3.2	2,072	1.9	4,334	4.7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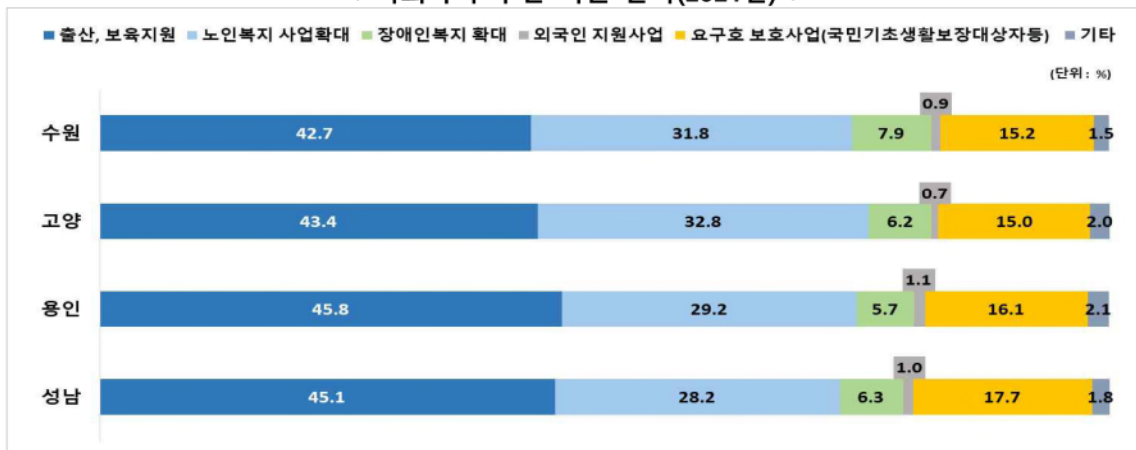


22.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 지원해야 할 분야로 4개 시 모두 「출산, 보육 지원」을 가장 많이 선택함

- 4개 시 모두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로 「출산, 보육지원», 「노인복지 사업확대», 「요구호 보호사업», 「장애인복지 확대」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2021년) >



<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

(단위 : %)

지역	시점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출산, 보육지원	노인복지 사업확대	장애인복지 확대	외국인 지원사업	요구호 보호사업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등)	기타
경기	2021	43.3	31.4	7.3	1.1	15.6	1.4
수원	2017	41.5	32.8	7.5	1.1	16.1	1.0
	2021	42.7	31.8	7.9	0.9	15.2	1.5
고양	2017	47.5	29.4	6.7	0.8	13.7	1.9
	2021	43.4	32.8	6.2	0.7	15.0	2.0
용인	2017	44.8	34.9	6.1	1.0	10.8	2.3
	2021	45.8	29.2	5.7	1.1	16.1	2.1
성남	2017	42.2	32.5	5.8	1.2	16.3	2.0
	2021	45.1	28.2	6.3	1.0	17.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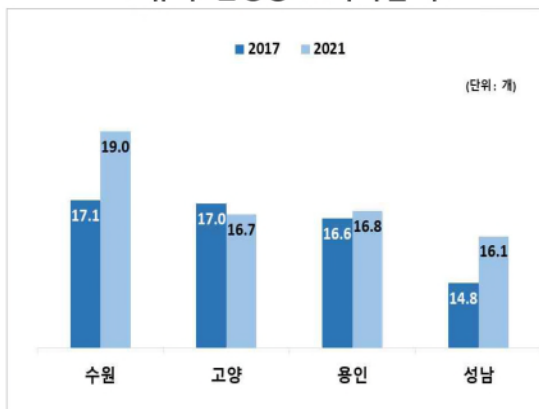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23.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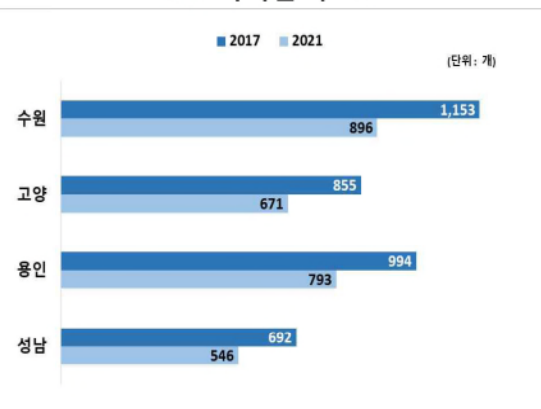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수원시가 19.0개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가 16.1개로 가장 적음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수원시(19.0개), 용인시(16.8개), 고양시(16.7개), 성남시(16.1개)순임
- 보육시설 수는 수원시(896개), 용인시(793개), 고양시(671개), 성남시(546개)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는 수원시가 17.1개에서 19.0개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



< 보육시설 수 >



<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

(단위 : 개)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유아 천명당		유아 천명당		유아 천명당		유아 천명당		유아 천명당		유아 천명당	
2017	40,238	15.7	11,825	16.7	1,153	17.1	855	17.0	994	16.6	692	14.8
2018	39,171	16.2	11,682	17.2	1,135	18.2	817	17.5	965	16.6	657	15.5
2019	37,371	16.4	11,305	17.4	1,062	18.4	769	16.7	916	16.3	610	15.6
2020	35,352	16.7	10,761	17.5	982	18.8	717	16.4	860	16.4	580	15.9
2021	33,246	17.1	10,136	17.7	896	19.0	671	16.7	793	16.8	546	16.1

자료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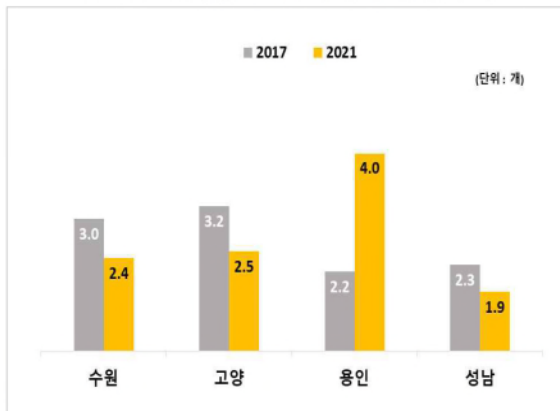


24.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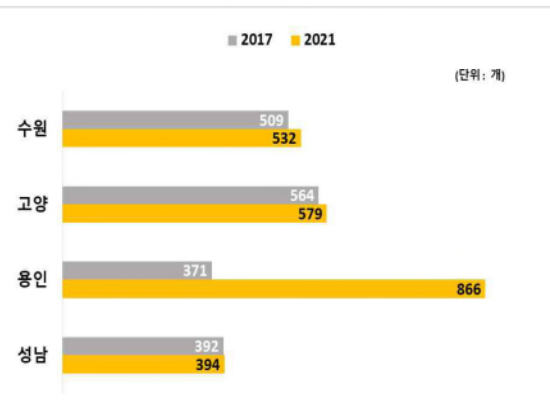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용인시가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가 1.9개로 가장 적음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용인시(4.0개), 고양시(2.5개), 수원시(2.4개), 성남시(1.9개)순임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용인시(866개), 고양시(579개), 수원시(532개), 성남시(394개)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용인시가 2.2개에서 4.0개로 가장 많이 증가함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¹⁾ 수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노인 ²⁾ 천명당
2017	67,324	6.3	9,669	4.4	509	3.0	564	3.2	371	2.2	392	2.3
2018	68,013	6.1	9,834	4.2	518	2.9	565	3.0	840	4.7	388	2.1
2019	68,413	5.8	10,054	4.0	533	2.8	570	2.8	855	4.5	395	2.1
2020	69,005	5.5	10,082	3.7	533	2.6	575	2.6	860	4.2	394	2.0
2021	68,823	5.3	10,133	3.5	532	2.4	579	2.5	866	4.0	394	1.9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주 : 1)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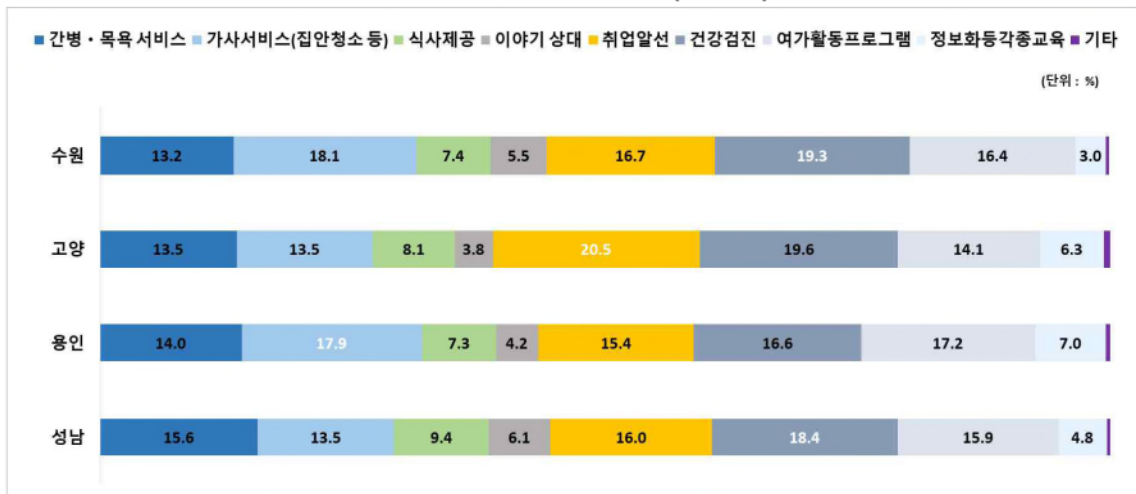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대상자 기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설별로 60세 이상(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또는 65세 이상(경로당)으로 정의되어 있어, 노인 기준 연령을 60세 이상 인구로 적용

25.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

우선 지원되어야 할 노인복지사업으로 수원시와 성남시는 「건강검진」, 고양시는 「취업알선」, 용인시는 「가사서비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 ① □ 「간병·목욕서비스」는 성남시가 15.6%, 「가사서비스」는 수원시가 18.1%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남
- 「취업알선」과 「건강검진」은 고양시가 각각 20.5%, 19.6%, 「여가활동프로그램」은 용인시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2021년) >



<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 >

(단위 : %)

지역	시점	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								
		간병·목욕 서비스	가사서비스(집안청소 등)	식사제공	이야기 상대	취업알선	건강검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정보화등 각종교육	기타
경기	2021	13.0	17.0	9.3	5.4	17.1	19.2	13.9	4.7	0.4
	2017	16.0	14.7	4.7	6.1	22.5	20.9	11.1	3.5	0.5
수원	2021	13.2	18.1	7.4	5.5	16.7	19.3	16.4	3.0	0.3
	2017	15.4	15.3	6.4	3.8	19.6	24.2	10.8	4.0	0.4
고양	2021	13.5	13.5	8.1	3.8	20.5	19.6	14.1	6.3	0.6
	2017	21.8	12.3	4.7	4.4	21.6	19.6	12.4	1.8	1.3
용인	2021	14.0	17.9	7.3	4.2	15.4	16.6	17.2	7.0	0.5
	2017	16.4	13.2	6.0	3.7	21.2	25.0	10.5	3.1	1.0
성남	2021	15.6	13.5	9.4	6.1	16.0	18.4	15.9	4.8	0.3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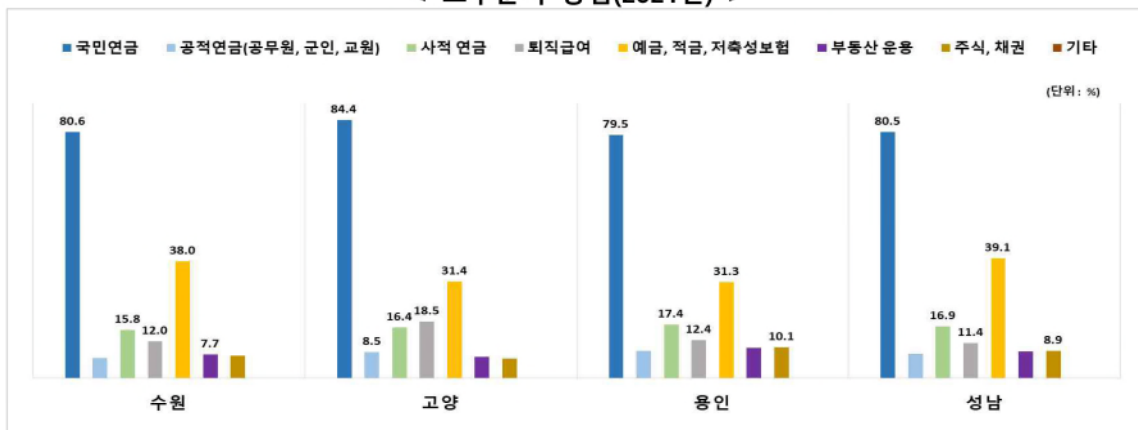


26. 노후준비 방법

노후준비 방법은 4개 시 모두 주된 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이 많음

- 용인시는 노후준비 방법에 있어 「공적연금」(9.0%), 「사적연금」(17.4%), 「부동산운용」(9.9%), 「주식, 채권」(10.1%) 등에서 다른 시에 비해 그 비율이 각각 높게 나타남
- 「퇴직급여」는 고양시가 18.5%,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은 성남시가 39.1%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음

< 노후준비 방법(2021년) >



<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

(단위: %)

지역	시점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복수응답)								
		준비하고 (되어있음)	국민연금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교원)	사적 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경기	2021	69.6	82.6	6.6	17.0	13.8	36.4	7.1	6.2	0.0
	2017	65.5	77.5	7.3	27.9	10.0	38.1	7.6	1.1	30.4
수원	2021	67.4	80.6	6.6	15.8	12.0	38.0	7.7	7.3	0.0
	2017	65.8	80.4	9.8	25.1	12.0	33.9	7.0	1.3	30.4
고양	2021	70.4	84.4	8.5	16.4	18.5	31.4	6.9	6.3	0.0
	2017	70.2	80.0	9.7	24.5	13.5	32.5	7.0	1.8	30.9
용인	2021	75.2	79.5	9.0	17.4	12.4	31.3	9.9	10.1	0.0
	2017	71.1	78.9	8.3	28.2	9.5	43.4	7.1	1.3	23.1
성남	2021	74.7	80.5	7.9	16.9	11.4	39.1	8.8	8.9	0.0

자료: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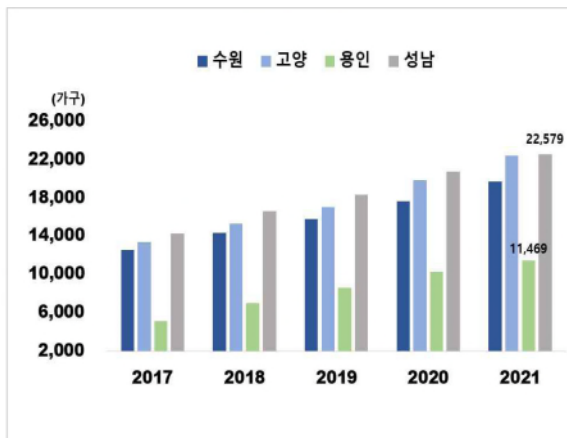
주: 만 19세 이상 기준

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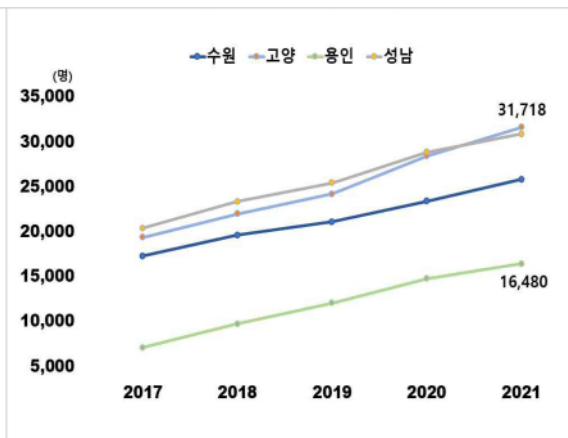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수는 성남시가 22,579가구, 수급자 수는 고양시가 31,718명으로 가장 많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수는 성남시(22,579가구), 고양시(22,457가구), 수원시(19,750가구), 용인시(11,469가구)순으로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고양시(31,718명), 성남시(30,969명), 수원시(25,919명), 용인시(16,480명)순임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단위 : 가구, 명)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가구수	수급자 수 ¹⁾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가구수	수급자 수
2017	1,082,996	1,491,660	171,116	246,082	12,515	17,333	13,361	19,412	5,131	7,170	14,284	20,456
2018	1,165,175	1,653,781	198,442	281,425	14,344	19,665	15,288	22,040	6,992	9,795	16,598	23,447
2019	1,281,759	1,792,012	222,658	312,511	15,776	21,169	17,064	24,300	8,602	12,114	18,344	25,532
2020	1,459,059	2,046,213	256,387	362,988	17,639	23,476	19,895	28,491	10,234	14,795	20,782	28,940
2021	1,637,569	2,288,852	288,757	404,621	19,750	25,919	22,457	31,718	11,469	16,480	22,579	30,969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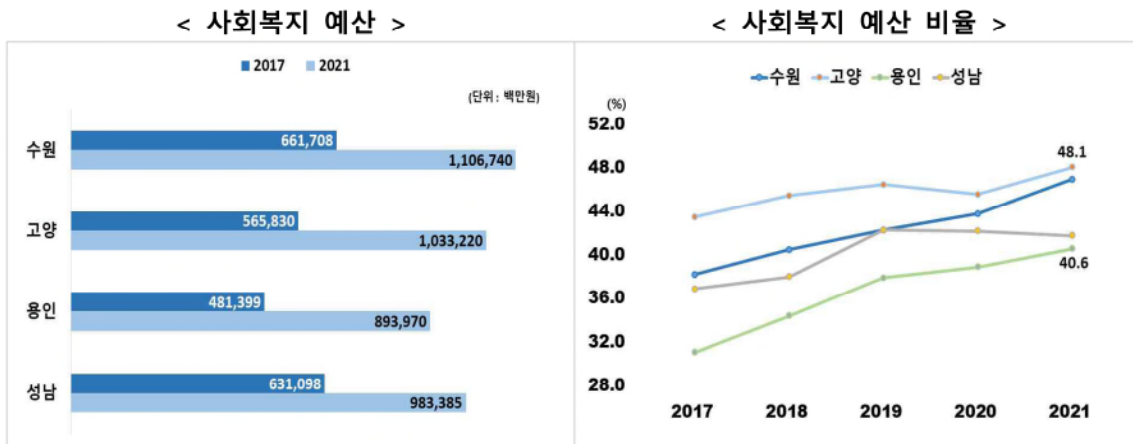
주 : 1) 시설수급자 제외



28. 사회복지 예산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은 수원시가 1,106,740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수원시(1,106,740백만원), 고양시(1,033,220백만원), 성남시(983,385백만원), 용인시(893,970백만원)순임
- 2017년 대비 4개 시 모두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용인시가 9.5%p로 가장 많이 증가함
- 각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고양시(48.1%), 수원시(47.0%), 성남시(41.8%), 용인시(40.6%)순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 예산 >

(단위 : 백만원,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비율 ¹⁾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17	5,879,906	35.0	661,708	38.2	565,830	43.5	481,399	31.1	631,098	36.9
2018	6,836,691	36.0	821,185	40.5	718,050	45.5	641,786	34.4	780,614	38.0
2019	8,191,713	39.0	964,479	42.3	839,391	46.5	737,978	37.9	884,108	42.3
2020	9,686,552	41.0	1,043,350	43.8	965,157	45.6	824,559	38.9	912,485	42.2
2021	10,486,948	42.0	1,106,740	47.0	1,033,220	48.1	893,970	40.6	983,385	41.8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자체별 예산기준 재정공시(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각 연도

주 : 1) 각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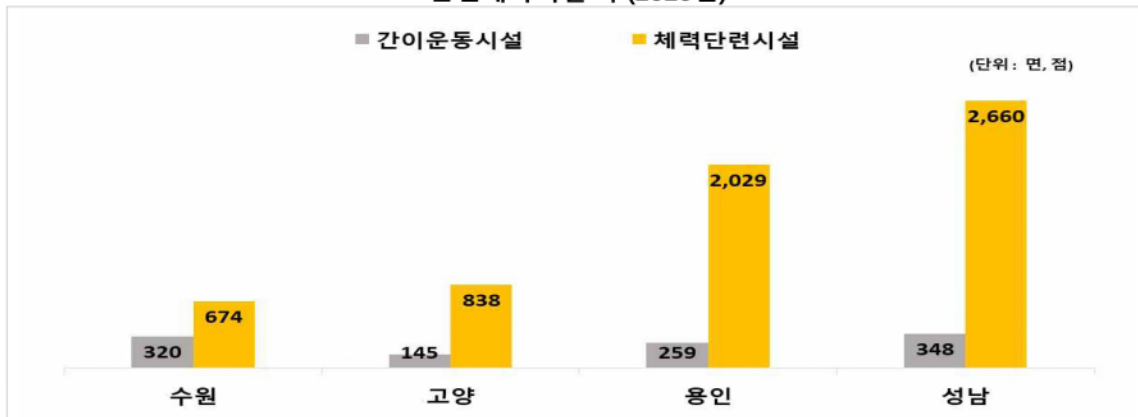
V 건강

29. 근린체육시설 수

지역내 근린체육시설은 성남시가 간이운동시설 348면, 체력단련시설 2,660점으로 가장 많음

- 지역내 소재한 근린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시설은 성남시(348면), 수원시(320면), 용인시(259면), 고양시(145면)순임
- 체력단련시설은 성남시(2,660점), 용인시(2,029점), 고양시(838점), 수원시(674점)순으로 체력단련시설이 가장 많은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시설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린체육시설 수(2020년) >



< 근린체육시설 수 >

(단위 : 면, 점)

	간 이 운 동 시 설													체력 단련 시설
	계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씨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구광장	배드민턴장	체조장	로울러장	수영장	기 타	
전국	15,880	697	413	2,027	94	1,349	3,564	364	3,579	36	194	76	3,487	145,813
경기	3,359	157	28	536	22	311	442	45	945	3	91	14	765	19,730
수원	320	11	-	71	-	44	30	1	134	-	14	-	15	674
고양	145	18	11	41	1	22	23	-	27	-	-	-	2	838
용인	259	2	-	40	-	32	9	1	95	-	10	-	70	2,029
성남	348	1	-	33	-	25	34	4	162	3	12	-	74	2,66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2020.12.3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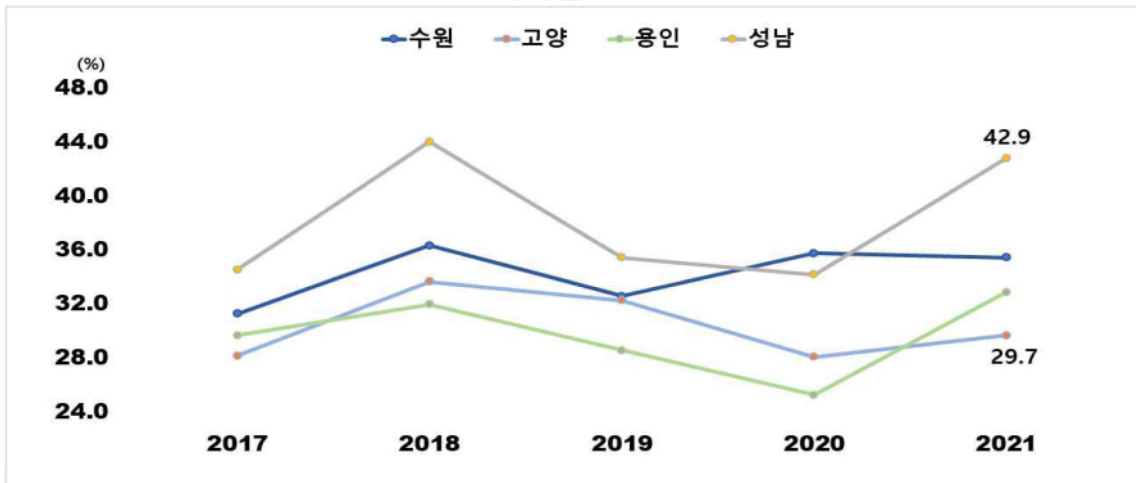


30. 건강생활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은 성남시가 42.9%로 가장 높음

-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율은 성남시(42.9%), 수원시(35.5%), 용인시(32.9%), 고양시(29.7%)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4개 시 모두 건강생활 실천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성남시가 8.3%p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건강생활 실천율 >



< 건강생활 실천율¹⁾ >

(단위 : %)

	전국 ²⁾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2017	27.0	30.5	31.3	28.2	29.7	34.6
2018	30.7	35.8	36.4	33.7	32.0	44.1
2019	28.4	32.5	32.6	32.3	28.6	35.5
2020	26.4	29.9	35.8	28.1	25.3	34.2
2021	29.6	34.7	35.5	29.7	32.9	42.9

자료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

주 : 1)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표준화율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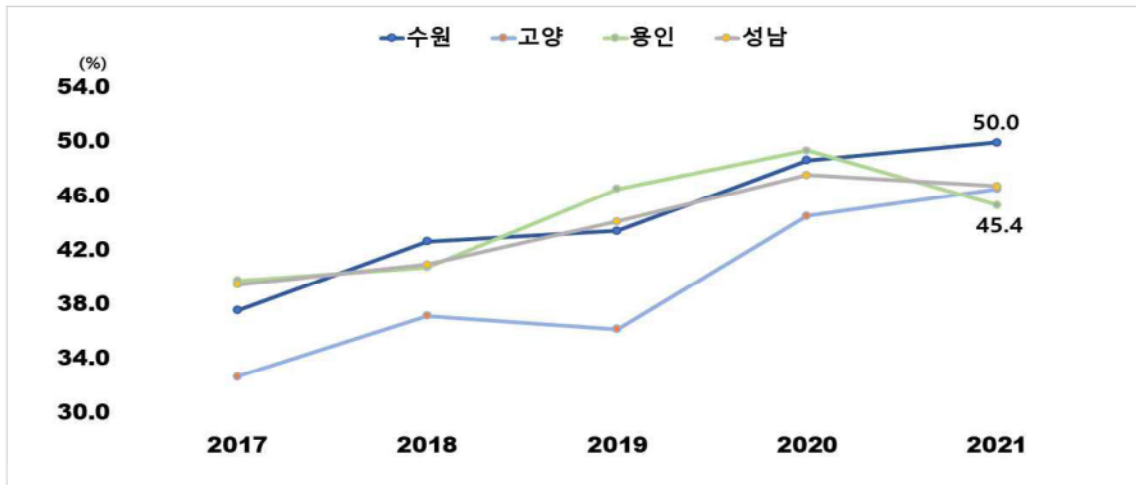
2)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으로 산출

3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수원시가 50.0%로 가장 높음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수원시(50.0%), 성남시(46.8%), 고양시(46.6%), 용인시(45.4%)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4개 시 모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고양시가 13.9%p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¹⁾ >

(단위 : %)

	전국 ²⁾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2017	37.5	37.7	37.6	32.7	39.8	39.5
2018	40.0	40.5	42.7	37.2	40.8	41.0
2019	41.9	42.4	43.5	36.2	46.6	44.2
2020	45.9	47.0	48.7	44.6	49.4	47.6
2021	47.1	48.5	50.0	46.6	45.4	46.8

자료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

주 : 1)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표준화율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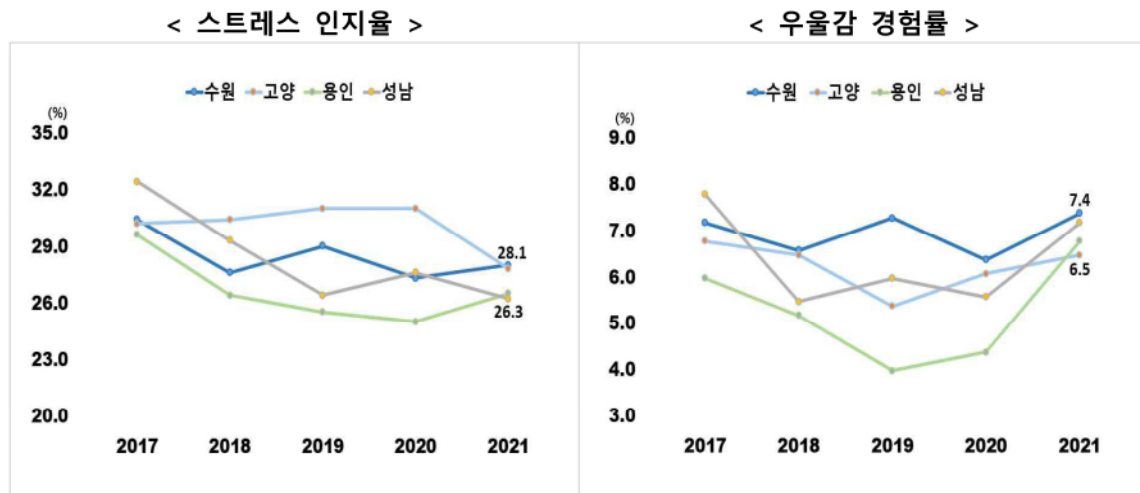
2)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으로 산출



32.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은 수원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은 수원시(28.1%), 고양시(27.9%), 용인시(26.6%), 성남시(26.3%)순으로 나타남
- 우울감 경험률은 수원시(7.4%), 성남시(7.2%), 용인시(6.8%), 고양시(6.5%)순으로 높음



<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¹⁾ >

(단위 : %)

	전국 ²⁾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2017	26.9	5.8	30.1	6.9	30.5	7.2	30.3	6.8	29.7	6.0	32.5	7.8
2018	26.4	5.0	28.4	6.2	27.7	6.6	30.5	6.5	26.5	5.2	29.4	5.5
2019	25.2	5.5	27.7	6.5	29.1	7.3	31.1	5.4	25.6	4.0	26.5	6.0
2020	26.2	5.7	29.0	6.3	27.4	6.4	31.1	6.1	25.1	4.4	27.7	5.6
2021	26.2	6.7	28.1	7.1	28.1	7.4	27.9	6.5	26.6	6.8	26.3	7.2

자료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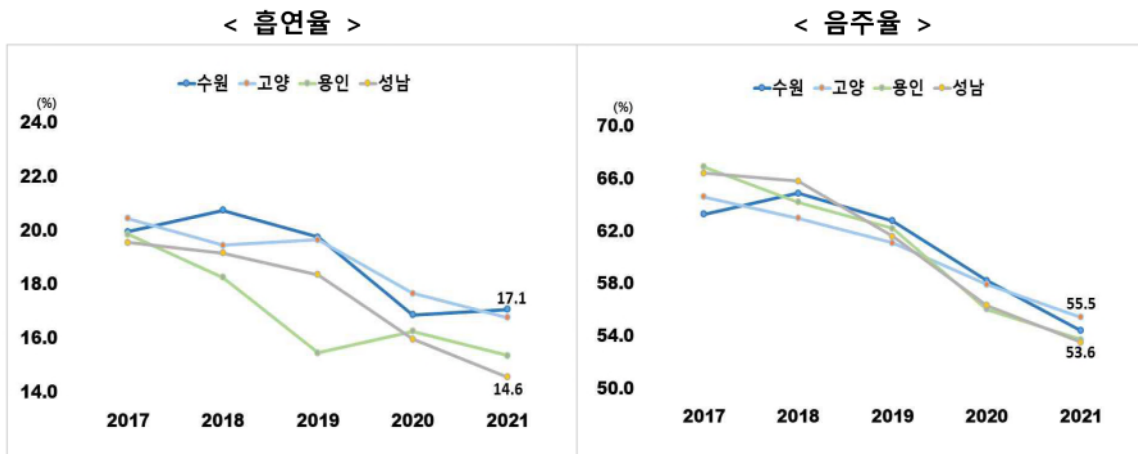
주 : 1)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표준화율로 작성

2)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으로 산출

33. 흡연 및 음주율

4개 시 모두 흡연율과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원시는 전년대비 흡연율이 0.2%p 증가한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흡연율은 수원시(17.1%), 고양시(16.8%), 용인시(15.4%), 성남시(14.6%)순으로 높음
- 음주율은 고양시(55.5%), 수원시(54.5%), 용인시(53.8%), 성남시(53.6%)순으로 높게 나타남



< 흡연율 및 음주율¹⁾ >

(단위 : %)

	전국 ²⁾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흡연율	음주율	흡연율	음주율	흡연율	음주율	흡연율	음주율	흡연율	음주율	흡연율	음주율
2017	21.7	61.5	21.0	63.0	20.0	63.4	20.5	64.7	19.9	67.0	19.6	66.5
2018	21.7	60.9	20.9	61.9	20.8	65.0	19.5	63.1	18.3	64.3	19.2	65.9
2019	20.3	59.9	19.9	61.0	19.8	62.9	19.7	61.2	15.5	62.3	18.4	61.7
2020	19.8	54.7	19.1	56.1	16.9	58.3	17.7	58.0	16.3	56.1	16.0	56.4
2021	19.1	53.7	18.1	53.7	17.1	54.5	16.8	55.5	15.4	53.8	14.6	53.6

자료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

주 : 1) 연도 및 지역간 비교를 위해 인구구성 차이에 따른 영향을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로 보정한 표준화율로 작성

2) 전국 대푯값은 시·군·구 중앙값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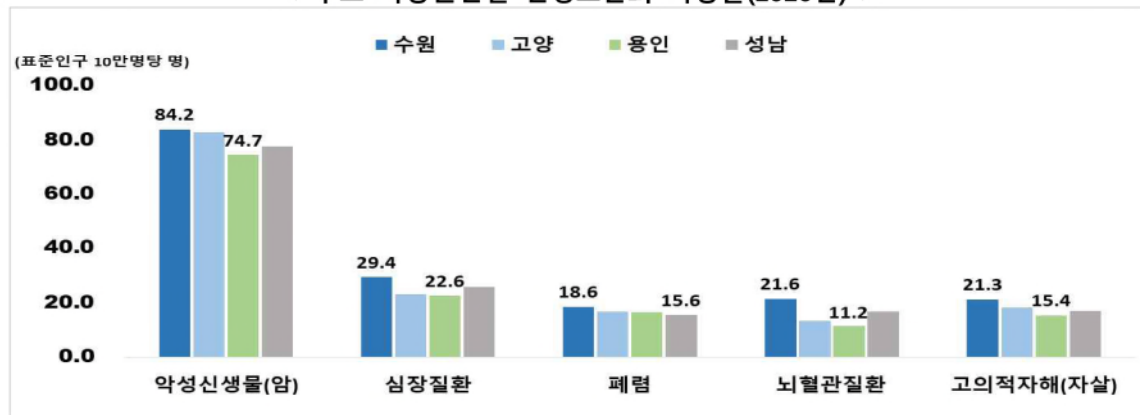
34.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2020년 주요 5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수원시가 모두 높음

□ 용인시는 「폐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망원인에서는 각각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낮음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고양시가 「악성신생물(암)」(137.0명), 「폐렴」(38.5명), 성남시가 「심장질환」(47.6명), 수원시가 「뇌혈관질환」(32.2명), 「고의적자해(자살)」(23.6명)로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2020년) >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¹⁾ >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표준인구²⁾ 10만명당 명)

지역	시점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적자해(자살)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³⁾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국	2020	160.1	86.3	63.0	29.4	43.3	18.0	42.6	20.1	25.7	21.9
경기	2020	130.3	83.3	48.3	27.4	35.1	18.1	33.6	19.2	23.7	20.8
수원	2017	112.1	96.3	39.1	30.8	20.0	15.0	30.5	23.9	20.8	19.1
	2020	113.8	84.2	43.1	29.4	30.3	18.6	32.2	21.6	23.6	21.3
고양	2017	124.6	86.7	44.2	26.8	29.5	16.6	31.8	19.8	19.1	16.3
	2020	137.0	83.1	44.1	23.1	38.5	16.9	24.9	13.4	21.6	18.4
용인	2017	116.4	85.8	38.6	25.1	25.3	15.5	26.3	17.7	18.5	16.6
	2020	117.2	74.7	40.3	22.6	32.5	16.6	19.5	11.2	17.2	15.4
성남	2017	125.6	89.2	41.9	26.4	20.2	12.1	34.5	22.0	23.8	20.4
	2020	129.4	77.9	47.6	25.8	32.1	15.6	31.1	16.8	21.3	17.2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주 : 1)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 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어떤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표시

2) 표준인구는 2005년 전국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를 사용

3)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

VI 교육

35.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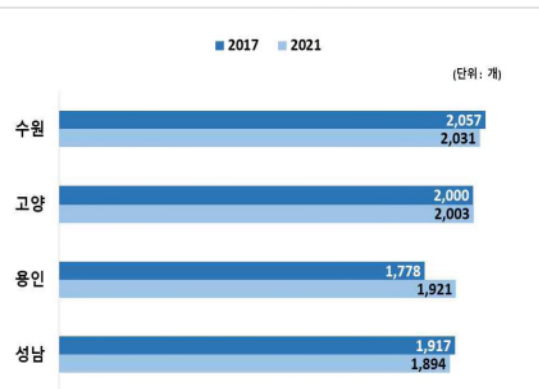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는 성남시가 2.0개로 가장 많음

-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는 성남시(2.0개), 고양시(1.9개), 용인시(1.8개), 수원시(1.7개)순으로 나타남
- 사설학원 수는 수원시(2,031개), 고양시(2,003개), 용인시(1,921개), 성남시(1,894개)순임
- 2017년 대비 사설학원 수가 용인시는 143개 증가하여 다른 시에 비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임

<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



< 사설학원 수 >



<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단위 : 개)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인구	천명당
2017	80,130	1.5	20,195	1.6	2,057	1.7	2,000	1.9	1,778	1.8	1,917	2.0
2018	80,412	1.6	20,781	1.6	2,091	1.7	2,000	1.9	1,875	1.8	1,954	2.0
2019	80,937	1.6	21,145	1.6	2,052	1.7	2,000	1.9	1,924	1.8	1,958	2.1
2020	81,762	1.6	21,716	1.6	2,050	1.7	2,009	1.9	1,968	1.8	1,950	2.1
2021	81,868	1.6	21,688	1.6	2,031	1.7	2,003	1.9	1,921	1.8	1,89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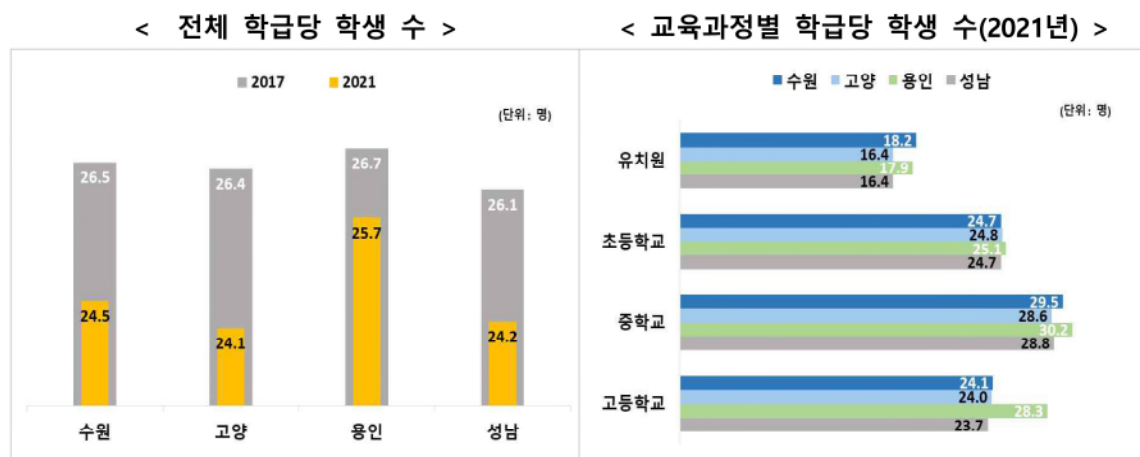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36. 학급당 학생 수

전체 학급당 학생 수는 고양시가 24.1명으로 4개 시중 가장 적음

- 전체 학급당 학생 수는 고양시(24.1명), 성남시(24.2명), 수원시(24.5명), 용인시(25.7명)순으로 적음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수원시, 성남시(각각 24.7명),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고양시(28.6명),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성남시(23.7명)가 각각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급당 학생 수 >

(단위 : 명)

지역	시점	학급당 학생 수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2021	22.1	17.5	21.5	25.5	23.1
경기	2021	24.1	16.9	24.1	28.8	24.6
수원	2017	26.5	20.1	26.0	29.8	29.1
	2021	24.5	18.2	24.7	29.5	24.1
고양	2017	26.4	19.1	25.4	30.3	29.5
	2021	24.1	16.4	24.8	28.6	24.0
용인	2017	26.7	18.6	26.2	30.4	32.0
	2021	25.7	17.9	25.1	30.2	28.3
성남	2017	26.1	19.6	25.7	28.9	27.7
	2021	24.2	16.4	24.7	28.8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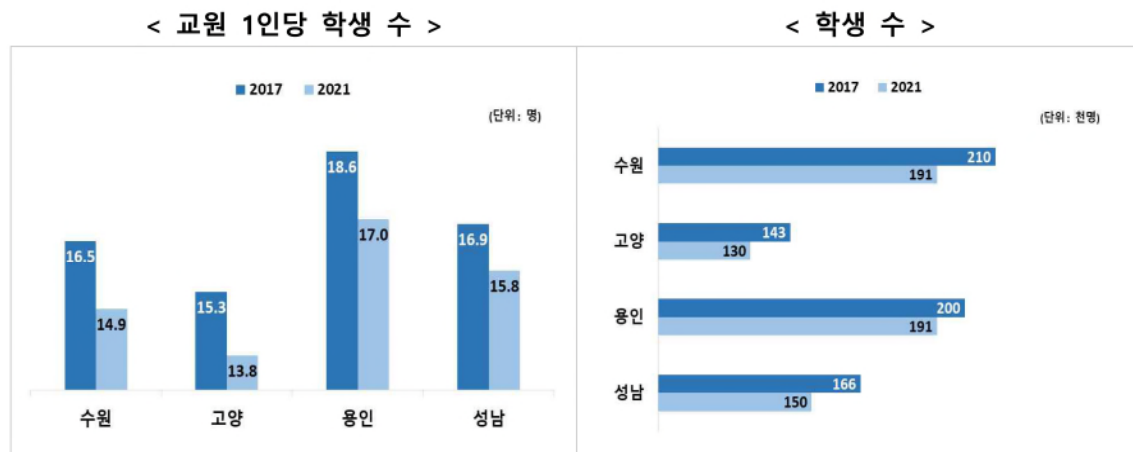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주 : 2021년부터 학급수 기준이 인가기준에서 편성기준으로 변경됨. 2021년도 자료는 편성학급수 기준으로 산출

37.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고양시가 13.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고양시(13.8명), 수원시(14.9명), 성남시(15.8명), 용인시(17.0명)순으로 적음
- 학생 수는 4개 시 모두 감소 추세로 수원시와 용인시가 191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가 150천명, 고양시가 130천명으로 나타남



< 교원 1인당 학생 수 >

(단위 : 천명, 명)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교원 ¹⁾ 1인당		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2017	9,189	16.3	2,170	17.0	210	16.5	143	15.3	200	18.6	166	16.9
2018	8,982	15.9	2,137	16.6	206	16.1	138	14.7	198	18.2	162	16.6
2019	8,764	15.5	2,101	16.2	200	15.6	132	14.2	195	17.6	156	16.4
2020	8,593	15.2	2,078	15.8	195	15.2	131	14.0	194	17.4	153	16.1
2021	8,450	14.8	2,066	15.5	191	14.9	130	13.8	191	17.0	150	15.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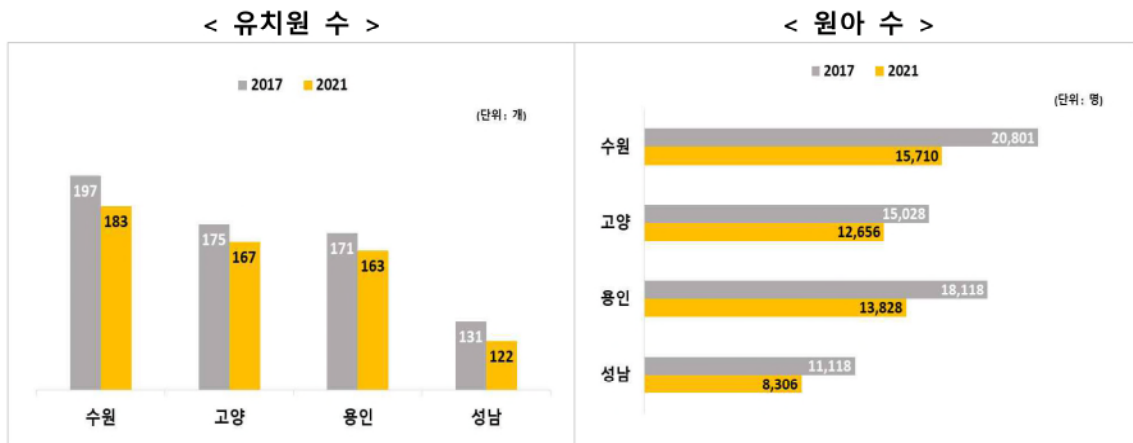
주 : 1)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교원



38. 유치원 및 원아 수

지역내 유치원과 원아는 수원시가 각각 183개, 15,710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내 유치원 수는 수원시(183개), 고양시(167개), 용인시(163개), 성남시(122개)순으로 많음
- 원아 수는 4개 시 모두 감소 추세로 수원시(15,710명), 용인시(13,828명), 고양시(12,656명), 성남시(8,306명)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유치원 수와 원아 수는 수원시가 각각 14개, 5,091명 감소로 가장 감소폭이 큼



<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

(단위 : 개, 명)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원수	원아수	원수	원아수	원수	원아수	원수	원아수	원수	원아수	원수	원아수
2017	9,029	694,631	2,258	194,299	197	20,801	175	15,028	171	18,118	131	11,118
2018	9,021	675,998	2,275	189,645	195	20,185	175	14,242	173	17,554	133	10,848
2019	8,837	633,913	2,237	176,782	192	18,404	171	13,049	169	15,584	127	9,843
2020	8,705	612,538	2,206	169,686	189	17,358	168	12,679	165	15,301	123	9,035
2021	8,659	582,572	2,209	161,980	183	15,710	167	12,656	163	13,828	122	8,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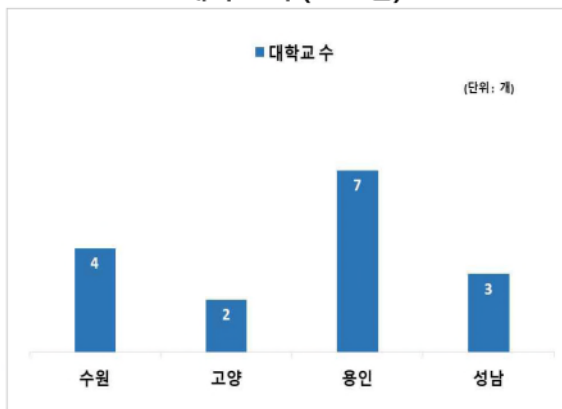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39. 대학교 및 대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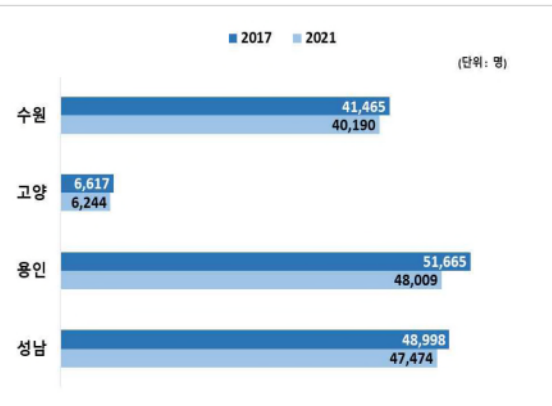
지역내 대학교와 대학생은 용인시가 각각 7개, 48,009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내 대학교 수는 용인시(7개), 수원시(4개), 성남시(3개), 고양시(2개)순임
- 대학생 수는 4개 시 모두 감소 추세로 용인시(48,009명), 성남시(47,474명), 수원시(40,190명), 고양시(6,244명)순으로 나타남
- 2017년 대비 대학생 수는 용인시가 3,656명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함

< 대학교 수(2021년) >



< 대학생 수 >



< 대학교¹⁾ 및 대학생 수 >

(단위 : 개, 명)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017	339	2,769,522	60	452,326	4	41,465	2	6,617	7	51,665	3	48,998
2018	340	2,721,315	61	443,895	4	40,858	2	6,388	7	51,136	3	48,690
2019	340	2,676,858	61	437,390	4	40,721	2	6,335	7	50,871	3	48,460
2020	339	2,633,787	61	433,276	4	40,660	2	6,337	7	50,144	3	48,021
2021	336	2,544,243	61	416,739	4	40,190	2	6,244	7	48,009	3	47,47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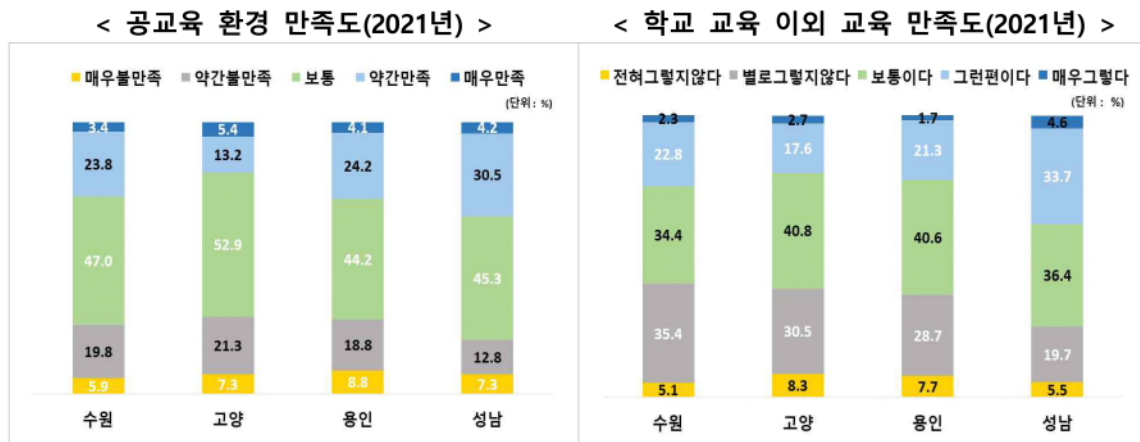
주 : 1) 대학교 :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40. 교육환경 만족도

공교육 환경과 학교 교육 이외 교육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가 각각 34.7%,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교육 환경에 있어 전체 만족 비율이 성남시(34.7%), 용인시(28.3%), 수원시(27.2%), 고양시(18.6%)순으로 나타남
- 학교 교육 이외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여부에 대한 전체 만족 비율은 성남시(38.3%), 수원시(25.1%), 용인시(23.0%), 고양시(20.3%)순임
- 공교육 환경 불만족 비율은 고양시가 28.6%, 학교 교육 이외 교육 불만족 비율은 수원시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환경 만족도 >

(단위 : %)

지역	공교육 환경 만족도					학교 교육 이외 교육 만족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경기	6.4	20.9	49.8	19.9	3.0	7.5	33.7	40.6	16.3	1.9
수원	5.9	19.8	47.0	23.8	3.4	5.1	35.4	34.4	22.8	2.3
고양	7.3	21.3	52.9	13.2	5.4	8.3	30.5	40.8	17.6	2.7
용인	8.8	18.8	44.2	24.2	4.1	7.7	28.7	40.6	21.3	1.7
성남	7.3	12.8	45.3	30.5	4.2	5.5	19.7	36.4	33.7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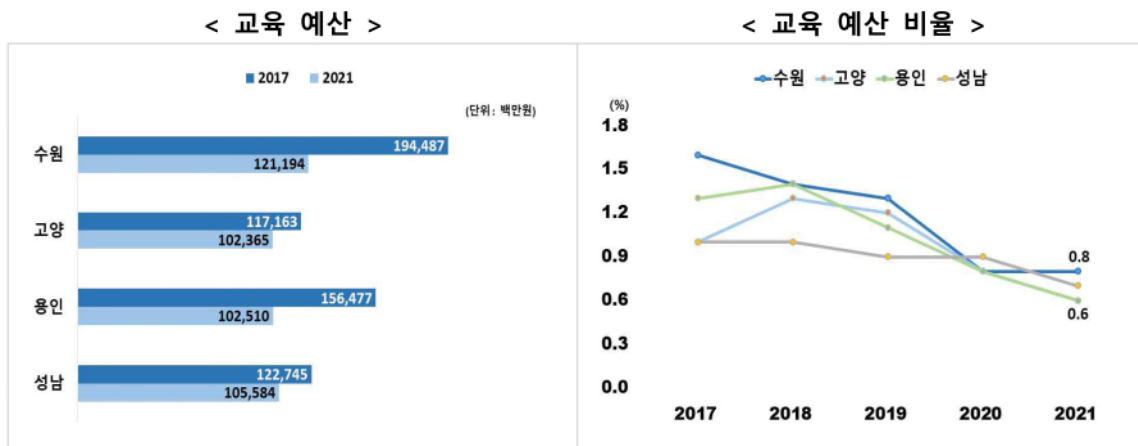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2021년도

주 : 초·중고 학부모(가구주) 기준

41. 교육 예산

교육 예산은 수원시가 121,194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교육 예산 규모는 수원시(121,194백만원), 성남시(105,584백만원), 용인시(102,510백만원), 고양시(102,365백만원)순임
- 2017년 대비 4개 시 모두 경기도 전체 교육 예산 중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수원시가 0.8%p로 가장 많이 감소함
- 경기도 전체 교육 예산 중 각 지자체별 비율은 수원시(0.8%), 성남시(0.7%), 고양시·용인시(0.6%)순으로 나타남



< 교육 예산 >

(단위 : 백만원,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비율		비율 ¹⁾		비율		비율		비율
2017	12,052,414	100.0	194,487	1.6	117,163	1.0	156,477	1.3	122,745	1.0
2018	14,548,472	100.0	206,894	1.4	183,422	1.3	202,928	1.4	151,087	1.0
2019	15,417,756	100.0	194,187	1.3	183,058	1.2	168,109	1.1	137,381	0.9
2020	16,465,048	100.0	127,497	0.8	130,229	0.8	132,703	0.8	151,114	0.9
2021	15,921,805	100.0	121,194	0.8	102,365	0.6	102,510	0.6	105,584	0.7

자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각 연도

주 : 1)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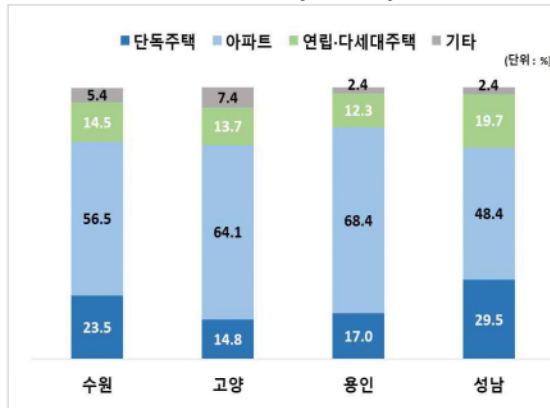
Ⅶ 주거와 교통

42.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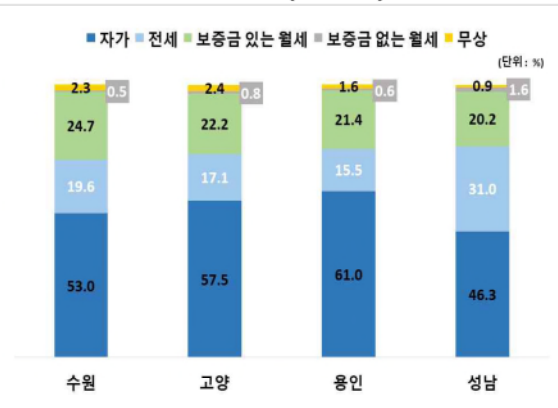
4개 시 모두 주된 주택유형은 「아파트」, 점유형태는 「자가」로 용인시가 각각 68.4%, 6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주택유형은 4개 시 모두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순이며, 점유형태는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4개 시 모두 「자가」가 주된 점유형태로 나타났으며, 「전세」는 성남시가 31.0%, 「보증금 있는 월세」는 수원시가 2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주택유형(2021년) >



< 점유형태(2021년) >



<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

(단위 : %)

지역	시점	주택유형				점유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경기	2021	21.2	58.2	17.0	3.5	58.1	18.0	20.7	1.2	2.1
수원	2017	28.0	54.8	12.5	4.7	51.8	19.5	25.1	0.9	2.6
	2021	23.5	56.5	14.5	5.4	53.0	19.6	24.7	0.5	2.3
고양	2017	17.2	64.4	12.0	6.4	54.1	17.4	25.7	0.5	2.3
	2021	14.8	64.1	13.7	7.4	57.5	17.1	22.2	0.8	2.4
용인	2017	19.9	68.3	11.4	0.4	57.4	18.3	21.7	0.6	2.0
	2021	17.0	68.4	12.3	2.4	61.0	15.5	21.4	0.6	1.6
성남	2017	34.0	46.0	12.7	7.3	44.8	25.2	28.0	0.7	1.3
	2021	29.5	48.4	19.7	2.4	46.3	31.0	20.2	1.6	0.9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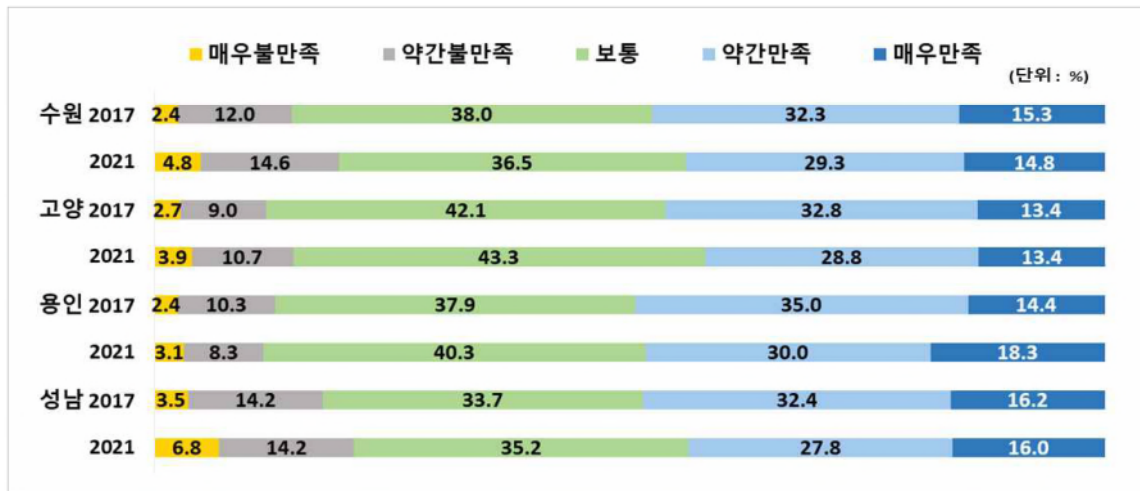
43. 주택만족도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용인시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용인시(48.3%), 수원시(44.1%), 성남시(43.8%), 고양시(42.2%)순임

○ 성남시는 「매우불만족」 6.8%, 「약간불만족」 14.2%로 주택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만족도 >



< 주택만족도 >

(단위 : %)

지역	시점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경기	2021	4.1	11.7	15.8	41.0	43.3	29.2	14.1
수원	2017	2.4	12.0	14.4	38.0	47.6	32.3	15.3
	2021	4.8	14.6	19.4	36.5	44.1	29.3	14.8
고양	2017	2.7	9.0	11.7	42.1	46.2	32.8	13.4
	2021	3.9	10.7	14.6	43.3	42.2	28.8	13.4
용인	2017	2.4	10.3	12.7	37.9	49.4	35.0	14.4
	2021	3.1	8.3	11.4	40.3	48.3	30.0	18.3
성남	2017	3.5	14.2	17.7	33.7	48.6	32.4	16.2
	2021	6.8	14.2	21.0	35.2	43.8	27.8	16.0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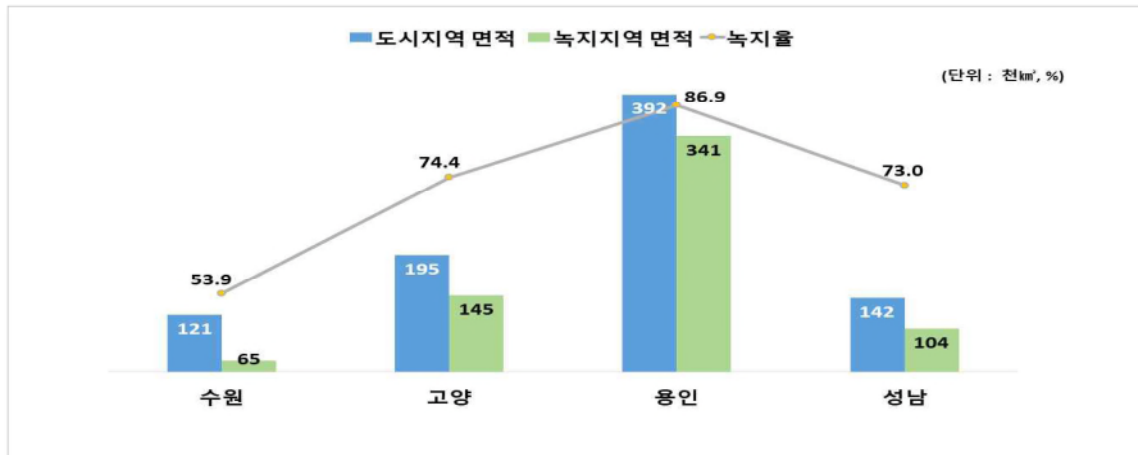


44. 녹지면적 및 녹지율

**도시지역 면적 중 녹지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는 용인시로
녹지율이 86.9%임**

- 용인시는 도시지역 면적 392천㎢ 대비 녹지지역 면적 341천㎢으로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녹지지역(86.9%)으로 나타남
- 녹지율은 고양시(74.4%), 성남시(73.0%), 수원시(53.9%)순으로
수원시가 상대적으로 녹지 비율이 가장 낮음

< 녹지면적 및 녹지율(2021년) >



< 녹지면적 및 녹지율 >

(단위 : 천㎢, %)

지역	시점	도시지역 면적	녹지지역 면적	
			녹지율	
전국	2021	17,787	12,592	70.8
경기	2021	3,385	2,579	76.2
수원	2017	121	66	54.6
	2021	121	65	53.9
고양	2017	192	150	77.9
	2021	195	145	74.4
용인	2017	388	343	88.2
	2021	392	341	86.9
성남	2017	142	105	74.2
	2021	142	104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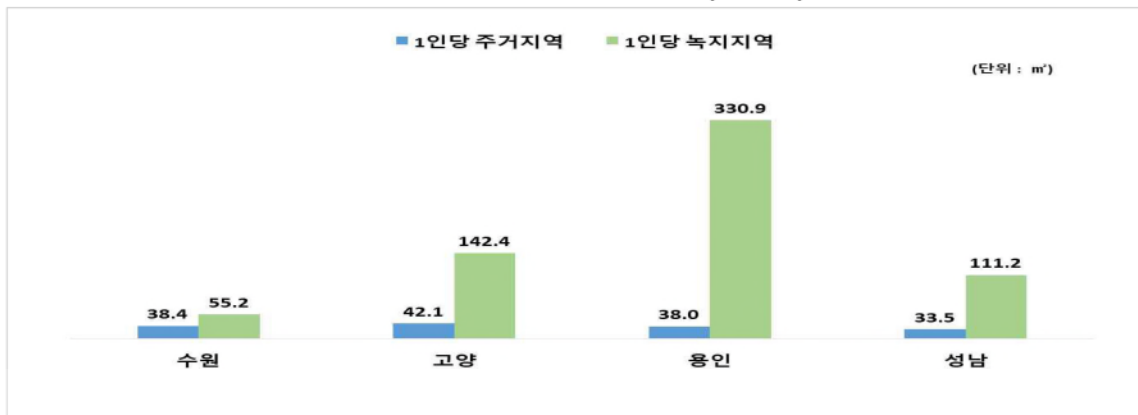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각 년도

45. 1인당 주거 및 녹지지역 면적

1인당 주거지역 면적은 고양시(42.1㎡),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은 용인시(330.9㎡)가 가장 넓음

- 용인시의 경우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이 1인당 주거지역 면적보다 8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에 비해 녹지지역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주거지역 면적은 고양시(42.1㎡), 수원시(38.4㎡), 용인시(38.0㎡), 성남시(33.5㎡)순임
- 1인당 녹지지역 면적은 용인시(330.9㎡), 고양시(142.4㎡), 성남시(111.2㎡), 수원시(55.2㎡)순으로 나타남

< 1인당 주거 및 녹지지역 면적(2021년) >



< 1인당 주거 및 녹지지역 면적 >

(단위 :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1인당 주거 지역	1인당 녹지 지역	1인당 주거 지역	1인당 녹지 지역	1인당 주거 지역	1인당 녹지 지역	1인당 주거 지역	1인당 녹지 지역	1인당 주거 지역	1인당 녹지 지역	1인당 주거 지역	1인당 녹지 지역
2017	56.2	265.4	47.2	217.9	37.3	55.0	37.4	152.0	38.2	351.8	30.6	108.7
2018	56.4	265.3	46.7	214.9	37.3	55.0	38.3	152.0	37.1	341.2	31.0	110.2
2019	56.7	265.4	46.7	213.1	37.5	55.4	37.9	148.5	36.8	337.2	32.1	110.9
2020	57.0	265.3	46.4	210.1	38.3	55.1	37.7	146.4	36.4	332.5	32.8	110.5
2021	57.8	265.7	47.6	206.5	38.4	55.2	42.1	142.4	38.0	330.9	33.5	111.2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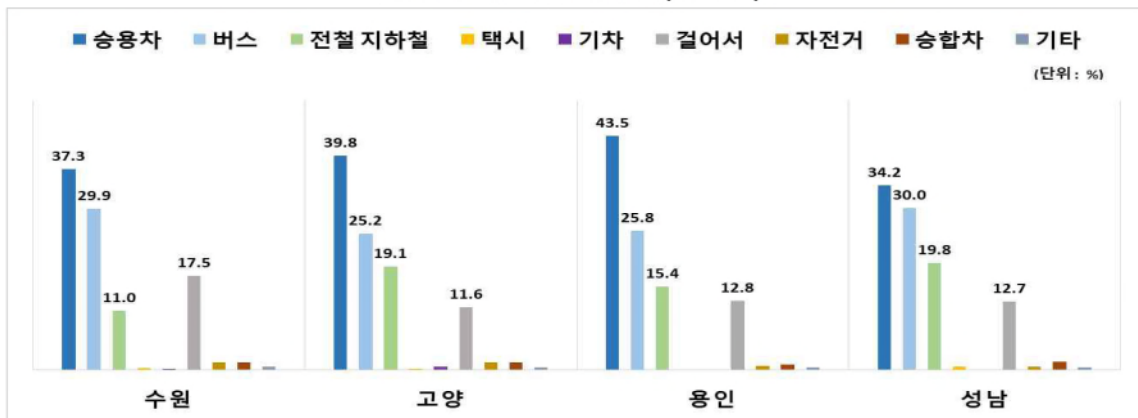


46. 통근·통학 교통수단

4개 시 모두 「승용차」가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이용 비율을 보였으며, 「걸어서」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은 수원시가 가장 높음

-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비율은 성남시가 각각 30.0%,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걸어서」 통근·통학을 하는 비율은 수원시가 17.5%로 가장 높음
- 「자전거」 이용 비율은 수원시(1.5%)와 고양시(1.5%), 「승합차」이용 비율은 성남시(1.6%)가 높게 나타남

< 통근·통학 시 교통수단(2021년) >



< 통근·통학 시 교통수단 >

(단위 : %, 분)

지역	시점	통근·통학 합	통근·통학 평균소요 시간 (분)	통근·통학 교통수단								
				승용차	버스	전철·지하철	택시	기차	걸어서	자전거	승합차	기타
경기	2021	69.4	39.5	42.2	25.1	14.4	0.3	0.2	14.1	1.3	1.7	0.8
수원	2017	64.2	38.6	41.6	29.8	9.8	0.2	0.4	14.4	1.4	1.7	0.7
	2021	69.4	38.0	37.3	29.9	11.0	0.4	0.2	17.5	1.5	1.4	0.7
고양	2017	62.8	43.9	40.8	26.6	17.3	0.0	0.4	12.5	1.1	0.9	0.4
	2021	68.1	47.5	39.8	25.2	19.1	0.3	0.6	11.6	1.5	1.4	0.5
용인	2017	64.2	43.2	47.2	26.6	12.9	0.4	0.3	9.3	0.8	2.1	0.4
	2021	67.0	41.9	43.5	25.8	15.4	0.1	0.1	12.8	0.8	1.1	0.5
성남	2017	67.4	38.5	31.4	31.6	19.2	0.3	0.1	14.2	0.4	1.8	1.0
	2021	71.3	38.9	34.2	30.0	19.8	0.6	0.0	12.7	0.6	1.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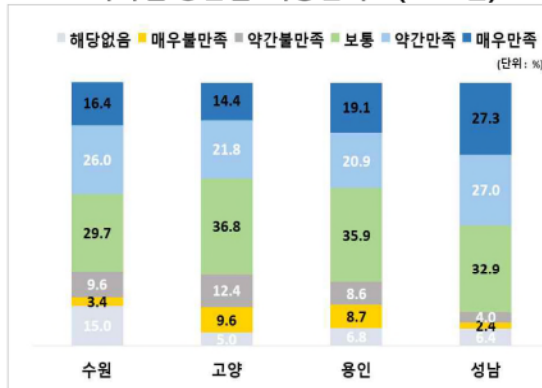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47. 대중교통 이용수단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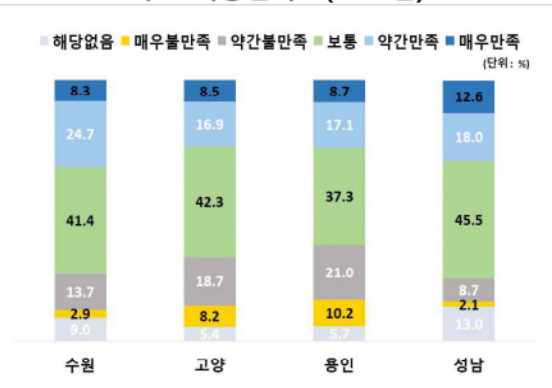
지하철·경전철 이용 만족 비율은 성남시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하철·경전철 이용에 있어 「매우만족」과 「약간만족」으로 전체 만족 비율이 성남시(54.3%), 수원시(42.4%), 용인시(40.0%), 고양시(36.2%) 순으로 높음
- 버스 이용만족도는 수원시(33.0%), 성남시(30.6%), 용인시(25.8%), 고양시(25.4%)순임
- 택시 이용만족도는 성남시(34.3%), 수원시(27.8%), 고양시(24.9%), 용인시(18.7%)순으로 나타남
- 기차 이용만족도는 수원시(23.8%), 고양시(21.2%), 성남시(16.9%), 용인시(8.4%)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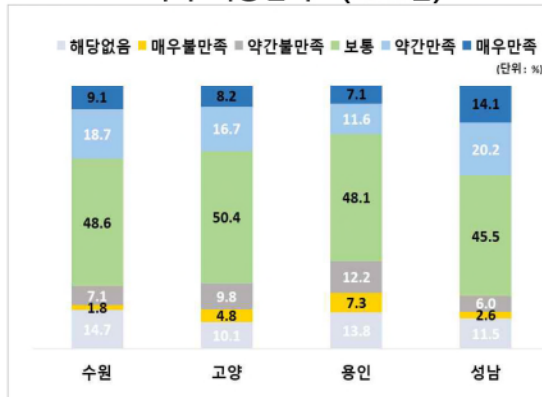
< 지하철·경전철 이용만족도(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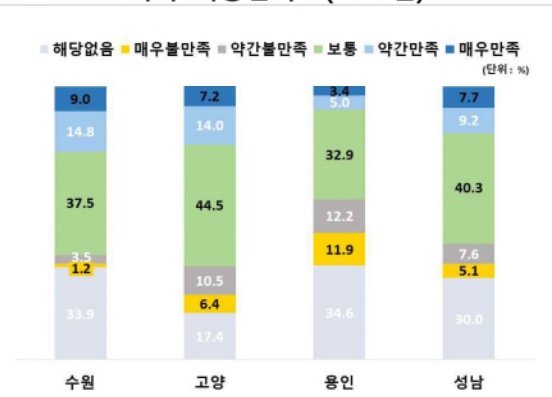
< 버스 이용만족도(2021년) >



< 택시 이용만족도(2021년) >



< 기차 이용만족도(2021년) >





< 대중교통 이용수단별 만족도① >

(단위 : %)

지역	시점	지하철 · 경전철						버스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경기	2021	12.4	8.0	9.6	34.8	21.0	14.2	8.3	6.5	16.8	43.7	17.2	7.5
수원	2017	19.7	2.3	7.2	24.5	30.9	15.4	9.9	2.7	10.0	27.2	36.5	13.6
	2021	15.0	3.4	9.6	29.7	26.0	16.4	9.0	2.9	13.7	41.4	24.7	8.3
고양	2017	5.8	2.8	7.6	34.4	32.5	16.9	5.1	2.9	11.8	38.0	30.1	12.0
	2021	5.0	9.6	12.4	36.8	21.8	14.4	5.4	8.2	18.7	42.3	16.9	8.5
용인	2017	13.5	5.2	8.2	26.9	29.5	16.7	7.2	10.0	24.1	26.8	24.3	7.5
	2021	6.8	8.7	8.6	35.9	20.9	19.1	5.7	10.2	21.0	37.3	17.1	8.7
성남	2017	9.9	1.2	3.4	23.5	39.2	22.8	4.6	2.3	12.1	26.7	40.1	14.1
	2021	6.4	2.4	4.0	32.9	27.0	27.3	13.0	2.1	8.7	45.5	18.0	12.6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 대중교통 이용수단별 만족도②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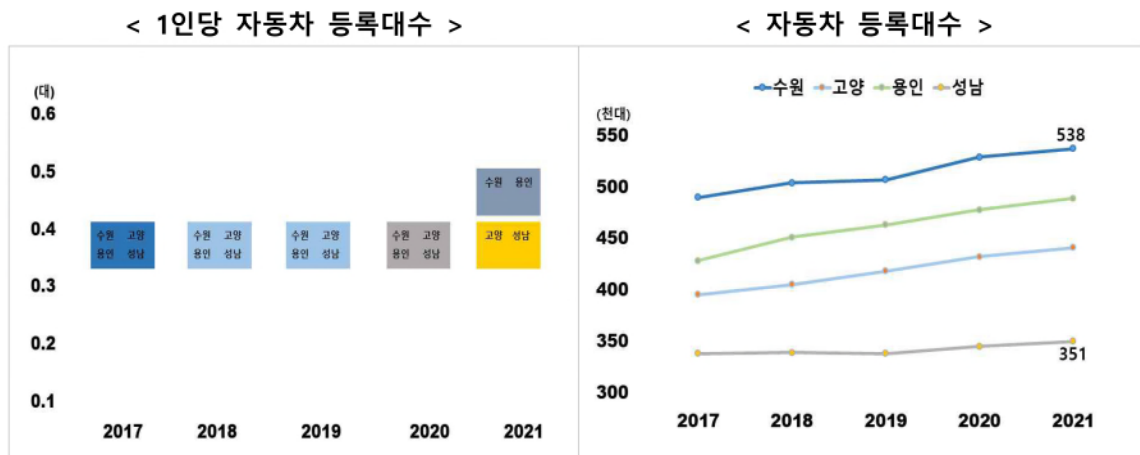
지역	시점	택시						기차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경기	2021	13.7	4.5	8.8	49.4	15.8	7.7	36.2	6.5	7.6	35.9	8.8	5.0
수원	2017	22.4	2.5	9.5	42.3	17.3	6.0	43.0	2.9	5.1	25.2	16.4	7.3
	2021	14.7	1.8	7.1	48.6	18.7	9.1	33.9	1.2	3.5	37.5	14.8	9.0
고양	2017	16.6	2.6	7.2	48.5	18.3	6.8	27.7	2.2	4.9	39.1	18.3	7.8
	2021	10.1	4.8	9.8	50.4	16.7	8.2	17.4	6.4	10.5	44.5	14.0	7.2
용인	2017	27.8	8.7	13.2	37.1	10.2	3.1	57.3	8.2	7.3	20.0	5.1	2.1
	2021	13.8	7.3	12.2	48.1	11.6	7.1	34.6	11.9	12.2	32.9	5.0	3.4
성남	2017	18.6	2.8	9.4	45.5	18.7	5.0	58.3	2.7	6.4	21.7	7.3	3.5
	2021	11.5	2.6	6.0	45.5	20.2	14.1	30.0	5.1	7.6	40.3	9.2	7.7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48.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각각 0.5대로 많음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4개 시 모두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0.4대였으며, 2021년에는 수원시와 용인시만 0.5대로 나타남
- 자동차 등록대수는 수원시(538천대), 용인시(490천대), 고양시(442천대), 성남시(351천대)순임



<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

(단위 : 천대, 대)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1인당
2017	22,528	0.4	5,386	0.4	491	0.4	396	0.4	429	0.4	339	0.4
2018	23,203	0.4	5,618	0.4	505	0.4	406	0.4	452	0.4	340	0.4
2019	23,677	0.5	5,766	0.4	508	0.4	419	0.4	464	0.4	339	0.4
2020	24,366	0.5	6,004	0.4	530	0.4	433	0.4	479	0.4	346	0.4
2021	24,911	0.5	6,204	0.5	538	0.5	442	0.4	490	0.5	351	0.4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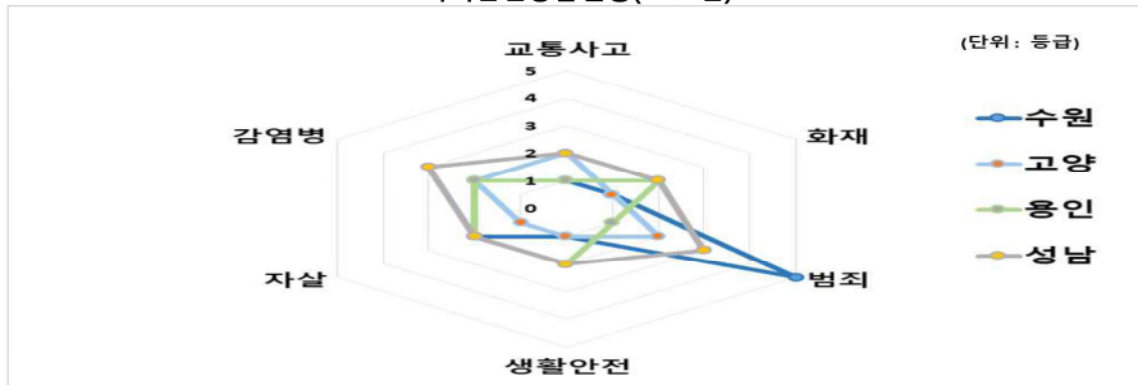
VIII 안전

49. 지역안전등급현황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분야에서 수원시는 1등급을 받았으나, 「범죄」 분야에서 5등급을 기록하여 다른 시에 비해 해당 분야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 용인시는 「교통사고」, 「범죄」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안전함을 인증받았고, 성남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아 다른 시에 비해 해당 분야의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안전등급현황(2020년) >



< 지역안전등급현황 >

지역	시점	지역안전등급현황 ¹⁾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경기	2020	1	1	3	1	1	1
수원	2017	1	1	4	2	2	1
	2020	1	1	5	1	2	2
고양	2017	2	1	2	1	2	2
	2020	2	1	2	1	1	2
용인	2017	2	2	1	1	1	2
	2020	1	2	1	2	2	2
성남	2017	1	2	4	2	2	2
	2020	2	2	3	2	2	3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각 년도

주 : 1) 지역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상대등급을 부여한 현황으로 지역안전도는 1등급일수록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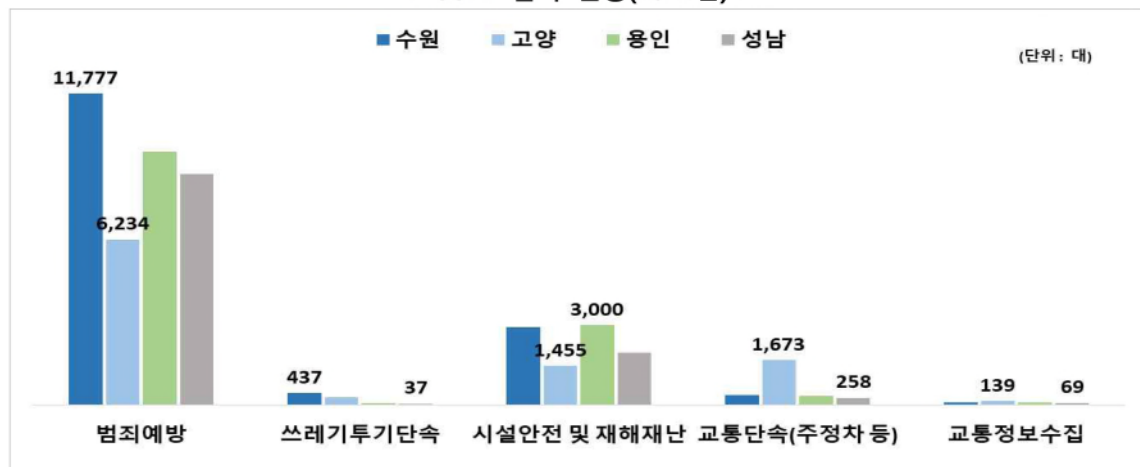
- 지역안전 상대등급 :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

50. CCTV 설치 현황

지역내 CCTV 설치대수는 수원시가 15,568대로 가장 많음

- 지역내 CCTV 설치대수는 수원시(15,568대), 용인시(13,070대), 성남시(11,034대), 고양시(9,766대)순임
- 범죄예방 CCTV 설치대수는 수원시가 11,777대, 시설안전 및 재해재난 CCTV 설치대수는 용인시가 3,00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CCTV 설치 현황(2021년) >



< CCTV 설치 현황 >

(단위 : 대)

지역	총계	범죄예방			쓰레기 투기단속	시설안전 및 재해재난	교통단속 (주정차 등)	교통정보 수집
		소계	일반방범 (주택가 등)	도로방범 (차량번호인식)				
경기	189,332	136,347	133,727	2,620	3,808	35,879	10,531	2,767
수원	15,568	11,777	11,596	181	437	2,908	355	91
고양	9,766	6,234	6,178	56	265	1,455	1,673	139
용인	13,070	9,581	9,399	182	67	3,000	343	79
성남	11,034	8,721	8,664	57	37	1,949	258	69

자료 : 경기도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기도 CCTV 설치현황」(2021.12.31. 기준)

주 : 다목적 CCTV일 경우, 주 활용목적으로 분류 (예 : 일반방범 + 쓰레기무단투기단속 → 일반방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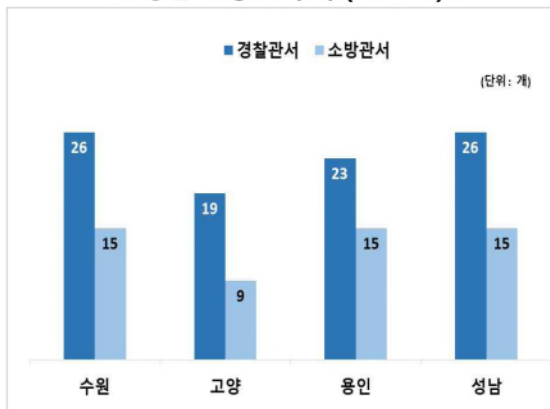


51. 경찰·소방관서 및 공무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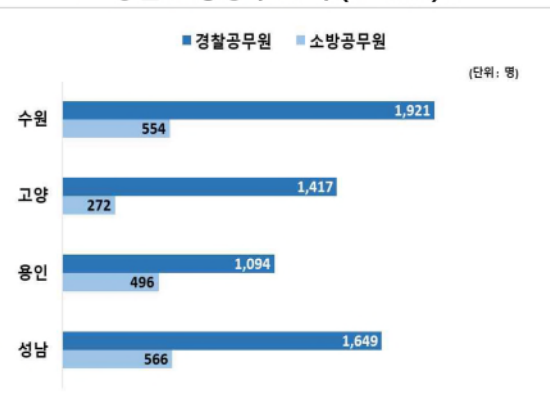
경찰관서는 수원시·성남시가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공무원은 수원시가 1,921명으로 가장 많음

- 지역내 경찰관서 수는 수원시·성남시가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관서 수는 수원시·용인시·성남시가 각각 15개임
- 지역내 경찰공무원 수는 수원시(1,921명), 성남시(1,649명), 고양시(1,417명), 용인시(1,094명)순임
- 지역내 소방공무원 수는 성남시(566명), 수원시(554명), 용인시(496명), 고양시(272명)순으로 나타남

< 경찰·소방관서 수(2020년) >



< 경찰·소방공무원 수(2020년) >



< 경찰·소방관서 수 및 공무원 수 >

(단위 : 개, 명)

지역	경찰 ¹⁾				소방 ²⁾			
	계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공무원	계	소방서	119 안전센터·구조대·지역대	공무원
경기	391	46	345	24,245	326	38	288	10,428
수원	26	3	23	1,921	15	2	13	554
고양	19	3	16	1,417	9	1	8	272
용인	23	2	21	1,094	15	1	14	496
성남	26	3	23	1,649	15	2	13	566

②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경기도청 「경기도 기본통계」, 「소방관서 기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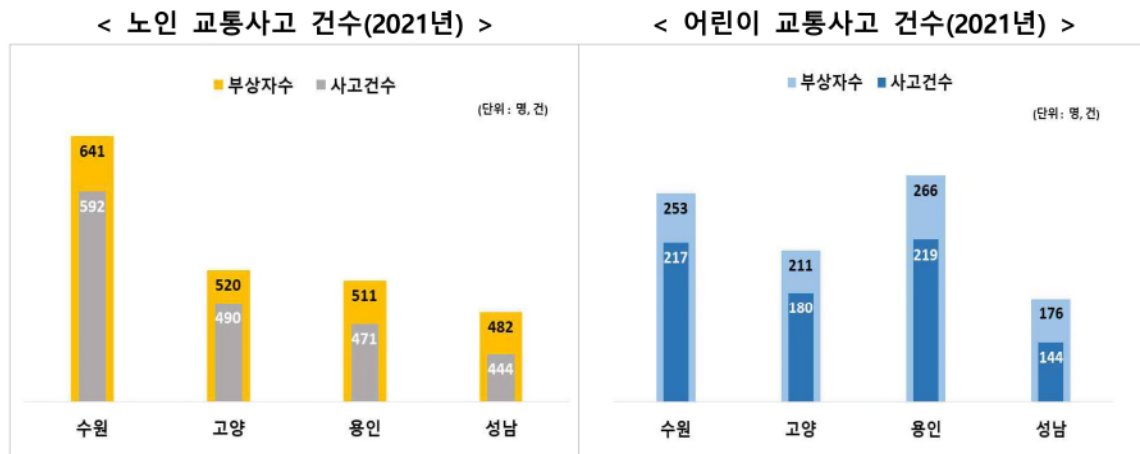
주 : 1)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2020년도, 경기도청 「경기도 기본통계」 2020년도

2) 경기도청 「소방관서 기본통계」(2021.1.1. 기준)

52.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2021년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수원시가 5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용인시가 219건으로 가장 많음

- 노인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수원시(641명), 고양시(520명), 용인시(511명), 성남시(482명)순임
-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용인시(266명), 수원시(253명), 고양시(211명), 성남시(176명)순으로 나타남



< 노인 및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

(단위 : 건, 명)

지역	시점	노인 ¹⁾			어린이 ²⁾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³⁾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국	2021	34,907	1,295	37,894	8,889	23	10,978
경기	2021	7,412	180	8,116	2,605	5	3,207
수원	2017	583	17	618	269	-	331
	2021	592	8	641	217	-	253
고양	2017	513	11	554	184	-	219
	2021	490	17	520	180	-	211
용인	2017	431	16	508	178	-	253
	2021	471	9	511	219	-	266
성남	2017	514	11	562	181	2	214
	2021	444	5	482	144	-	176

자료 :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_교통사고분석시스템」 각 년도

주 : 1) 노인은 65세이상임

2) 어린이는 12세이하임

3) 부상자는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의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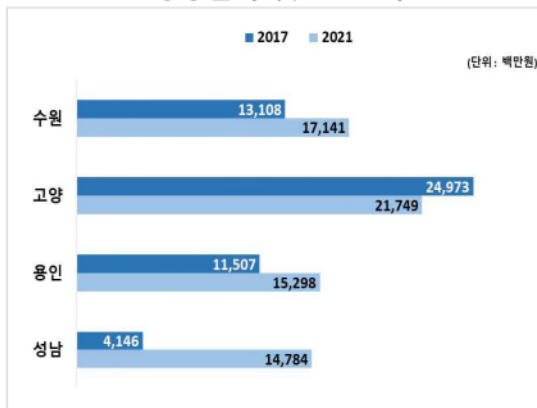


53.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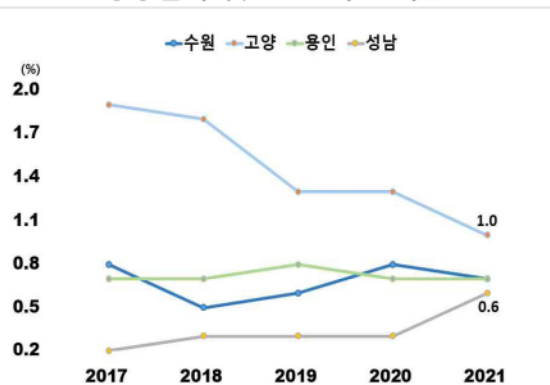
일반회계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고양시가 21,749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 일반회계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규모는 고양시(21,749백만원), 수원시(17,141백만원), 용인시(15,298백만원), 성남시(14,784백만원)순임
- 2017년 대비 수원시, 고양시는 전체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율이 감소하였고, 성남시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율이 0.4%p 증가하여 10,638백만원 증액 편성됨
- 각 지자체 전체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율은 고양시(1.0%), 수원시·용인시(0.7%), 성남시(0.6%)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



<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비율 >



<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

(단위 : 백만원, %)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예산	비율 ¹⁾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2017	845,417	5.0	13,108	0.8	24,973	1.9	11,507	0.7	4,146	0.2
2018	947,917	5.0	10,113	0.5	27,703	1.8	13,199	0.7	5,341	0.3
2019	1,069,352	5.0	12,691	0.6	23,883	1.3	14,960	0.8	6,512	0.3
2020	1,082,313	5.0	18,483	0.8	27,933	1.3	15,594	0.7	7,353	0.3
2021	1,179,966	5.0	17,141	0.7	21,749	1.0	15,298	0.7	14,784	0.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자체별 예산기준 재정공시(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일반회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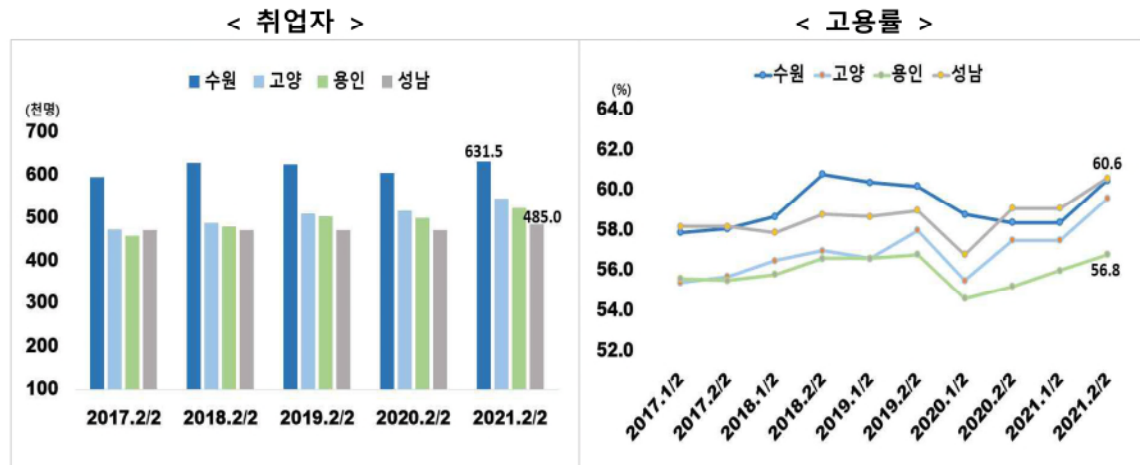
주 : 1) 각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의 비율

IX 고용

54.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는 수원시가 63만1천5백명으로 가장 많고, 고용률은 성남시가 60.6%로 가장 높음(2021.2/2기준)

- 취업자는 수원시가 63만1천5백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가 48만5천명으로 4개 시중 가장 적음
- 고용률은 성남시(60.6%), 수원시(60.5%), 고양시(59.6%), 용인시(56.8%)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 천명,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고용률 ¹⁾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고용률	
2017.1/2	26,744	61.0	6,660	62.1	590.4	57.9	469.7	55.4	452.9	55.6	472.4	58.2
2017.2/2	27,026	61.4	6,780	62.7	596.2	58.1	474.3	55.7	457.9	55.5	471.7	58.2
2018.1/2	26,868	60.9	6,796	62.3	603.9	58.7	481.5	56.5	463.6	55.8	467.2	57.9
2018.2/2	27,090	61.2	6,839	62.0	628.5	60.8	487.8	57.0	480.4	56.6	471.3	58.8
2019.1/2	27,038	60.8	6,924	61.9	627.3	60.4	488.5	56.6	490.7	56.6	470.4	58.7
2019.2/2	27,509	61.7	7,041	62.2	626.2	60.2	510.5	58.0	503.1	56.8	471.3	59.0
2020.1/2	26,562	59.4	6,852	60.1	611.3	58.8	496.4	55.5	489.5	54.6	453.2	56.8
2020.2/2	27,088	60.4	6,920	60.1	606.0	58.4	516.6	57.5	501.0	55.2	471.8	59.1
2021.1/2	27,214	60.4	7,062	60.6	608.5	58.4	523.0	57.5	511.7	56.0	471.4	59.1
2021.2/2	27,741	61.4	7,314	62.2	631.5	60.5	545.7	59.6	524.0	56.8	485.0	60.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 1)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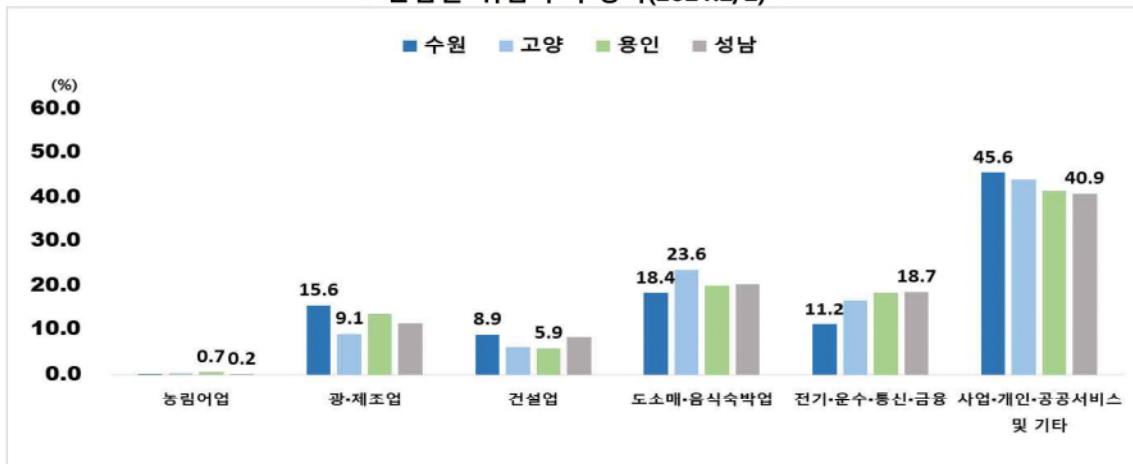


55. 산업별 취업자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으로 4개 시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남(2021.2/2기준)

-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수원시가 광·제조업(15.6%), 건설업(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45.6%)에서 각각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고양시가 23.6%,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성남시가 1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21.2/2) >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 천명, %)

지역	시점	취업자수	산업별 구성비					
			농림어업 (A)	광·제조업 (B,C)	건설업 (F)	도소매·음식숙박업 (G,I)	전기·운수·통신·금융 (D,H,J,K)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E,L~U)
전국	2021.2/2	27,741	5.7	15.6	7.7	19.6	12.4	39.0
경기	2021.2/2	7,314	1.8	18.1	8.5	19.8	13.2	38.6
수원	2017.2/2	596.2	0.3	21.0	8.2	18.8	11.0	40.7
	2021.2/2	631.5	0.3	15.6	8.9	18.4	11.2	45.6
고양	2017.2/2	474.3	0.6	9.3	7.3	23.9	18.9	40.0
	2021.2/2	545.7	0.4	9.1	6.1	23.6	16.7	44.1
용인	2017.2/2	457.9	1.0	14.2	6.7	21.4	15.1	41.6
	2021.2/2	524.0	0.7	13.5	5.9	20.0	18.5	41.4
성남	2017.2/2	471.7	0.3	12.0	8.1	22.4	15.0	42.3
	2021.2/2	485.0	0.2	11.4	8.4	20.4	18.7	40.9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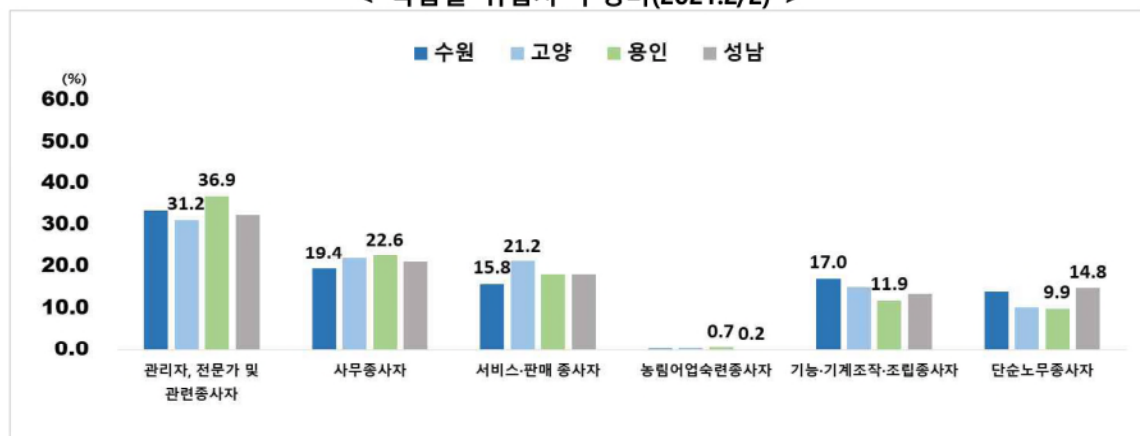
56. 직업별 취업자

취업자가 가장 많은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군으로 4개 시 모두 30% 이상으로 나타남(2021.2/2기준)

□ 직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용인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군(36.9%), 사무종사자군(22.6%)에서 각각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비스·판매종사자군은 고양시가 21.2%,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군은 수원시가 17.0%, 단순노무종사자(14.8%)군은 성남시가 1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2021.2/2) >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 천명, %)

지역	시점	취업자수	직업별 구성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국	2021.2/2	27,741	22.0	17.1	21.1	5.5	19.6	14.8
경기	2021.2/2	7,314	24.6	18.3	20.2	1.7	19.9	15.3
수원	2017.2/2	596.2	32.7	19.0	18.8	0.4	17.4	11.7
	2021.2/2	631.5	33.6	19.4	15.8	0.3	17.0	13.9
고양	2017.2/2	474.3	32.0	23.6	21.7	0.6	14.4	7.7
	2021.2/2	545.7	31.2	21.9	21.2	0.5	15.0	10.2
용인	2017.2/2	457.9	38.5	21.1	18.1	1.2	11.7	9.4
	2021.2/2	524.0	36.9	22.6	18.1	0.7	11.9	9.9
성남	2017.2/2	471.7	31.9	23.2	19.0	0.4	14.5	11.2
	2021.2/2	485.0	32.4	21.1	18.0	0.2	13.4	14.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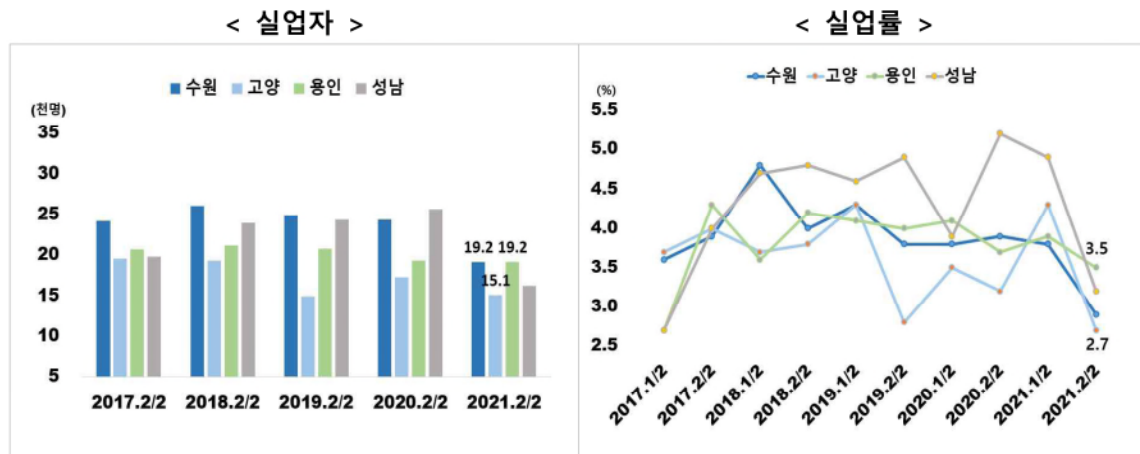
주 :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



57. 실업자 및 실업률

실업자는 용인시·수원시가 1만9천2백명으로 가장 많고, 실업률은 용인시가 3.5%로 가장 높음(2021.2/2기준)

- 실업자는 용인시, 수원시가 1만9천2백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가 1만5천1백명으로 가장 적음
- 실업률은 용인시(3.5%), 성남시(3.2%), 수원시(2.9%), 고양시(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 천명,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실업자 ¹⁾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2017.1/2	1,167	4.2	324	4.6	22.1	3.6	18.0	3.7	12.4	2.7	13.1	2.7
2017.2/2	894	3.2	230	3.3	24.2	3.9	19.6	4.0	20.7	4.3	19.8	4.0
2018.1/2	1,161	4.1	282	4.0	30.6	4.8	18.7	3.7	17.3	3.6	23.1	4.7
2018.2/2	973	3.5	270	3.8	26.1	4.0	19.3	3.8	21.2	4.2	24.0	4.8
2019.1/2	1,245	4.4	303	4.2	28.1	4.3	22.1	4.3	21.1	4.1	22.5	4.6
2019.2/2	864	3.0	229	3.2	25.0	3.8	14.9	2.8	20.8	4.0	24.4	4.9
2020.1/2	1,172	4.2	286	4.0	24.4	3.8	18.1	3.5	20.7	4.1	18.2	3.9
2020.2/2	1,028	3.7	276	3.8	24.4	3.9	17.3	3.2	19.3	3.7	25.7	5.2
2021.1/2	1,147	4.0	314	4.3	24.0	3.8	23.5	4.3	20.5	3.9	24.3	4.9
2021.2/2	788	2.8	218	2.9	19.2	2.9	15.1	2.7	19.2	3.5	16.2	3.2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주 : 1)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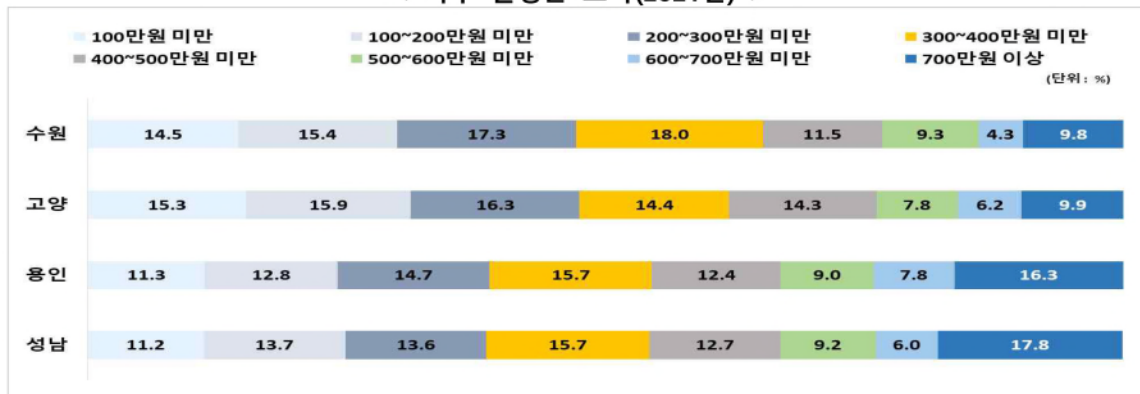
X 소득과 소비

58.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비율은 성남시가 17.8%로 가장 높음

-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비율은 성남시(17.8%), 용인시(16.3%), 고양시(9.9%), 수원시(9.8%)순으로 나타남
- 성남시와 용인시는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비율이 각각 17.8%, 16.3%로 가장 높았고, 수원시는 「300~400만원 미만」(18.0%), 고양시는 「200~300만원 미만」(16.3%) 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구 월평균 소득(2021년) >



< 가구 월평균 소득 >

(단위 : %)

지역	시점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경기	2021	15.0	16.0	17.7	16.6	12.3	7.8	5.2	9.4
	2017	12.5	15.6	16.5	17.0	14.2	8.8	5.1	10.3
수원	2021	14.5	15.4	17.3	18.0	11.5	9.3	4.3	9.8
	2017	13.8	19.5	19.7	15.8	12.1	6.4	4.4	8.3
고양	2021	15.3	15.9	16.3	14.4	14.3	7.8	6.2	9.9
	2017	10.8	13.5	18.3	16.6	15.1	10.2	5.4	10.0
용인	2021	11.3	12.8	14.7	15.7	12.4	9.0	7.8	16.3
	2017	13.3	16.7	18.2	13.3	12.2	8.1	5.3	12.8
성남	2021	11.2	13.7	13.6	15.7	12.7	9.2	6.0	17.8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주 : 가구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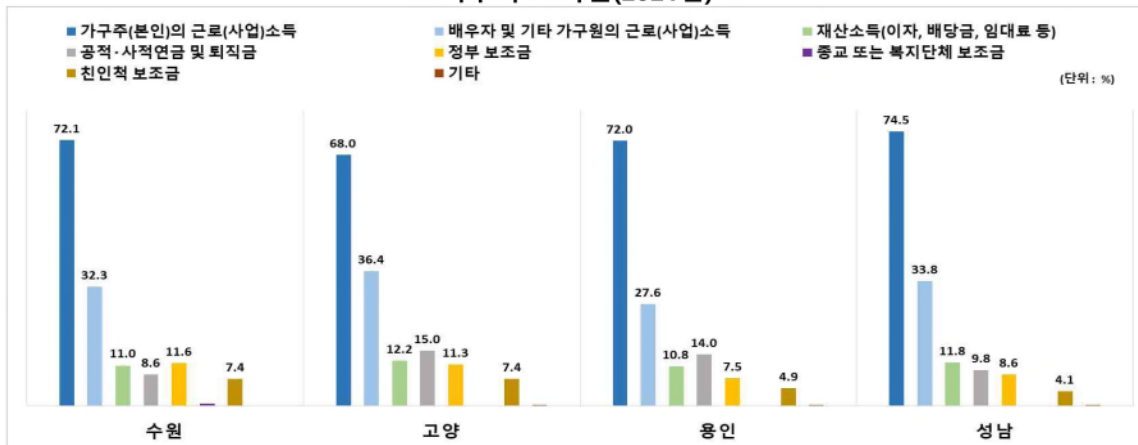


59. 가구의 소득원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4개 시 모두 「가家主(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으로 나타남

- 고양시는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36.4%), 「재산 소득」(12.2%),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15.0%)으로 각각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보조금」은 수원시가 11.6%, 「친인척보조금」은 수원시와 고양시가 각각 7.4%로 그 비율이 가장 높음

< 가구의 소득원(2021년) >



< 가구의 소득원 >

(단위: %)

지역	시점	가구의 주된 소득원(복수응답)							
		가家主(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사업) 소득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 보조금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 보조금	기타
경기	2021	72.2	31.9	8.8	11.3	12.1	0.3	6.4	0.4
수원	2017	73.1	30.5	8.4	8.0	7.6	0.3	5.7	1.4
	2021	72.1	32.3	11.0	8.6	11.6	0.6	7.4	0.0
고양	2017	70.1	28.2	8.6	9.4	8.0	0.0	9.9	1.4
	2021	68.0	36.4	12.2	15.0	11.3	0.0	7.4	0.3
용인	2017	72.8	31.6	9.8	11.7	5.0	0.1	4.7	0.9
	2021	72.0	27.6	10.8	14.0	7.5	0.2	4.9	0.3
성남	2017	73.5	27.4	10.6	10.4	6.7	0.2	5.5	3.6
	2021	74.5	33.8	11.8	9.8	8.6	0.2	4.1	0.4

자료: 해당 「지자체 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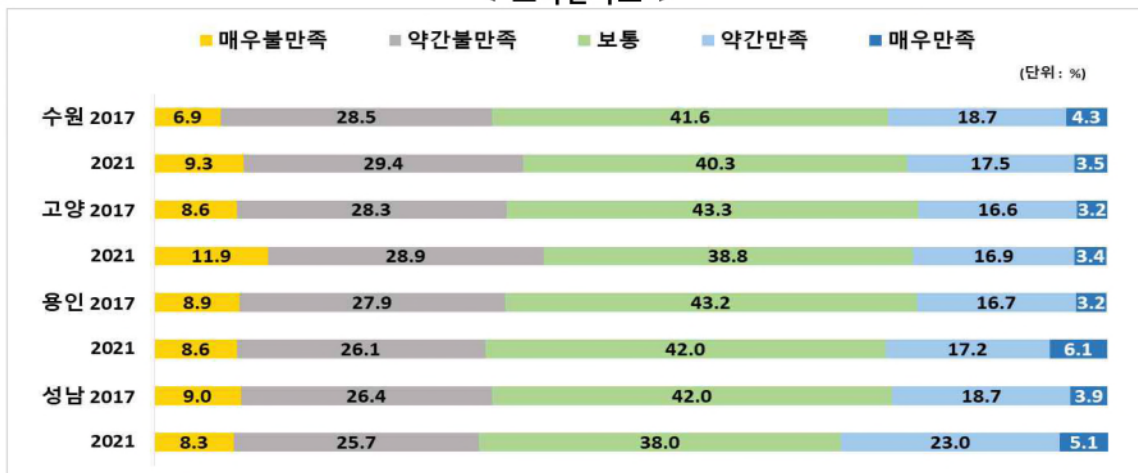
주: 가家主 기준

60. 소득만족도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가 28.1%로 가장 높음

- 소득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28.1%), 용인시(23.3%), 수원시(21.0%), 고양시(20.3%)순임
- 고양시는 「매우불만족」 11.9%, 「약간불만족」 28.9%로 불만족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아 다른 시에 비해 소득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만족도 >



< 소득만족도 >

(단위 : %)

지역	시점	소득만족도							
		소득있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경기	2021	81.8	8.8	28.2	37.0	41.4	21.6	17.7	3.9
	2017	68.2	6.9	28.5	35.4	41.6	23.0	18.7	4.3
수원	2021	83.5	9.3	29.4	38.7	40.3	21.0	17.5	3.5
	2017	67.0	8.6	28.3	36.9	43.3	19.8	16.6	3.2
고양	2021	80.6	11.9	28.9	40.8	38.8	20.3	16.9	3.4
	2017	67.8	8.9	27.9	36.8	43.2	19.9	16.7	3.2
용인	2021	78.5	8.6	26.1	34.7	42.0	23.3	17.2	6.1
	2017	73.1	9.0	26.4	35.4	42.0	22.6	18.7	3.9
성남	2021	86.6	8.3	25.7	34.0	38.0	28.1	23.0	5.1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주 : 만 19세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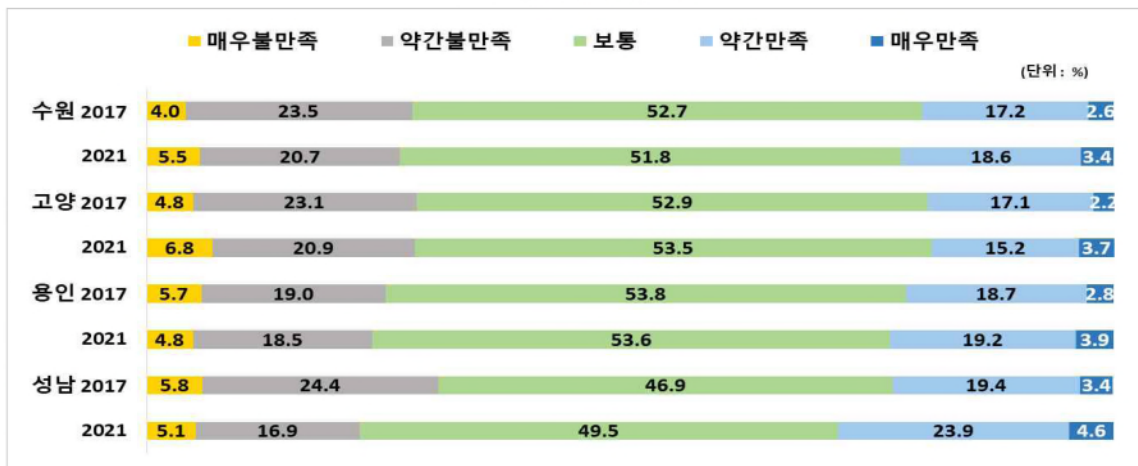
61.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가 28.5%로 가장 높음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남시(28.5%), 용인시(23.1%), 수원시(22.0%), 고양시(18.9%)순임

○ 고양시는 「매우불만족」 6.8%, 「약간불만족」 20.9%로 불만족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아 다른 시에 비해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생활 만족도 >



<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

지역	시점	소비생활 만족도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약간만족	매우만족
경기	2021	5.1	20.3	25.4	55.2	19.4	16.4	3.0
	2017	4.0	23.5	27.5	52.7	19.8	17.2	2.6
수원	2021	5.5	20.7	26.2	51.8	22.0	18.6	3.4
	2017	4.8	23.1	27.9	52.9	19.3	17.1	2.2
고양	2021	6.8	20.9	27.7	53.5	18.9	15.2	3.7
	2017	5.7	19.0	24.7	53.8	21.5	18.7	2.8
용인	2021	4.8	18.5	23.3	53.6	23.1	19.2	3.9
	2017	5.8	24.4	30.2	46.9	22.8	19.4	3.4
성남	2021	5.1	16.9	22.0	49.5	28.5	23.9	4.6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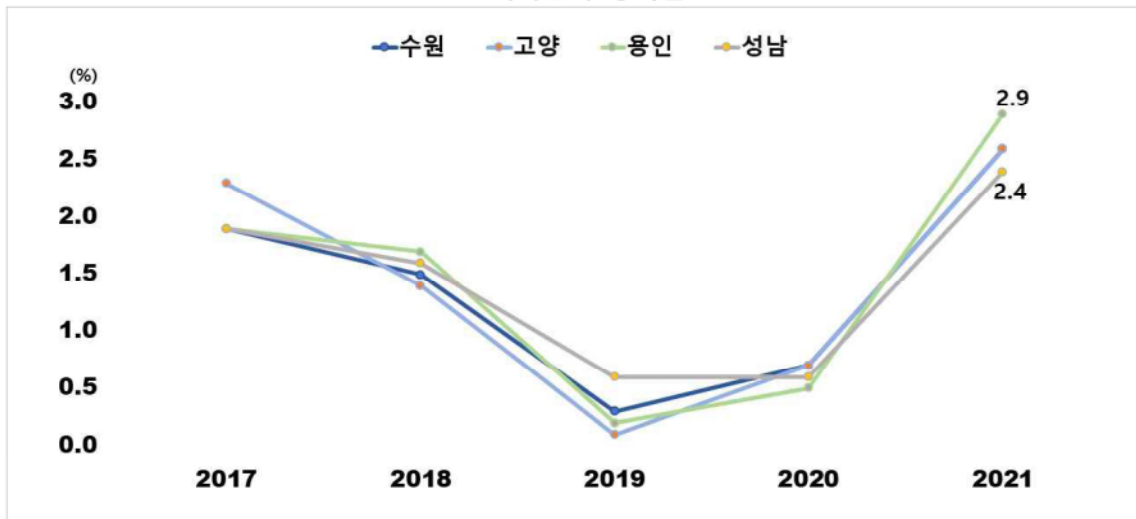
주 : 만 19세 이상 기준

62. 소비자물가 등락률

**2021년 기준 용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9% 상승으로
4개 도시 중 물가변동이 가장 큼**

-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은 용인시(2.9%), 수원시·고양시(2.6%), 성남시(2.4%)순임
- 2017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등락률 증감도 용인시가 1.0%p로 4개 도시 중 물가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 등락률 >



< 소비자물가 등락률¹⁾ >

(단위 : %)

	전국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2017	1.9	2.0	1.9	2.3	1.9	1.9
2018	1.5	1.5	1.5	1.4	1.7	1.6
2019	0.4	0.4	0.3	0.1	0.2	0.6
2020	0.5	0.6	0.7	0.7	0.5	0.6
2021	2.5	2.6	2.6	2.6	2.9	2.4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년도

주 : 1) 소비자물가 등락률(%) = $\frac{(\text{금년지수} - \text{전년지수})}{\text{전년지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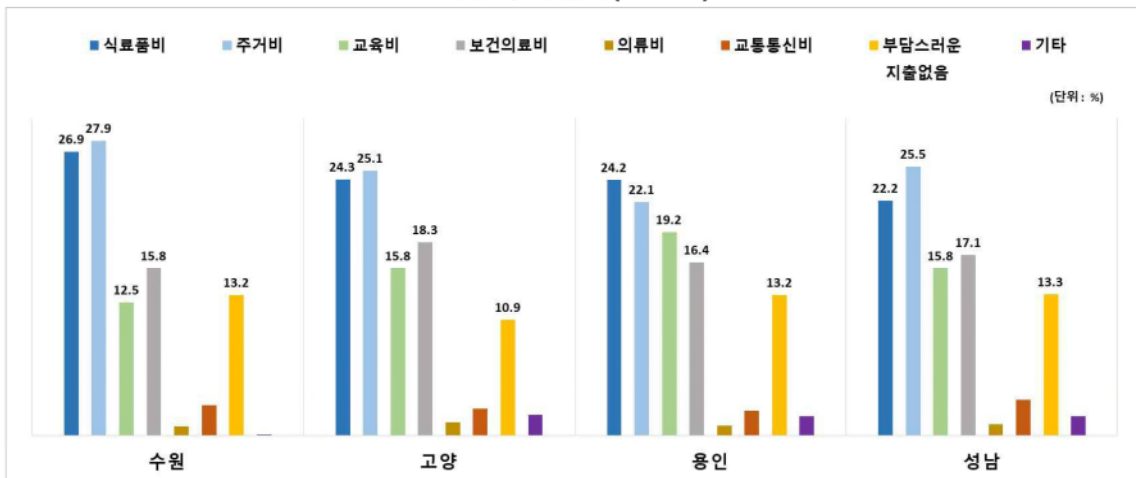


63. 가구의 생활비 중 부담스러운 지출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수원시(27.9%), 고양시(25.1%), 성남시(25.5%)는 「주거비」, 용인시(24.2%)는 「식료품비」로 나타남

- 부담스러운 지출로 「식료품비」는 수원시가 26.9%, 「주거비」도 수원시가 27.9%로 가장 높음
- 「교육비」는 용인시가 19.2%, 「보건의료비」는 고양시가 18.3%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가구의 생활비(2021년) >



< 가구의 생활비 >

(단위 : %)

지역	시점	가구의 생활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의류비	교통통신비	부담스러운 지출없음	기타
경기	2021	25.4	23.9	14.2	17.6	0.8	2.9	13.7	1.5
	2017	22.1	23.6	21.1	15.1	0.9	4.4	11.6	1.1
수원	2021	26.9	27.9	12.5	15.8	0.8	2.8	13.2	0.1
	2017	17.7	28.7	22.5	14.7	1.1	3.3	10.3	1.7
고양	2021	24.3	25.1	15.8	18.3	1.2	2.5	10.9	1.9
	2017	21.3	23.8	20.8	16.5	1.0	4.1	9.5	3.0
용인	2021	24.2	22.1	19.2	16.4	0.9	2.3	13.2	1.8
	2017	14.4	31.0	20.3	16.0	1.2	3.9	11.2	1.9
성남	2021	22.2	25.5	15.8	17.1	1.0	3.3	13.3	1.8
	2017	14.4	31.0	20.3	16.0	1.2	3.9	11.2	1.9

자료 : 해당 「지자체별 사회조사」 각 년도

주 : 가구주 기준

